청운대학교
홍성학연구소

국민이 지킨 역사
국민이 이끌 나라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및 3·1만세운동 100주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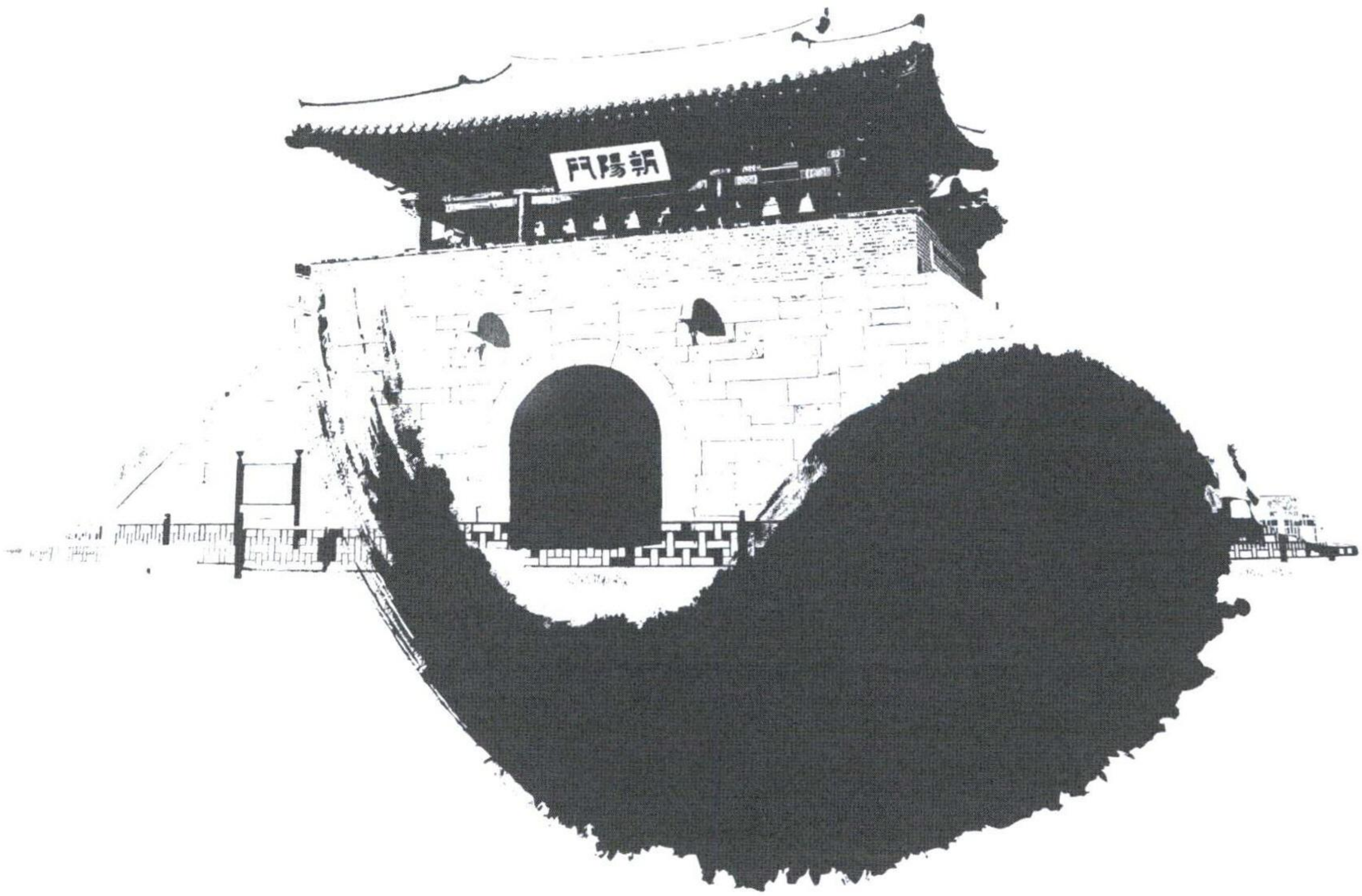
홍성의 독립운동사 2



홍성군
HONGSEONG-GUN

홍성의 독립운동사 2

홍성의
독립운동사 2





어제의 홍성에 날줄과 씨줄로 엮인 '독립운동', 오늘과 내일을 밝히다

2018년은 홍주 지명 탄생 천년과 성삼문선생 탄생 600주년, 2019년은 일제의 강점에서 벗어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3·1독립만세운동 100주년, 2020년은 청산리전투 승전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일제강점기 우리 선조들은 종교와 이념, 지역과 계층을 넘어 모두가 하나되어 민족의 자주독립을 세계만방에 외치며, 갈등과 반목을 넘어 화해와 상생의 시대를 열기 위해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우리 홍성은 지난 천년 동안 많은 흔적이 켜켜이 쌓여온 역사와 문화의 고장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충남 서북부지역의 행정과 정치, 경제와 산업, 군사의 중심지로 평택에서 서천까지 22개 군을 관할하던 내포의 중심지였으며, 한말에는 전국 최대 규모의 의병전쟁과 격렬한 무

장투쟁이 전개되었던 지역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분연히 일어나 구국운동을 전개하였던 충절의 고장인 것입니다.

최근 거듭되고 있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와 독도 영유권 주장 등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면서, 일제강점기에 우리 지역 곳곳에서 전개된 독립운동과 수많은 독립운동가의 희생을 떠올리게 됩니다. 독립운동가들의 피와 땀의 대가로 쟁취한 고귀한 독립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의병전쟁, 3·1독립만세운동, 청년운동, 농촌운동, 신간회운동, 애국계몽운동, 해외 독립전쟁 등 괄목할만한 독립운동이 쉼 없이 전개되었습니다. 이에 일제는 홍주의 맥을 끊기 위해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홍주'라는 이름을 '홍성'으로 개명하고, 동헌 앞의 내삼문을 철거하였으며, 주산인 백월산 혈에 쇠말뚝을 박아 놓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에서 활발한 독립운동이 전개되었음에도 체계적인 정리와 연구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3·1독립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아 지역의 독립운동사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게 된 홍성지역 3·1운동 및 독립운동사는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 확립 및 독립정신을 이어가는데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역사란 어제의 일을 바탕으로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일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본 독립운동사는 우리 지역의 과거와 현재를 진단하고, 바람직한 미래로의 지향점을 찾는데 매우 소중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적 통합과 민족공동체 정신의 확립이 필요한 요즘, 우리 지역의 역사성과 독립운동정신을 온 군민이 공유하여 자랑스러운 홍성의 역사로 계승·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과제를 수행해 주신 김경수 청운대학교 홍성학연구소장님과 옥고를 제출해주신 김상기 충남대 국사학과 명예교수님, 김형목 독립운동사연구소 연구원님, 이성우 충남대 충청문화연구소 연구원님, 김진호 충남대 충청문화연구소 연구원님, 김용달 전) 독립운동사연구소장님, 박걸순 충북대 사학과 교수님, 조성진 독립운동사연구소 연구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홍성지역 독립운동사 연구서 발간을 계기로 아직도 규명되지 못한 자랑스러운 향토사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12. 20

홍성군수 김 석 환

제1장 | 홍성의 독립운동 사적지

1. 본서는 홍성의 독립운동 사적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이를 홍성군민들과 연구자들에게 알려 자긍심과 연구 분위기의 활성화를 위해 간행되었다.
2. 홍성의 독립운동 사적지는 2007년부터 국가보훈처와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가 진행한 '국내항일독립운동 및 국가수호사적지 조사사업'을 통해 발굴된 항일독립운동사적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3. 본문에는 사적지의 명칭과 정의, 관련 사건, 관련 인물, 관련 내용, 위치 고증 등의 내용을 순서대로 기재하였다.
4. 주소는 당시 주소와 현재 주소(도로명 주소 포함)를 함께 수록하였다.
5. 당시 주소는 사적지와 관련된 사건이 일어났거나 해당 인물과 관련된 장소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였다.
6. 본문의 사진자료는 출처를 명기하였으며, 명기되지 않은 것은 독립기념관에서 발간한 『국내 항일독립운동 사적지 조사보고서 5, 대전·충남』에 수록되어 있는 자료로 기관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였다.
7. 참고문헌은 사적지별로 각각 정리하고, 맨 뒤에 별도의 부록으로 정리하였다.

제2장 | 홍성의 독립운동가

1. 본서는 홍성의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이를 홍성군민들과 연구자들에게 알려 자긍심과 연구 분위기의 활성화를 위해 간행되었다.
2. 홍성의 독립운동가는 2019년까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서훈을 받은 독립유공자 23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3. 대상자의 출신 지역은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사료관의 분류를 따랐다.
4. 독립운동가의 서술 순서는 인물의 본명을 기준으로 가나다순으로 하였다.
5. 성명은 한글과 한자를 병기하였으며, 이명(異名)은 한자 다음에 기재하였다.
6. 각 인물의 서술 내용은 이름, 성별, 생몰년, 본적, 주소, 운동계열, 포상년도, 훈격 등의 순서로 기재하고, 불분명한 사항은 생략하였다.
7. 문장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문체로 서술하였다.
8. 본문의 내용은 가계, 일제강점기 활동, 해방 후 행적 등의 순으로 서술하였다.
9. 참고문헌은 인물별로 각각 정리하고, 맨 뒤에 별도의 부록으로 정리하였다.

목차

제1장 홍성의 독립운동 사적지

01. 금마 3·1운동만세 시위지 _17

02. 장곡면사무소 3·1운동만세 시위지 _19

03. 호명학교 터 _23

04. 결성금광 동맹파업지 _24

05. 황보금광 동맹파업지 _26

06. 홍성공립보통학교 동맹휴학지 _27

07. 김복한 생가 터 _29

08. 이설 생가 터 _31

09. 덕명학교 터 _34

10. 홍성공립공업전수학교 학생운동지 _36

11. 김좌진 생가 _38

12. 한용운 생가 _42

13. 홍주의병 전투지 _45

14. 홍주의사총 _48

제2장 홍성의 독립운동가

강익승 _55 강종렬 _56 강종진 _58 강춘경 _60
강태산 _62 강학삼 _63 고락서 _65 권성필 _66
권영갑 _68 권용군 _70 권중복 _71 권중우 _73
권중협 _74 권중호 _76 권태호 _78 권한복 _79
김경천 _81 김공제 _82 김공필 _84 김구화 _86
김금손 _88 김기봉 _89 김덕필 _91 김도손 _92
김동완 _94 김동운 _96 김동준 _98 김동진 _100
김동집 _101 김동하 _103 김동혁 _105 김동화 _105
김래문 _107 김만복 _109 김병길 _110 김복한 _112
김봉근 _119 김봉안 _120 김사응 _122 김상억 _124
김성실 _126 김성칠 _127 김영배 _129 김 용 _131
김용갑 _132 김용숙 _132 김용제 _134 김우진 _136
김운제 _137 김응칠 _139 김재돈 _140 김재욱 _142
김재순 _143 김재준 _145 김재철 _147 김재홍 _148
김제석 _150 김종삼 _151 김종석 _153 김종진 _154
김좌진 _156 김주현 _163 김차제 _164 김창윤 _166
김화인 _168 남기원 _169 남중희 _171 노을룡 _172
노인식 _173 민록식 _175 민영갑 _177 민영식 _179
박달성 _180 박문백 _182 박사현 _183 박순학 _185
박승익 _186 박영달 _188 박원식 _189 박응수 _191
박의성 _192 박재옥 _194 박정천 _195 박천근 _197
박헌필 _199 박화선 _200 방경한 _202 방기용 _203
방화용 _204 복기준 _206 복윤길 _207 복천복 _2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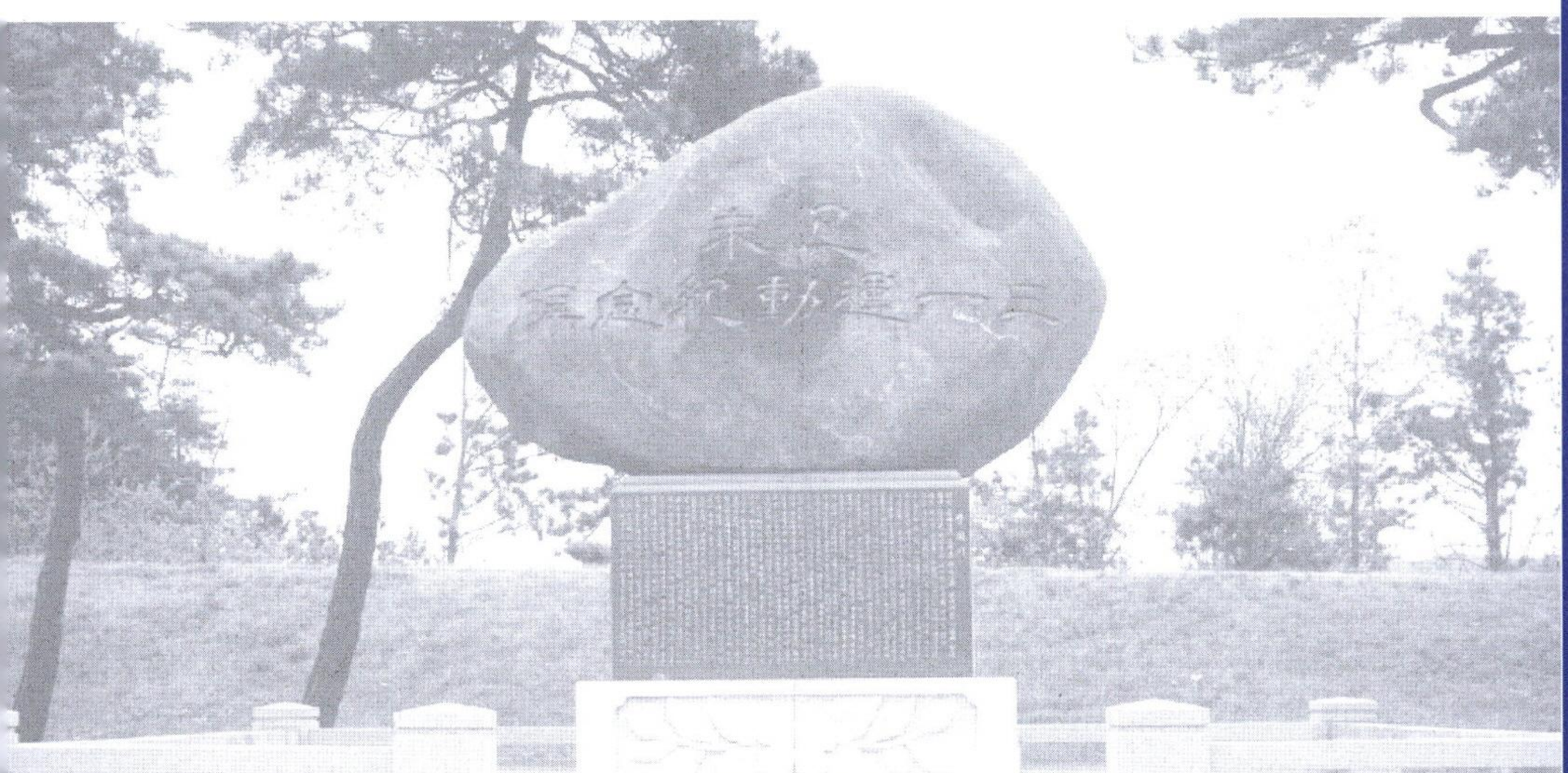
목차

서기환 _211 서승태 _213 서은모 _215 서창인 _217
설순좌 _218 손창선 _220 송만섭 _222 신운경 _224
신태복 _226 안재호 _227 안태호 _229 안효봉 _231
양기환 _233 양두환 _235 양운칠 _236 오경춘 _238
오달영 _240 오대근 _241 오형근 _243 오흥순 _244
유성만 _245 유성진 _247 유학선 _248 유혜무 _249
윤기섭 _251 윤기순 _253 윤만수 _255 윤병혁 _257
윤용범 _258 윤용욱 _260 윤의석 _262 윤익중 _264
윤태경 _265 윤형중 _267 이강인 _269 이경석 _270
이계성 _271 이광헌 _273 이교열 _275 이근주 _276
이길성 _278 이남종 _280 이만직 _281 이문재 _283
이보성 _284 이봉성 _286 이상락 _288 이상만 _289
이상철 _291 이상협 _293 이석인 _294 이 설 _296
이성근 _298 이영숙 _299 이오정 _300 이완백 _302
이용하 _303 이우용 _304 이유홍 _306 이응길 _307
이인순 _309 이인춘 _310 이일순 _312 이재만 _314
이정수 _316 이주형 _317 이중선 _319 이중화 _321
이지성 _322 이진규 _324 이진석 _326 이철순 _327
이충순 _329 이필봉 _332 이학순 _332 이한여 _334
이항순 _335 이화춘 _337 이흥주 _339 이희도 _341
이희림 _341 임명선 _343 임정실 _345 임헌영 _346
장가산 _348 장선기 _349 전명규 _351 전순삼 _352
전양진 _353 전용규 _354 전우진 _356 전이진 _357
전재명 _358 전치일 _360 전태용 _361 정국조 _362
정동구 _364 정동량 _365 정동선 _366 정동식 _368

정동직 _370
정설교 _371
정성모 _373
정원필 _374
정정복 _375
정태복 _377
정학조 _378
정해득 _379
정홍조 _381
조재학 _382
조종원 _384
조한원 _386
주명규 _387
주영은 _389
최건수 _391
최광인 _392
최기석 _394
최덕휴 _396
최명용 _396
최병석 _397
최상집 _399
최응모 _400
최익삼 _402
최익환 _403
최중삼 _405
최중식 _407
최채선 _408
최학용 _410
최홍기 _411
한명원 _413
한상인 _414
한상철 _416
한용운 _418
한필동 _426
함성열 _427
황문수 _428
황석산 _429
황윤성 _431

| 부록 | 참고문헌 _437

홍성의 독립운동사 2



기미3·1운동기념비(장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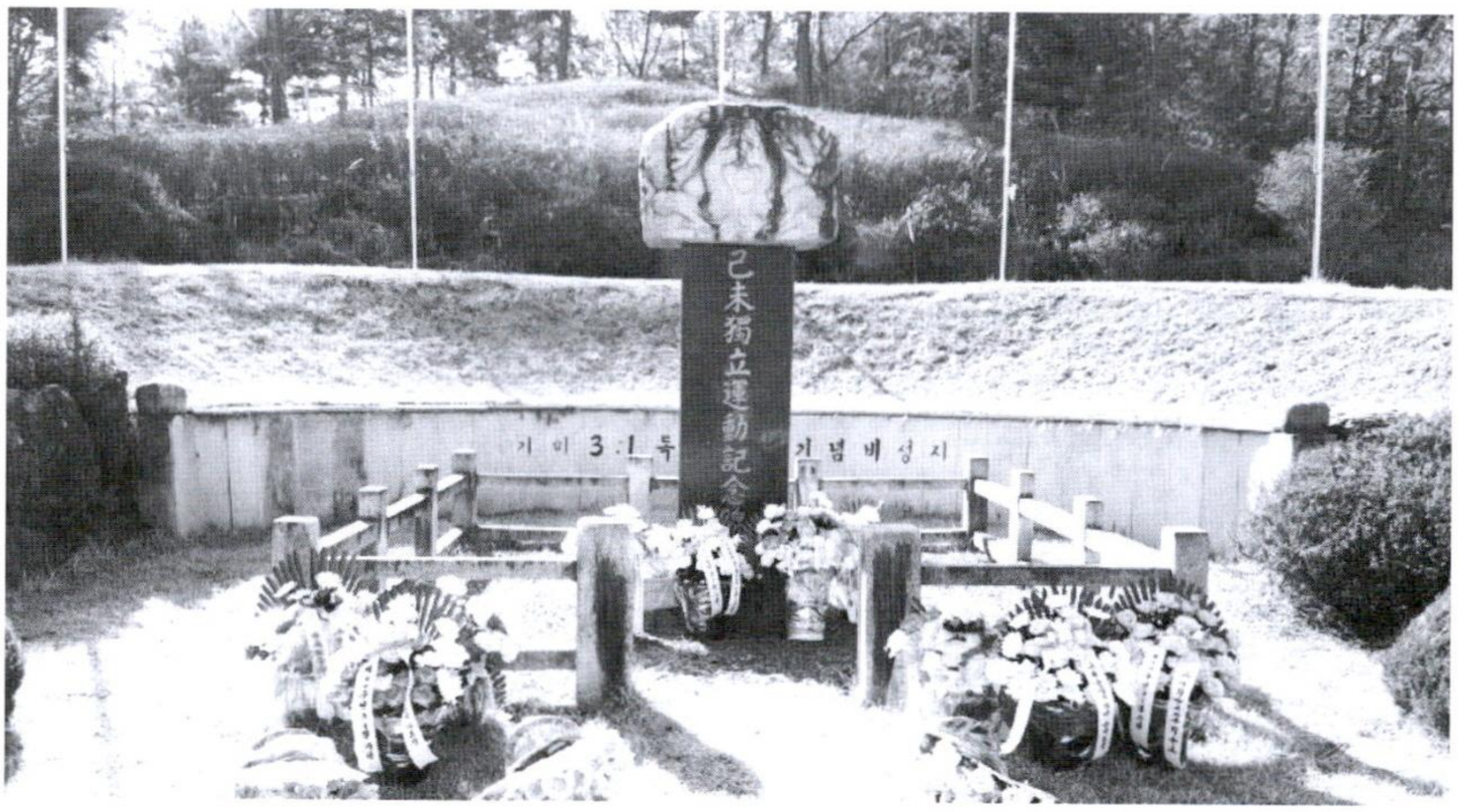
제 1 장

홍성의 독립운동 사적지

01

금마 3·1운동만세 시위지

1919년 4월 1일 민영갑 등의 주도로 홍성군 금마면 면민들이 독립만세시위를 벌인 곳



금마면 기미독립운동 기념비

관련 사건

1919.4.1 홍성군 금마면 독립만세시위

1919.4.2 홍성군 홍성장터 독립만세시위

관련 인물

민영갑(閔永甲) / 이재만(李載萬) / 이원교(李元交) / 최중삼(崔仲三) / 김재홍(金在洪) / 조재학(趙載學) / 조한원(趙漢元)

관련 내용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정도까지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남도에서 많은 운동이 전개되었다. 홍성읍에서는 3월

7일 만세시위가 일어난 것을 시작으로 각 면에서도 만세시위가 불같이 일어났다.

홍성군 금마면에서는 1919년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 등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동연극흥행장에서 조한원 등이 관람객들에게 독립만세를 부르자고 제안하여 동의를 구한 뒤 20~30명의 관객과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성면을 비롯하여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군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을 중심으로 횃불만세운동을 벌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위와 같은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30도에서 90도의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위치 고증

「민영갑 등 6인 판결문」·「민영갑 등 5인 판결문」 등에 관련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지역 주민들의 증언으로 위치를 확인하였다. 도로가 새로 건설되고 일부 건물이 세워졌으나 현재에도 넓은 공터가 있다.

당시 주소

충청남도 홍성군 금마면 가산리

주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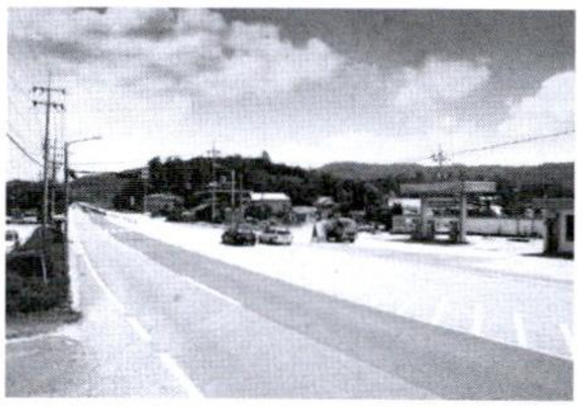
충청남도 홍성군 금마면 가산리 472-1

도로명 주소

충청남도 홍성군 금마면 충서로 2286







금마 3·1운동만세 시위지

02

장곡면사무소 3·1운동만세 시위지

1919년 4월 7일과 8일 두 차례에 걸쳐 홍성군 장곡면 주민들이 만세시위를 전개한 곳

관련 사건

1919.4.4 홍성군 장곡면 매봉산 횃불시위

1919.4.7~8 홍성군 장곡면사무소 앞 독립만세시위

관련 인물

윤형중(尹衡重) / 윤익중(尹益重) / 윤낙중(尹樂重) / 김동하(金東



기미3·1운동기념비(장곡면)

河) / 김동완(金東完) / 김용숙(金容肅) / 김용제(金用濟) / 이화춘(李化春) / 김차제(金次濟) / 한상철(韓相喆)

관련 내용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정도까지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남도에서 많은 운동이 전개되었다. 홍성읍에서는 3월 7일 만세시위가 일어난 것을 시작으로 각 면에서도 만세시위가 불같이 일어났다.

장곡면의 만세시위는 1919년 4월 4일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시작으로, 4월 8일까지 장곡면사무소를 중심으로 이어졌다. 4월 4일 홍성군의 장곡면, 금마면, 구항면, 홍동면 등 4개면의 20~24개 장소에서 횃불만세운동이 전개되었다. 장곡면에서의 횃불독립만세운동은 윤씨 3형제(윤형중, 윤익중, 윤낙중)가 주도하고 윤의석(尹宜錫), 윤만수(尹萬洙), 이문재, 최기석(崔奇錫), 최채선(崔彩仙) 등이 적극 참여한 가운데 화계리, 광성리, 신풍리 주민들이 합세하여 매봉산에서 펼쳐졌다.

장곡면사무소를 중심으로 펼쳐졌던 4월 7일과 8일의 만세시위는 김



애국지사김동하추모비(장곡면)

동완(金東完) 등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는 장곡면에서도 만세시위를 일으키기로 동지들과 뜻을 모은 뒤 거사일을 4월 7일로 정하고, 거사에 필요한 태극기를 제작하는 한편 동지들의 규합에 힘을 쏟았다. 4월 7일 오경춘(吳敬春, 壽南)이 종을 치며 주민들을 집합시켰고, 한상철은 김동완·김동하(金東河)·김용숙(金容肅, 用叔)·김용제(金用濟)·이화춘(李化春)·김차제(金次濟, 化先) 등과 함께 태극기를 꽂고 독립선언식을 가진 후 화계리 주민 및 이웃 마을인 광성리와 신풍리 주민 300여 명과 함께 화계리의 응봉산(鷹峰山)에서 독립만세를 외쳤다. 이후 도산리(道山里) 소재 면사무소로 행진한 그들은 밤 8시에 도착하여 면의 각지에서 몰려온 사람들과 합류하였다. 500여 명의 시위군중은 면사무소에 직원들이 한 명도 없자, 김동하의 주도로 돌과 곤봉으로 면사무소 기둥과 창문을 파괴하고 공문서를 파기하는 등 격렬히 항쟁하였다.

다음 날인 4월 8일 밤 11시에는 김동완을 비롯한 시위군중 60여 명이 다시 면사무소에 모여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들은 전날 면사무소 습격으로 출동해 있던 일경과 대치하였지만, 다시 면사무소를 파괴하였다. 그러자 대치하고 있던 일본 군경은 시위대를 향해 총격을 가했고, 시위군

중 다수가 부상을 입거나 피체되었다. 이때 일본 군경의 발포로 11명이 체포되고 2명이 부상하였다. 또한 이 시위로 20여 명이 재판에 회부되어 태형 90도에서 2년 6월의 형을 언도받았으며, 10여 명이 홍성경찰서에서 태형 60도에서 90도의 형벌을 당하였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장곡면에서 위와 같은 탄압을 받은 사람은 41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36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위치고증

「김동하 판결문」 및 「윤낙중 등 6인 판결문」 등에 관련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지역 주민들의 증언으로 면사무소의 위치를 확인하였으며, 현재도 면사무소가 있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장곡면사무소가 새롭게 세워져 당시 모습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당시 주소	충청남도 홍성군 장곡면 도산리
주소	충청남도 홍성군 장곡면 도산리 489-1
도로명 주소	충청남도 홍성군 장곡면 홍남동로 461



3·1운동만세 시위지(장곡면사무소)

03

호명학교 터

김좌진을 비롯해 홍성지역 안동김씨 문중에서 설립한 호명학교가 있었던 곳

관련 인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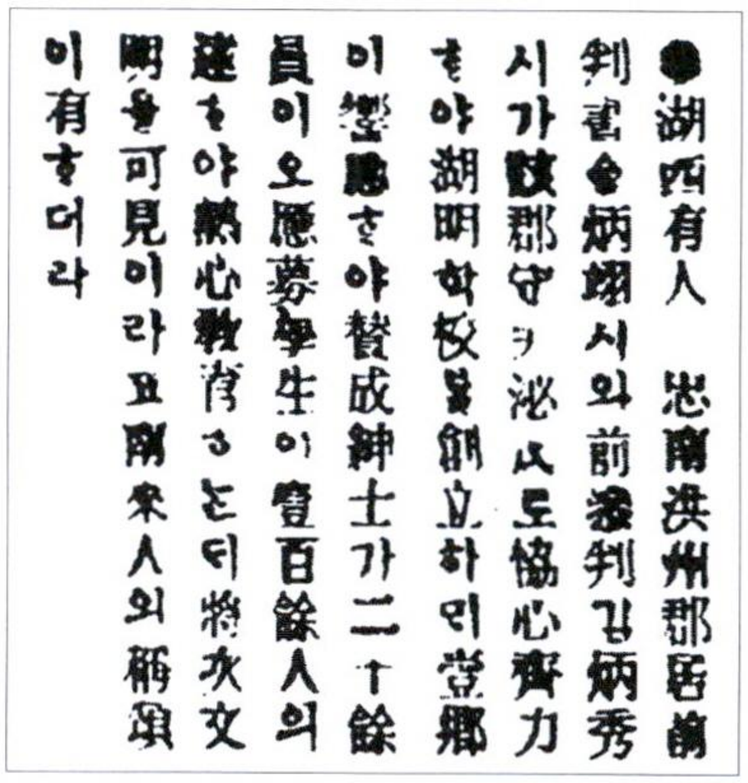
김좌진(金佐鎭) / 김병익(金炳翊) / 김병수(金炳秀) / 윤필(尹泌)

관련 내용

호명학교(湖明學校)는 홍주군 고남하도면 상촌리 갈산에 설립된 사립학교이다. 호명학교는 호서지역을 개명한다는 뜻으로, 1908년경 김좌진·김병익·김병수 등 홍성지역 안동 김씨 문중과 홍성군수였던 윤필의 지원하에 설립되었다. 호명학교는 국권회복과 민족정신을 교육한 홍성 지역 대표적인 사립학교였다.



뒤쪽 건물이 호명학교
(갈산공립보통학교 제1회 졸업사진)



湖西有人 忠南洪州郡居前
判書金炳翊氏와 前
參判金炳秀
시가 該郡守ㅋ泌氏도 協心盡力
하야 湖明학校를 創立하니 堂鄕
이 響應하야 贊成紳士가 二十餘
員이오 應募學生이 壹百餘人의
遂하야 熱心敎育하ㄴ다 將次文
明을 可見이라 ᄑᆞ 聞來人의 稱頌
이 有하더라

호명학교 관련 기사
(『대한매일신보』, 1908년 11월 1일)

위치고증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의 1908년 11월 1일자에 관련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1925년 발행된 『홍성군지』와 1969년 발행된 『홍양사』기록에 의하면 갈산공립보통학교는 호명학교의 교사를 가교사로 이용해 1917년 3월 개교했으며, 교사는 홍성군 고도

면 상촌리 325번지에 위치해 있었다. 현재의 지적도와 비교하고, 홍성 지역 향토사학자인 이건엽의 고증으로 위치를 확인하였다. 당시의 모습은 남아 있지 않으며 현재 밭으로 이용되고 있다.

당시 주소 충청남도 홍주군 고남하도면 상촌리

주소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 상촌리 325





호명학교 터

04

결성금광 동맹파업지

1933년 5월 일본인 소유의 결성광산에서 노동자들이 동맹파업을 단행한 곳

관련 내용

일본인 소유였던 홍성군 서부면 판교리 소재 결성광산에서는 1933년 노동수탈에 대항해 노동항쟁이 전개되었다. 결성광산은 경남철도회사 부사장 아키모토[秋本豊之進]가 경영하던 금광으로, 1933년 4월 29일 채광 중에 조선인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5월 1일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일본인 주임인 핫토리[服部哲夫]와 마찰이 발생하자 평소 열악한 노동조건과 일제의 지하자원 수탈야욕을 감지하고 있던 노동자들은 장례를 마친 후 일본인 주임을 구타하고, 회사의 기계공장과 일

본인 인사계 주임의 숙소를 습격하고 파업을 단행했다.

위치고증

『동아일보』 1933년 5월 10일자 기사에 의하면 홍성군 서부면 판교리의 결성광산에서 광부들의 동맹파업이 있었다. 결성광산은 일본인이 경영하던 금광으로 현재 홍성군 서부면 판교리에 광산 터가 남아있고, 지역 주민들의 고증으로 위치를 확인하였다. 현재 펜션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당시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으나 당시 갱도로 사용했던 입구 정도는 확인할 수 있다.



礦夫七十餘名이結束
金鑛機械場으로襲擊
洪城結城金鑛에서十三名檢擧
坑夫一名橫死에激憤

결성광산 동맹파업 관련 기사
(『동아일보』, 1933년 5월 10일)

당시 주소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판교리

주소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판교리 645

결성광산 터

05

황보금광 동맹파업지

1934년 6월 일본인 소유의 황보금광에서 조선인 노동자들이 동맹파업을 단행한 곳

관련 사건

1934.6.15 홍성군 황보금광 노동자 동맹파업

관련 인물

고윤선 / 김병옥

관련 내용

황보금광은 1930년대 초 홍성군 광천면 담산리에서 발견된 금광으로 광부가 1,500여 명이 이르는 홍성지역 최대의 금광이었다.

1934년 6월 15일 일본인 감독의 권총난사로 인해 조선인 광부 고윤선(高允善)·김병옥(金炳玉) 등 2명이 사망하자 조선인 광부들은 감독의 만행에 대항하여 동맹파업을 단행하였다.

위치 고증

『조선일보』1934년 6월 19일자 보도에 의하면 홍성군 광천면 담산리 황보금광에서 일본인 감독의 만행에 대항해 동맹파업이 있었다. 황보금광은 해방 후까지 존속했으며 지역 주민들의 증언으로 위치를 확인하였다. 당시의 모습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黃寶金山의 監督
拳銃으로 鑛夫를 亂射
被害者兩名重傷으로 生命危篤
洪城郡淡山里에 慘事

황보금광 동맹파업 관련 기사
(『조선일보』, 1934년 6월 20일)

주소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면 담산리 468



황보금광 터

06

홍성공립보통학교 동맹휴학지

1926년 4월 28일과 6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홍성공립보통학교 학생들이 동맹휴학을 전개했던 곳

관련 사건

1926.4.28 홍성공립보통학교 학생 동맹휴학

1926.6.10 홍성공립보통학교 학생 동맹휴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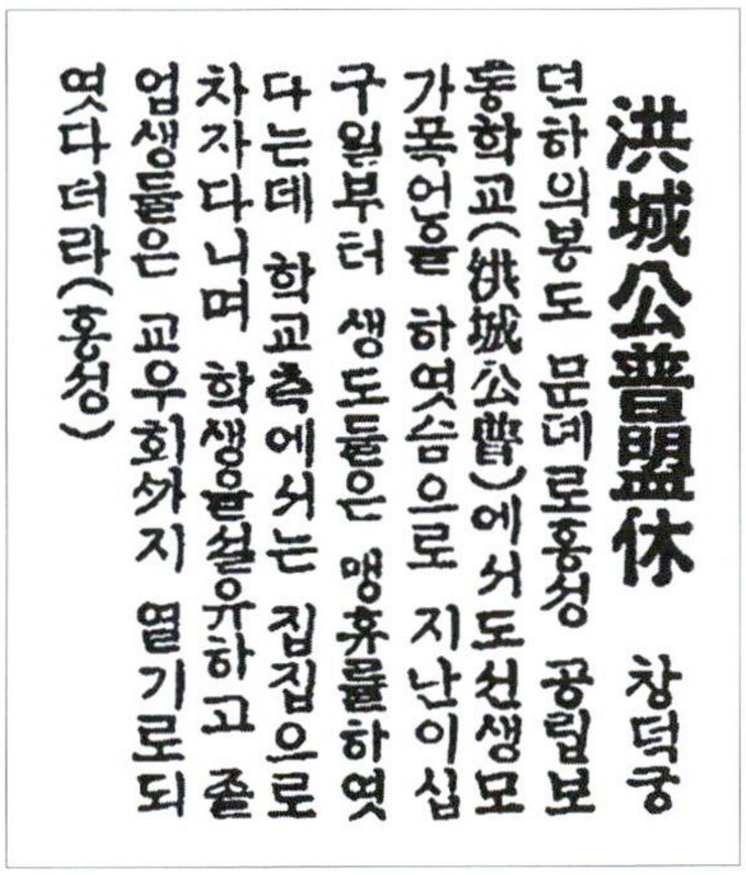
관련 내용

1926년 4월 26일 순종이 붕어하자 홍성공립보통학교 학생들은 비통한 분위기 속에서 망곡을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일본인 훈도가 '조선인이 죽었는데 무슨 상관이냐' 며 이를 저지했고, 학생들이 교문을 나서자 일본인 교장이 위협을 가하기까지 하였다. 학생들은 4월 28일 일본인 교장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남학생들은 모자에 흰테를 두르고 여학생들은 치마와 책보를 찢어 댕기를 두른 후 망곡을 하며 동맹휴학을 단행하였다. 홍성은 유학적 전통이 강했던 지역으로 홍성공립보통학교 학생들

은 일본인 교사가 순종을 멸시하는 언행을 하자 강한 항일의식을 동맹휴학으로 표출했던 것이다. 학생들은 6월 10일 국장 당일에도 일제히 동맹휴학을 단행하고 봉도를 거행하였으며, 손종의 위패를 반우하는 6월 13일까지 동맹휴학할 것을 선언했다.

위치 고증

『동아일보』 1926년 5월 2일자, 6월 14일자 및 『조선일보』 1926년 5월 6일자 등에 관련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홍양사』에 의하면, 홍성공립보통학교는 1923년 4월 홍주면 오관리 634번지로 교사를 신축 이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홍성공립보통학교는 현재 홍성초등학교이며, 신축 이전한 오관리 634번지는 현재 홍성초등학교 학교 부지와 거의 일치한다. 당시의 모습은 남아 있지 않으며, 현재 홍성초등학교가 들어서 있다.



洪城公普盟休 창덕궁 뎐하의봉도 문뎨로홍성 공립보통학교(洪城公普)에서도선생모가폭언을 하엿슴으로 지난이십구일부터 생도들은 맹휴를하엿다는데 학교측에서는 집집으로 차자다니며 학생을설유하고 졸업생들은 교우회사지 열기로되엿다더라(홍성)

홍성공립보통학교 맹휴 관련 기사
(『동아일보』, 1926년 5월 5일자)



홍성공립보통학교(1934년, 좌)와 현재의 홍성초등학교(우)

당시 주소	충청남도 홍성군 홍주면 오관리 634
주소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638
도로명 주소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43

07

김복한 생가 터

홍주의병과 파리장서를 주도한 김복한이 태어난 곳

관련 내용

김복한(金福漢, 1860~1924)은 1860년 부친 김봉진(金鳳鎭)과 연안 이씨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태어난 곳은 충남 홍주군 조휘곡이다. 그의 선대가 홍주에 정착한 것은 11대조 광현 때부터이다. 김광현이 홍주목사를 거쳐 이조참판을 역임하고 홍주에 내려와 살면서 그의 후손들이 홍주에 세거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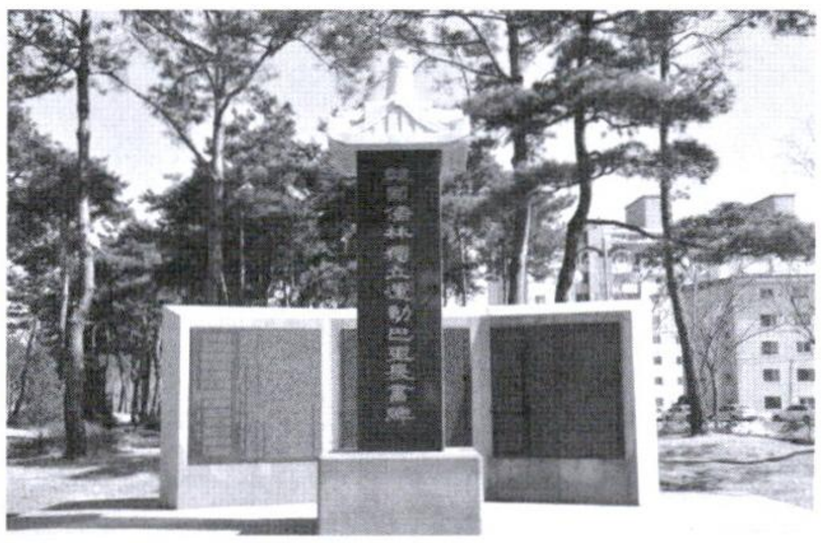
김복한은 1871년 예산의 이돈필(李敦弼) 문하에 들어가 수학하였으며,



추양사(김복한 사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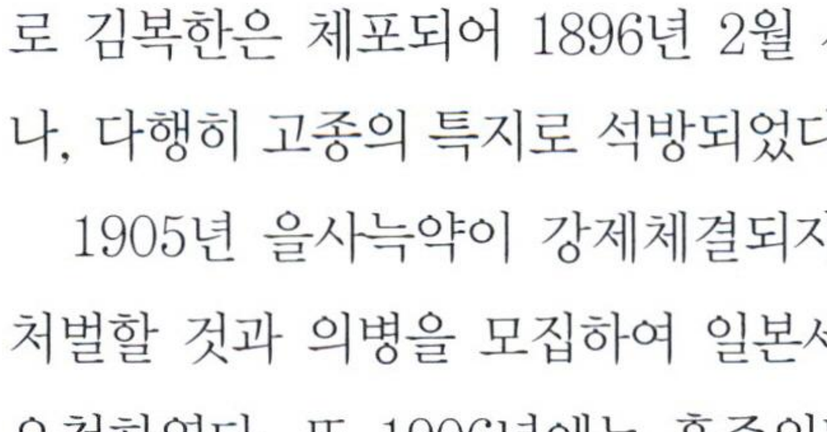
1919년 파리장서운동으로 옥고를 치른 후의
김복한(전열 중앙)과 그의 문하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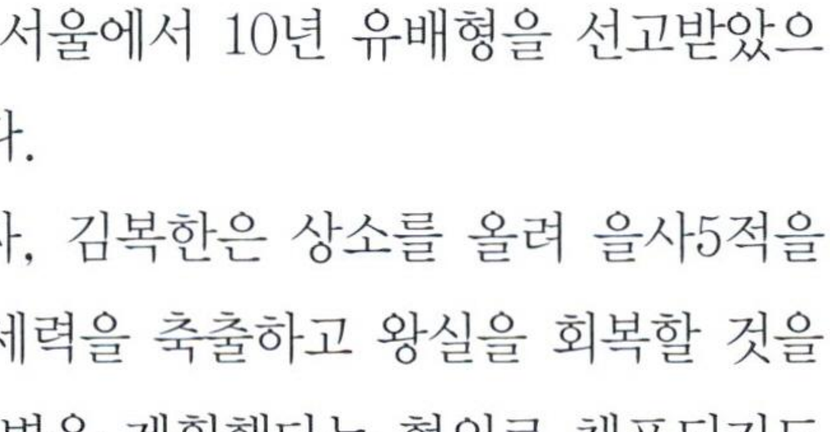
한국유림독립운동파리장서비
(홍성읍 대교리)

1874년에는 내종형 이설의 가르침을 받았다. 1892년 문과에 급제한 그는 사헌부 지평·우부승지 등의 관직에 있으면서 고종을 측근에서 보필하였다. 하지만 1894년 6월 일제의 침략이 노골화되자, 김복한은 사직하고 낙향하였다. 다음해인 1895년 명성황후 시해사건이 일어나자, 그는 홍주지역의 사민을 모아 홍주의병을 일으키고, 의병 총수에 추대되었다. 이 일로 김복한은 체포되어 1896년 2월 서울에서 10년 유배형을 선고받았으나, 다행히 고종의 특지로 석방되었다.

1905년 을사늑약이 강제체결되자, 김복한은 상소를 올려 을사5적을 처벌할 것과 의병을 모집하여 일본세력을 축출하고 왕실을 회복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 1906년에는 홍주의병을 계획했다는 혐의로 체포되기도 하였다. 더욱이 그는 1919년 파리장서를 주도했다가 징역 1년형을 받기



김한복 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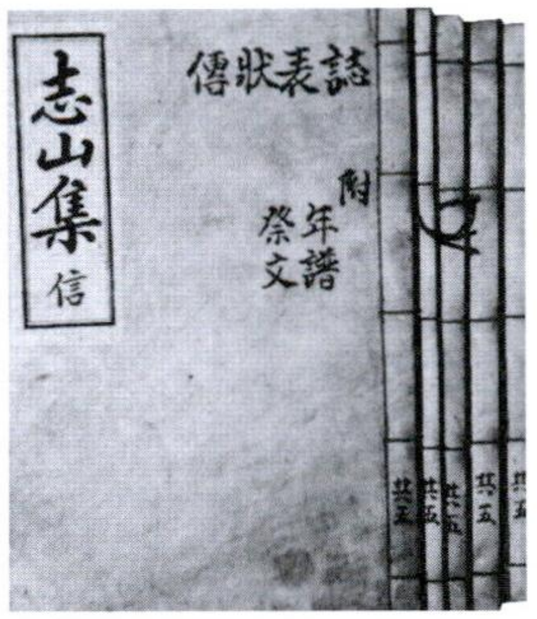


'지산 김복한선생 생가유지' 표지석(김복한 생가터)

도 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63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생가 터 앞에는 홍성군청에서 1973년에 건립한 생가 터 표지석이 세워져 있다.

위치 고증

『지산집』권15 부록에 실린 연보에 의하면 홍주의 조휘곡에서 출생한 것으로 되어 있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생가 터에 홍성군에서 세운 '지산 김복한 선생 생가유지' 표지석이 있다. 당시의 집은 헐리고 다시 집을 지었다.



김복한『지산집』

당시 주소 충청남도 홍주군 조휘곡

주소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 운곡리 126

08

이설 생가 터

1896년 홍주의병을 이끌었던 이설이 태어난 곳

관련 내용

이설(李偰, 1850~1906)은 1850년 충남 결성군 화산면에서 부친 이조익(李祖益)과 광산김씨 사이에서 맏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생가지인 결성 화산에 선대가 살기 시작한 것은 9대조 시방(時昉, 호조판서)부터였다. 그러므로 그의 집안은 홍주에서 누대에 걸친 명망가였다.

이설은 어려서 백부인 이조겸(李祖謙)의 양자로 들어갔으며, 족조인 이훈(李壎)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 15세 때에는 관직을 제수받은 양



이설 생가(멸실 전)

부를 따라 상경하여 경학을 수학하기도 하였다. 그는 1889년 문과에 급제하여 홍문관 교리, 승정원 동부승지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다. 그러다가 1894년 갑오변란이 발생하자 일본과의 전쟁을 결행할 것을 주청하는 상소를 올리고 낙향하였다.

1896년 이설은 홍주의병에 참여하였으나 관찰사의 배반으로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고종의 특사로 풀려난 그는 고향 집에 거주하며 후학 양성에 힘을 쏟았다. 그러나 1905년 을사5적의 처단을 요구하는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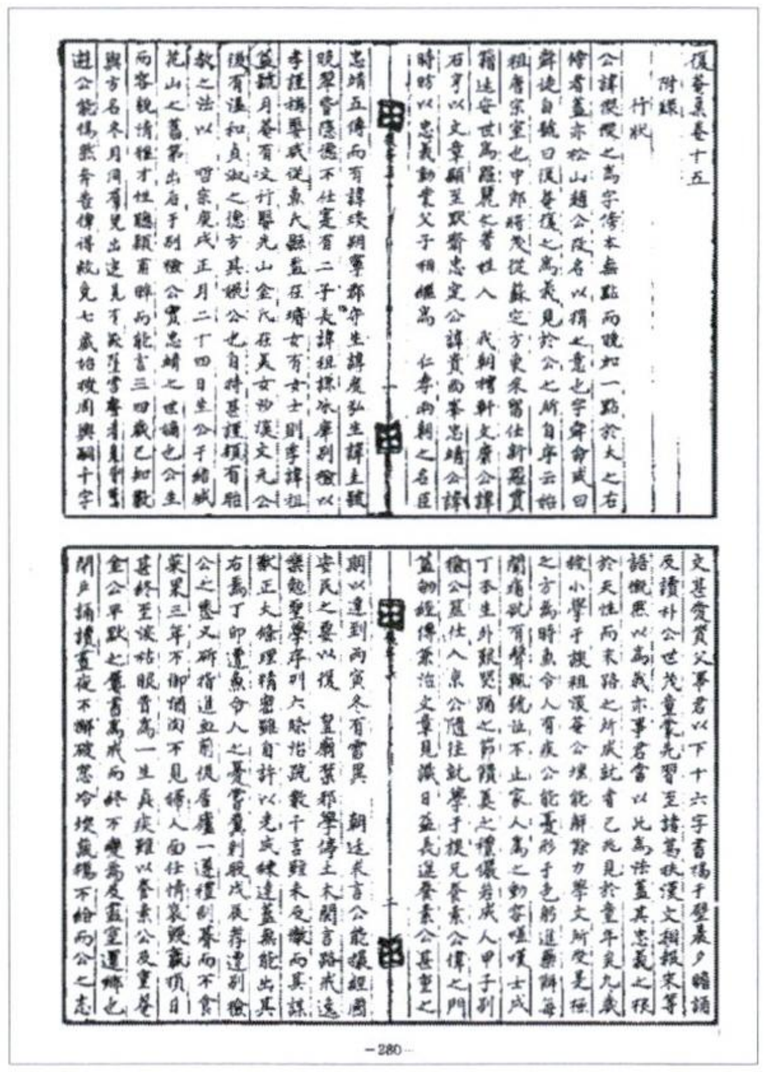
이설 생가 터



이설 생가 터에 남아 있는 담장과 주춧돌



이설 『복암집』



유호근이 작성한 이설의 '행장' (『복암집』 부록)

소로 옥고를 치른 그는 1906년 5월 이곳에서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63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위치 고증

『복암집』 부록의 연보에 이설이 이곳에서 태어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증손 이인배의 증언으로 생가 터를 확인하였다. 집은 헐리고 새 집이 세워졌으며, 당시 돌담 일부가 남아 있다.

당시 주소	충청남도 결성군 화산면 새까시
주소	충청남도 홍성군 구항면 오봉리 163
도로명 주소	충청남도 홍성군 구항면 구성북로202번길 48

09

덕명학교 터

홍주의병과 홍성군 광천면 만세시위에 참여했던 서승태가 설립한 사립 덕명학교가 있었던 곳

관련 사건

1919 3·1운동 / 1930 동맹휴학

관련 인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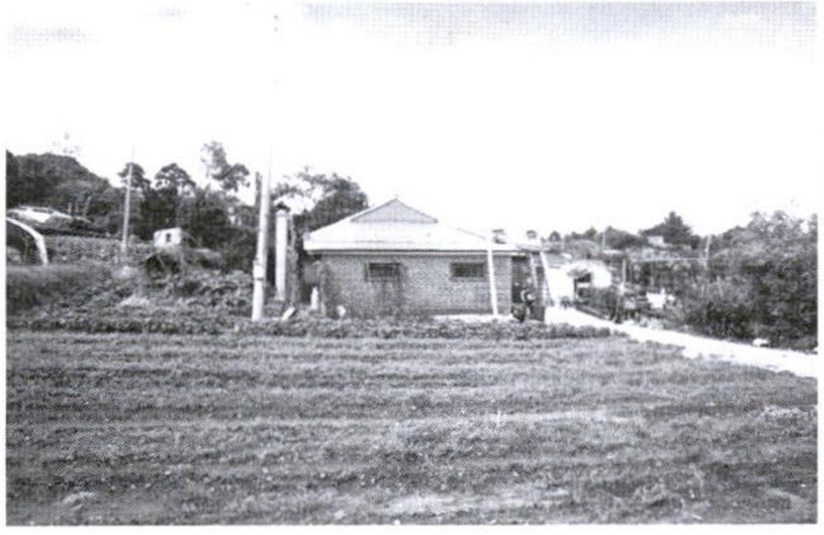
서승태(徐承台) / 민종식(閔宗植) / 오인섭(吳仁燮) / 이명종(李鳴鍾) / 최응모(崔應模) / 성인배(成仁培)



일농서승태흥학기념비
(덕명초등학교)

관련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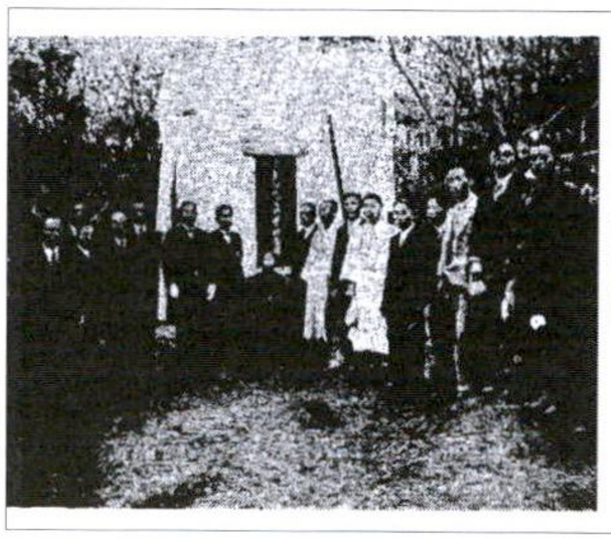
덕명학교(德明學校)는 1908년 8월 서승태(1854~1921)가 설립한 사립학교이다. 서승태는 1906년 민종식 의병장이 의병을 이끌고 남포(藍浦)에서 홍주성(洪州城)을 향하여 행진할 때 군량미를 제공하는 등 의병을 지원하였다. 1908년 8월에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한다는 목적 아래 덕명학교를 설립하였으며, 홍성지역 근대교육의 선구적 역할



덕명학교 터



덕명학교를 계승한 광천공립보통학교
(2019년 폐교)



徐勝泰氏
興學記念碑

【광천】 지난 三월 오주 고지경에 중앙회장 공립보통학교(廣川公普)교정에 공헌한 바 있는 고 서승태(徐勝泰)씨의 흥학기념비 제막식이 거행되었다 서 씨는 본래 홍성(洪城)이었으나 시대의 변천을 따라 광천으로 이주하여 덕명학교(德明學校)를 창립하여 가지고 자기의 전재산을 들여 육영사업에 공헌하였다가 불행히 광천공립보통학교로 변경되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유지의 협력하에

일부가 남아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는 새롭게 건축된 건물이 들어서 있다.

당시 주소 충청남도 홍주군 궁경면 덕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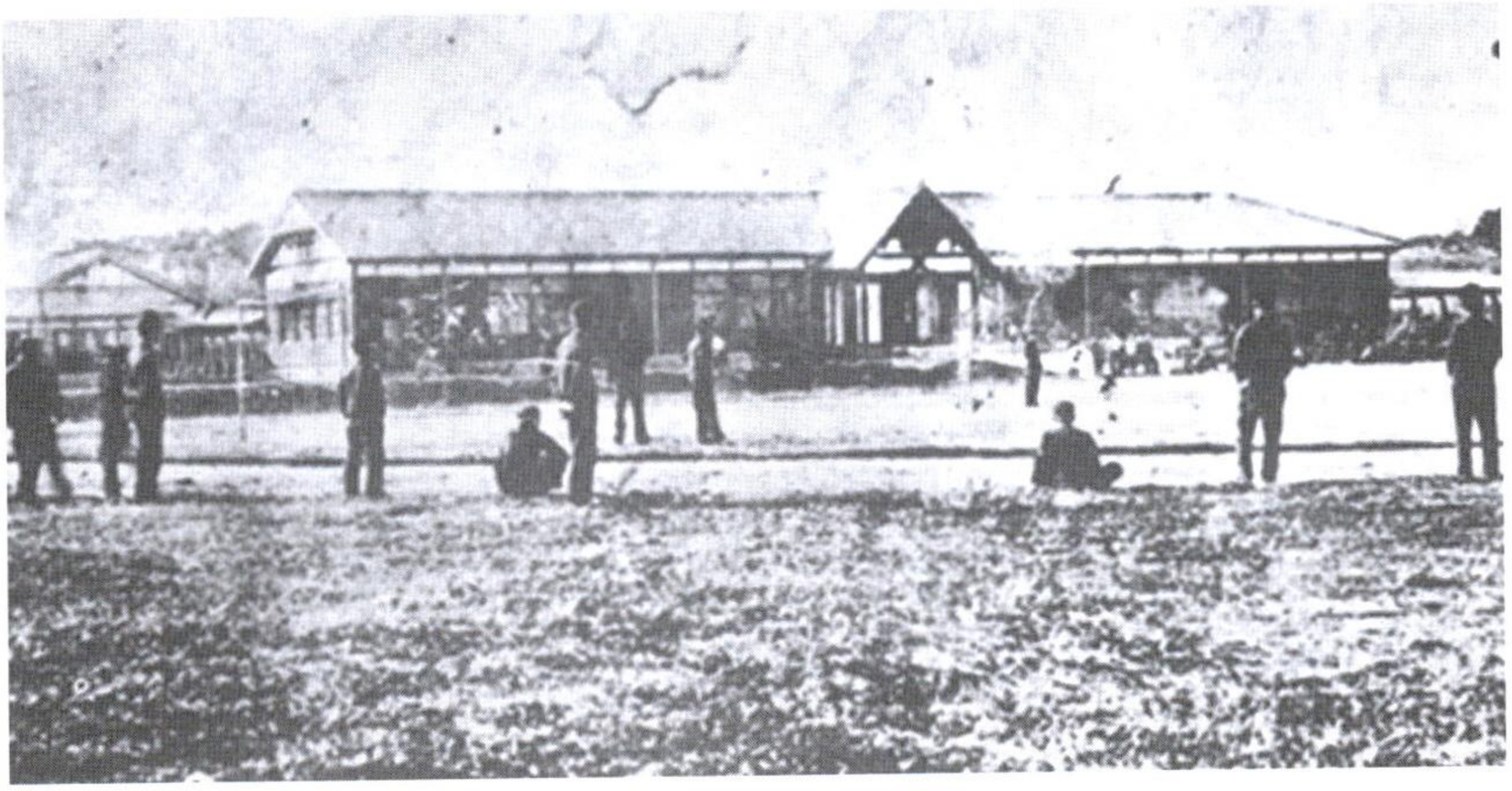
주소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상정리 281

도로명 주소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충서로453번길 142-15

10

홍성공립공업전수학교 학생운동지

1928년 12월 13일 홍성공립공업전수학교 학생들에 의한 동맹휴학과 1930년 1월 19일 광주학생운동에 동조하는 격문살포 및 만세시위가 추진되었던 곳



홍성공립공업전수학교(1927년)

관련 사건

1928.12.13 홍성공립공업전수학교 학생 동맹휴학

1930.1.19 홍성공립공업전수학교 학생 격문살포 및 만세시위계획

관련 조직

신간회 홍성지회 / 광천노동조합

관련 내용

1928년 12월 13일 홍성공립공업전수학교 학생들이 학교 승격문제와 식민실업교육에 항거하여 동맹휴교를 단행하였다. 13일에 시작된 동맹휴학은 17일까지 지속되었으며 학생들의 요구조건이 일부 수용되면서 마무리되었다.

1930년 1월에는 홍성공립공업전수학교 학생들이 광주학생운동에 동조하는 만세운동을 추진했다. 1월 19일 홍성공립공업전수학교 학생들은 '광주학생을 석방하라'는 격문을 시내에 배포하고 만세운동을 추진하였다. 학생들은 신간회 홍성지회 및 광천노동조합 등과 연대하여 격문을 시내에 배포하고, 장날인 20일에 만세운동을 추진하던 중 관련자들이 홍성경찰서에 체포되어 7명이 퇴학과 근신 처분을 받았다.

洪城에도 檄文撒布
學生十餘名檢擧

【홍성지국전화】 충남홍성경찰서에서는십구일오후일곱시부터를연합활동을개시하야당지상업전수학교(商業專修學校) 학생들은 이십일당지장날을 기하야 엄중한 경계를하는중이다 그리고 이십일오전시내에는약간의격문이산포되엇다 그러나 밤늠충남도경찰부경무과장이하 친군경관백여명이출동하야 엄중한 검거를시작하야 이십여명을검거 핸다는바 그중 이십일당지장날을 기

위치 고증

『충청남도발전사』에 의하면, 홍성공립공업전수학교는 홍성군 홍주면에 1927년 6월 개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홍양사』에 의하면, 홍성공립공업전수학교는 홍성읍 고암리에 2년제 학교로 설립되었으나 3회 졸업생을 배출하고 대전으로 이전하였으며, 학교 터에는 '도병원'이 건립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당시 학교부지에 설립된 '도병원'은 홍성의료원이며 홍성의료원 연혁을 통해 이를 확인하였다. 현재 홍성의료원이 들어서 있다.



홍성공립공업전수학교 터(현 홍성의료원)

당시 주소 충청남도 홍성군 홍주면 고암리

주소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572-3

도로명 주소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24

11

김좌진 생가

광복회 · 대한군정서 · 신민부 · 한족총연합회 등에서 활동하였고, 1920년 청산리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김좌진이 태어난 곳

관련 사건

1920 청산리전투 / 1921 자유시참변

관련 조직

신민부 / 한족총연합회 / 광복회 / 기호흥학회 / 길림군정사 / 대한군



고대한독립군사령백야김좌진장군추념비(갈산면 백야공원 내)

정서 / 대한독립군단 / 대한독립의군부

관련 인물

서일(徐一)

관련 내용

김좌진(金佐鎭, 1889~1930)은 1889년 음력 11월 홍성군 갈산면에서 태어났다. 그는 호명학교 설립에 참여하고, 홍성지역의 재능있는 학생들을 선발해 서울에 유학시키는 등 홍성지역 근대교육에 앞장섰다.

1907년경 서울로 상경한 후 신민회 인사들과 교류하면서 기호흥학회·대한협회 등에 참여해 계몽운동운동을 전개했다. 1910년 국망 후 독립자금 모집 중 체포되어 3년의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출옥 후에는 1915년 대구에서 조직된 광복회에 참여해 자금모집에 전념했으며, 1917년 광복회 만주부사령으로 파견되었다.

김좌진은 1918년 길림에서 조직된 대한독립의군부(大韓獨立義軍府)



백야사

에 참여하면서 만주에서의 무장투쟁을 시작했다. 그는 길림에서 대한독립선언서에 서명했으며 1919년 3월 중순 길림군정사를 조직하고, 같은 해 서일의 연합제의에 따라 대한군정서에 참여했다. 대한군정서사령부 총사령관으로 서대파 십리평(十里坪)에 사관연성소를 설치하고 독립군 양성에 주력했다. 김좌진은 대한군정서군을 이끌고 1920년 10월 백운평·천수평·어랑촌 전투 등 청산리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청산리전투 이후에 대한독립군단을 조직하고, 1925년 북만지역의 독



김좌진 생가



김좌진 사당 전경



백야사정비(백야사)

립운동단체들과 통합해 신민부를 조직하였다. 신민부 총사령관 및 군사부위원장으로 군사부문의 책임을 맡아 신민부의 실질적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1929년 7월 한족총연합회를 결성해 북만지역에서 활동하던 중 산시에서 고려공산당원인 쏜 흉탄에 순국했다.

위치 고증

「김좌진 제적부」에 본적이 갈산면 행산리 338번지로 되어 있으며, 행산리 338번지 일대에 생가와 기념관이 복원되어 있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1991년 성역화 사업을 추진해 본채와 문간채 사랑채를 복원하고 전시관을 건립했다.

당시 주소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 행산리 338
주소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 행산리 330-1
도로명 주소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 백야로546번길 12

12

한용운 생가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이며, 일제강점기 불교계의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한용운이 태어난 곳

관련 사건

1919 3·1운동

관련 조직

신간회 / 조선불교청년회 / 조선불교청년동맹

관련 인물

백용성(白龍城) / 최린(崔麟)

관련 내용

한용운(韓龍雲, 1879~1944)은 충남 결성에서 태어나 1905년 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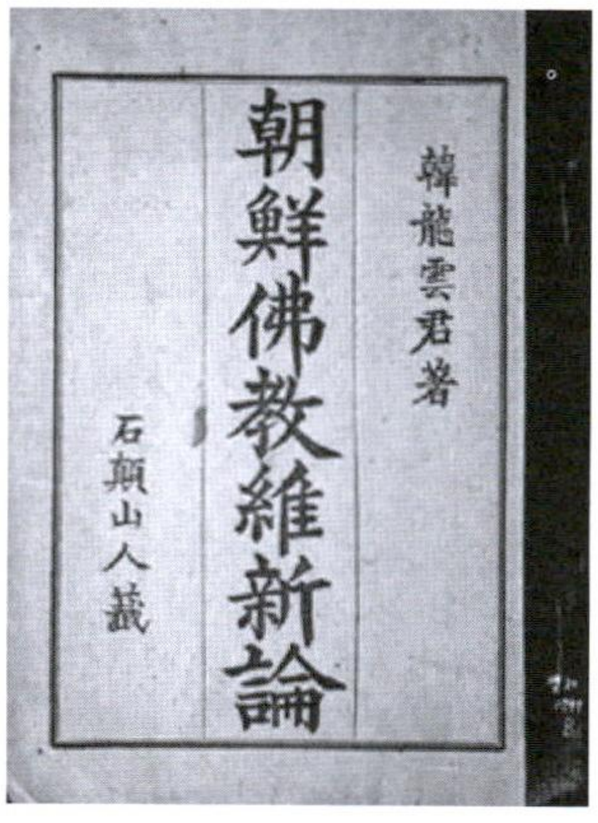


만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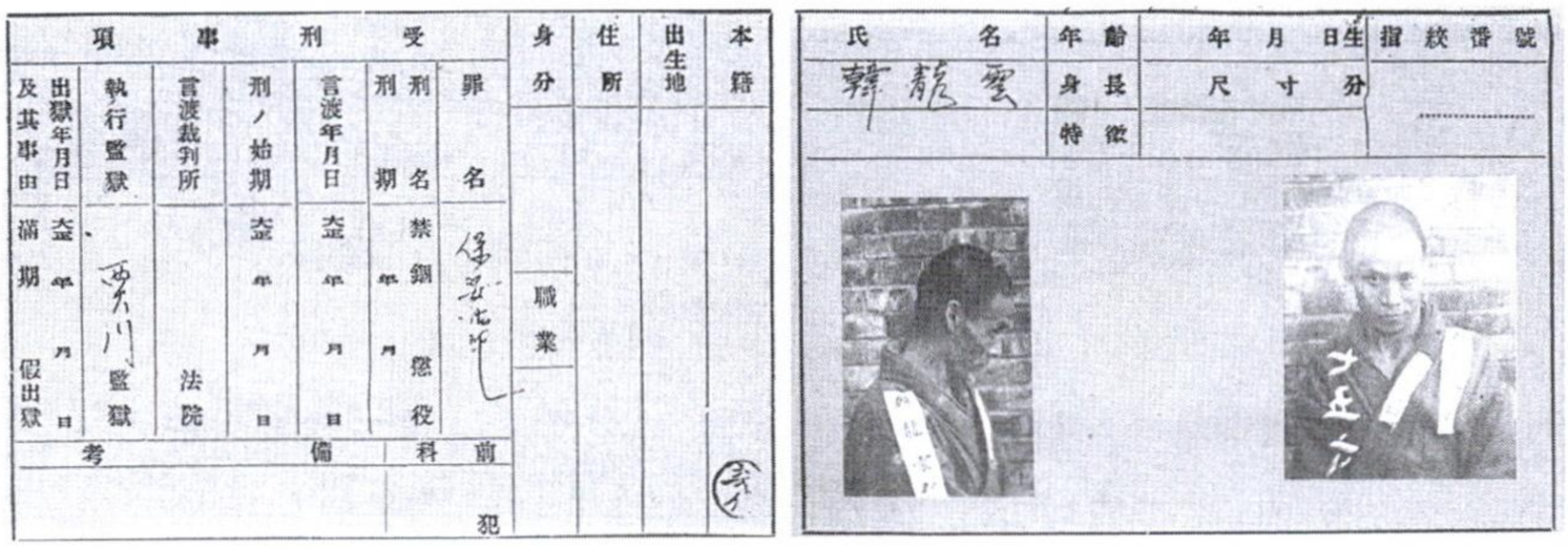
한용운 생가

의 백담사(百潭寺)에 들어가 승려가 되었다. 1913년 불교학원(佛教學院)에서 교편생활을 하다가 부산 범어사(梵魚寺)에 들어가 『불교대전(佛教大典)』을 저술했으며, 1916년 서울 계동에서 월간지 『유심(唯心)』을 발간하여 대중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 1919년 2월 24일부터 27일 사이 승려 백용성과 함께 3·1운동에 참여하기로 하고, 27일 최린의 집에서 민족대표로 서명하였다. 3월 1일 '무사히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게 되어 크게 기쁘며 더욱 더 독립운동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는 취지의 연설을 하고 출동한 일제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는 보안법과 출판법 위반 혐의로 1920년 10월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겪었다.



한용운의 『조선불교유신론』

출옥 후 계속하여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 노력하면서 1926년 시집 『님의 침



本籍	出生地	住所	身分	刑事事項						
				罪名	刑名 刑期	言渡年月日	刑ノ始期	言渡裁判所	執行監獄	出獄年月日 及其事由
			職業		懲役 禁錮 年 月	年 月 日	年 月 日	法院	監獄	年 月 日 滿期 假出獄
前科				備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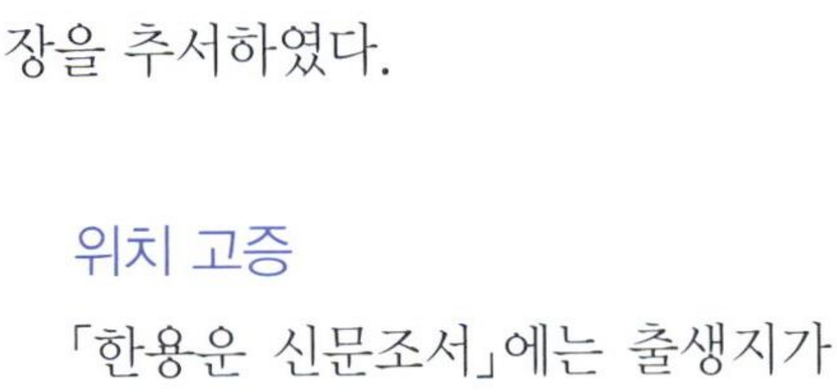
氏名	年齢	生年月日	指紋番號
韓龍雲	身長	分 寸 尺	
	特徵		

한용운 수형기록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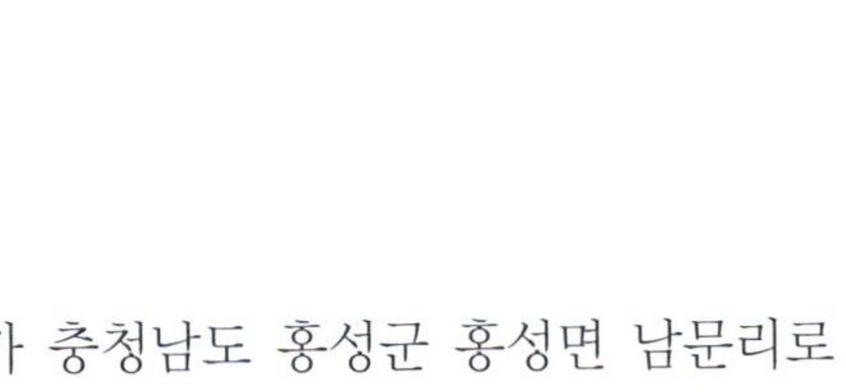
묵』을 발간하여 일제에 대항하는 저항문학 활동을 하였고, 1927년 신간회(新幹會) 중앙집행위원과 경성지회장을 맡기도 하였다. 1931년 조선불교청년회를 조선불교청년동맹(朝鮮佛教青年同盟)으로 전환해 불교를 통한 청년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월간지 『불교』를 인수하여 불교의 대중화와 항일독립사상을 고취하는데 전념했다.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하였다.

위치 고증

「한용운 신문조서」에는 출생지가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면 남문리로 되어 있고, 『홍양사』에는 홍성군 결성면 성곡리라고 기록되어 있다. 현재 홍성군 결성면 성곡리에 생가가 복원되어 있어 복원된 생가지로 위치



만해 한용운선생 생가지 성역화비
(결성면 한용운 생가 내)



한용운 생가 앞에 조성된 만해체험관

를 비정하였다. 1992년 생가를 복원하였다.

당시 주소

충청남도 결성군 현내면 전철리

주소

충청남도 홍성군 결성면 성곡리 492

도로명 주소

충청남도 홍성군 결성면 만해로318번길 83



1926년 발간된 한용운의
『님의 침묵』

13

홍주의병 전투지

홍주성 – 1906년 5월 20일부터 31일까지 홍주의병이 일본군과 치열한 전투를 치룬 곳

관련 인물

민종식(閔宗植) / 채광묵(蔡光默) / 유준근(柳濬根)



홍주성 성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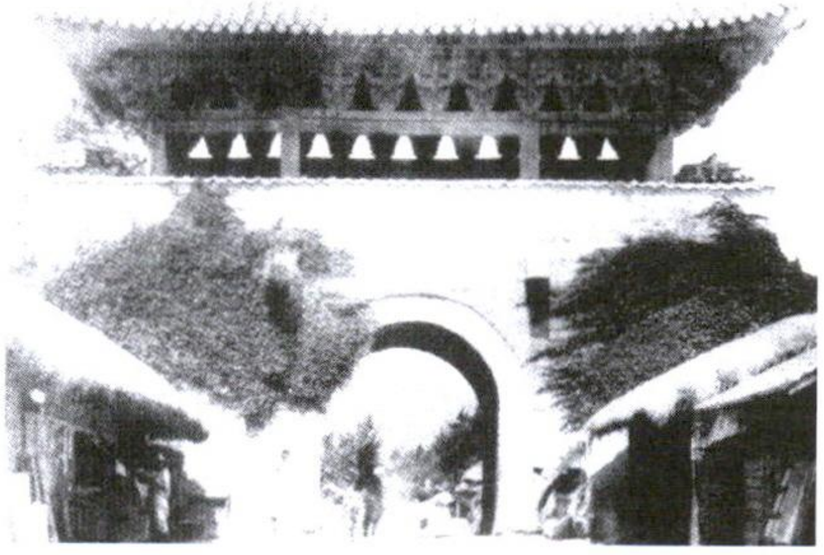
홍주아문(홍주성의 외삼문)

관련 내용

홍주의병은 1906년 3월 청양군 정산면 천장리에서 재봉기하였으나, 청양 합천전투에서 크게 패했다. 이후 홍주의병은 5월 9일 부여의 지티에서 다시 의병을 일으켜 민종식(閔宗植)을 다시 대장에 추대하고, 부대를 정비한 후 5월 13일 서천관아를 점령하였다. 이들은 남포읍성 전투에 성공하여 병사를 의병에 귀순시키는 등 의병을 모집하면서 5월 19일 홍주읍에 들어와 홍주성을 점령하였다. 민종식은 이후 천제를 지내고 의병의 편제를 보강하였다. 아울러 인근의 각 군수에게 훈령을 내려 양식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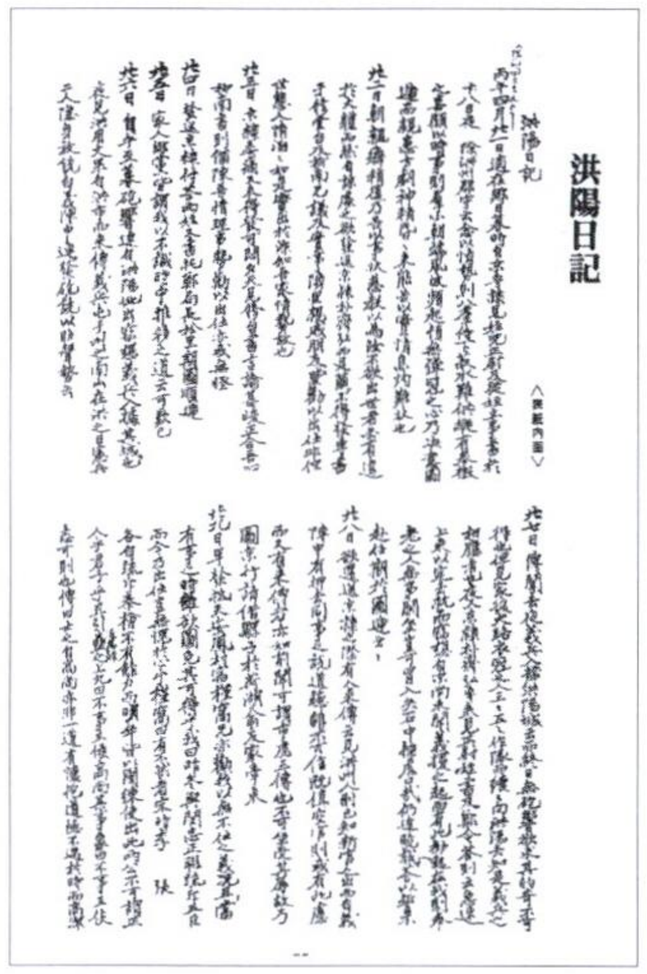
홍주성 조양문



1910년대의 조양문

군기의 징발과 모병을 지시하였다.

일본군은 5월 20일부터 여러 차례 홍주성을 공격하였다. 그럼에도 전세가 불리하게 되자, 조선통감 이토히로부미는 하세가와요시미치에게 명령을 내려 조선주차군 제60연대의 보병 2개 중대와 기병 반개 소대, 그리고 전주수비대 1개 소대를 파견하여 홍주성을 공격하게 하였다. 그 결과 홍주의병은 5월 30일 밤부터 시작된 일본군의 공격으로 이튿날 새벽 결국 채광묵(蔡光默) 부자 등 300여 명의 희생자를 낸 채 패퇴하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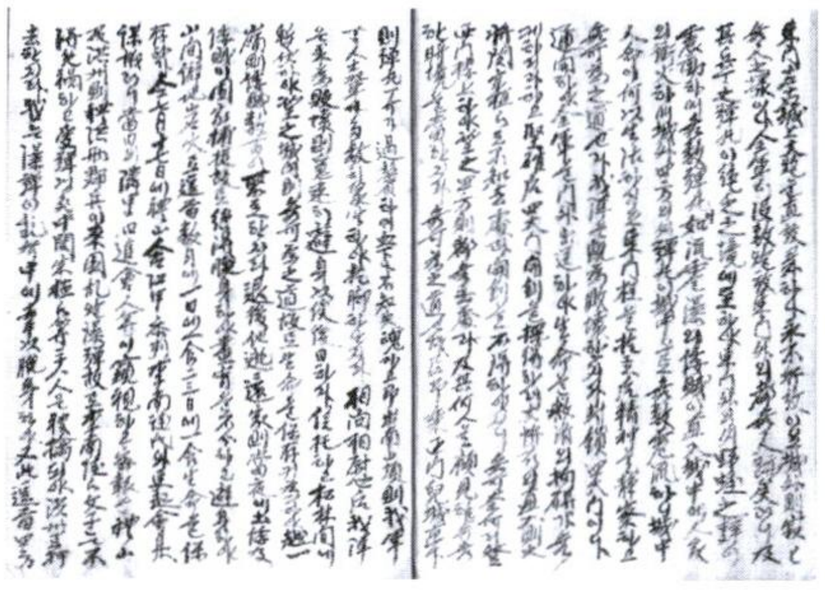
윤시영의 『홍양일기』

이 전투에서 홍주의병 80여 명이 체포되었으며, 그 중에서 유병장(儒兵將) 유준근(柳濬根)을 비롯하여 9명은 대마도에 유배되기까지 하였다.

위치 고증

「한국각지폭동잡건」(『한말의병자료』Ⅲ권 수록)에 1906년 5월 30~31일 전개된 홍주의병의 홍주성 전투상황이 보고되어 있다. 사적 제231호로 지정되어 있어 위치를 확인하였다. 성곽 주변 가옥을 철거하


홍주성 동쪽 성곽


홍주성전투 기록(홍순대 『해암사록』)

고 토지매입·주변정비 및 성곽을 보수하여 현재에 이르렀다. 홍주성 안에는 홍성군청이 위치하고 있다. 홍주성은 성곽·조양문·아문이 1972년 사적 제231호로 지정되었으며 안회당과 여하정이 1997년 추가로 지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당시 주소 충청남도 홍주군 주북면 성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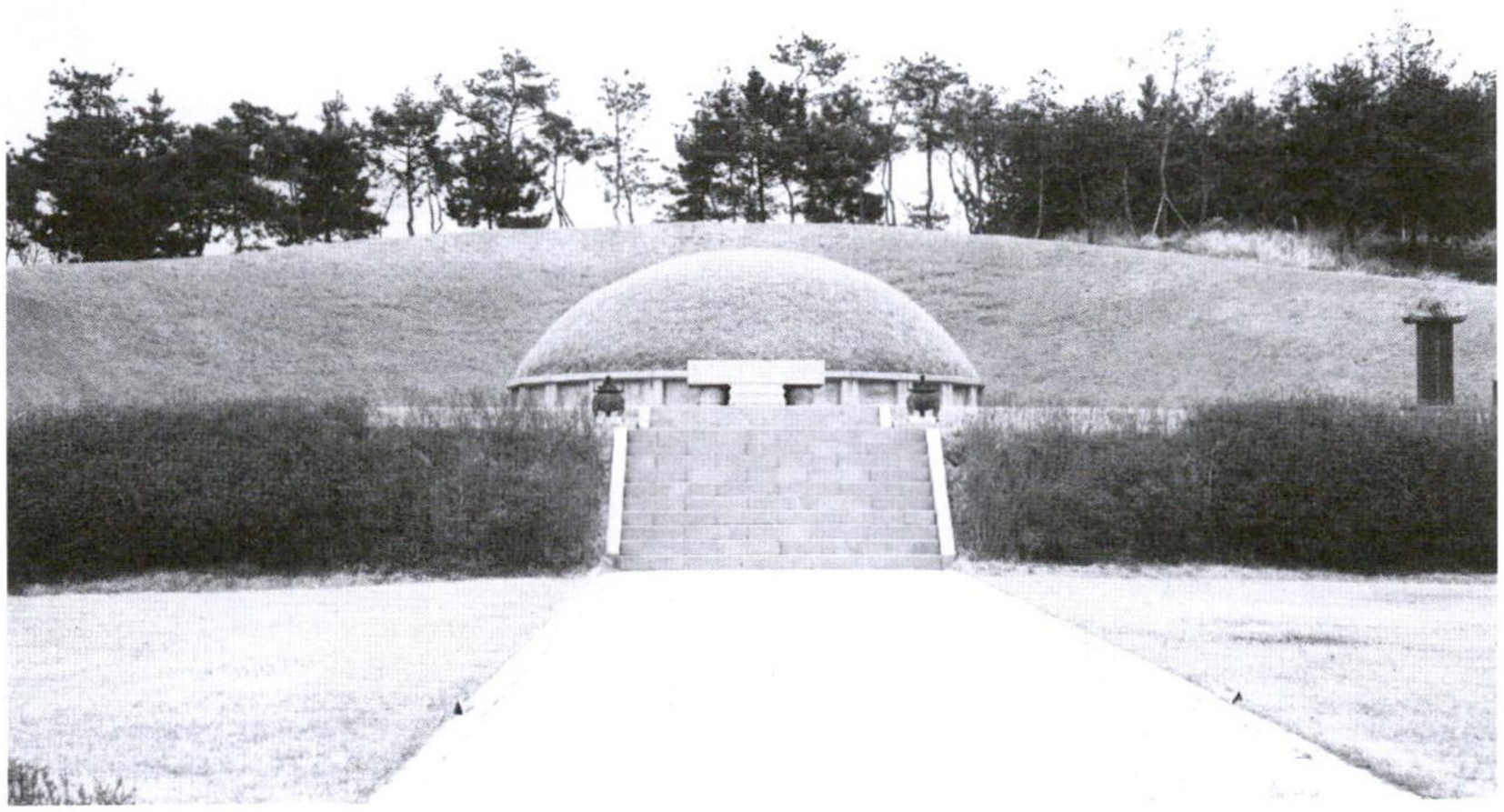
주소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98 일대

도로명 주소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 일대

14

홍주의사총

1906년 5월 30·31일 홍주성전투 중에 일본군에 의해 희생된 홍주의병의 유해가 모셔져 있는 곳



홍주의사총

관련 사건

1906년 홍주성전투

관련 조직

홍주의병(洪州義兵)

관련 인물

민종식(閔宗植)

관련 내용

1906년 5월 19일 홍주성을 점령한 홍주의병은 천제를 지내고 의병의 편제를 보강하였다. 아울러 대장 민종식(閔宗植)은 인근의 각 군수에게 훈령을 내려 양식과 군기의 징발과 모병을 지시하였으며, 이에 호응하여 인근의 사민들도 의병에 합류하였다.



창의사(홍주의사총 내 사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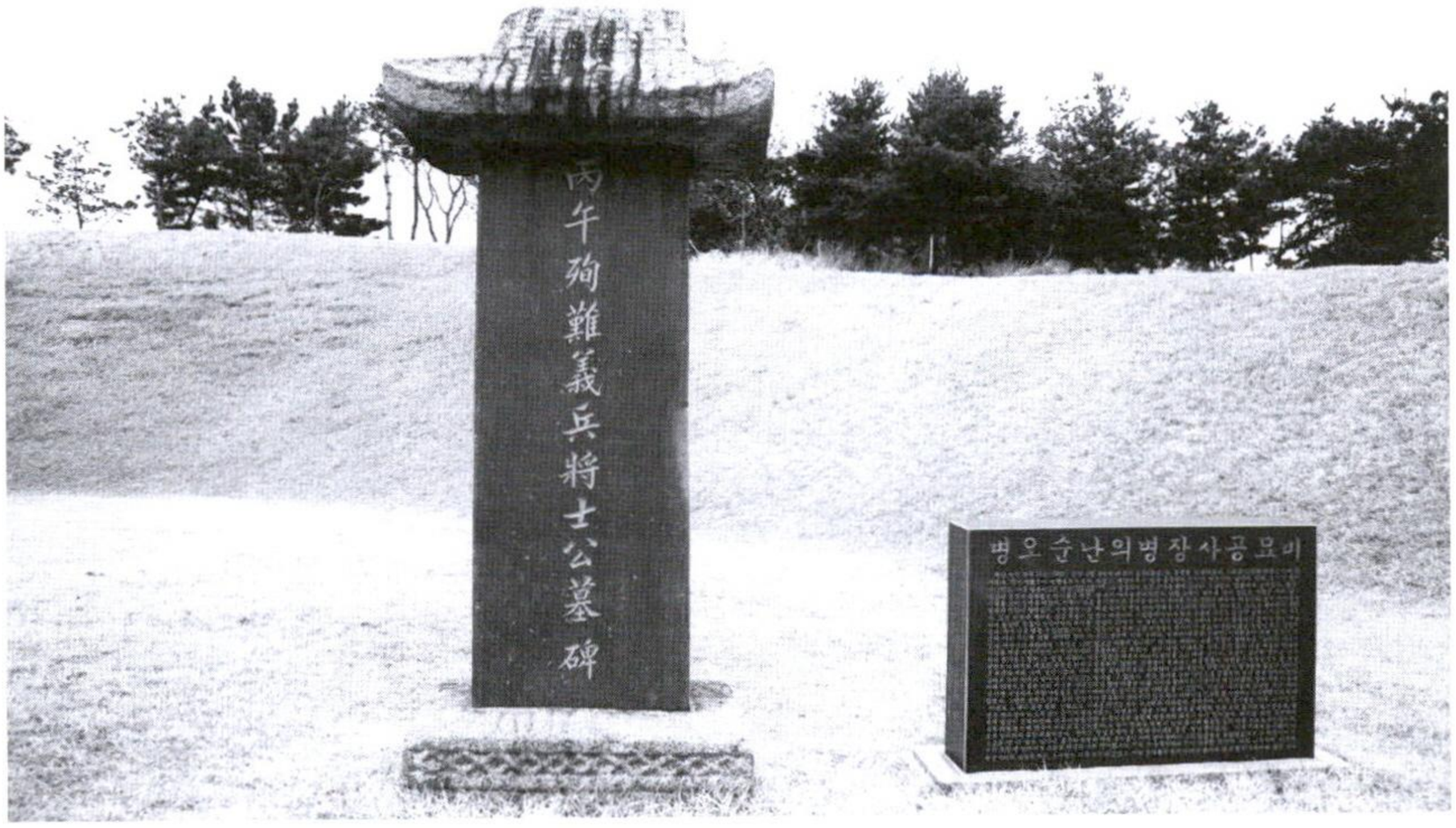


홍주의사총 내부 전경



홍주의사총 입구 표석

홍주성 점령 소식을 접한 조선통감 이토히로부미는 하세가와요시미치에게 명령을 내려 일본주차군 제60연대의 보병 2개중대와 기병 반개소대, 그리고 전주수비대 1개소대를 파견하여 홍주성을 공격하게 하였다. 일본군은 5월 30일 밤부터 홍주성을 공격하였다. 홍주의병은 일본군의 우세한 화력에 결국 참모장 채광묵(蔡光默)을 비롯하여 성재평·전태진·서기환·전경호 등 300여 명의 희생자를 내고 말았다. 홍주성전투



병오순난의병장사공묘비(홍주의사총 옆)



홍주의사총(1986년, 성역화사업 이전)

직후 홍주군수로 부임한 윤시영(尹始永)의 일기에 의하면, 일본기마병이 의병을 추격 사살하였으며, 체포된 의병을 심지어는 '작살' 하는 잔인한 짓을 저질렀다.

1949년 홍주경찰서과 소방서원들의 식목 행사 중 홍성천 주변에서 유해가 발굴되어 묘역을 조성하였다. 의병총은 2001년 문화관광부로부터 사적 제431호로 지정되어 묘역 일대를 성역화하였다.

위치 고증

윤시영의 『홍양일기』에 의하면 일본기마병이 의병을 추격하여 사살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손재학의 「왜정36년간에 내가 겪은 실화」에 의하면, 1949년 의사총을 조성한 과정이 상세하게 나와 있다. 1949년 홍주의병의 유해가 발굴된 장소에 조성한 묘역이 그대로 남아 있다.

당시 주소	충청남도 홍주군 주북면
주소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대교리 124-2
도로명 주소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의사로 79

홍성의 독립운동사 2



제 2 장

홍성의 독립운동가

01

강익승(姜益勝), 남, 1893. 09. 07~1922. 04. 08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인산 505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인산 505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05,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1919년 4월 1일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하였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4월 23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02

강종렬(康鍾烈), 남, 1902. 03. 10~1987. 05. 20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홍동 대평 43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홍동 대평 43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19,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홍동 사람으로 1919년 4월 홍동면(洪東面)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홍동면의 3.1운동은 4월 4일부터 시작되었다. 홍동면사무소의 「범죄인명부」에는 신기리 이외에 구암리, 문당리, 수란리, 효학리, 금평리, 운원리, 운용리, 월림리, 대평리, 구룡리 등 주민 50명이 4월 7일부터 4월 14일까지 홍성경찰서에서 즉결처분으로 태형을 당한 기록이 있다.

4월 5일에는 신기리 주민 100명이 독립만세를 외쳤다. 『홍동면지』에는 이 시위를 '홍동 신기리 사건'이라며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이제경(李齊經)·조우식(趙愚植) 등이 3월 5일(양력 4월 5일) 밤 뒷산인 꽃동산에 모여 봉화를 올리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쳤고, 일경의 발포로 이희도(李羲圖)·한명교(韓命敎) 등이 현장에서 죽고 이석만(李錫滿)·안중호(安重浩) 등이 관통상을 입었다. 경찰은 주민들은 닥치는대로 체포하고 13명을 구속, 태형을 가하였다. 성낙붕(成樂朋)씨는 고문의 여독으로 사망하였으며 그로 인해 두 아들이 부인과 함께 사망하여 가정 전체가 몰락하였다.

이 만세운동의 결과는 일경들이 무차별 사격을 가해 2명이 죽고 2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체포 구금된 13명은 태형을 당했다. 또한 4월 8일에도 독립만세를 외쳤는데『홍동면지』에 '홍동 원천리 사건'이라며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황윤성(黃允性)은 3·1운동이 터지자 인근을 돌면서 세천부락은 청광산(靑光山)에서, 중원부락은 석삼봉(石三峰)에서, 종현부락은 종현봉(鍾縣峰)에서 4월 8일 일제히 거사하여 만세를 부른 다음 홍동주재소를 기습하

기로 약속하였다. 이들은 약속대로 거사하고 "왜놈은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주재소를 기습하였다. 일본 경찰은 물론 조선인 순사들도 모두 도망하였다. 그러나 다음날 본서에서 수십 명의 경찰이 나와 황윤성을 체포하여 고문을 하고 관련자들의 성명을 밝히라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고문에 못이겨 사망하였다.

『홍동면지』에는 이 만세운동의 결과 사망하거나 형을 받은 애국지사 총 63명이 기록되어 있다. 홍동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태(笞) 30도(度)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03

강종진(姜鍾振), 남, 1883 미상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홍동 구룡

주　　소 : 미상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19,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홍동 사람으로 1919년 4월 홍동면(洪東面)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

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홍동면의 3·1 운동은 4월 4일부터 시작되었다. 홍동면사무소의 「범죄인명부」에는 신기리 이외에 구암리, 문당리, 수란리, 효학리, 금평리, 운원리, 운용리, 월림리, 대평리, 구룡리 등 주민 50명이 4월 7일부터 4월 14일까지 홍성경찰서에서 즉결처분으로 태형을 당한 기록이 있다.

4월 5일에는 신기리 주민 100명이 독립만세를 외쳤다. 『홍동면지』에는 이 시위를 '홍동 신기리 사건' 이라며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이제경(李齊經)·조우식(趙愚植) 등이 3월 5일(양력 4월 5일) 밤 뒷산인 꽃동산에 모여 봉화를 올리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쳤고, 일경의 발포로 이희도(李羲圖)·한명교(韓命敎) 등이 현장에서 죽고 이석만(李錫滿)·안중호(安重浩) 등이 관통상을 입었다. 경찰은 주민들은 닥치는대로 체포하고 13명을 구속, 태형을 가하였다. 성낙붕(成樂朋)씨는 고문의 여독으로 사망하였으며 그로 인해 두 아들이 부인과 함께 사망하여 가정 전체가 몰락하였다.

이 만세운동의 결과는 일경들이 무차별 사격을 가해 2명이 죽고 2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체포 구금된 13명은 태형을 당했다. 또한 4월 8일에도 독립만세를 외쳤는데 『홍동면지』에 '홍동 원천리 사건' 이라며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황윤성(黃允性)은 3·1운동이 터지자 인근을 돌면서 세천부락은 청광산(靑光山)에서, 중원부락은 석삼봉(石三峰)에서, 종현부락은 종현봉(鍾懸峰)에서 4월 8일 일제히 거사하여 만세를 부른 다음 홍동주재소를 기습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들은 약속대로 거사하고 "왜놈은 물

러가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주재소를 기습하였다. 일본 경찰은 물론 조선인 순사들도 모두 도망하였다. 그러나 다음날 본서에서 수십 명의 경찰이 나와 황윤성을 체포하여 고문을 하고 관련자들의 성명을 밝히라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고문에 못이겨 사망하였다.

『홍동면지』에는 이 만세운동의 결과 사망하거나 형을 받은 애국지사 총 63명이 기록되어 있다. 홍동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태(笞) 60도(度)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강춘경(姜春京), 남, 1887. 12. 09~1951. 03. 09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죽림 96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죽림 96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05,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1919년 4월 1일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

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4월 19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05

강태산(姜泰山, 이명 : 姜太山), 남, 1899. 10. 18~1961. 12. 16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죽림 700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죽림 700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18,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1919년 4월 1일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

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60도(度)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8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06

강학삼(姜學三, 이명 : 姜福孫, 姜三圭), 남, 1892. 01. 17~1959. 08. 15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신곡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신곡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06,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금마면(金馬面) 가산리(佳山里)와 홍성시장에서 전개되었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

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1919년 4월 19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07

고락서(高洛西, 이명 : 高洛水+西), 남, 1856. 08. 07~1923. 12. 09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부평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부평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06,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금마면(金馬面) 가산리(佳山里)와 홍성시장에서 전개되었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1919년 4월 23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08

권성필(權聖弼), 남, 1879. 04. 13~1960. 02. 22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덕정 438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덕정 438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05,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1919년 4월 1일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

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4월 23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09

권영갑(權寧甲), 남, 1871. 09. 23~1958. 07. 28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덕정 438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덕정 438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05,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1919년 4월 1일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

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4월 23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10

권용군(權用君, 이명 : 權用根), 남, 1894. 09. 13~1968. 12. 31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용흥 181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용흥 181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05,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1919년 4월 1일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

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4월 23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11

권중복(權重福), 남, 1891. 10. 01~1971. 12. 30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송암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송암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06,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금마면(金馬面) 가산리(佳山里)와 홍성시장에서 전개되었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

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1919년 4월 19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12

권중우(權重隅), 남, 1886. 02. 18~1958. 08. 29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송암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송암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06,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금마면(金馬面) 가산리(佳山里)와 홍성시장에서 전개되었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1919년 4월 19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13

권중협(權重協), 남, 1880. 03. 19~1962. 04. 09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용흥 370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용흥 370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05,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1919년 4월 1일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

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4월 23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14

권중호(權重浩), 남, 1861. 05. 01~1948. 06. 29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송암 171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송암 171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06,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금마면(金馬面) 가산리(佳山里)와 홍성시장에서 전개되었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

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1919년 4월 19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15

권태호(權泰瑚), 남, 1879. 11. 05~1946. 06. 06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덕정 477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덕정 477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05,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1919년 4월 1일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

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4월 23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16

권한복(權漢福), 남, 1903. 11. 21~1970. 11. 24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송암 193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송암 193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05,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1919년 4월 1일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

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4월 19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17

김경천(金敬天), 남, 1887. 07. 08~1955. 07. 10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인산 496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인산 496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05,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1919년 4월 1일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4월 23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18

김공제(金公濟), 남, 1893. 11. 10~1931. 11. 18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장성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장성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05,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1919년 4월 1일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

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4월 14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19

김공필(金公弼), 남, 1891. 08. 09~1925. 02. 27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화양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화양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11,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홍성시장 등지에서 전개된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

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1919년 4월 23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1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20

김구화(金求和), 남, 1880 미상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홍동 운용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홍동 운용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19,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홍동 사람으로 1919년 4월 홍동면(洪東面)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홍동면의 3·1운동은 4월 4일부터 시작되었다. 홍동면사무소의 「범죄인명부」에는 신기리 이외에 구암리, 문당리, 수란리, 효학리, 금평리, 운월리, 운용리, 월림리, 대평리, 구룡리 등 주민 50명이 4월 7일부터 4월 14일까지 홍성경찰서에서 즉결처분으로 태형을 당한 기록이 있다.

4월 5일에는 신기리 주민 100명이 독립만세를 외쳤다. 『홍동면지』에는 이 시위를 '홍동 신기리 사건'이라며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이제경(李齊經)·조우식(趙愚植) 등이 3월 5일(양력 4월 5일) 밤 뒷산인 꽃동산에 모여 봉화를 올리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쳤고, 일경의 발포로 이희도(李羲圖)·한명교(韓命敎) 등이 현장에서 죽고 이석만(李錫滿)·안중호(安重浩) 등이 관통상을 입었다. 경찰은 주민들은 닥치

는대로 체포하고 13명을 구속, 태형을 가하였다. 성낙붕(成樂朋)씨는 고문의 여독으로 사망하였으며 그로 인해 두 아들이 부인과 함께 사망하여 가정 전체가 몰락하였다.

이 만세운동의 결과는 일경들이 무차별 사격을 가해 2명이 죽고 2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체포 구금된 13명은 태형을 당했다. 또한 4월 8일에도 독립만세를 외쳤는데 『홍동면지』에 '홍동 원천리 사건'이라며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 황윤성(黃允性)은 3·1운동이 터지자 인근을 돌면서 세천부락은 청광산(靑光山)에서, 중원부락은 석삼봉(石三峰)에서, 종현부락은 종현봉(鍾縣絳峰)에서 4월 8일 일제히 거사하여 만세를 부른 다음 홍동주재소를 기습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들은 약속대로 거사하고 "왜놈은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주재소를 기습하였다. 일본 경찰은 물론 조선인 순사들도 모두 도망하였다. 그러나 다음날 본서에서 수십 명의 경찰이 나와 황윤성을 체포하여 고문을 하고 관련자들의 성명을 밝히라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고문에 못이겨 사망하였다.

『홍동면지』에는 이 만세운동의 결과 사망하거나 형을 받은 애국지사 총 63명이 기록되어 있다. 홍동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태(笞) 30도(度)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21

김금손(金今孫), 남, 1895. 10. 02~1947. 08. 13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송암 353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송암 353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05,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1919년 4월 1일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4월 19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22

김기봉(金己奉, 이명 : 金奇奉, 金奇奉), 남, 1885. 06. 07~1941. 05. 22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용흥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용흥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05,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1919년 4월 1일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

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

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4월 23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23

김덕필(金德弼, 이명 : 金德必, 金德宣), 남, 1882. 07. 04~1947. 04. 29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장성 190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장성 190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10,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금마면(金馬面) 가산리(佳山里)와 홍성시장에서 전개되었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

(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1919년 4월 14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24

김도손(金道孫), 남, 1893. 08. 11~1922. 09. 13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송암 352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송암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11,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홍성시장 등지에서 전개된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1919년 4월 23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1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25

김동완(金東完), 남, 1882. 02. 15~1945. 01. 02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장곡 화계 508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장곡 화계 508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1996,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장곡 사람으로 장곡면(長谷面)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장곡면의 만세시위는 4월 4일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시작으로, 4월 8일까지 장곡면사무소를 중심으로 이어졌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장곡면에서의 횃불독립만세운동은 윤씨 3

형제(윤형중, 윤익중, 윤낙중)가 주도하고 윤의석(尹宜錫), 윤만수(尹萬洙), 이문재(李文載), 최기석(崔奇錫), 최채선(崔彩仙) 등이 적극 참여한 가운데 화계리, 광성리, 신풍리 주민들이 합세하여 면사무소 뒤편 응봉산(鷹峯山)에서 펼쳐졌다.

김동완 등은 홍성읍 장터에서 3월 7일 만세시위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접하고 장곡면에서도 만세시위를 일으키기로 동지들과 뜻을 모은 뒤 거사일을 4월 7일로 정하였다. 이때 김동완은 거사에 필요한 태극기를 제작하는 한편 동지 규합에 힘을 쏟았다. 그는 4월 7일 화계리(花溪里) 주민들을 마을 남산에 모아놓고 태극기를 꽂고 독립만세를 외쳤고, 4월 8일 밤 11시 시위군중 60여 명과 함께 다시 면사무소에 모여 독립만세를 불렀다.

장곡면사무소를 중심으로 펼쳐졌던 4월 7일과 8일의 만세시위는 김동하(金東河, 金東化) 등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는 장곡면에서도 만세시위를 일으키기로 동지들과 뜻을 모은 뒤 거사일을 4월 7일로 정하고, 거사에 필요한 태극기를 제작하는 한편 동지들의 규합에 힘을 쏟았다. 4월 7일 오경춘(吳敬春, 壽南)이 종을 치며 주민들을 집합시켰고, 김동하는 김동완(金東完)·김용숙(金容肅, 用叔)·김용제(金用濟)·이화춘(李化春)·김차제(金次濟, 化先)·한상철(韓相喆) 등과 함께 태극기를 꽂고 독립선언식을 가진 후 화계리 주민 및 이웃 마을인 광성리와 신풍리 주민 300여 명과 함께 화계리에 근접한 동리 앞산에서 독립만세를 외쳤다.

이후 도산리(道山里) 소재 면사무소로 행진한 그들은 밤 8시에 도착하여 면내 각지에서 몰려 온 사람들과 합류하였다. 500여 명의 시위군중은 면사무소에 직원들이 한 명도 없자, 김동하의 주도로 돌과 곤봉으로 면사무소 기둥과 창문을 파괴하고 공문서를 파기하는 등 격렬히 항쟁하였다.

다음 날인 4월 8일 밤 11시에는 학생과 지역민들 60여 명이 다시 면사무소에 모여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들은 전날 면사무소 습격으로 출동

해 있던 일경과 대치하였지만, 다시 면사무소를 파괴하였다. 그러자 대치하고 있던 일본 군경은 시위대를 향해 총격을 가했고, 시위군중 다수가 부상을 입거나 피체되었다. 이때 일본 군경의 발포로 11명이 체포되고 2명이 부상하였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장곡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41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36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장곡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5월 30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으로 징역 6월과 벌금 30원을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26

김동운(金東雲), 남, 1887. 02. 10~1955. 12. 28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장곡 화계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장곡 화계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02,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장곡 사람으로 장곡면(長谷面)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장곡면의 만세시위는 4월 4일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시작으로, 4월 8일까지 장곡면사무소를 중심으로 이어졌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

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장곡면에서의 횃불독립만세운동은 윤씨 3형제(윤형중, 윤익중, 윤낙중)가 주도하고 윤의석(尹宜錫), 윤만수(尹萬洙), 이문재(李文載), 최기석(崔奇錫), 최채선(崔彩仙) 등이 적극 참여한 가운데 화계리, 광성리, 신풍리 주민들이 합세하여 면사무소 뒤편 응봉산(鷹峯山)에서 펼쳐졌다.

장곡면사무소를 중심으로 펼쳐졌던 4월 7일과 8일의 만세시위는 김동하(金東河, 金東化) 등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는 장곡면에서도 만세시위를 일으키기로 동지들과 뜻을 모은 뒤 거사일을 4월 7일로 정하고, 거사에 필요한 태극기를 제작하는 한편 동지들의 규합에 힘을 쏟았다. 4월 7일 오경춘(吳敬春, 壽南)이 종을 치며 주민들을 집합시켰고, 김동하는 김동완(金東完)·김용숙(金容肅, 用叔)·김용제(金用濟)·이화춘(李化春)·김차제(金次濟, 化先)·한상철(韓相喆) 등과 함께 태극기를 꽂고 독립선언식을 가진 후 화계리 주민 및 이웃 마을인 광성리와 신풍리 주민 300여 명과 함께 화계리에 근접한 동리 앞산에서 독립만세를 외쳤다.

이후 도산리(道山里) 소재 면사무소로 행진한 그들은 밤 8시에 도착하여 면내 각지에서 몰려 온 사람들과 합류하였다. 500여 명의 시위군중은 면사무소에 직원들이 한 명도 없자, 김동하의 주도로 돌과 곤봉으로 면사무소 기둥과 창문을 파괴하고 공문서를 파기하는 등 격렬히 항쟁하였다.

다음 날인 4월 8일 밤 11시에는 학생과 지역민들 60여 명이 다시 면사무소에 모여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들은 전날 면사무소 습격으로 출동해 있던 일경과 대치하였지만, 다시 면사무소를 파괴하였다. 그러자 대치하고 있던 일본 군경은 시위대를 향해 총격을 가했고, 시위군중 다수가 부상을 입거나 피체되었다. 이때 일본 군경의 발포로 11명이 체포되고 2명이 부상하였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장곡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41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36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장곡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1919년 4월 23일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200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27

김동준(金東俊), 남, 1893. 09. 04~1966. 04. 06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장곡 지정 394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장곡 지정 394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05,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장곡 사람으로 1919년 장곡면(長谷面)의 3·1운동에 참여하여 비밀연락책으로 군중을 동원하고 태극기를 제작하는 등의 사전 준비를 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장곡면의 만세시위는 4월 4일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시작으로, 4월 8일까지 장곡면사무소를 중심으로 이어졌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장곡면에서의 횃불독립만세운동은 윤씨 3

형제(윤형중, 윤익중, 윤낙중)가 주도하고 윤의석(尹宜錫), 윤만수(尹萬洙), 이문재(李文載), 최기석(崔奇錫), 최채선(崔彩仙) 등이 적극 참여한 가운데 화계리, 광성리, 신풍리 주민들이 합세하여 면사무소 뒤편 응봉산(鷹峯山)에서 펼쳐졌다.

장곡면사무소를 중심으로 펼쳐졌던 4월 7일과 8일의 만세시위는 김동하(金東河, 金東化) 등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는 장곡면에서도 만세시위를 일으키기로 동지들과 뜻을 모은 뒤 거사일을 4월 7일로 정하고, 거사에 필요한 태극기를 제작하는 한편 동지들의 규합에 힘을 쏟았다. 4월 7일 오경춘(吳敬春, 壽南)이 종을 치며 주민들을 집합시켰고, 김동하는 김동완(金東完)·김용숙(金容肅, 用叔)·김용제(金用濟)·이화춘(李化春)·김차제(金次濟, 化先)·한상철(韓相喆) 등과 함께 태극기를 꽂고 독립선언식을 가진 후 화계리 주민 및 이웃 마을인 광성리와 신풍리 주민 300여 명과 함께 화계리에 근접한 동리 앞산에서 독립만세를 외쳤다.

이후 도산리(道山里) 소재 면사무소로 행진한 그들은 밤 8시에 도착하여 면내 각지에서 몰려 온 사람들과 합류하였다. 500여 명의 시위군중은 면사무소에 직원들이 한 명도 없자, 김동하의 주도로 돌과 곤봉으로 면사무소 기둥과 창문을 파괴하고 공문서를 파기하는 등 격렬히 항쟁하였다.

다음 날인 4월 8일 밤 11시에는 학생과 지역민들 60여 명이 다시 면사무소에 모여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들은 전날 면사무소 습격으로 출동해 있던 일경과 대치하였지만, 다시 면사무소를 파괴하였다. 그러자 대치하고 있던 일본 군경은 시위대를 향해 총격을 가했고, 시위군중 다수가 부상을 입거나 피체되었다. 이때 일본 군경의 발포로 11명이 체포되고 2명이 부상하였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장곡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41명

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36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장곡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1919년 4월 18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28

김동진(金東鎭), 남, 1891. 11. 29~1938. 03. 13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갈산 상촌

주　　소 : 滿洲 吉林省 寧安縣 산지역

운동계열 : 만주방면, 포상년도 : 1990, 훈격 : 애족장

홍성 갈산 사람으로 백야 김좌진(白冶 金佐鎭)의 친동생이다. 그는 1920년 6월 서울에서 임시정부 연통제 및 교통국 설치와 관련한 비밀결사 주비단(籌備團)이 조직되고, 소진형(蘇鎭亨)이 단장에 추대되자 이에 가입하여 군자금 모집 등 활동을 벌이다가 동년 말에 일경에 체포되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1921년 12월에 다행히 면소 석방되었다.

1922년 10월에는 다시 경상도 일대에서 신태식(申泰植)을 단장으로 하여 조직된 의용단(義勇團) 조직에 참가하여 군자금 모집 활동을 하다가 만주로 망명하였다. 1927년 만주에서는 각 독립운동 단체의 통합운동이 한창이었는데, 그는 1928년 1월 김동삼(金東三)이 위원장으로 추대된 군민회의(軍民會議)의 민사위원(民事委員)으로 선임되어 활동하였다. 동년 5월에는 길장연로서방(吉長沿路西方)에 참의부(參議府)·신민부(新民府)·정의부(正義府)의 3부대표가 모여 유일대독립당을 조직하여 각 단체를 통합하는 회의가 있었는데, 그는 김좌진 등과 함께 신민부 대표로 참석하였다.

1929년 초에는 김좌진과 함께 만주 중동현에서 한족연합회를 조직하

여 독립운동을 계속하던 중 1937년 7월 7일에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만주에서 일군에게 포로로 체포되어 국내로 압송되었다. 그리하여 일경에게 모진 고문을 당하는 옥고 끝에 1938년 3월 옥고의 여독으로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29

김동집[金東集, 이명 : 金奉九), 금천동집(金川東集)], 남, 1883. 11. 20~1962. 02. 16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장곡 화계 266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장곡 화계 266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19,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장곡 사람으로 장곡면(長谷面)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장곡면의 만세시위는 4월 4일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시작으로, 4월 8일까지 장곡면사무소를 중심으로 이어졌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장곡면에서의 횃불독립만세운동은 윤씨 3형제(윤형중, 윤익중, 윤낙중)가 주도하고 윤의석(尹宜錫), 윤만수(尹萬洙), 이문재(李文載), 최기석(崔奇錫), 최채선(崔彩仙) 등이 적극 참여한 가운데 화계리, 광성리, 신풍리 주민들이 합세하여 면사무소 뒤편 응봉

산(鷹峯山)에서 펼쳐졌다.

장곡면사무소를 중심으로 펼쳐졌던 4월 7일과 8일의 만세시위는 김동하(金東河, 金東化) 등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는 장곡면에서도 만세시위를 일으키기로 동지들과 뜻을 모은 뒤 거사일을 4월 7일로 정하고, 거사에 필요한 태극기를 제작하는 한편 동지들의 규합에 힘을 쏟았다. 4월 7일 오경춘(吳敬春, 壽南)이 종을 치며 주민들을 집합시켰고, 김동하는 김동완(金東完)·김용숙(金容肅, 用叔)·김용제(金用濟)·이화춘(李化春)·김차제(金次濟, 化先)·한상철(韓相喆) 등과 함께 태극기를 꽂고 독립선언식을 가진 후 화계리 주민 및 이웃 마을인 광성리와 신풍리 주민 300여 명과 함께 화계리에 근접한 동리 앞산에서 독립만세를 외쳤다.

이후 도산리(道山里) 소재 면사무소로 행진한 그들은 밤 8시에 도착하여 면내 각지에서 몰려 온 사람들과 합류하였다. 500여 명의 시위군중은 면사무소에 직원들이 한 명도 없자, 김동하의 주도로 돌과 곤봉으로 면사무소 기둥과 창문을 파괴하고 공문서를 파기하는 등 격렬히 항쟁하였다.

다음 날인 4월 8일 밤 11시에는 학생과 지역민들 60여 명이 다시 면사무소에 모여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들은 전날 면사무소 습격으로 출동해 있던 일경과 대치하였지만, 다시 면사무소를 파괴하였다. 그러자 대치하고 있던 일본 군경은 시위대를 향해 총격을 가했고, 시위군중 다수가 부상을 입거나 피체되었다. 이때 일본 군경의 발포로 11명이 체포되고 2명이 부상하였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장곡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41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36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장곡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면사무소를 습격하는 등의 활동으로 일경에 체포된 그는 1919년 벌금(罰金) 30원(圓)을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30

김동하(金東河, 이명 : 金東化), 남, 1892. 11. 02~1940. 06. 06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장곡 가송190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장곡 가송190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1992, 훈격 : 애족장

홍성 장곡 사람으로 4월 7일 장곡면(長谷面)에서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계획하고 화계리(花溪里) 앞산에서 주민들을 규합, 500여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대한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시위행진하여 도산리(道山里)에 있는 면사무소를 습격, 건물을 부수며 공문서 및 기물 등을 파손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장곡면의 만세시위는 4월 4일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시작으로, 4월 8일까지 장곡면사무소를 중심으로 이어졌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장곡면에서의 횃불독립만세운동은 윤씨 3형제(윤형중, 윤익중, 윤낙중)가 주도하고 윤의석(尹宜錫), 윤만수(尹萬洙), 이문재(李文載), 최기석(崔奇錫), 최채선(崔彩仙) 등이 적극 참여한 가운데 화계리, 광성리, 신풍리 주민들이 합세하여 면사무소 뒤편 응봉산(鷹峯山)에서 펼쳐졌다.

장곡면사무소를 중심으로 펼쳐졌던 4월 7일과 8일의 만세시위는 김동하(金東河, 金東化) 등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는 장곡면에서도 만세시위를 일으키기로 동지들과 뜻을 모은 뒤 거사일을 4월 7일로 정하고, 거사

에 필요한 태극기를 제작하는 한편 동지들의 규합에 힘을 쏟았다. 4월 7일 오경춘(吳敬春, 壽南)이 종을 치며 주민들을 집합시켰고, 김동하는 김동완(金東完)·김용숙(金容肅, 用叔)·김용제(金用濟)·이화춘(李化春)·김차제(金次濟, 化先)·한상철(韓相喆) 등과 함께 태극기를 꽂고 독립선언식을 가진 후 화계리 주민 및 이웃 마을인 광성리와 신풍리 주민 300여 명과 함께 화계리에 근접한 동리 앞산에서 독립만세를 외쳤다.

이후 도산리(道山里) 소재 면사무소로 행진한 그들은 밤 8시에 도착하여 면내 각지에서 몰려 온 사람들과 합류하였다. 500여 명의 시위군중은 면사무소에 직원들이 한 명도 없자, 김동하의 주도로 돌과 곤봉으로 면사무소 기둥과 창문을 파괴하고 공문서를 파기하는 등 격렬히 항쟁하였다.

다음 날인 4월 8일 밤 11시에는 학생과 지역민들 60여 명이 다시 면사무소에 모여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들은 전날 면사무소 습격으로 출동해 있던 일경과 대치하였지만, 다시 면사무소를 파괴하였다. 그러자 대치하고 있던 일본 군경은 시위대를 향해 총격을 가했고, 시위군중 다수가 부상을 입거나 피체되었다. 이때 일본 군경의 발포로 11명이 체포되고 2명이 부상하였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장곡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41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36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장곡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던 그는 시위 이후 신의주(新義州)로 피신하였으나 1920년 1월 일본 헌병에게 신의주에서 잡혔으며, 2월 5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형을 언도받고 공소하였다. 그러나 3월 25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되고 4월 19일 고등법원에서도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31

김동혁(金東赫), 남, 1901. 11. 15~1948. 09. 14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광천 옹암 217

주　　소 : 서울 낙원 1690

운동계열 : 학생운동, 포상년도 : 2008, 훈격 : 애족장

홍성 광천 사람으로 서울에서 배재고등보통학교을 다니면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였다. 그는 1919년 3월 1일 서울의 배재고등보통학교(培材高等普通學校) 재학 중에 교우 임창준(林昌俊)에게서 독립선언서 6매를 받아 남대문 안의 민가에 배포하였다. 그리고, 3월 2일 학생 허신(許信)에게서 〈조선독립신문〉 제2호 10부를 받아 낙원동 부근의 민가에도 배포하였다. 또한 3월 5일 다시 허신으로부터 〈조선독립신문〉 제3호 7~8매를 받아 낙원동 부근의 민가에 배포하며 시위를 선도하다 체포되었다.

그는 1919년 11월 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출판·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출옥한 이후 김동혁은 1923년 1월 조선물산장려회의 조사부 상무이사, 1929년 8월 신간회(新幹會)의 회보 편집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조국의 독립을 위한 활동을 끊임없이 지속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32

김동화(金東化), 남, 1884. 06. 15 미상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홍동 구룡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홍동 구룡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19,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홍동 사람으로 1919년 4월 홍동면(洪東面)에서 전개된 독립만세

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홍동면의 3·1운동은 4월 4일부터 시작되었다. 홍동면사무소의 「범죄인명부」에는 신기리 이외에 구암리, 문당리, 수란리, 효학리, 금평리, 운원리, 운용리, 월림리, 대평리, 구룡리 등 주민 50명이 4월 7일부터 4월 14일까지 홍성경찰서에서 즉결처분으로 태형을 당한 기록이 있다.

4월 5일에는 신기리 주민 100명이 독립만세를 외쳤다. 『홍동면지』에는 이 시위를 '홍동 신기리 사건'이라며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이제경(李齊經)·조우식(趙愚植) 등이 3월 5일(양력 4월 5일) 밤 뒷산인 꽃동산에 모여 봉화를 올리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쳤고, 일경의 발포로 이희도(李羲圖)·한명교(韓命敎) 등이 현장에서 죽고 이석만(李錫滿)·안중호(安重浩) 등이 관통상을 입었다. 경찰은 주민들은 닥치는대로 체포하고 13명을 구속, 태형을 가하였다. 성낙붕(成樂朋)씨는 고문의 여독으로 사망하였으며 그로 인해 두 아들이 부인과 함께 사망하여 가정 전체가 몰락하였다.

이 만세운동의 결과는 일경들이 무차별 사격을 가해 2명이 죽고 2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체포 구금된 13명은 태형을 당했다. 또한 4월 8일에도 독립만세를 외쳤는데 『홍동면지』에 '홍동 원천리 사건'이라며 다

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황윤성(黃允性)은 3·1운동이 터지자 인근을 돌면서 세천부락은 청광산(靑光山)에서, 중원부락은 석삼봉(石三峰)에서, 종현부락은 종현봉(鍾懸峰)에서 4월 8일 일제히 거사하여 만세를 부른 다음 홍동주재소를 기습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들은 약속대로 거사하고 "왜놈은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주재소를 기습하였다. 일본 경찰은 물론 조선인 순사들도 모두 도망하였다. 그러나 다음날 본서에서 수십 명의 경찰이 나와 황윤성을 체포하여 고문을 하고 관련자들의 성명을 밝히라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고문에 못이겨 사망하였다.

『홍동면지』에는 이 만세운동의 결과 사망하거나 형을 받은 애국지사 총 63명이 기록되어 있다. 홍동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태(笞) 30도(度)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33

김래문(金來文), 남, 1893 미상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장성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장성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19,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1919년 4월 1일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태(笞) 30도(度)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34

김만복(金萬福), 남, 1902. 10. 07~1925. 01. 12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장성 145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장성 145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07,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금마면(金馬面) 가산리(佳山里)와 홍성시장에서 전개되었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

(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1919년 4월 14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35

김병길(金炳吉), 남, 1881. 07. 17~1931. 11. 15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부평 173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부평 173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06,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금마면(金馬面) 가산리(佳山里)와 홍성시장에서 전개되었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

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1919년 4월 23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36

김복한(金福漢, 字 : 元五), 남, 1860. 07. 24~1924. 03. 29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서부 이호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서부 이호
운동계열 : 의병, 포상년도 : 1963, 훈격 : 독립장

홍성 서부 사람으로 1895년 명성황후가 시해되고 단발령이 시행되자 안병찬·이설(李偰) 등과 함께 홍주의병을 일으켰고, 1906년 민종식과 함께 다시 홍주의병을 거의하여 일제에 항거하였고 1919년 호서유림을 대표하여 독립청원서인 파리장서를 발송하였다.

그는 안동(安東)으로 사람됨이 헌앙(軒昻)하고 지조가 굳었다. 1892년에 별시 문과(別試文科)에 급제하여 교리(校理)와 양사(兩司)에 제수되었고, 다음 해에 사서(司書)에 제수되고 통정(通政)으로 승임되었으며, 이어서 대사성, 형조참의(大司成, 刑曹參議)를 거쳐 1894년 승지(承旨)에 제수되었다. 그 해 6월에 갑오개혁이 시작되고 모든 제도를 고쳐 일본식의 신제도가 채택되자, 관직을 버리고 고향 충남 홍주(洪州)로 귀향하여 스스로 지조를 지키고자 하였다.

1895년 이른바 을미사변과 단발령(斷髮令)이 내려졌다. 김복한은 이

대로 수수방관(袖手傍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그의 내종형이 되는 전 승지 이설(李偰)과 함께 동학농민운동을 수습하는데 공이 컸으므로 관찰사로 임용된 이승우(李勝宇)를 설득하여 창의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승우는 의병 일으키는 일에 대하여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국정 개혁을 반대하는 일은 동학농민운동을 수습하는 일과는 다른 일일 뿐더러 자신의 이해관계에 상반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한편 같은 홍주 땅에 살고 있던 안병찬(安炳瓚)과 임한주(林翰周), 그리고 임피현령(臨陂縣令) 오영석(吳榮錫)도 거병할 생각을 갖고 이승우에게 의향을 떠보았으나 역시 실패하였다. 이때에 홍주 남쪽에 살고 있던 안병찬의 부친 안창식(安昌植)은 박창로(朴昌魯)·이봉학(李鳳學)·이세영(李世永)·정제기(鄭濟驥)·송병직(宋秉稷)·조병고(趙秉皐)·김정하(金正河) 등과 의논하여 민병 180명을 소집하여 채광묵(蔡光默)으로 하여금 거느려 아들과 함께 거사할 준비를 마쳤다.

이에 대중들의 뜻을 확인한 김복한은 홍주 입성 날짜를 1895년 12월 1일로 확정하고 성내에 있던 홍건(洪楗)을 통하여 관찰사의 의중을 재차 확인하였다. 홍건은 관찰사 이승우가 자진하여 먼저 군사를 발동할 인물이 아니니 의진의 뜻대로 일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홍건 역시 일이 닥치자 마음이 흔들려 믿을 만 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규합되지 못하고 있을 때 박창로, 청양(靑陽) 현감 정인희(鄭寅羲) 등이 의병 수백 명씩을 보내어 후원하였다. 이에 용기 백배하여 송병직(宋秉稷)·이세영(李世永) 등이 관문으로 들어가 새로이 설치한 경무청을 부수고 참서관(參書官) 함인학(咸仁鶴)·경무관(警務官) 강인선(姜仁善)을 포박하고 죽이고자 하였다. 일이 이쯤 발전되자 이승우가 만류하면서 창의하는 데에 협조할 것을 약조하였다. 스스로 관찰사라는 일본식의 관명을 버리고 홍주목사 겸 창의대장이 되어 각 포구와 열읍에 창의한 것을 알렸다.

12월 3일 각 의병진의 대표들이 김복한을 수석으로 삼고, 홍주 관하의 각 고을과 공주부(公州府)의 각 면으로 통문을 보내어 독자·노약자를

제외하고 집마다 군정 1명씩을 징집케 하였다.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하여 송병직을 서면 소모관으로, 채광묵·이창서를 남면 소모관으로, 그리고 이세영·이봉학·이병승을 공주(公州)로 파견하였으며, 박창로·정제기는 임존산성(任存山城)을 수비하도록 내보냈다. 오직 성안에는 김복한·홍건·안병찬·이상린이 남아서 창의소 일을 관장하고 있었다. 거의한지 며칠이 되지도 않았는데 홍건과 이승우는 내외의 명망가의 호응이 없음을 초조히 여겨서 김복한을 힐문하였다. 한편 청양현감 정인희는 창의소를 본읍에 설치하고 포군(砲軍) 5백 명과 화포(火砲) 천 자루를 보내 달라고 요청해 왔다. 그러나 홍주의진의 본부에는 그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보내 주지 못하였다.

12월 4일 김복한과 이설이 성중 본부에 있는데 관찰사 이승우의 초청을 받았다. 수상하게 여겨 여러 사람이 구하려고 하는데 강호선(姜浩善)이 순검들을 데리고 와서 체포하여 구금하였다. 안병찬·이상린 등이 관문을 부수고 구하고자 하였으나 그들 역시 체포당하였다. 이리하여 의진의 수뇌격 인사들이 차례로 구금되었다.

그후에 홍주의진의 기치 아래에 의거를 일으키고자 서산군수(瑞山郡守) 성하영(聖夏永)·남양부사(南陽府使) 남백희(南百熙)·대흥군수(大興郡守) 이창세(李昌世)·전 승지 김병억(金炳億)·정인희 등이 군사를 발동하여 홍주 근처까지 이르렀을 때 이 소식을 듣고 모두 돌아가 버렸다. 그 중에 정인희는 이웃 고을과 연합하여 관군과 접전하였으나 경무관 강호선에게 패하였다.

김복한은 체포된 후 함께 수감된 안병찬에게 "일이 이미 실패되었으니 죽을 따름이다" 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장례 및 후사까지 유언하였다. 그리고 절조 없는 이승우에게 기대하였던 자신을 자책하였다. 끝내 이승우도 경무관 강호선의 모함에 빠지고 말았다. 을미 홍주의병에 관련되어 체포된 23명중 6명이 서울로 압송되어 갔다. 즉 김복한을 위시하여 이설·안병찬·송병직·이상린·홍건 이었다. 이들은 1896년 2월 고등재

판소 재판장 이범진(李範晋)에게 문초를 받았는데 김복한은 의병 일으킨 의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술하였다.

"복한은 대대로 녹을 먹은 집안으로 남달리 나라 은혜를 입었사오니 죽음을 맹서하고 나라에 보답해야 하겠다는 생각은 본래부터 축적된 것입니다. 갑오(甲午)년 6월 이후 시골에 엎드려 그대로 죽으려고 했던 것이온데 지난 8월에 큰 변을 보고서는 너무도 원통하고 더 살고 싶지 않은데다 다시 또 11월 15일 사건이 생겼으니 이것이 모두 흉역(凶逆)의 행위가 아닙니까. 임금님의 욕되심이 극도에 달하자 신자의 충정이 더욱 격하여 마침내 시국 형세와 자기 역량을 계산하지 않고 다만 원수를 갚고 부끄러움을 씻어 보겠다는 목표 하에 의거를 제창했던 것이 온데. 모사가 치밀하지 못하여 마침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만약 경솔히 거사했다는 이유로써 죄를 주신다면 실로 달게 받겠으며, 본시 의리를 망각하고 당을 모아 변을 일으키자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2월 25일 김복한은 10년 유형을 선고받았다. 홍건·이상린·송병직·안병찬은 3년 유형 그리고 이설은 곤장 80대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그날 밤으로 고종은 이들의 충성심을 감안하여 모두 석방하고, 아울러 홍주의진에 관련되어 홍주성에 수감된 17인도 모두 석방하도록 특지(特旨)를 내렸다.

김복한은 즉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짐을 꾸려 보령(保寧)산중으로 들어가 학도들과 강론하여 지냈다. 그의 재능을 아끼는 신기선(申箕善)의 추천으로 성균관장(成均·長)에 제수되었으나 "…학식 없는 몸이 이 직책을 맡을 수도 없거니와 더구나 받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본다. 지금 의리가 없어지고 강상이 무너져서 원수놈도 아직 물리지 못했고 역적도 다 처

벌되지 못했는데 만약 이때에 은혜를 느끼고 위엄을 두려워하여 명령을 받게 된다면 소신을 어김과 동시에 교화에 대한 죄가 어떠하겠는가. 은명(恩命)을 거역하는 것이 극히 불안스러움을 모르는 바 아니나 천성이 변할 수도 없고 소신을 굽힐 수도 없다…"하여 사양하였다. 1897년에 다시 중추원(中樞院) 의관(議官)을 제수받았으나, 지병인 각기병을 핑계하여 사양하였다. 그 해에 명성황후를 복위(復位)하고 예장(禮葬)을 시행하게 되자, 그의 족형인 판서 김종한(金宗漢)이 편지를 보내어 관직에 나갈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김복한은 퇴계(退溪)와 도암(陶庵)도 인산(因山)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후세의 군자들이 그것을 비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현재의 정황을 감당할 능력이 없음을 들어 여전히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다.

1905년 을사조약이 늑결되자 을사의병이 거국적으로 일어났다. 을미의병의 동지인 안병찬이 민종식(閔宗植)과 더불어 의병을 일으켜 일군과 크게 접전하다가 1906년 2월 23일 체포되었다.앞서 이설은 김복한이 신병으로 누워 있으므로 의거할 짝이 없음을 한탄하고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홀로 누워 있을 수만은 없었다. 마침내 이설과 함께 병든 몸을 이끌고 서울에 올라와 상소하여 역적을 성토했다. 이일로 1개월간 투옥되었다가 석방되었다. 그 이후 안병찬과 함께 의거한 민종식은 홍주 방면으로 진출 유준근(柳濬根)·이 식(李·) 등의 추대로 의병대장이 되어서 1906년 4월 26일 홍주성에 입성하였으며, 만여 명의 연합의진이 구성되었다. 그러나 윤 4월 7일 일진회원의 내통으로 홍주성은 함락 당하고, 이어서 일제는 의병관계자 소탕전을 전개하였다. 겨우 피신하여 의병운동을 전개하던 민종식·이용규 등이 모두 체포당하였다. 김복한은 이들 민종식 등 홍주의진과 연루되었다 하여 10월 28일 공주부(公州府)의 관헌들에 의해 체포되어 11월 1일 서울로 압송되었다. 여기에서는 일인 보조원 단우현태랑(丹羽賢太郎)의 문초를 받았다. 문초과정에서 단우는 오히려 김복한을 숭배하는 마음이 생겨 신병으로 고생하는 그를 위하여 편의를 봐 주고자 하였으나 여러 가지 방해가 있어 형용할 수 없는 고초를 겪

었다. 문초의 내용은 민종식과 을미의병과의 관계 등이었다. 그러나 만나고 싶어하던 만종식을 보지 못하여 한스럽게 여겼다. 결국 민종식과 의병활동을 전개하였다는 증거를 찾지 못한 일제는 11월 26일 김복한을 석방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풀려 나오면서 민종식에게 시 한 수를 부쳤다. 민종식은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후에 특사로 풀려났다. 1907년 10월 또다시 홍주의진의 인물들에 대한 체포령이 내려졌다. 10월 1일 안병찬 형제와 윤난수(尹蘭秀)·이필한(李弼漢)·조광희(趙光熙) 등 5인이 홍주에서 체포 구금되었다가 공주부로 압송되었다. 그리고 13일에는 김복한·박홍양(朴鴻陽)·이훈영(李薰榮)이 보령(保寧)에서 체포되어 공주부로 압송되었다. 김복한은 압송되던 길에 조현(槽峴)에 이르러 일인 순사에게 곤장으로 두들겨 맞고 또 총으로 위협 사격까지 받았다. 그들은 복한에게 군사를 주둔시켜 둔 곳을 대라고 위협한 것이다. 왜냐하면 전에 복한이 청양 서평(靑陽黍坪)의 명정진(明鼎鎭)의 집에 들렀을 때 강도 5, 6명의 습격을 받은 일이 있었는데 그때 복한의 신분을 알고 그들 중 한 사람이 "왜 창의를 하지 않느냐"고 질문하여 "지모도 재물도 없어서 창의하지 못한다"고 대답하니 "포군 천 명과 돈 만냥을 드릴 터이니 원수를 갚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였던 일이 있었다. 이 일이 후에 누설되어 체포 선풍이 일게 된 것이다. 공주부에 수감되는 사람들은 모두 머리카락을 잘리우는데 경무관 황종복(黃鍾復)의 노력으로 면할 수 있었다. 온갖 수욕을 받다가 석방되어 돌아온 복한은 다음과 같은 시를 남겼다.

年年橫逆問何因
어째서 해마다 횡액을 당하느냐
守舊一心讓人
남에게 못지 않는 수구심(守舊心)때문이야 죽고
覺死生終有命
삶은 마침내 운명이 있어

殘骸收拾渡熊津
병든 몸 간신히 공주를 벗어났네.
萬端危辱倍前年
갖가지 치욕이 연전보다 더하거니
只愧孤臣尙苟全
외로운 신하 산다는 것 부끄럽구려
此時自靖非容易
깨끗이 몸 갖기도 쉽지 않으니
却羨淵明臥葛天
오히려 도연명이 부러워진다.

이러한 피를 토하는 충절에도 불구하고 일제의 침략 야욕을 불식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되어 갔다. 그러한 마지막 고비에 안중근(安重根)의 의거를 보고, 홍주의거에 대한 반성인 듯 다음과 같은 시 한 수를 읊었다.

諸葛扶劉張報韓
제갈량은 유씨를 돕고 장량은 한(韓)을 도와
苦心大義炳如丹
고심한 대의는 불꽃같이 빛났으나
谷中火熄椎虛擲
골짜기에서 불이 꺼지고 철퇴를 헛날렸으니
總讓爾賓一砲丸
이 모두 하얼빈의 총알만도 못하였구나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다시 파리 평화회의에 보내는 독립청원서를 작성, 서명하였으며 서명자 137명이 모두 일경에 체포되었고 그는

서울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결국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63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37

김봉근(金奉根), 남, 1894. 09. 16~1976. 01. 10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덕정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덕정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06,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금마면(金馬面) 가산리(佳山里)와 홍성시장에서 전개되었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

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1919년 4월 23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38

김봉안(金鳳安, 이명 : 金奉安, 金奉安), 남, 1903. 08. 07~1977. 02. 17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장성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장성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07,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금마면(金馬面) 가산리(佳山里)와 홍성시장에서

전개되었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1919년 4월 14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39

김사응(金思應), 남, (1883) 1922. 04. 14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홍동 대평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홍동 대평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19,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홍동 사람으로 1919년 4월 홍동면(洪東面)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홍동면의 3·1운동은 4월 4일부터 시작되었다. 홍동면사무소의 「범죄인명부」에는 신기리 이외에 구암리, 문당리, 수란리, 효학리, 금평리, 운원리, 운용리,

월림리, 대평리, 구룡리 등 주민 50명이 4월 7일부터 4월 14일까지 홍성경찰서에서 즉결처분으로 태형을 당한 기록이 있다.

4월 5일에는 신기리 주민 100명이 독립만세를 외쳤다. 『홍동면지』에는 이 시위를 '홍동 신기리 사건'이라며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이제경(李齊經)·조우식(趙愚植) 등이 3월 5일(양력 4월 5일) 밤 뒷산인 꽃동산에 모여 봉화를 올리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쳤고, 일경의 발포로 이희도(李羲圖)·한명교(韓命敎) 등이 현장에서 죽고 이석만(李錫滿)·안중호(安重浩) 등이 관통상을 입었다. 경찰은 주민들은 닥치는대로 체포하고 13명을 구속, 태형을 가하였다. 성낙붕(成樂朋)씨는 고문의 여독으로 사망하였으며 그로 인해 두 아들이 부인과 함께 사망하여 가정 전체가 몰락하였다.

이 만세운동의 결과는 일경들이 무차별 사격을 가해 2명이 죽고 2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체포 구금된 13명은 태형을 당했다. 또한 4월 8일에도 독립만세를 외쳤는데 『홍동면지』에 '홍동 원천리 사건'이라며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 황윤성(黃允性)은 3·1운동이 터지자 인근을 돌면서 세천부락은 청광산(靑光山)에서, 중원부락은 석삼봉(石三峰)에서, 종현부락은 종현봉(鍾縣峰)에서 4월 8일 일제히 거사하여 만세를 부른 다음 홍동주재소를 기습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들은 약속대로 거사하고 "왜놈은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주재소를 기습하였다. 일본 경찰은 물론 조선인 순사들도 모두 도망하였다. 그러나

> 다음날 본서에서 수십 명의 경찰이 나와 황윤성을 체포
> 하여 고문을 하고 관련자들의 성명을 밝히라 하였으나
> 이를 거부하고 고문에 못이겨 사망하였다.

『홍동면지』에는 이 만세운동의 결과 사망하거나 형을 받은 애국지사 총 63명이 기록되어 있다. 홍동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태(笞) 30도(度)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40

김상억(金商億), 남, 1885. 10. 22~1960. 09. 08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신곡 89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신곡 89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05,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1919년 4월 1일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

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4월 19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41

김성실(金聖實), 남, 1878 미상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인산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11,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홍성시장 등지에서 전개된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

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1919년 4월 23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1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42

김성칠(金聖七), 남, 1886 미상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홍동 구룡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홍동 구룡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19,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홍동 사람으로 1919년 4월 홍동면(洪東面)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홍동면의 3·1운동은 4월 4일부터 시작되었다. 홍동면사무소의 「범죄인명부」에는 신기리 이외에 구암리, 문당리, 수란리, 효학리, 금평리, 운원리, 운용리, 월림리, 대평리, 구룡리 등 주민 50명이 4월 7일부터 4월 14일까지 홍성경찰서에서 즉결처분으로 태형을 당한 기록이 있다.

4월 5일에는 신기리 주민 100명이 독립만세를 외쳤다. 『홍동면지』에는 이 시위를 '홍동 신기리 사건' 이라며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이제경(李齊經)·조우식(趙愚植) 등이 3월 5일(양력 4월 5일) 밤 뒷산인 꽃동산에 모여 봉화를 올리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쳤고, 일경의 발포로 이희도(李羲圖)·한명교(韓命敎) 등이 현장에서 죽고 이석만(李錫滿)·안중호(安重浩) 등이 관통상을 입었다. 경찰은 주민들은 닥치는대로 체포하고 13명을 구속, 태형을 가하였다. 성낙붕(成樂朋)씨는 고문의 여독으로 사망하였으며 그로 인해 두 아들이 부인과 함께 사망하여 가정 전체가 몰락하였다.

이 만세운동의 결과는 일경들이 무차별 사격을 가해 2명이 죽고 2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체포 구금된 13명은 태형을 당했다. 또한 4월 8일에도 독립만세를 외쳤는데 『홍동면지』에 '홍동 원천리 사건' 이라며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 황윤성(黃允性)은 3·1운동이 터지자 인근을 돌면서 세천부락은 청광산(靑光山)에서, 중원부락은 석삼봉(石

三峰)에서, 종현부락은 종현봉(鍾懸峰)에서 4월 8일 일제히 거사하여 만세를 부른 다음 홍동주재소를 기습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들은 약속대로 거사하고 "왜놈은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주재소를 기습하였다. 일본 경찰은 물론 조선인 순사들도 모두 도망하였다. 그러나 다음날 본서에서 수십 명의 경찰이 나와 황윤성을 체포하여 고문을 하고 관련자들의 성명을 밝히라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고문에 못이겨 사망하였다.

『홍동면지』에는 이 만세운동의 결과 사망하거나 형을 받은 애국지사 총 63명이 기록되어 있다. 홍동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태(笞) 30도(度)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43

김영배(金永培), 남, 1888. 12. 10~1943. 07. 30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송암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송암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11,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홍성시장 등지에서 전개된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1919년 4월 19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

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1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44

김 용(金容, 이명 : 金澤謙), 남, 1920 미상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홍북 신경 76

주　　소 : 경상북도 대구 신 115. 5

운동계열 : 국내항일, 포상년도 : 1995, 훈격 : 건국포장

홍성 홍북 사람으로 공주고등보통학교에서 명랑클럽을 조직하고 일제에 항거하였다. 1936년 3월 공주고등보통학교(公州高等普通學校) 재학 중에 같은 학교 학생인 이용준(李鎔俊), 김용갑(金溶甲), 김한석(金漢奭), 김해인(金海仁), 구자훈(具滋勳), 최낙권(崔洛權) 등 6명과 함께 '명랑(明朗)클럽' 을 조직한 그는 회원들과 함께 일어사용 금지, 산사참배 거부, 악질적 민족차별 및 일본인교사 배척 등의 항일운동을 하였으며 무궁화 식수의 장려, 미신타파 등 민족의식의 고취와 계몽활동을 하였다. 또한 당시 한국이 독립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대립관계에 있는 미국과 영국의 원조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미국·영국계 선교사와 교류를 강화해 갔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기독교도로 포섭하는 한편 항일의식을 고취하는데 힘을 쏟았다. 이때 이들은 하층민을 대상으로 의식계몽에 역점을 두었다. 그는 1940년 3월 졸업 후 일본으로 유학하여 일본체육전문학교(日本體育專門學校)를 마치고, 1942년 3월부터 대구의 계성학교(啓聖學校) 교원으로 근무하였다. 1942년 6월 명랑클럽 회원인 천영관(千永寬)이 "일본은 불원하여 패망한다"고 발설한 말이 단서가 되어 명랑클럽의 회원이 체포될 때 함께 검거된 그는 1942년 9월 30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포장을 수여하였다.

45

김용갑(金溶甲), 남, 1920. 07. 25~1995. 12. 07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홍북 신경 76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홍북 신경 76

운동계열 : 학생운동, 포상년도 : 1990, 훈격 : 애족장

홍성 홍북 사람으로 공주고등보통학교에서 명랑클럽을 조직하고 일제에 항거하였다. 1936년 3월 공주고등보통학교(公州高等普通學校) 재학 중에 같은 학교 학생인 이용준(李鎔俊), 김용(金容), 김한석(金漢奭), 김해인(金海仁), 구자훈(具滋勳), 최낙권(崔洛權) 등 6명과 함께 '명랑(明朗)클럽'을 조직한 그는 회원들과 함께 일어사용 금지, 산사참배 거부, 악질적 민족차별 및 일본인교사 배척 등의 항일운동을 하였으며 무궁화 식수의 장려, 미신타파 등 민족의식의 고취와 계몽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1942년 6월 명랑클럽 회원인 천영관(千永寬)이 "일본은 불원하여 패망한다"고 발설한 말이 단서가 되어 명랑클럽의 회원이 체포될 때 함께 검거되었다. 그리하여 1942년 9월 30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받고 대전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고 1943년 12월 14일 출옥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6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46

김용숙(金容肅, 이명 : 金用叔), 남, 1896. 06. 21~1966. 05. 18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장곡 광성 9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장곡 광성 9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1995,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장곡 사람으로 4월 7일 장곡면(長谷面)에서 500여 주민을 주도하여 독립만세를 고창하고 항일 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장곡면의 만세시위는 4월 4일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시작으로, 4월 8일까지 장곡면사무소를 중심으로 이어졌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장곡면에서의 횃불독립만세운동은 윤씨 3형제(윤형중, 윤익중, 윤낙중)가 주도하고 윤의석(尹宜錫), 윤만수(尹萬洙), 이문재(李文載), 최기석(崔奇錫), 최채선(崔彩仙) 등이 적극 참여한 가운데 화계리, 광성리, 신풍리 주민들이 합세하여 면사무소 뒤편 응봉산(鷹峯山)에서 펼쳐졌다.

장곡면사무소를 중심으로 펼쳐졌던 4월 7일과 8일의 만세시위는 김동하(金東河, 金東化) 등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는 장곡면에서도 만세시위를 일으키기로 동지들과 뜻을 모은 뒤 거사일을 4월 7일로 정하고, 거사에 필요한 태극기를 제작하는 한편 동지들의 규합에 힘을 쏟았다. 4월 7일 오경춘(吳敬春, 壽南)이 종을 치며 주민들을 집합시켰고, 김동하는 김동완(金東完)·김용숙(金容肅, 用叔)·김용제(金用濟)·이화춘(李化春)·김차제(金次濟, 化先)·한상철(韓相喆) 등과 함께 태극기를 꽂고 독립선언식을 가진 후 화계리 주민 및 이웃 마을인 광성리와 신풍리 주민 300여 명과 함께 화계리에 근접한 동리 앞산에서 독립만세를 외쳤다.

이후 도산리(道山里) 소재 면사무소로 행진한 그들은 밤 8시에 도착하여 면내 각지에서 몰려 온 사람들과 합류하였다. 500여 명의 시위군중은

면사무소에 직원들이 한 명도 없자, 김동하의 주도로 돌과 곤봉으로 면사무소 기둥과 창문을 파괴하고 공문서를 파기하는 등 격렬히 항쟁하였다.

다음 날인 4월 8일 밤 11시에는 학생과 지역민들 60여 명이 다시 면사무소에 모여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들은 전날 면사무소 습격으로 출동해 있던 일경과 대치하였지만, 다시 면사무소를 파괴하였다. 그러자 대치하고 있던 일본 군경은 시위대를 향해 총격을 가했고, 시위군중 다수가 부상을 입거나 피체되었다. 이때 일본 군경의 발포로 11명이 체포되고 2명이 부상하였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장곡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41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36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장곡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1919년 6월 30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벌금 30원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47

김용제(金用濟), 남, 1893. 08. 28~1974. 06. 01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장곡 화계 261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장곡 화계 261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1993,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장곡 사람으로 1919년 4월 4부터 전개되었던 장곡면(長谷面)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정도까지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4월 6

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남도에서 많은 운동이 전개되었다. 홍성읍에서는 3월 7일 만세시위가 일어난 것을 시작으로 각 면에서도 만세시위가 불같이 일어났다. 장곡면의 만세시위는 1919년 4월 4일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시작으로, 4월 8일까지 장곡면사무소를 중심으로 이어졌다. 4월 4일 홍성군의 장곡면, 금마면, 구항면, 홍동면 등 4개면의 20~24개 장소에서 횃불만세운동이 전개되었다. 장곡면에서의 횃불독립만세운동은 윤씨 3형제(윤형중, 윤익중, 윤낙중)가 주도하고 윤의석(尹宜錫), 윤만수(尹萬洙), 이문재, 최기석(崔奇錫), 최채선(崔彩仙) 등이 적극 참여한 가운데 화계리, 광성리, 신풍리 주민들이 합세하여 매봉산에서 펼쳐졌다. 장곡면사무소를 중심으로 펼쳐졌던 4월 7일과 8일의 만세시위는 김동완(金東完) 등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는 장곡면에서도 만세시위를 일으키기로 동지들과 뜻을 모은 뒤 거사일을 4월 7일로 정하고, 거사에 필요한 태극기를 제작하는 한편 동지들의 규합에 힘을 쏟았다. 4월 7일 오경춘(吳敬春, 壽南)이 종을 치며 주민들을 집합시켰고, 김동완은 김동하(金東河)·김용숙(金容肅, 用叔)·김용제(金用濟)·이화춘(李化春)·김차제(金次濟, 化先)·한상철(韓相喆) 등과 함께 태극기를 꽂고 독립선언식을 가진 후 화계리 주민 및 이웃 마을인 광성리와 신풍리 주민 300여 명과 함께 화계리의 응봉산(鷹峰山)에서 독립만세를 외쳤다. 이후 도산리(道山里) 소재 면사무소로 행진한 그들은 밤 8시에 도착하여 면의 각지에서 몰려 온 사람들과 합류하였다. 500여 명의 시위군중은 면사무소에 직원들이 한 명도 없자, 김동하의 주도로 돌과 곤봉으로 면사무소 기둥과 창문을 파괴하고 공문서를 파기하는 등 격렬히 항쟁하였다. 다음 날인 4월 8일 밤 11시에는 김동완을 비롯한 시위군중 60여 명이 다시 면사무소에 모여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들은 전날 면사무소 습격으로 출동해 있던 일경과 대치하였지만, 다시 면사무소를 파괴하였다. 그러자 대치하고 있던 일본 군경은 시위대를 향해 총격을 가했고, 시위군중 다수가 부상을 입거나 체포되었다. 이때 일본 군경의 발포로

11명이 체포되고 2명이 부상하였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장곡면에서 위와 같은 탄압을 받은 사람은 41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36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장곡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5월 30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48

김우진(金宇鎭, 이명 : 金宇震, 金宇鐘), 남, 1890. 04. 27~1952. 12. 31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고도 상촌 349
주　　소 : 中國 上海 自爾路 去益 24
운동계열 : 임시정부, 포상년도 : 1995, 훈격 : 애국장

홍성 사람으로 서울의 3·1운동에 참가하여 옥고를 치르고, 상해로 망명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 임시위정원·대한청년동맹회·의열단 등에서 독립운동을 하였다. 김좌진(金佐鎭)의 친족인 그는 1919년 3월 서울에서 3·1운동이 전개되자 이에 참가하여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하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그 후 중국 상해(上海)로 망명하여 동년 4월 탄생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입법기관이자 독립운동 방략을 논의·결정하는 기구인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 제3차 회의에서 의정원 의원으로 선임되어 임시의정원법(臨時議政院法)을 통과시키는 등 1925년까지 약 7년간 임시정부 기본법의 기초 수립 활동과 함께 조국 광복에 필요한 각 부 위원의 인선에 관여하기도 하였다. 1924년 1월 상해에서 임시정부의 후원조직으로 결성된

대한청년동맹회(大韓青年同盟會)의 후보감찰위원(候補監察委員)으로 선임된 그는 당시 상해 근교가 중국 내전으로 인해 혼란해지자, 상해 불란서 조계(租界)에 위치한 임시정부와 그 요인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의경대(義警隊)를 조직하여 불란서 관헌의 조계 경비를 돕는 등 불란서와 원만한 관계를 맺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그 후 김원봉(金元鳳)이 이끄는 의열단(義烈團)에 가입하여 간부로 활동하였으며, 1925년 8월경 중국 북경(北京)으로 건너가 한인 학생들을 규합하여 학생회를 조직하고 조사부 위원으로서 새로 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편의를 제공하고 항일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등 민족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다가 일제의 요주의 인물로 선정되어 체포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49

김운제(金雲濟), 남, 1888. 05. 06~1961. 11. 15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장성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장성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19,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1919년 4월 1일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30도(度)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201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50

김응칠(金應七), 남, 1880. 10. 15~1921. 11. 11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월암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월암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11,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홍성시장 등지에서 전개된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

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1919년 4월 23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1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51

김재돈(金在敦), 남, 1890. 12. 21~1958. 05. 05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가산 99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가산 99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06,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금마면(金馬面) 가산리(佳山里)와 홍성시장에서 전개되었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1919년 4월 23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

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52

김재욱(金在旭), 남, 1887. 09. 10~1919. 06. 05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가산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가산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11, 훈격 : 애족장

홍성 금마 사람으로 홍성시장 등지에서 전개된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1919년 4월 23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고 태형 여독으로 1919년 6월 5일 사망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53

김재순(金在淳, 이명: 金光在淳), 남, 1893. 02. 10~1969. 12. 10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가산 208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가산 208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19,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1919년 4월 1일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3·1운동

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 · 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4월 14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30도(度)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54

김재준(金在俊), 남, 1883. 01. 11~1951. 10. 06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가산 200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가산 200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05,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1919년 4월 1일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

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4월 23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55

김재철(金再哲), 남, 1891. 02. 14~1950. 01. 12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부평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부평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06,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홍성시장 등지에서 전개된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홍성 금마 사람으로 금마면(金馬面) 가산리(佳山里)와 홍성시장에서 전개되었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1919년 4월 23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56

김재홍(金在洪), 남, 1871. 04. 26~1932. 03. 09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가산 200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가산 200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1995,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1919년 4월 1일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3·1운동에 참여 독립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

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1919년 4월 30

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아 공소하였으나 5월 30일 경성복심법원과 7월 3일 고등법원에서 각각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57

김제석(金濟石), 남, 1886. 09. 03~1960. 07. 25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덕정 648. 1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덕정 648. 1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05,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1919년 4월 1일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

(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4월 23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58

김종삼(金鍾三), 남, 1888. 07. 26~1952. 08. 30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덕정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덕정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05,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1919년 4월 1일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

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4월 14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59

김종석(金鍾錫), 남, 1874. 10. 12~1936. 03. 12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신곡 345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신곡 345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06, 훈격 : 애족장

홍성 금마 사람으로 충남 부여군(扶餘郡)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그는 1919년 3월 2일부터 충남 부여군(扶餘郡) 부여면(扶餘面) 천도교 교구실에서 서울로부터 익산군(益山郡)과 논산군(論山郡) 천도교구를 거쳐 전달되어 온 독립선언서를 받았고, 이를 천도교구실에 있던 교인들과 나누어 갖고 그날 밤 각 지역에 배포하였다. 이로 인해 체포된 그는 1919년 4월 4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60

김종진(金宗鎭, 이명 : 沈雄), 남, 1901. 12. 26~1931. 07. 11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구항 내현 366

주　　소 : 中國 中東線 海林驛 附近

운동계열 : 만주방면, 포상년도 : 1990, 훈격 : 애국장

홍성 구항 사람으로 3월 7일 홍성읍의 만세운동에 참여하고 중국으로 망명하여 족형인 김좌진과 함께 무장독립투쟁을 하였고, 아나키스트로도 활동하였다. 그는 조선시대 절사신(節死臣) 안동후인(安東后人) 선원 김상용(仙源 金尙容)의 제11대손으로 참봉을 지낸 부친 영규(泳圭)와 모친 청송 심씨 사이에서 4남으로 태어났고, 10세 때 재당숙(學圭)에게 출계하였다. 호는 시야(是也)이며, 김좌진의 6촌 동생이다.

그는 1919년 3월 7일 홍성읍에서 전개되었던 만세운동을 주도하다 구속되었다. 수개월동안 옥고를 겪던 그는 6월말 미성년이란 이유로 석방되었다. 이후 상경하여 중동중학 속성과(中東中學速成科)에 들어간 그는 지하운동에 전념하였다. 1920년 4월 그는 봉천(奉天)으로 망명하여 형 김연진(金淵鎭)과 같이 내외연락을 하던 중 국내로 무기를 반입하다가 홍경식(洪景植)이 체포되자 동년 가을 다시 북경(北京)으로 피신하였다.

북경에서 홍성 의병이었던 이세영(李世永), 북로군정서 대표 조성환(曺成煥), 이회영(李會榮) 등 다수 동지들과 접촉하면서 내외정세를 관망하던 그는 독립운동가로서 자신의 교육과 훈련의 필요성을 깨닫고 상해임시정부 법무총장(法務總長) 신규식(申圭植)을 찾아가 소개를 받고 운남성 군관학교 교도대(雲南省軍官學校教導隊)에 입대하였다. 그후 교도대 2년, 군관학교 2년반의 교육과정을 밟고 무인으로서의 실력은 물론 정치·경제·사회 각 방면의 지식을 고루 갖추고 1925년 9월에 졸업하였다. 그가 졸업하고 돌아온 당시 상해의 독립운동진영은 민족주의·

공산주의·무정부주의 등 3파로 나누어져 있었다. 그중 무정부주의자들과 의기가 상통했던 그는 독립운동의 근거지인 북만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고자 1926년 봄 남경(南京)·한구(漢口)·무창(武昌) 등을 돌아다니면서 동지규합에 나섰다. 1927년 10월에는 북만으로 가 신민부(新民府)의 지도자이며 족형(族兄)인 김좌진을 방문하였다. 김좌진으로부터 북만의 제반사정을 들은 그는 각 지방의 실정과 적정(賊情)을 살피기 위하여 중동길돈연선(中東吉敦沿線)과 장백(長白)·무송(撫松) 등 일대를 시찰한 뒤 1928년 8월 김좌진에게 전운동조직의 개편과 재훈련, 교민에게 항일반공계몽운동을 전개할 필요성과 아울러 교포와 독립군과의 단결이 긴요함을 건의하였다.

1929년 7월에는 사상계몽단체로 재만조선무정부주의자연맹(在滿朝鮮無政府主義者聯盟)을 조직하고 그 대표가 되었으며, 김좌진의 위탁으로 신민부의 개편정비작업에도 착수하였다. 동년 8월에는 교민의 자치단체로서 재만한족총연합회(在滿韓族總聯合會)를 결성하고 일체 조직을 일원화하여 그 조직부 위원장 겸 농무부 위원장에 취임한 후 사상계몽과 적색분자 제거, 농민의 집단정착 및 민심의 안정에 주력하였다. 동년 12월 10일에는 북만 해림(海林)에서 교포자제의 자주 자립정신을 배양하기 위한 민립중학기성회(民立中學期成會)를 전명원(全明源, 일명 李乙奎)·김야운(金野雲)·이강훈(李康勳) 등과 함께 창설하였고, 집행위원으로 활동하였다. 1930년 봄에는 북경에서 개최된 재중국조선무정부주의자대표대회에 북만대표로 참석하여 북만한족총연합회운동에 참여할 것을 결의케 하였으며, 그 결과 동년 말에 다수 동지가 만주로 들어와 독립운동이 크게 활기를 띠게 되었다. 그러나 1931년 7월 11일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중동선해림역(中東線海林驛) 교외에서 살해당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61

김좌진(金佐鎭), 남, 1889. 12. 16~1930. 01. 24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고도 삼촌

주　　소 : 중국 동녕 소수분

운동계열 : 만주방면, 포상년도 : 1962, 훈격 : 대한민국장

홍성 갈산 사람으로 1920년 대한군정서군을 지휘하여 청산리 백운평·천수평·어랑촌 등지의 전투에서 대승하였고, 대한독립단·신민부·한족총연합회 등의 조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만주에서의 무장투쟁을 이끌었다. 그는 당시 홍주군 고남하도면 행촌리(갈산면 행산리)에서 김형규(金衡圭)와 한산 이씨 사이에서 차남으로 태어났다.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명여(明汝), 호는 백야(白冶) 이다. 3세때 부친이 돌아가시고, 편모 슬하에서 성장하였다. 어려서 홍주의병을 이끌었던 김복한(金福漢)에게 의리정신과 민족수호정신을 배웠다. 한문사숙의 선생인 김광호(金光浩)에게 배우면서 민족문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일찍부터 서울에서 생활했던 조카 김석범의 영향을 받아 계몽의식을 키우게 되었다.

1904년에서 1905년 사이 김좌진은 집안의 노비들을 해방시키면서 토지를 나누어 주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노비제도는 1894년의 갑오개혁 때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신분질서는 엄존하였고, 노비도 여전히 가장 하층민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민족해방운동은 봉건적 신분의 해방으로부터 시작한다. 이에 박상진·이상룡·김좌진·이회영·여운형·류인식 등의 독립운동가들은 독립운동에 나서며 자기 집의 노비를 해방시켰다. 그가 노비 해방을 단행한 시기는 기록에 따라 15~17세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사실 자체는 명백하다. 부호로서 많은 노비를 거느리고 있던 그는 어느 날 노비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인 뒤에 노비 문서를 불태우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전답을 노비들에게 골고루 나눠주었다. 그리고 곧 신교육운동을 전개하여 호명학교의 설립을

주도하였다. 가노를 해방시키고 학교 건립에 나서는 것은 김좌진과 류인식이 거의 같은 시기에, 같은 방법으로 벌인 계몽운동이었다. 현재 그의 홍성 생가 대문 입구에는 '가노를 해방시킨 것은 민족의 봄이요(家奴解放民族春), 청산리 대첩은 광복의 몸통이다(靑山大捷光復身)' 라는 문구가 새겨져 걸려 있다. 이는 가노 해방과 청산리 대첩을 그의 대표적 업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1906년에서 1907년 사이 그는 안동 김씨 문중의 김병익(金炳翊)·김병수(金炳秀)·김병원(金炳鵷)·김병학(金炳學)·김선규(金善圭) 등과 함께 '호서지역을 밝게 한다 '는 뜻을 담은 사립 호명학교 설립에 참여하였다. 호서지역을 개명(開明)한다는 뜻을 가지고 세워진 이 학교는 개화와 신학문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홍성지역의 젊고 유능한 학생들에게 개명과 부강, 신교육을 통한 국권회복의식을 심어주었다. 1908년 재학생이 100여 명에 달할 정도였고, 소학과와 중등과로 과정이 나누어져 있었다. 이 학교는 이후 갈산공립보통학교로 개편되었고, 1923년 현재의 자리로 이전하였다.

1907년경 부인 오숙근(吳淑根)과 함께 서울로 올라간 그는 김덕규에게 양자로 출계한 형 경진의 집에 머물렀다. 그러면서 계동에 있는 윤치성(尹致晟)의 집을 출입하며, 이곳에서 노백린(盧伯麟)·이갑(李甲)·유동열(柳東說) 등과 교류하였고, 군사학과 군사전략도 배웠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는 이 무렵 박상진(朴尙鎭)을 만나 의형제를 맺었다. 1921년 박상진이 순국하자 그는 자신을 '의제(義弟)' 라고 칭하며 「곡박의사상진씨(哭朴義士尙鎭氏)」라는 만사를 보내는데, '결의도원이십년(結義桃園二十年)' 이라는 문구를 통해 이들이 상경시절 만났음을 짐작하게 한다. 한편 그가 1907년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大韓帝國 陸軍武官學校)를 졸업했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기록은 1930년 2월 13일자 『동아일보』 기사가 유일하다.

상경한 이후 그는 1907년 4월 조직된 신민회(新民會)의 활동에 동참

한 것으로 보이며 청년학우회(靑年學友會)에도 참여하였다. 1909년 4월 그는 1908년 1월에 조직되고 1909년 1월 지회설립이 인가된 기호흥학회(畿湖興學會) 홍주지회에 임원진으로 참여한다. 당시 홍성지회에는 김병수(회장)·김병익·김선규·김병원 등의 문중 인사와 군수 윤필, 군자금 모금을 함께 했던 이기필(李起弼) 등이 임원과 회원으로 참여하였다. 이 지회는 3개 면에 1개 학교 설립을 위한 활동을 펴는 등 홍성지역의 구국교육운동을 선도하였다.

1908년에는 오성학교(五星學校) 교감을 지내고 청년학우회원(靑年學友會員) 및 한성신보(漢城新報) 이사로서 민족정신의 고취에 진력하였으며, 1910년에 일제가 한국을 강점하였을 때에는 이창양행(怡昌洋行)이란 무역회사를 설립하여 독립운동가들의 집합처로 삼는 한편 남북만주와 연락하는 비밀기관으로 하였다. 1915년에는 노백린·신현대(申鉉大)·윤홍중(尹洪重)·박성태(朴性泰)·기명섭(奇明燮)·김홍두(金弘斗) 등과 함께 박상진(朴尙鎭)이 주도한 광복회(光復會)에 참가하여 국내 각지를 통하여 항일운동에 맹렬한 활동을 전개하던 중 일경에게 체포되어 서대문감옥에서 3년간 옥고를 치렀다. 1917년 출옥하였으나, 일경들은 또 다시 체포하려 하자 두만강을 건너 만주로 망명하였다.

서울에서 생활하며 민족운동가들과 교류하던 그는 1907년 4월 조직된 신민회(新民會)의 활동에 동참한 것으로 보이며 청년학우회(靑年學友會)에도 참여하였다. 또한 그는 신민회 인사인 윤치성(尹致晟)·노백린(盧伯麟)·유동열(柳東說)·이갑(李甲) 등과 어울리며 군사학과 군사전략을 배웠다. 1909년 4월 그는 1908년 1월에 조직되고 1909년 1월 지회설립이 인가된 기호흥학회(畿湖興學會) 홍주지회에 임원진으로 참여한다. 당시 홍성지회에는 김병수(회장)·김병익·김선규·김병원 등의 문중 인사와 군수 윤필, 군자금 모금을 함께 했던 이기필(李起弼) 등이 임원과 회원으로 참여하였다. 이 지회는 3개 면에 1개 학교 설립을 위한 활동을 펴는 등 홍성지역의 구국교육운동을 선도하였다.

1910년에 일제가 한국을 강점하였을 때에는 이창양행(怡昌洋行)이란 무역회사를 설립하여 항일독립운동가들의 집합처로 삼는 한편 남북만주와 연락하는 비밀기관으로 하였다. 1915년에는 노백린·신현대(申鉉大)·윤홍중(尹洪重)·박성태(朴性泰)·기명섭(奇明燮)·김홍두(金弘斗) 등과 함께 박상진(朴尙鎭)이 주도한 대한광복회(大韓光復會)에 참가하여 국내 각지를 통하여 항일운동에 맹렬한 활동을 전개하던 중 일경에게 체포되어 서대문(西大門)감옥에서 3년간 옥고를 치렀다. 1917년 출옥하자 일경들은 또다시 그를 체포하려고 하였으며, 이에 두만강을 건너 만주로 망명하였다. 1919년초 3·1독립선언서의 전주곡인 대한독립선언서(大韓獨立宣言書)를 서일(徐一)·여준(呂準)·정신(鄭信)·유동열(柳東說)·신팔균(申八均) 등 38인과 함께 서명하여 발표하였으며, 동년 8월 7일에는 서일·현천묵(玄天默)·계화(桂和)·이장녕(李章寧)·김규식(金圭植)·이범석(李範奭)·조성환(曺成煥)·박성태·정신·김찬수(金燦洙)·박두희(朴斗熙)·홍충희(洪忠熹)·이홍해(李鴻來)·윤창현(尹昌鉉)·나중소(羅仲昭)·김성(金星) 등과 함께 정의단(正義團)을 근본적으로 개편하여 임전태세의 군정부(軍政府)를 편성하였다. 여기서 그는 북로사령부 제2연대장 겸 간북총판국(墾北總辦局) 재무참사(財務參事)로 일하였다. 그후 동년 12월에 북로군정서(北路軍政署)라고 개칭하고 진용을 정비할 때에 총사령관으로서 총재 서일을 보필하는 한편, 왕청현 십리평(汪淸縣 十里坪)에 사관연성소(士官鍊成所)를 설치하고 400명의 독립군 간부를 양성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시베리아에 출병했던 체코 군대의 특별한 호의로 동북만주의 독립군 부대는 1920년에 노령 해삼위(露領 海蔘威)에서 무기를 구입하여 완전한 무장을 갖추고 많은 군자금과 무기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 사실을 탐지한 일본 육군성(陸軍省)은 중국 군벌 장작림(張作霖)에게 압력을 가하는 한편 시베리아에 출병했다가 남하하는 일본군 제19사단과 나남(羅南)의 제20사단에게 명령하여 북로군정서를 협공하게 하였

다. 이에 장백산(長白山)으로 들어가 독립군의 실력을 더 양성시키기위하여 왕청현(汪淸縣) 서대파구(西大坡溝) 청산리(靑山里)로 군대를 이끌었던 그는 일본군 3대대가 무산(茂山)으로부터 습격해 온다는 정보를 듣고 곧 임전태세를 갖추었다. 10월 18일에 청산리 백운평(白雲坪) 전방 숲속의 유리한 지점에 독립군을 매복시킨 그는 일본군의 내습에 대기하게 하고 편의대(便衣隊)에게 적의 병력을 정확하게 파악하게 하였으며, 적진 부근의 교포를 시켜 독립군의 병력이 미약하고 투지가 없다는 정보를 흘려 일본군이 독립군을 경시하게 하였다. 그리고 독립군을 2개 중대로 편성하여 제1중대는 그가 직접 지휘하고, 제2중대는 연성대장(鍊成隊長) 이범석(李範奭)에게 지휘하게 하였다.

일본군은 독립군의 병력이 보잘 것 없다는 말을 듣고 동월 20일 의기양양하게 청산리를 3면으로 포위하고 기병대 일부를 가지고 대담하게 아무 저항도 받지 않고 백운평 삼림으로 진입하였다. 이때 그는 주도면밀한 작전지휘로 백운평 전방에 매복한 독립군에게 일제 사격을 명령하여 적의 전위부대를 전멸시켰으며 계속적인 전투를 통하여 일본군 가납(加納) 연대장을 비롯하여 3,300여명을 섬멸하는 커다란 승리를 거두었다. 이는 소수의 병력으로 10배가 넘는 일군을 물리친 전사상(戰史上) 보기 드문 대승리였다. 그는 이곳 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하들을 인솔하고 밀산(密山)으로 이동, 밀산에 집결한 10개의 독립운동단체를 통합하여 대한독립군단(大韓獨立軍團)을 결성하고 부총재에 취임하였다.

1921년에는 전 독립군을 인솔하고 노령(露領) 이만으로 건너갔다가 뒤에 자유시(自由市)로 다시 이동했으며 1922년에는 소련당국의 배신으로 자유시참변을 겪게 되었다. 이후 북만주 영안(寧安)으로 탈출하여 1925년 3월 15일 김혁(金赫)·최호(崔灝)·나중소(羅仲昭)·조성환·박성태·유정근(柳正根)·허빈(許斌)·정신·이일세(李一世) 등과 함께 전 북로군정서 정신에 입각한 신민부(新民府)를 조직하고, 군사부 위원장 겸 총

사령에 선임되었다. 그리고 목릉현(穆陵縣) 소추풍(小秋風)에 성동사관학교(城東士官學校)를 설립하고 부교장으로서 교장 김혁 등과 아울러 독립군 간부양성에 전력을 다하였다. 동년 10월 10일에는 상해(上海)의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에서 그를 임시정부 국무원(國務員)에 임명하였으나 사양하여 취임하지 않고 계속하여 만주에서 독립군을 양성하며 대일항쟁에 전력을 기울였다.

1927년 2월 신민부 본부가 일본 경찰의 급습을 받아 중앙집행위원장 김혁 이하 12명의 간부가 체포되었다. 그는 신민부를 재정비하고 중앙집행위원장에 취임하여 신민부를 통할하는 한편 중국구국군 사령관(中國救國軍 司令官) 양우일(楊宇一)과 회담하여 일본군을 격퇴하기 위한 공동전선을 취하기로 합의하고 동년 8월에 중국 국민당 동삼성공작책임자 공패성(貢沛誠)·장령(將領) 악유준(岳維峻)·사가헌(史可軒) 등과 회동하여 한·중 연합군(韓中聯合軍)을 조직하고 일본군을 섬멸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일제의 압력을 받은 장작림(張作霖)이 공패성·사가헌·악유준 등을 체포하고 탄압함으로써 이 계획은 좌절되었다.

1928년에는 참의부(參議府)·신민부·정의부(正義府)의 3개 단체통합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였으나 각 단체의 이해 관계로 실패하고 혁신의회(革新議會)만을 구성하였다. 1929년에는 정신·민무(閔武)·김종진(金宗鎭)·이을규(李乙奎)·유운초(劉雲樵)·한규범(韓奎範)·이종주(李鍾柱)·조각산(趙覺山)·이달(李達) 등과 함께 중동선(中東線) 일대에서 한족총연합회(韓族總聯合會)를 조직하고 주석(主席)에 취임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영안현 일대 동포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중동선 산시역(山市驛) 부근에 정미소를 설치하였고, 북만동포의 중등교육을 위한 북만중학(北滿中學) 설립을 추진하여 토지를 확보하였다. 그는 1930년 1월 24일 (음력 1929. 12. 25) 정미소에서 작업을 하던 중 공산주의자로 전향한 종전의 부하이며 일제 고등경찰에게 포섭되었던 고려공산당(高麗共産黨) 청년회원이며 재중한인청년동맹(在中靑年同盟)회원인 박상실

(朴尙實)에게 암살당하였다. 암살범인 박상실의 본명은 공도진(公道珍)·이복림(李福林) 등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김좌진의 암살의 배경에는 일제와 만주총국 간부였던 김봉환(金奉煥, 일명 金一星)이 있었다. 한족총연합회가 결성될 당시 북만지역에는 화요파, 서울·상해파, ML파 등 3개의 공산주의 세력이 있었고, 화요파인 조선공산당 만주총국과 신민부 시절부터 갈등이 깊었다. 김좌진이 한족총연합회를 결성할 때 '반공'을 기치로 내걸었고, 만주총국도 이 단체의 조직을 격렬히 반대했었다. 그리고 김봉환은 공산주의 문장을 발표한 일로 하얼빈 일본영사관에 체포되었으나, 고등계 형사 마쓰시마(松島)가 비밀계약을 맺고 석방시켰다는 주장이 당시에도 제기되었다.

한족총연합회에서 그의 장례 준비를 시작하고, 1930년 1월 27일 장례준비회를 개최하여 70여 명의 동지들이 참석하였다. 장례의 총책임은 권화산, 대변인은 이강훈, 서무는 전명원·이지산·이달 등이 맡았고, 장례는 사회장으로 결정되었다. 장례식은 1930년 3월 25일 1천여 명의 조문객과 30여 단체의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오전 9시에 거행되었고, 장례행렬은 10여 리에 이어졌다. 김좌진의 묘소는 자경촌(현재 신흥촌)에 안장되었으나, 1931년 만주사변 이후 이장하기로 결정되었다. 1934년 홍성에서 산시까지 방문한 부인 오숙근 여사는 4월 동지들의 도움을 받아 방물장수로 위장해 그의 유해를 홍성으로 옮겼고, 종산인 서부면 이호리에 밀장하였다. 1945년 광복 이후 봉분이 조성되었고, 1958년 1월 부인이 타계하자 아들 김두한이 현재 충남 보령시 청소면 재정리 산 50번지로 묘소를 이장하였다. 보령시는 1971년 묘역정비사업을 시작해 1989년 완료했고, 10월 22일을 제향일로 정하고 추모제를 거행하고 있다. 홍성군은 1989년부터 1998년 1월까지 생가지 성역화사업을 추진해 생가와 문간채·사랑채를 복원하고 김좌진장군기념관(백야기념관)과 사당인 백야사를 건립하였다. 2007년에는 생가 및 사당 주변 16,400㎡에 백야공원을 조성했고, 1949년 대한청년단 홍성군단이 성금을 모아 조성

한 '고대한독립군총사령관백야김좌진장군추념비'를 남산공원에서 옮겨 왔다. 홍성군은 이곳에서 매년 10월 25일 청산리 전투 승전기념일에 맞춰 추모제를 거행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62년에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하였다.

62

김주현(金周鉉, 이명 : 김두현), 남, 1876. 09. 11~1952. 01. 12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가산 157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가산 157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05,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1919년 4월 1일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4월 23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63

김차제(金次濟, 이명 : 金化先), 남, 1871. 09. 07~1941. 02. 13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장곡 화계 269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장곡 화계 269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1997,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장곡 사람으로 장곡면(長谷面)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장곡면의 만세시위는 4월 4일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시작으로, 4월 8일까지 장곡면사무소를 중심으로 이어졌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장곡면에서의 횃불독립만세운동은 윤씨 3형제(윤형중, 윤익중, 윤낙중)가 주도하고 윤의석(尹宜錫), 윤만수(尹萬洙), 이문재(李文載), 최기석(崔奇錫), 최채선(崔彩仙) 등이 적극 참여한 가운데 화계리, 광성리, 신풍리 주민들이 합세하여 면사무소 뒤편 응봉산(鷹峯山)에서 펼쳐졌다.

장곡면사무소를 중심으로 펼쳐졌던 4월 7일과 8일의 만세시위는 김동하(金東河, 金東化) 등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는 장곡면에서도 만세시위를 일으키기로 동지들과 뜻을 모은 뒤 거사일을 4월 7일로 정하고, 거사에 필요한 태극기를 제작하는 한편 동지들의 규합에 힘을 쏟았다. 4월 7일 오경춘(吳敬春, 壽南)이 종을 치며 주민들을 집합시켰고, 김동하는 김동완(金東完)·김용숙(金容肅, 用叔)·김용제(金用濟)·이화춘(李化春)·김차제(金次濟, 化先)·한상철(韓相喆) 등과 함께 태극기를 꽂고 독립선언식을 가진 후 화계리 주민 및 이웃 마을인 광성리와 신풍리 주민 300여 명과 함께 화계리에 근접한 동리 앞산에서 독립만세를 외쳤다.

이후 도산리(道山里) 소재 면사무소로 행진한 그들은 밤 8시에 도착하여 면내 각지에서 몰려 온 사람들과 합류하였다. 500여 명의 시위군중은 면사무소에 직원들이 한 명도 없자, 김동하의 주도로 돌과 곤봉으로 면사무소 기둥과 창문을 파괴하고 공문서를 파기하는 등 격렬히 항쟁하였다.

다음 날인 4월 8일 밤 11시에는 학생과 지역민들 60여 명이 다시 면사무소에 모여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들은 전날 면사무소 습격으로 출동해 있던 일경과 대치하였지만, 다시 면사무소를 파괴하였다. 그러자 대치하고 있던 일본 군경은 시위대를 향해 총격을 가했고, 시위군중 다수가 부상을 입거나 피체되었다. 이때 일본 군경의 발포로 11명이 체포되고 2명이 부상하였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장곡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41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36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장곡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5월 30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으로 태(笞) 90도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7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64

김창윤(金昌允), 남, 1895. 10. 16~1968. 03. 01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가산 311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가산 311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05,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1919년 4월 1일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3·1운동

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

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4월 23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65

김화인(金和仁), 남, 1898. 12. 17~1944. 05. 13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화양 179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화양 179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06,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금마면(金馬面) 가산리(佳山里)와 홍성시장에서 전개되었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

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1919년 4월 23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66

남기원(南箕元), 남, 1879. 02. 06~1961. 03. 20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용흥 382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용흥 382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05,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1919년 4월 1일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

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4월 23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67

남중희(南重熙), 남, (1873) (1945. 06)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결성 덕우

주　　소 : 만주

운동계열 : 만주방면, 포상년도 : 2005, 훈격 : 애족장

홍성 결성 사람으로 중국으로 망명하여 신민부(新民府)의 경무부장(警務部長) 등으로 활동하며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는 1927년 중국 훈춘(琿春) 석두하자(石頭河子)에서 신민부 경무부장으로 활동했다. 김좌진(金佐鎭)과 동향이었던 남중희는 그와 함께 독립군으로 활동하였다. 신민부 간부로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던 그는 1928년 1월 일본 경찰과 중국군 1개 중대가 신민부를 습격하였을 때 중앙집행위원장 김혁(金赫) 등이 체포된 이후 2월 경리부 위원장 유정근(俞正根) 등과 함께 체포되었다. 그는 이 일로 1929년 징역 2년을 받아 신의주감옥(新義州監獄)에서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김좌진 장군의 피살 사실을 알고 은둔 생활

을 하였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68

노을룡(盧乙龍, 이명 : 盧月龍, 盧一龍), 남, 1895. 03. 28 (1944)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오관

주　　소 : 中國 北京 日蓮寺內

운동계열 : 중국방면, 포상년도 : 1995, 훈격 : 독립장

홍성 홍성읍 사람으로 중국으로 망명하여 의열단 단원, 남경 중앙육군군관학교의 교관 등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1919년 중국 상해로 망명한 뒤 의열단(義烈團)에 가입하여 암살 및 파괴공작 활동을 전개하였다. 1924년 1월 중국에서 국공합작(國共合作)을 성사시키며 항일투쟁을 전개하자, 그가 속한 의열단 역시 의열투쟁에서 대중투쟁으로 노선을 전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24년 4월 김원봉(金元鳳)이 중국 국민혁명의 대본영이 되어버린 광동(廣東)에 머물면서 국민정부와 한중연합을 통한 반제·반일투쟁을 강화할 것을 역설하여 1926년 봄, 장개석(蔣介石)으로부터 황포군관학교(黃埔軍官學校)의 입교를 허락받았다.

이에 따라 1926년 3월 김원봉·박효삼(朴孝三) 등 의열단원들과 황포군관학교 제4기생으로 입교한 그는 보병과에 소속되어 전술학·군제학·병기학·군대정치공작 등을 학습하고 10월 동교를 졸업하였다. 졸업 후 중국의 국민혁명군(國民革命軍) 초급장교로 임관한 그는 김원봉과 함께 광동에 머물며 의열단을 혁명정당(革命政黨)으로 전환할 것을 결의하는 한편, 동년 12월 일어난 광주봉기(廣州蜂起)에 박건웅 등과 함께 참여하여 반일혁명투쟁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그 후 1927년 4월 왕자량(王子良) 등과 함께 의열단 남창지방집행위원회(南昌地方執行委員會)에 소속

되어 활동하면서 동년 8월 남창봉기(南昌蜂起)에 참여하여 혁명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후 1931년 후반기부터 본격화되는 일제의 중국대륙 침략으로 촉발된 중국민의 반일의식을 배경으로 김원봉 등과 함께 중국 국민당정부(國民黨政府)의 재정적·군사적 지원을 토대로 의열단의 독자적인 항일투쟁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한중연합방안을 타진하였다. 그리하여 1932년 장개석의 원조로 김원봉이 중국 남경에 위치한 중국중앙육군군관학교(中國中央陸軍軍官學校) 교외의 탕산(湯山)에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朝鮮革命軍事政治幹部學校)를 설립하자, 1932년부터 1933년까지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 제1기생 대부실(隊附室) 교관으로 부대교련 등을 담당, 사관생도를 양성·파견하여 독립운동 일선에서 활동하게 하였다. 1933년 말에는 남경 중앙육군군관학교 교육총대(教育總隊) 제4대 교관으로 근무하면서 1935년 북경에서 의열단원 김시현(金始顯) 등과 함께 한인 부일배(附日輩)를 처단하였고, 하남성(河南省) 개봉(開封)에서 일제 비밀 정보원인 중국인을 처단하는 등 활동을 전개하다가 1944년경 일경에 체포되어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69

노인식(盧仁植), 남, 1900 미상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홍동 신기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홍동 신기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19,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홍동 사람으로 1919년 4월 홍동면(洪東面)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

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홍동면의 3·1운동은 4월 4일부터 시작되었다. 홍동면사무소의 「범죄인명부」에는 신기리 이외에 구암리, 문당리, 수란리, 효학리, 금평리, 운원리, 운용리, 월림리, 대평리, 구룡리 등 주민 50명이 4월 7일부터 4월 14일까지 홍성경찰서에서 즉결처분으로 태형을 당한 기록이 있다.

4월 5일에는 신기리 주민 100명이 독립만세를 외쳤다. 『홍동면지』에는 이 시위를 '홍동 신기리 사건'이라며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이제경(李齊經)·조우식(趙愚植) 등이 3월 5일(양력 4월 5일) 밤 뒷산인 꽃동산에 모여 봉화를 올리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쳤고, 일경의 발포로 이희도(李羲圖)·한명교(韓命敎) 등이 현장에서 죽고 이석만(李錫滿)·안중호(安重浩) 등이 관통상을 입었다. 경찰은 주민들은 닥치는대로 체포하고 13명을 구속, 태형을 가하였다. 성낙붕(成樂朋)씨는 고문의 여독으로 사망하였으며 그로 인해 두 아들이 부인과 함께 사망하여 가정 전체가 몰락하였다.

이 만세운동의 결과는 일경들이 무차별 사격을 가해 2명이 죽고 2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체포 구금된 13명은 태형을 당했다. 또한 4월 8일에도 독립만세를 외쳤는데 『홍동면지』에 '홍동 원천리 사건'이라며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황윤성(黃允性)은 3·1운동이 터지자 인근을 돌면서 세천부락은 청광산(靑光山)에서, 중원부락은 석삼봉(石三峰)에서, 종현부락은 종현봉(鍾懸峰)에서 4월 8일 일제히 거사하여 만세를 부른 다음 홍동주재소를 기습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들은 약속대로 거사하고 "왜놈은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주재소를 기습하였다. 일본 경찰은 물론 조선인 순사들도 모두 도망하였다. 그러나 다음날 본서에서 수십 명의 경찰이 나와 황윤성을 체포하여 고문을 하고 관련자들의 성명을 밝히라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고문에 못이겨 사망하였다.

『홍동면지』에는 이 만세운동의 결과 사망하거나 형을 받은 애국지사 총 63명이 기록되어 있다. 홍동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태(笞) 30도(度)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70

민록식(閔祿植), 남, 1897. 03. 11~1962. 03. 03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인산 95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인산 95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05,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1919년 4월 1일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4월 23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71

민영갑(閔泳甲), 남, 1888. 01. 28~1965. 06. 20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부평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부평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01, 훈격 : 애족장

홍성 금마 사람으로 1919년 4월 1일 금마면(金馬面) 가산리(佳山里) 연극 공연장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재판기록에 잡화상(雜貨商)으로 기재되어 있는 그는 '그 나라는 국민으로 기초를 이루고 국민은 나라로 기초를 이룬다. 그리고 충의(忠義)는 나라의 강령이고 국민의 타고난 천성이다.' 라며 상고의 이유를 밝히고 있다. 또한 그는 이재만 등과 함께 4월 17일 공주로 압송될 때 청양군을 거쳐 압송한 헌병이 1원 20전을 강탈하여 자신들의 경비에 보탰다고 사실을 고발하였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1919년 4월 30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아 공소하였으나 5월 30일 경성복심법원과 7월 3일 고등법원에서 각각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200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72

민영식(閔榮植), 남, 1899. 06. 26~1980. 11. 29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인산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인산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06,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금마면(金馬面) 가산리(佳山里)와 홍성시장에서 전개되었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

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1919년 4월 23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73

박달성(朴達成), 남, 1883. 08. 14~1960. 06. 10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인산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인산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06,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금마면(金馬面) 가산리(佳山里)와 홍성시장에서 전개되었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

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1919년 4월 23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74

박문백(朴文伯), 남, 1875. 03. 01~1937. 04. 08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부평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부평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11,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홍성시장 등지에서 전개되었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1919년 4월 23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1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75

박사현(朴士玄), 남, 1889 미상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홍동 구룡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홍동 구룡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19,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홍동 사람으로 1919년 4월 홍동면(洪東面)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홍동면의 3·1운동은 4월 4일부터 시작되었다. 홍동면사무소의 「범죄인명부」에는 신기리 이외에 구암리, 문당리, 수란리, 효학리, 금평리, 운원리, 운용리, 월림리, 대평리, 구룡리 등 주민 50명이 4월 7일부터 4월 14일까지 홍성경찰서에서 즉결처분으로 태형을 당한 기록이 있다.

4월 5일에는 신기리 주민 100명이 독립만세를 외쳤다. 『홍동면지』에는 이 시위를 '홍동 신기리 사건' 이라며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이제경(李齊經)·조우식(趙愚植) 등이 3월 5일(양력 4월 5일) 밤 뒷산인 꽃동산에 모여 봉화를 올리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쳤고, 일경의 발포로 이희도(李羲圖)·한명교(韓命敎) 등이 현장에서 죽고 이석만(李錫滿)·안중호(安重浩) 등이 관통상을 입었다. 경찰은 주민들은 닥치는대로 체포하고 13명을 구속, 태형을 가하였다. 성낙붕(成樂朋)씨는 고문의 여독으로 사망하였으며 그로 인해 두 아들이 부인과 함께 사망하여 가정 전체가 몰락하였다.

이 만세운동의 결과는 일경들이 무차별 사격을 가해 2명이 죽고 2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체포 구금된 13명은 태형을 당했다. 또한 4월 8일

에도 독립만세를 외쳤는데 『홍동면지』에 '홍동 원천리 사건'이라며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 황윤성(黃允性)은 3·1운동이 터지자 인근을 돌면서 세천부락은 청광산(靑光山)에서, 중원부락은 석삼봉(石三峰)에서, 종현부락은 종현봉(鍾懸峰)에서 4월 8일 일제히 거사하여 만세를 부른 다음 홍동주재소를 기습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들은 약속대로 거사하고 "왜놈은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주재소를 기습하였다. 일본 경찰은 물론 조선인 순사들도 모두 도망하였다. 그러나 다음날 본서에서 수십 명의 경찰이 나와 황윤성을 체포하여 고문을 하고 관련자들의 성명을 밝히라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고문에 못이겨 사망하였다.

『홍동면지』에는 이 만세운동의 결과 사망하거나 형을 받은 애국지사 총 63명이 기록되어 있다. 홍동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태(笞) 30도(度)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76

박순학[朴順學, 이명 : 박춘삼(朴春三)], 남, 1886. 10. 15 미상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은하 장곡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은하 장곡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19,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은하 사람으로 1919년 4월 9부터 전개되었던 은하면(銀河面) 장

곡리(長谷里)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은하면의 만세시위는 3월 21일 대천리(大川里)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시작되었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후 장곡리(長谷里)에서는 4월 9일 밤 전명규(田明圭) 등 마을주민 다수가 모여 대한독립만세를 불렀다. 일경은 이를 발견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해 홍성경찰서로 보내 홍성경찰서에서 즉결처분으로 태형을 가했다.

홍성군의 3·1운동 관련 수형기록자료(은하면 범죄인명부)에 따르면 은하면에서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2명이다.

은하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60도(度)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77

박승익(朴勝益), 남, 1878. 10. 28~1941. 04. 16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장곡 신운 887

주　　소 : 상동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10,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장곡 사람으로 장곡면(長谷面)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

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장곡면의 만세시위는 4월 4일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시작으로, 4월 8일까지 장곡면사무소를 중심으로 이어졌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장곡면에서의 횃불독립만세운동은 윤씨 3형제(윤형중, 윤익중, 윤낙중)가 주도하고 윤의석(尹宜錫), 윤만수(尹萬洙), 이문재(李文載), 최기석(崔奇錫), 최채선(崔彩仙) 등이 적극 참여한 가운데 화계리, 광성리, 신풍리 주민들이 합세하여 면사무소 뒤편 응봉산(鷹峯山)에서 펼쳐졌다.

장곡면사무소를 중심으로 펼쳐졌던 4월 7일과 8일의 만세시위는 김동하(金東河, 金東化) 등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는 장곡면에서도 만세시위를 일으키기로 동지들과 뜻을 모은 뒤 거사일을 4월 7일로 정하고, 거사에 필요한 태극기를 제작하는 한편 동지들의 규합에 힘을 쏟았다. 4월 7일 오경춘(吳敬春, 壽南)이 종을 치며 주민들을 집합시켰고, 김동하는 김동완(金東完)·김용숙(金容肅, 用叔)·김용제(金用濟)·이화춘(李化春)·김차제(金次濟, 化先)·한상철(韓相喆) 등과 함께 태극기를 꽂고 독립선언식을 가진 후 화계리 주민 및 이웃 마을인 광성리와 신풍리 주민 300여 명과 함께 화계리에 근접한 동리 앞산에서 독립만세를 외쳤다.

이후 도산리(道山里) 소재 면사무소로 행진한 그들은 밤 8시에 도착하여 면내 각지에서 몰려 온 사람들과 합류하였다. 500여 명의 시위군중은 면사무소에 직원들이 한 명도 없자, 김동하의 주도로 돌과 곤봉으로 면사무소 기둥과 창문을 파괴하고 공문서를 파기하는 등 격렬히 항쟁하였다.

다음 날인 4월 8일 밤 11시에는 학생과 지역민들 60여 명이 다시 면사무소에 모여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들은 전날 면사무소 습격으로 출동해 있던 일경과 대치하였지만, 다시 면사무소를 파괴하였다. 그러자 대치하고 있던 일본 군경은 시위대를 향해 총격을 가했고, 시위군중 다수가 부상을 입거나 피체되었다. 이때 일본 군경의 발포로 11명이 체포되고 2명이 부상하였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장곡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41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36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장곡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1919년 4월 23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78

박영달(朴英達, 이명 : 박영호), 남, 1916. 12. 13 미상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고도 동산 365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고도 내갈 166

운동계열 : 국내항일, 포상년도 : 2018, 훈격 : 애족장

홍성 고도 사람으로 거리(居里) 신안서당(新安書堂)의 학생들에게 신사상을 교육하였다. 빈곤한 가정에서 태어나 그는 어릴 때 부모와 함께 충북 청주·충남 홍성군 광천면·충남 아산군 온양면 등지로 옮겨다녔고, 1920년부터 1928년경까지 여러 지역의 서당에서 한문을 배웠다. 1928년 봄 무렵 그는 경기도 안성군 안성읍내 사립 광명학원(廣明學院)·안청학원(安靑學院) 야간부에 입학하여 약 3년 동안 보통학(普通學)을 수

료하였다. 1932년 봄 무렵 충남 보령군 청소면 사립 학술강습소(學術講習所)에서 약 1년간 중등학교 제1학년 수료 정도의 교육을 받고, 1934년 2월경부터 고향의 간이강습소(簡易講習所)에서 강사생활을 시작하였다. 1936년 1월 신안서당의 강사로 전임한 그는 1937년 7월 이후 홍성군 고도면 공립보통학교를 1933년 3월에 졸업한 송길한(宋吉漢)으로부터 서당과 인근 주변에서 신사상을 지도받았다. 이후 그는 1937년 가을 신안서당의 아동 30명에게 '을식(乙食)'과 '소서(小鼠)'라는 제목으로 자신이 배운 신사상을 교육하다가 체포되었다.

소위 '서당생도적화사건(書堂生徒赤化事件)' 체포된 그는 1939년 9월 16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治安維持法 違反)으로 징역(懲役) 1년(年) 집행유예(執行猶豫) 3년(年)을 선고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8년에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79

박원식(朴源植), 남, 1893. 08. 06~1955. 10. 20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결성 성곡 100
주　　소 : 서울 안국 78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1995, 훈격 : 애족장

홍성 결성 사람으로 조선민족대동단 단원, 조선일보 홍성지국장, 신간회 중앙집행위원 등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보광학교(普光學校)를 졸업 후 조치원청년회 회장으로 청년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3·1운동 때에는 홍천(洪川)에서 만세시위에 참가하였다.

3·1운동 직후에는 비밀결사 조선민족대동단(朝鮮民族大同團)에 가입하여 제2회 독립만세 시위계획에 참가하였다. 3·1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던 상황에서 전협(全協)·최익환(崔益煥) 등이 주도하여 결성한 조선

민족대동단은 조선 독립을 위하여 먼저 민족 대단결을 목표로 민족사회의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망라한 조직을 구상해 갔다. 또한 동단은 의친왕(義親王)의 상해(上海) 망명을 계획·추진하는 한편 3·1운동 때와 같은 만세시위를 일으키려는 계획을 추진해 갔다. 이 때 박원식은 조선민족대동단의 단원으로 만세시위 계획의 실무를 맡았다. 그는 나창헌(羅昌憲)·안교일(安敎一) 등과 함께 만세시위에 사용할 격문 인쇄 및 배포의 책임을 맡았으며, 거사 당일에 만세시위를 선도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제1차 계획은 거사 당일날 운동원간의 약속에 차질이 생겨 예정대로 만세시위를 벌이지 못하였는데, 이에 그는 이신애(李信愛)·정규식(鄭奎植) 등과 함께 재차 만세운동을 일으키기로 결의하고 11월 28일 안국동 광장에서 미리 준비해 간 태극기와 '조선독립 만세'라고 쓴 깃발을 흔들면서 독립만세를 고창하다가 체포되었다.

이 일로 인하여 그는 1920년 12월 7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공소하여, 1921년 3월 23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정치범죄 처벌령·출판법·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1923년 조선일보 홍성지국장으로 있으면서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문맹퇴치운동과 학생들의 항일의식 고취에 힘을 쏟았다. 그리고 1925년에는 광천노동조합(廣川勞動組合)과 광천청년회·광천소년회 등의 조직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1929년 11월의 광주학생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1930년 2월 홍성에서도 홍성공립공업전수학교 학생들에 의해 만세운동이 계획되었다. 그런데 이 일이 일경에 의해 탐지되면서 10여 명의 학생이 체포되었을 때, 그는 일경의 무리한 언사와 탄압에 항의하다가 일경의 불법적 직권남용에 의해 소위 경찰범처벌규칙 위반이라는 명목으로 구류 25일을 받았다. 한편 그는 1930년 11월 신간회(新幹會) 중앙집행위원으로 선임되어 민족협동전선운동에 크게 활약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

하였다.

80

박응수(朴應洙), 남, 1885 미상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죽림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죽림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12,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1919년 4월 1일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

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4월 19일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 90도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81

박의성(朴宜成, 이명 : 朴春一), 남, 1892. 07. 18~1979. 04. 04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월암 619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월암 619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05,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1919년 4월 1일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3·1운동

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4월 23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82

박재옥(朴在玉, 이명 : 朴在榮, 朴在淳), 남, 1889. 11. 07~1946. 05. 17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홍주 송월 23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홍주 송월 23
운동계열 : 국내항일, 포상년도 : 2017, 훈격 : 애족장

홍성 송월 사람으로 광복단(光復團)에 가입하여 충남지단장(忠南支團長)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1920년 충남(忠南) 공주(公州)에서 광복단원인 김국경(金國景)의 권유를 받고 가입하였다. 김국경은 박성빈(朴聖彬)이 간도(間島)에서 조직한 군자금 모집과 일본인 고위관리의 암살 처단을 목적으로 설립한 광복단의 국내특파원으로, 전라도·경상도·충청도의 책임자로 임명되어 군자금 모금과 독립군이 될 청년들을 모집하기 위해 국내로 밀파되었다.

김국경은 1920년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정무총감(政務總監)이 동년 10월 9일 충남 공주지방을 순시한다는 소식을 듣고 동지를 규합하여 암살하고자 하는 처단 계획을 수립하였다. 공주로 내려간 김국경은 동지 박재옥을 만나 그를 광복단 충남지단장으로 임명하고 암살계획에 동참

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평양에서 무기가 제때에 도착하지 못하여 공주에서의 처단 계획은 좌절되었다. 그리고 정무총감이 공주를 거쳐 논산으로 이동하자 거사에 실패한 박재옥은 충남 논산으로 이동하였다.

1920년 10월 12일 그는 조각기술을 보유한 이승조(李承兆)를 광복단에 가입시켰다. 그리고 그와 협의하여 '대한민국광복단지인(大韓民國光復團之印)' 이라는 인장 2개를 조각하고, 별지 통고서라는 협박문 8통을 복사지로 제작하여 논산군 광석면 윤구병(尹龜炳) 외 2명에게 발송하였다. 또한 충남 논산군 상월면에 거주하던 윤상긍(尹相肯)을 광복단에 가입시켜 광복단 충남지단 통신원으로 임명하고, 이주호(李周鎬)를 논산지단장에 임명하였다. 그리고 그는 강영의(姜榮義)·윤상긍·이주호 등의 동지들과 함께 충남 일대에서 부호들을 대상으로 수천 원의 군자금을 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대한민국임시정부로부터 군자금 납부명령서를 받은 논산군 성동면의 부호 조동시(趙東始)에게는 560원의 군자금을 징수하였다.

광복단 충남지단장으로 단원 및 군자금 모집 등을 활발하게 전개하다가 체포된 그는 대전지검 공주지청에서 1920년 5월 20일 절도 공갈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으로 징역(懲役) 2년(年)을 선고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7년에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83

박정천(朴正千), 남, 1868. 11. 11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용흥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11,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홍성시장 등지에서 전개되었던 3·1운동에 참여

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1919년 4월 23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1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84

박천근(朴千根), 남, 1891. 11. 09~1972. 02. 20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덕정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덕정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06,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금마면(金馬面) 가산리(佳山里)와 홍성시장에서 전개되었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

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1919년 4월 23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85

박헌필(朴憲弼), 남, 1877. 03. 30~1956. 03. 18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월암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월암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11,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홍성시장 등지에서 전개되었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1919년 4월 23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1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86

박화선(朴和先), 남, 1881. 09. 11 미상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송강 38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송강 38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11,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홍성시장 등지에서 전개되었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1919년 4월 23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1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87

방경한(方景漢), 남, 비공개

본　　적 : 비공개

주　　소 : 滿洲 寧安縣 東方城

운동계열 : 만주방면, 포상년도 : 1990, 훈격 : 애족장

홍성 사람으로 중국으로 망명하여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중국 망명을 전후한 시기에 대해서는 자료가 불비하여 알 수 없다. 그는 1940년 중국 길림성(吉林省) 영안현(寧安縣) 동방성(東方城)에서 대종교(大倧敎) 제3세 교주인 윤세복(尹世復)으로부터 독립운동을 위한 거점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고 활동하였다. 1941년 항산(恒山) 광산지대에서 동지 30여 명과 함께 결사대에 편성되어 이성일(李成一)을 대장으로 하여 친일부일배 소탕 및 일본군 시설의 파괴를 목적으로 활동을 펴나가던 중 일경의 총에 맞아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1944년 최파(崔波) 결사대의 연락책으로 항일활동을 계속하였으며 1945년 8월 10일에는 길림성 영안현 경내 산길에서 일본군 수송대와 만나자 지형을 이용하여 기습함으로써 수송대 전원을 살해하는 전과를 거두고 원대로 복귀하는 등 항일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하였다.

88

방기용(方起容), 남, 1881. 02. 15~1946. 02. 17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부평 608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부평 608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06,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금마면(金馬面) 가산리(佳山里)와 홍성시장에서 전개되었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1919년 4월 23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89

방화용(方花容, 이명 : 方花用), 남, 1889. 07. 15~1964. 03. 20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죽림 163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죽림 163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06,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금마면(金馬面) 가산리(佳山里)와 홍성시장에서 전개되었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1919년 4월 19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90

복기준(卜基俊), 남, 1884. 11. 27~1957. 03. 18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월암 300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월암 300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05,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1919년 4월 1일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4월 23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91

복윤길(卜允吉), 남, 1897 미상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홍동 구룡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홍동 구룡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19,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홍동 사람으로 1919년 4월 홍동면(洪東面)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홍동면의 3·1운동은 4월 4일부터 시작되었다. 홍동면사무소의 「범죄인명부」에는 신기리 이외에 구암리, 문당리, 수란리, 효학리, 금평리, 운원리, 운용리, 월림리, 대평리, 구룡리 등 주민 50명이 4월 7일부터 4월 14일까지 홍성경찰서에서 즉결처분으로 태형을 당한 기록이 있다.

4월 5일에는 신기리 주민 100명이 독립만세를 외쳤다. 『홍동면지』에는 이 시위를 '홍동 신기리 사건'이라며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이제경(李齊經)·조우식(趙愚植) 등이 3월 5일(양력 4월 5일) 밤 뒷산인 꽃동산에 모여 봉화를 올리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쳤고, 일경의 발포로 이희도(李羲圖)·한명교(韓命敎) 등이 현장에서 죽고 이석만(李錫滿)·안중호(安重浩) 등이 관통상을 입었다. 경찰은 주민들은 닥치는대로 체포하고 13명을 구속, 태형을 가하였다. 성낙붕(成樂朋)씨는 고문의 여독으로 사망하였으며 그로 인해 두 아들이 부인과 함께 사망하여 가정 전체가 몰락하였다.

이 만세운동의 결과는 일경들이 무차별 사격을 가해 2명이 죽고 2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체포 구금된 13명은 태형을 당했다. 또한 4월 8일

에도 독립만세를 외쳤는데 『홍동면지』에 '홍동 원천리 사건' 이라며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 황윤성(黃允性)은 3·1운동이 터지자 인근을 돌면서 세천부락은 청광산(靑光山)에서, 중원부락은 석삼봉(石三峰)에서, 종현부락은 종현봉(鍾縣峰)에서 4월 8일 일제히 거사하여 만세를 부른 다음 홍동주재소를 기습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들은 약속대로 거사하고 "왜놈은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주재소를 기습하였다. 일본 경찰은 물론 조선인 순사들도 모두 도망하였다. 그러나 다음날 본서에서 수십 명의 경찰이 나와 황윤성을 체포하여 고문을 하고 관련자들의 성명을 밝히라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고문에 못이겨 사망하였다.

『홍동면지』에는 이 만세운동의 결과 사망하거나 형을 받은 애국지사 총 63명이 기록되어 있다. 홍동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태(笞) 30도(度)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92

복천복(卜千福), 남, 1901. 12. 07 미상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장성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장성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19,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1919년 4월 1일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3·1운동

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30도(度)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201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93

서기환(徐基煥), 남, 1849. 02. 12~1906. 04. 09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광천 벽계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광천 벽계
운동계열 : 의병, 포상년도 : 1990, 훈격 : 애국장

본관은 연산이남규의 문인으로 알려진다. 1906년 홍주의병에 참전하여 민종식으로부터 동문 영관에 임명되었다. 일본 군경은 홍주성을 공격하였으나 홍주의병은 이를 물리치고 일본 경찰을 체포하여 처형하였다. 마루야마(丸山) 경무부의 고문이 비밀리에 홍주에 내려와 의병의 형세를 살피고 돌아갔다. 통감 이토(伊藤博文)는 보고를 받고 주차일본군 사령관에게 일본 수비대의 파견을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군 보병 제60연대의 대대장 다나카 소좌가 인솔하는 보병 2개 중대 약 400여명과 기병 반개 소대 그리고 전주수비대 1개 소대가 합세하여 5월 30일 홍주성을 포위 공격하였다. 의병대는 성루에서 대포를 쏘면서 대항했으나, 일본군은 남문과 북문을 폭파하고 성안으로 쳐들어왔다. 시가전이 벌어졌으며, 일본군의 화력에 밀려 수많은 의병들이 희생되었다. 유병장(儒兵

將)이었던 유준근(柳濬根)의 『마도일기(馬島日記)』에 의하면, 이 홍주성 전투에서 3백여 명의 의병이 희생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참모장 채광묵 부자와 운량관 성재평과 전태진, 서기환, 전경호를 비롯하여 300여명 이상이 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기환은 홍주성의 동문을 수호하며 끝까지 용맹하게 항전하였으나 장렬히 전사 순국하였다.

홍성 광천 출신으로 을사늑약 이후 민종식이 거의한 의병진에 참여하여 동문령관(東門領官)에 임명되었고, 홍주성전투에서 순국하였다. 그는 홍주지역에서 자리를 잡은 연산 서씨이며 이남규의 문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전국에서 애국지사들이 의병운동을 전개하는 것을 보고 뜻을 함께 하며 동참하고자 하였다. 홍성에서는 민종식(閔宗植)을 중심으로 홍주의병이 거의하여 홍주성(洪州城)을 점령하고 인근 지역에서 의병들을 모집하였다.

서기환은 전태진(田泰鎭)·전경호(田慶浩)와 함께 민종식 의진에 참가하여 동문령관(東門領官)에 임명되었다. 4월 9일 물러났던 적군은 전열을 수습하고 의병들이 점령한 홍주성을 탈환하고자 대규모의 공격을 감행하였다. 이때 그는 홍주성의 동문을 수호하며 끝까지 용맹하게 적에게 맞섰으나 역부족이었고, 마침내 홍주성은 적에게 함락되고 말았다. 그는 남은 군사들을 정돈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해 적과 싸웠으나 마침내 전태진·전경호와 함께 장렬히 전사·순국하고 말았다. 유병장(儒兵將)이었던 유준근(柳濬根)의 『마도일기(馬島日記)』에 의하면, 이 홍주성전투에서 3백여 명의 의병이 희생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참모장 채광묵 부자와 운량관 성재평과 전태진, 서기환, 전경호를 비롯하여 300여명 이상이 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기환은 홍주성의 동문을 수호하며 끝까지 용맹하게 항전하였으나 장렬히 전사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94

서승태(徐承台), 남, 1854. 08. 03~1921. 12. 31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광천 신진 249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광천 신진 249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1992, 훈격 : 애족장

홍성 광천 사람으로 덕명학교를 세우고 광천면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그는 1854년 8월 3일 아버지 서지호(徐址鎬)와 어머니 파평 윤씨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본관은 연산이며 무장공파(茂長公派) 18세손으로 제주판관 서련(徐憐)의 13대손, 전라수사 서간세(徐幹世)의 7대손이다. 자는 성삼(聖三), 호는 일농(逸農)이다. 천성이 호방하고 강직했던 그는 사숙에서 전통적인 교육을 받아 충군애국적인 의리론을 가진 재야 유생으로 성장하였다. 1906년 그는 을사늑약 체결이후 국권회복을 위해 다시 거의한 민종식(閔宗植) 의병진이 남포(藍浦)에서 홍주성으로 행군할 때 지역의 부호였던 박익병(朴翼秉)에게 권유하여 창고를 열고 군량미를 제공하도록 해 의병들의 사기를 크게 고무시켰다. 하지만 제2차 홍주의병이 일본군에 의한 무자비한 탄압으로 실패한 것과 홍주일대에서 자행된 대대적인 살육을 직접 목격했던 그는 중장기적인 국권회복을 생각하게 되었고, 개신유학자로서 근대교육과 계몽운동으로의 투신을 결심하였다.

1908년 홍주향교의 도유사(都有司)를 맡기도 했던 그는 교육을 중요성을 일찍부터 깨닫고 사재를 출연하여 궁경면(현 광천읍) 덕정마을에 사립덕명학교(私立德明學校)를 설립하고 학교운영을 전적으로 책임지며, 후진교육에 이바지하였다. 보통과정으로 운영되었던 덕명학교는 1910년 첫 번째 졸업식을 거행하고, 서홍모(徐弘模), 서승완(徐承完), 서봉석(徐鳳錫), 김상회(金尙會), 정인해(鄭寅海), 서만동(徐滿東), 윤두영(尹斗永), 함기영(咸基榮) 등 8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이 학교는

1915년 3월 보통학교의 설립을 인가받고, 광천공립보통학교로 11월 3일 개교하였다. 1938년 4월 1일에는 광천신진공립심상소학교, 1941년 4월 5일에는 광천신진공립국민학교, 1946년 9월 1일에는 광천제1공립초등학교, 광복 이후 1949년 12월 24일에는 덕명초등학교로 교명이 변경되었다.

그는 홍주지역의 흥학(興學)을 위해서 공립홍주보통학교(公立洪州普通學校)의 학무위원(學務委員)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그는 1908년·1909년 김항규(金恒圭), 이신세(李申世), 유진일(俞鎭一), 정성모(鄭成模), 유진면(俞鎭冕), 이종건(李鍾乾) 등과 함께 학무위원에 선임되었다. 그리고 그는 1908년 1월 19일 기호지방의 흥학과 민지계발(民智啓發)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던 기호흥학회의 홍주군지회(洪州郡支會)에 참여하였고, 총무(總務)로도 활동하였다. 1907년부터 1913년까지는 광천읍의 전신인 궁경면의 면장을 역임하며, 기근에 허덕이는 주민들을 구제하기도 하였다. 다른 기록에 일농이 '면무에 능하였다' 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는 행정적인 능력을 갖추었고, 이를 바탕으로 오랜 시간동안 지역을 위해 일하면서 신임을 얻고 덕망을 쌓은 것으로 보인다.

서승태는 광천지역에서 거행되었던 3·1운동에도 이명종(李鳴鍾)·박원식(朴源植) 등과 함께 독립선언서를 직접 작성하면서 참여하였다. 3월 16일 박원식은 서승태를 찾아가 선언서를 보여주며, 문장을 간략하게 줄여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는 서승태가 유학자로서 한문체로 되어 있는 선언서를 쉽고 간결하게 정리해 줄 학식이 있었고, 의병활동부터 교육활동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항일운동을 전개해 왔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일제의 재판기록에도 서승태에게 등사를 쉽게 하기 위해 문장을 간략히 할 것을 부탁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선언서 정리를 부탁받은 그는 3월 18일 자신의 집에서 박원식과 오인섭을 만나 선언서의 문구를 쉽고 간략하게 정리하며 일일이 정보(訂補)·가제(加除)하여 내용을 구술해주었고, 박원식이 이것을 받아 적었다. 정리된 선언서의 내용은

바로 오인섭의 집에서 등사되었다. 박원식·이명종·최응모·성배호 등은 선언서 인쇄에 대한 역할을 정하고, 박원식이 필기한 원고에 따라 약 50매를 등사하였다. 이 선언서는 반포를 담당한 이명종과 성배호 등에 의해 그날 밤 광천리와 옹암리의 집집마다 배포되었다.

독립선언서 등사 및 배포 혐의로 일경에 체포된 후 그는 4월 28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8월형을 언도받고, 공주감옥에서 복역하다가 출소하였다. 서승태는 1919년 12월 23일 수형생활을 모두 마치고 만기출소하였다. 고령의 나이에 8개월간의 옥고를 치룬 그는 건강을 잃고 후유증으로 고생하다가, 1921년 12월 30일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95

서은모(徐殷模), 남, 1884. 05. 27~1936. 11. 03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구항 대정 194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구항 대정 194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05, 훈격 : 대통령표창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정도까지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남도에서 많은 운동이 전개되었다. 홍성읍에서는 3월 7일 만세시위가 일어난 것을 시작으로 각 면에서도 만세시위가 불같이 일어났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구항면사무

소의 「수형인명표폐기목록」에는 대정리에 거주하는 6명이 보안법 위반으로 4월 23일 홍성경찰서에서 즉결처분으로 태형을 당한 기록이 있다. 또한 홍성군의 3·1운동 관련 수형기록자료(범죄인명부, 수형인명표폐기목록 등)에서 구항면에서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10명이 확인된다.

구항면사무소의 「수형인명표폐기목록」에는 대정리에 거주하는 6명이 보안법 위반으로 4월 23일 홍성경찰서에서 즉결처분으로 태형을 당한 기록이 있다. 또한 홍성군의 3·1운동 관련 수형기록자료(범죄인명부, 수형인명표폐기목록 등)에서 구항면에서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10명이 확인된다.

구항면의 만세운동은 4월 4일 홍성면을 비롯하여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의 24개 마을에서 전개되었던 횃불만세시위로 시작되었다. 황곡리(篁谷里)의 이길성(李吉性)은 경성 기타 각지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며 만세운동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도 참여하여 실행하기위해 '대한국독립만세(大韓國獨立萬歲)'라고 크게 쓴 종이 깃발(구한국국기)을 제작하였다. 그는 4월 7일 밤 마을의 월산(月山, 日月山)에 올라가 깃발을 게양하고 황문수(黃文秀), 이유홍(李有弘), 이백영(李伯榮), 황통명(黃通明), 하유숙(河有淑), 최순보(崔順甫), 전남규(田南珪), 이희보(李熙輔) 등 여러 명의 주민들과 함께 불(篝火)을 피우고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들은 출동한 일병(日兵)이 총을 난사하며 진압에 나서자 각각 흩어져서 산을 내려왔다. 그러나 이길성, 황문수, 이유홍, 이희창(李熙昌), 이동규(李東圭) 등 5명은 다시 자리를 옮겨 월산의 한 봉우리인 백월산(白月山)에 올라가 홍성 시가를 바라보면 만세를 불렀다.

구항면의 만세운동에 참여하여 일경에 체포된 그는 1919년 4월 23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96

서창인(徐昌仁), 남, 1899. 02. 03~1928. 10. 01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인산 96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인산 96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06,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금마면(金馬面) 가산리(佳山里)와 홍성시장에서 전개되었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1919년 4월 21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97

설순좌(薛順佐), 남, 1883 미상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홍동 구룡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홍동 구룡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19,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홍동 사람으로 1919년 4월 홍동면(洪東面)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홍동면의 3·1운동은 4월 4일부터 시작되었다. 홍동면사무소의 「범죄인명부」에는 신기리 이외에 구암리, 문당리, 수란리, 효학리, 금평리, 운원리, 운용리, 월림리, 대평리, 구룡리 등 주민 50명이 4월 7일부터 4월 14일까지 홍성경찰서에서 즉결처분으로 태형을 당한 기록이 있다.

4월 5일에는 신기리 주민 100명이 독립만세를 외쳤다. 『홍동면지』에는 이 시위를 '홍동 신기리 사건'이라며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이제경(李齊經)·조우식(趙愚植) 등이 3월 5일(양력 4월 5일) 밤 뒷산인 꽃동산에 모여 봉화를 올리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쳤고, 일경의 발포로 이희도(李羲圖)·한명교(韓命敎) 등이 현장에서 죽고 이석만(李錫滿)·안중호(安重浩) 등이 관통상을 입었다. 경찰은 주민들은 닥치는대로 체포하고 13명을 구속, 태형을 가하였다. 성낙붕(成樂朋)씨는 고문의 여독으로 사망하였으며 그로 인해 두 아들이 부인과 함께 사망하여 가정 전체가 몰락하였다.

이 만세운동의 결과는 일경들이 무차별 사격을 가해 2명이 죽고 2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체포 구금된 13명은 태형을 당했다. 또한 4월 8일에도 독립만세를 외쳤는데 『홍동면지』에 '홍동 원천리 사건'이라며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 황윤성(黃允性)은 3·1운동이 터지자 인근을 돌면서

세천부락은 청광산(靑光山)에서, 중원부락은 석삼봉(石三峰)에서, 종현부락은 종현봉(鍾懸絣峰)에서 4월 8일 일제히 거사하여 만세를 부른 다음 홍동주재소를 기습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들은 약속대로 거사하고 "왜놈은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주재소를 기습하였다. 일본 경찰은 물론 조선인 순사들도 모두 도망하였다. 그러나 다음날 본서에서 수십 명의 경찰이 나와 황윤성을 체포하여 고문을 하고 관련자들의 성명을 밝히라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고문에 못이겨 사망하였다.

『홍동면지』에는 이 만세운동의 결과 사망하거나 형을 받은 애국지사 총 63명이 기록되어 있다. 홍동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태(笞) 30도(度)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98

손창선(孫昌善), 남, 1896. 11. 13~1980. 05. 30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죽림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죽림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13,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1919년 4월 1일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

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

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4월 19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 90도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99

송만섭(宋萬燮, 이명 : 礪山萬燮), 남, 1882. 12. 25~1950. 12. 29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홍동 신기 99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홍동 신기 99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18,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홍동 사람으로 1919년 4월 홍동면(洪東面)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홍동면의 3·1운동은 4월 4일부터 시작되었다. 홍동면사무소의 「범죄인명부」에는 신기리 이외에 구암리, 문당리, 수란리, 효학리, 금평리, 운원리, 운용리, 월림리, 대평리, 구룡리 등 주민 50명이 4월 7일부터 4월 14일까지 홍성경찰서에서 즉결처분으로 태형을 당한 기록이 있다.

4월 5일에는 신기리 주민 100명이 독립만세를 외쳤다. 『홍동면지』에는 이 시위를 '홍동 신기리 사건' 이라며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이제경(李齊經)·조우식(趙愚植) 등이 3월 5일(양력 4월 5일) 밤 뒷산인 꽃동산에 모여 봉화를 올리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쳤고, 일경의 발포로 이희도(李羲圖)·한명교(韓命敎) 등이 현장에서 죽고 이석만(李錫滿)·안중호(安重浩) 등이 관통상을 입었다. 경찰은 주민들은 닥치는대로 체포하고 13명을 구속, 태형을 가하였다. 성낙붕(成樂朋)씨는 고문의 여독으로 사망하였으며 그로 인해 두 아들이 부인과 함께 사망하여 가정 전체가 몰락하였다.

이 만세운동의 결과는 일경들이 무차별 사격을 가해 2명이 죽고 2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체포 구금된 13명은 태형을 당했다. 또한 4월 8일에도 독립만세를 외쳤는데 『홍동면지』에 '홍동 원천리 사건'이라며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황윤성(黃允性)은 3·1운동이 터지자 인근을 돌면서 세천부락은 청광산(靑光山)에서, 중원부락은 석삼봉(石三峰)에서, 종현부락은 종현봉(鍾懸絣峰)에서 4월 8일 일제히 거사하여 만세를 부른 다음 홍동주재소를 기습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들은 약속대로 거사하고 "왜놈은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주재소를 기습하였다. 일본 경찰은 물론 조선인 순사들도 모두 도망하였다. 그러나 다음날 본서에서 수십 명의 경찰이 나와 황윤성을 체포하여 고문을 하고 관련자들의 성명을 밝히라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고문에 못이겨 사망하였다.

『홍동면지』에는 이 만세운동의 결과 사망하거나 형을 받은 애국지사 총 63명이 기록되어 있다. 홍동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

포된 그는 태(笞) 60도(度)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8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100

신운경(申云京), 남, 1882. 01. 27~1959. 10. 13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홍동 원천 353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홍동 원천 353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19,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홍동 사람으로 1919년 4월 홍동면(洪東面)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홍동면의 3·1운동은 4월 4일부터 시작되었다. 홍동면사무소의 「범죄인명부」에는 신기리 이외에 구암리, 문당리, 수란리, 효학리, 금평리, 운원리, 운용리, 월림리, 대평리, 구룡리 등 주민 50명이 4월 7일부터 4월 14일까지 홍성경찰서에서 즉결처분으로 태형을 당한 기록이 있다.

4월 5일에는 신기리 주민 100명이 독립만세를 외쳤다. 『홍동면지』에는 이 시위를 '홍동 신기리 사건' 이라며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이제경(李齊經)·조우식(趙愚植) 등이 3월 5일(양력 4

월 5일) 밤 뒷산인 꽃동산에 모여 봉화를 올리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쳤고, 일경의 발포로 이희도(李羲圖)·한명교(韓命敎) 등이 현장에서 죽고 이석만(李錫滿)·안중호(安重浩) 등이 관통상을 입었다. 경찰은 주민들은 닥치는대로 체포하고 13명을 구속, 태형을 가하였다. 성낙붕(成樂朋)씨는 고문의 여독으로 사망하였으며 그로 인해 두 아들이 부인과 함께 사망하여 가정 전체가 몰락하였다.

이 만세운동의 결과는 일경들이 무차별 사격을 가해 2명이 죽고 2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체포 구금된 13명은 태형을 당했다. 또한 4월 8일에도 독립만세를 외쳤는데 『홍동면지』에 '홍동 원천리 사건'이라며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황윤성(黃允性)은 3·1운동이 터지자 인근을 돌면서 세천부락은 청광산(靑光山)에서, 중원부락은 석삼봉(石三峰)에서, 종현부락은 종현봉(鍾懸峰)에서 4월 8일 일제히 거사하여 만세를 부른 다음 홍동주재소를 기습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들은 약속대로 거사하고 "왜놈은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주재소를 기습하였다. 일본 경찰은 물론 조선인 순사들도 모두 도망하였다. 그러나 다음날 본서에서 수십 명의 경찰이 나와 황윤성을 체포하여 고문을 하고 관련자들의 성명을 밝히라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고문에 못이겨 사망하였다.

『홍동면지』에는 이 만세운동의 결과 사망하거나 형을 받은 애국지사 총 63명이 기록되어 있다. 홍동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

포된 그는 태(笞) 30도(度)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101 ◦

신태복(申泰福, 이명 : 신태한), 남, 1882. 02. 08~1936. 06. 03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죽림 349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죽림 349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06,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금마면(金馬面) 가산리(佳山里)와 홍성시장에서 전개되었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

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1919년 4월 19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102

안재호(安載濩), 남, 1885 미상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홍동 신기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홍동 신기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19,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홍동 사람으로 1919년 4월 홍동면(洪東面)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홍동면의 3·1운동은 4월 4일부터 시작되었다. 홍동면사무소의 「범죄인명부」에는 신기리 이외에 구암리, 문당리, 수란리, 효학리, 금평리, 운원리, 운용리, 월림리, 대평리, 구룡리 등 주민 50명이 4월 7일부터 4월 14일까지 홍성경찰서에서 즉결처분으로 태형을 당한 기록이 있다.

4월 5일에는 신기리 주민 100명이 독립만세를 외쳤다. 『홍동면지』에는 이 시위를 '홍동 신기리 사건'이라며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이제경(李齊經)·조우식(趙愚植) 등이 3월 5일(양력 4월 5일) 밤 뒷산인 꽃동산에 모여 봉화를 올리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쳤고, 일경의 발포로 이희도(李羲圖)·한명교(韓命敎) 등이 현장에서 죽고 이석만(李錫滿)·안중호(安重浩) 등이 관통상을 입었다. 경찰은 주민들은 닥치는대로 체포하고 13명을 구속, 태형을 가하였다. 성낙붕(成樂朋)씨는 고문의 여독으로 사망하였으며 그로 인해 두 아들이 부인과 함께 사망하여 가정 전체가 몰락하였다.

이 만세운동의 결과는 일경들이 무차별 사격을 가해 2명이 죽고 2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체포 구금된 13명은 태형을 당했다. 또한 4월 8일에도 독립만세를 외쳤는데 『홍동면지』에 '홍동 원천리 사건'이라며 다

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황윤성(黃允性)은 3·1운동이 터지자 인근을 돌면서 세천부락은 청광산(靑光山)에서, 중원부락은 석삼봉(石三峰)에서, 종현부락은 종현봉(鍾懸峰)에서 4월 8일 일제히 거사하여 만세를 부른 다음 홍동주재소를 기습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들은 약속대로 거사하고 "왜놈은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주재소를 기습하였다. 일본 경찰은 물론 조선인 순사들도 모두 도망하였다. 그러나 다음날 본서에서 수십 명의 경찰이 나와 황윤성을 체포하여 고문을 하고 관련자들의 성명을 밝히라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고문에 못이겨 사망하였다.

『홍동면지』에는 이 만세운동의 결과 사망하거나 형을 받은 애국지사 총 63명이 기록되어 있다. 홍동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태(笞) 30도(度)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103

안태호[安泰滸, 이명 : 안전태호(安田泰滸)], 남, 1894. 11. 04~1950. 12. 19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홍동 신기 499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홍동 신기 499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19,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홍동 사람으로 1919년 4월 홍동면(洪東面)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홍동면의 3·1운동은 4월 4일부터 시작되었다. 홍동면사무소의 「범죄인명부」에는 신기리 이외에 구암리, 문당리, 수란리, 효학리, 금평리, 운원리, 운용리, 월림리, 대평리, 구룡리 등 주민 50명이 4월 7일부터 4월 14일까지 홍성경찰서에서 즉결처분으로 태형을 당한 기록이 있다.

4월 5일에는 신기리 주민 100명이 독립만세를 외쳤다. 『홍동면지』에는 이 시위를 '홍동 신기리 사건' 이라며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이제경(李齊經)·조우식(趙愚植) 등이 3월 5일(양력 4월 5일) 밤 뒷산인 꽃동산에 모여 봉화를 올리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쳤고, 일경의 발포로 이희도(李羲圖)·한명교(韓命敎) 등이 현장에서 죽고 이석만(李錫滿)·안중호(安重浩) 등이 관통상을 입었다. 경찰은 주민들은 닥치는대로 체포하고 13명을 구속, 태형을 가하였다. 성낙붕(成樂朋)씨는 고문의 여독으로 사망하였으며 그로 인해 두 아들이 부인과 함께 사망하여 가정 전체가 몰락하였다.

이 만세운동의 결과는 일경들이 무차별 사격을 가해 2명이 죽고 2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체포 구금된 13명은 태형을 당했다. 또한 4월 8일에도 독립만세를 외쳤는데 『홍동면지』에 '홍동 원천리 사건' 이라며 다

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황윤성(黃允性)은 3·1운동이 터지자 인근을 돌면서 세천부락은 청광산(靑光山)에서, 중원부락은 석삼봉(石三峰)에서, 종현부락은 종현봉(鍾懸峰)에서 4월 8일 일제히 거사하여 만세를 부른 다음 홍동주재소를 기습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들은 약속대로 거사하고 "왜놈은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주재소를 기습하였다. 일본 경찰은 물론 조선인 순사들도 모두 도망하였다. 그러나 다음날 본서에서 수십 명의 경찰이 나와 황윤성을 체포하여 고문을 하고 관련자들의 성명을 밝히라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고문에 못이겨 사망하였다.

『홍동면지』에는 이 만세운동의 결과 사망하거나 형을 받은 애국지사 총 63명이 기록되어 있다. 홍동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태(笞) 30도(度)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104

안효봉(安孝奉), 남, 1892 미상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홍동 신기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홍동 신기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19,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홍동 사람으로 1919년 4월 홍동면(洪東面)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홍동면의 3·1운동은 4월 4일부터 시작되었다. 홍동면사무소의 「범죄인명부」에는 신기리 이외에 구암리, 문당리, 수란리, 효학리, 금평리, 운원리, 운용리, 월림리, 대평리, 구룡리 등 주민 50명이 4월 7일부터 4월 14일까지 홍성경찰서에서 즉결처분으로 태형을 당한 기록이 있다.

4월 5일에는 신기리 주민 100명이 독립만세를 외쳤다. 『홍동면지』에는 이 시위를 '홍동 신기리 사건'이라며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이제경(李齊經)·조우식(趙愚植) 등이 3월 5일(양력 4월 5일) 밤 뒷산인 꽃동산에 모여 봉화를 올리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쳤고, 일경의 발포로 이희도(李羲圖)·한명교(韓命敎) 등이 현장에서 죽고 이석만(李錫滿)·안중호(安重浩) 등이 관통상을 입었다. 경찰은 주민들은 닥치는대로 체포하고 13명을 구속, 태형을 가하였다. 성낙붕(成樂朋)씨는 고문의 여독으로 사망하였으며 그로 인해 두 아들이 부인과 함께 사망하여 가정 전체가 몰락하였다.

이 만세운동의 결과는 일경들이 무차별 사격을 가해 2명이 죽고 2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체포 구금된 13명은 태형을 당했다. 또한 4월 8일에도 독립만세를 외쳤는데 『홍동면지』에 '홍동 원천리 사건'이라며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황윤성(黃允性)은 3·1운동이 터지자 인근을 돌면서 세천부락은 청광산(靑光山)에서, 중원부락은 석삼봉(石三峰)에서, 종현부락은 종현봉(鍾縣峰)에서 4월 8일 일제히 거사하여 만세를 부른 다음 홍동주재소를 기습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들은 약속대로 거사하고 "왜놈은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주재소를 기습하였다. 일본 경찰은 물론 조선인 순사들도 모두 도망하였다. 그러나 다음날 본서에서 수십 명의 경찰이 나와 황윤성을 체포하여 고문을 하고 관련자들의 성명을 밝히라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고문에 못이겨 사망하였다.

『홍동면지』에는 이 만세운동의 결과 사망하거나 형을 받은 애국지사 총 63명이 기록되어 있다. 홍동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태(笞) 30도(度)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105

양기환(梁箕煥), 남, 1892. 02. 09~1957. 06. 15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송암 342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송암 342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05,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1919년 4월 1일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

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4월 19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106

양두환(梁斗煥), 남, 1885. 09. 27~1941. 10. 11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송암 104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송암 104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05,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1919년 4월 1일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4월 19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107

양운칠(梁云七), 남, 1887. 08. 24~1941. 05. 17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죽림 681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죽림 681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06,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금마면(金馬面) 가산리(佳山里)와 홍성시장에서

전개되었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1919년 4월 19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108

오경춘(吳敬春, 이명 : 吳壽南), 남, 1891. 02. 26~1936. 08. 31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장곡 화계 221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장곡 화계 221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10, 훈격 : 애족장

홍성 장곡 사람으로 장곡면(長谷面)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장곡면의 만세시위는 4월 4일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시작으로, 4월 8일까지 장곡면사무소를 중심으로 이어졌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장곡면에서의 횃불독립만세운동은 윤씨 3형제(윤형중, 윤익중, 윤낙중)가 주도하고 윤의석(尹宜錫), 윤만수(尹萬洙), 이문재(李文載), 최기석(崔奇錫), 최채선(崔彩仙) 등이 적극 참여한

가운데 화계리, 광성리, 신풍리 주민들이 합세하여 면사무소 뒤편 응봉산(鷹峯山)에서 펼쳐졌다.

장곡면사무소를 중심으로 펼쳐졌던 4월 7일과 8일의 만세시위는 김동하(金東河, 金東化) 등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는 장곡면에서도 만세시위를 일으키기로 동지들과 뜻을 모은 뒤 거사일을 4월 7일로 정하고, 거사에 필요한 태극기를 제작하는 한편 동지들의 규합에 힘을 쏟았다. 4월 7일 오경춘(吳敬春, 壽南)이 종을 치며 주민들을 집합시켰고, 김동하는 김동완(金東完)·김용숙(金容肅, 用叔)·김용제(金用濟)·이화춘(李化春)·김차제(金次濟, 化先)·한상철(韓相喆) 등과 함께 태극기를 꽂고 독립선언식을 가진 후 화계리 주민 및 이웃 마을인 광성리와 신풍리 주민 300여 명과 함께 화계리에 근접한 동리 앞산에서 독립만세를 외쳤다.

이후 도산리(道山里) 소재 면사무소로 행진한 그들은 밤 8시에 도착하여 면내 각지에서 몰려 온 사람들과 합류하였다. 500여 명의 시위군중은 면사무소에 직원들이 한 명도 없자, 김동하의 주도로 돌과 곤봉으로 면사무소 기둥과 창문을 파괴하고 공문서를 파기하는 등 격렬히 항쟁하였다.

다음 날인 4월 8일 밤 11시에는 학생과 지역민들 60여 명이 다시 면사무소에 모여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들은 전날 면사무소 습격으로 출동해 있던 일경과 대치하였지만, 다시 면사무소를 파괴하였다. 그러자 대치하고 있던 일본 군경은 시위대를 향해 총격을 가했고, 시위군중 다수가 부상을 입거나 피체되었다. 이때 일본 군경의 발포로 11명이 체포되고 2명이 부상하였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장곡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41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36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장곡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4월 24일 일경에 체포된 그는 1919년 10월 18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소요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109

오달영(吳達泳), 남, 1891. 09. 28~1940. 12. 31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월암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월암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07,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금마면(金馬面) 가산리(佳山里)와 홍성시장에서 전개되었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

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1919년 4월 23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110

오대근(吳大根), 남, 1886. 03. 20~1969. 11. 11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부평 200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부평 200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05,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1919년 4월 1일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

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

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4월 23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111

오형근(吳亨根), 남, 1888. 08. 05~1925. 11. 23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부평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부평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06,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금마면(金馬面) 가산리(佳山里)와 홍성시장에서 전개되었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

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1919년 4월 23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112

오흥순(吳興順), 남, 1901. 07. 12~1950. 11. 25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광천 옹암 420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광천 옹암 420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1992,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광천 사람으로 배재고등보통학교에 재학중인 1919년 3월 1일 국민회보(國民會報)를 사람들에게 배포하고 독립선언서를 러시아영사관에 전달하였다. 그는 1919년 3월 1일 배재고등보통학교(培材高等普通學校) 학생으로 국민회보 수천매를 인수받아 서울 탑동(塔洞)공원 동쪽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배부하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시위에 참가하였으며 민족대표의 한사람인 이필주(李弼柱)의 지시에 따라 독립선언서를 러시아영사관에 전달한 후 일경에 체포되었다.

이 일로 체포된 그는 같은 해 11월 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형을 언도받고 공소를 제기하여, 1920년 2월 27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원판결이 부분 취소되었으나 징역 8월의 옥고를 치렀다.

1920년 10월 28일 서대문 형무소에서 출옥 후 일본으로 건너가 동경(東京)에 있는 입교대학(立敎大學)에 입학하고, 일본에 있는 유학생들을 규합하여 김시현(金始顯) 등과 함께 학생운동을 주도하며 활동하기도 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113

유성만(柳成萬), 남, (1900) 1926. 01. 04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가산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가산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11,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홍성시장 등지에서 전개되었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

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1919년 4월 23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1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114

유성진(俞成鎭, 이명 : 俞星鎭), 남, 1899. 07. 07~1929. 02. 19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화양 499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화양 499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05,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1919년 4월 1일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4월 23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115

유학선(劉學先), 남, 1877. 03. 06 미상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은하 장곡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은하 장곡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19,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은하 사람으로 1919년 4월 9부터 전개되었던 은하면(銀河面) 장곡리(長谷里)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은하면의 만세시위는 3월 21일 대천리(大川里)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시작되었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후 장곡리(長谷里)에서는 4월 9일 밤 전명규(田明圭) 등 마을주민 다수가 모여 대한독립만세를 불렀다. 일경은 이를 발견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해 홍성경찰서로 보내 홍성경찰서에서 즉결처분으로 태형을 가했다. 홍성군의 3·1운동 관련 수형기록자료(은하면 범죄인명부)에 따르면 은하면에서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2명이다.

은하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60도(度)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116

유혜무(柳惠茂), 남, 1889. 12. 26~1927. 10. 07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송강 249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송강 49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05,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1919년 4월 1일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4월 23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117

윤기섭(尹基燮), 남, 1894. 05. 10~1986. 11. 06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장곡 화계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장곡 화계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04,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장곡 사람으로 장곡면(長谷面)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장곡면의 만세시위는 4월 4일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시작으로, 4월 8일까지 장곡면사무소를 중심으로 이어졌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장곡면에서의 횃불독립만세운동은 윤씨 3

형제(윤형중, 윤익중, 윤낙중)가 주도하고 윤의석(尹宜錫), 윤만수(尹萬洙), 이문재(李文載), 최기석(崔奇錫), 최채선(崔彩仙) 등이 적극 참여한 가운데 화계리, 광성리, 신풍리 주민들이 합세하여 면사무소 뒤편 응봉산(鷹峯山)에서 펼쳐졌다.

장곡면사무소를 중심으로 펼쳐졌던 4월 7일과 8일의 만세시위는 김동하(金東河, 金東化) 등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는 장곡면에서도 만세시위를 일으키기로 동지들과 뜻을 모은 뒤 거사일을 4월 7일로 정하고, 거사에 필요한 태극기를 제작하는 한편 동지들의 규합에 힘을 쏟았다. 4월 7일 오경춘(吳敬春, 壽南)이 종을 치며 주민들을 집합시켰고, 김동하는 김동완(金東完)·김용숙(金容肅, 用叔)·김용제(金用濟)·이화춘(李化春)·김차제(金次濟, 化先)·한상철(韓相喆) 등과 함께 태극기를 꽂고 독립선언식을 가진 후 화계리 주민 및 이웃 마을인 광성리와 신풍리 주민 300여 명과 함께 화계리에 근접한 동리 앞산에서 독립만세를 외쳤다.

이후 도산리(道山里) 소재 면사무소로 행진한 그들은 밤 8시에 도착하여 면내 각지에서 몰려 온 사람들과 합류하였다. 500여 명의 시위군중은 면사무소에 직원들이 한 명도 없자, 김동하의 주도로 돌과 곤봉으로 면사무소 기둥과 창문을 파괴하고 공문서를 파기하는 등 격렬히 항쟁하였다.

다음 날인 4월 8일 밤 11시에는 학생과 지역민들 60여 명이 다시 면사무소에 모여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들은 전날 면사무소 습격으로 출동해 있던 일경과 대치하였지만, 다시 면사무소를 파괴하였다. 그러자 대치하고 있던 일본 군경은 시위대를 향해 총격을 가했고, 시위군중 다수가 부상을 입거나 피체되었다. 이때 일본 군경의 발포로 11명이 체포되고 2명이 부상하였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장곡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41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36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장곡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1919년 5월 30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4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118

윤기순(尹己順, 이명 : 尹樂重), 남, 1900. 07. 13~1950. 10. 17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장곡 화계 182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장곡 화계 182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1990, 훈격 : 애족장

홍성 장곡 사람으로 1919년 3·1운동이 서울에서 일어나자 당시 경신학교(儆新學校)에 재학중이었으나, 고향인 장곡면(長谷面) 화계리로 내려와 인근 주민들에게 독립만세운동의 취지를 설명하고 같이 참가할 것을 역설하였으며, 거사일인 4월 7일 시위군중의 선두에 서서, 윤형중(尹衡重)과 함께 독립만세를 선창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장곡면의 만세시위는 4월 4일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시작으로, 4월 8일까지 장곡면사무소를 중심으로 이어졌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장곡면에서의 횃불독립만세운동은 윤씨 3형제(윤형중, 윤익중, 윤낙중)가 주도하고 윤의석(尹宜錫), 윤만수(尹萬

洙), 이문재(李文載), 최기석(崔奇錫), 최채선(崔彩仙) 등이 적극 참여한 가운데 화계리, 광성리, 신풍리 주민들이 합세하여 면사무소 뒤편 응봉산(鷹峯山)에서 펼쳐졌다.

장곡면사무소를 중심으로 펼쳐졌던 4월 7일과 8일의 만세시위는 김동하(金東河, 金東化) 등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는 장곡면에서도 만세시위를 일으키기로 동지들과 뜻을 모은 뒤 거사일을 4월 7일로 정하고, 거사에 필요한 태극기를 제작하는 한편 동지들의 규합에 힘을 쏟았다. 4월 7일 오경춘(吳敬春, 壽南)이 종을 치며 주민들을 집합시켰고, 김동하는 김동완(金東完)·김용숙(金容肅, 用叔)·김용제(金用濟)·이화춘(李化春)·김차제(金次濟, 化先)·한상철(韓相喆) 등과 함께 태극기를 꽂고 독립선언식을 가진 후 화계리 주민 및 이웃 마을인 광성리와 신풍리 주민 300여 명과 함께 화계리에 근접한 동리 앞산에서 독립만세를 외쳤다.

이후 도산리(道山里) 소재 면사무소로 행진한 그들은 밤 8시에 도착하여 면내 각지에서 몰려 온 사람들과 합류하였다. 500여 명의 시위군중은 면사무소에 직원들이 한 명도 없자, 김동하의 주도로 돌과 곤봉으로 면사무소 기둥과 창문을 파괴하고 공문서를 파기하는 등 격렬히 항쟁하였다.

다음 날인 4월 8일 밤 11시에는 학생과 지역민들 60여 명이 다시 면사무소에 모여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들은 전날 면사무소 습격으로 출동해 있던 일경과 대치하였지만, 다시 면사무소를 파괴하였다. 그러자 대치하고 있던 일본 군경은 시위대를 향해 총격을 가했고, 시위군중 다수가 부상을 입거나 피체되었다. 이때 일본 군경의 발포로 11명이 체포되고 2명이 부상하였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장곡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41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36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장곡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10월 18일 고

등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119

윤만수(尹萬洙, 이명 : 尹萬用, 尹萬水), 남, 1887. 07. 09~1939. 06. 12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장곡 화계 270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장곡 화계 270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1995,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장곡 사람으로 1919년 4월 4일부터 장곡면(長谷面)에서 윤형중(尹衡重)·윤낙중(尹樂重)의 주도하에 산위에서 봉화를 들고 독립만세를 고창하고 면사무소를 습격하는 등 격렬한 항일 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장곡면의 만세시위는 4월 4일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시작으로, 4월 8일까지 장곡면사무소를 중심으로 이어졌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장곡면에서의 횃불독립만세운동은 윤씨 3형제(윤형중, 윤익중, 윤낙중)가 주도하고 윤의석(尹宜錫), 윤만수(尹萬洙), 이문재(李文載), 최기석(崔奇錫), 최채선(崔彩仙) 등이 적극 참여한 가운데 화계리, 광성리, 신풍리 주민들이 합세하여 면사무소 뒤편 응봉

산(鷹峯山)에서 펼쳐졌다.

장곡면사무소를 중심으로 펼쳐졌던 4월 7일과 8일의 만세시위는 김동하(金東河, 金東化) 등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는 장곡면에서도 만세시위를 일으키기로 동지들과 뜻을 모은 뒤 거사일을 4월 7일로 정하고, 거사에 필요한 태극기를 제작하는 한편 동지들의 규합에 힘을 쏟았다. 4월 7일 오경춘(吳敬春, 壽南)이 종을 치며 주민들을 집합시켰고, 김동하는 김동완(金東完)·김용숙(金容肅, 用叔)·김용제(金用濟)·이화춘(李化春)·김차제(金次濟, 化先)·한상철(韓相喆) 등과 함께 태극기를 꽂고 독립선언식을 가진 후 화계리 주민 및 이웃 마을인 광성리와 신풍리 주민 300여 명과 함께 화계리에 근접한 동리 앞산에서 독립만세를 외쳤다.

이후 도산리(道山里) 소재 면사무소로 행진한 그들은 밤 8시에 도착하여 면내 각지에서 몰려 온 사람들과 합류하였다. 500여 명의 시위군중은 면사무소에 직원들이 한 명도 없자, 김동하의 주도로 돌과 곤봉으로 면사무소 기둥과 창문을 파괴하고 공문서를 파기하는 등 격렬히 항쟁하였다.

다음 날인 4월 8일 밤 11시에는 학생과 지역민들 60여 명이 다시 면사무소에 모여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들은 전날 면사무소 습격으로 출동해 있던 일경과 대치하였지만, 다시 면사무소를 파괴하였다. 그러자 대치하고 있던 일본 군경은 시위대를 향해 총격을 가했고, 시위군중 다수가 부상을 입거나 피체되었다. 이때 일본 군경의 발포로 11명이 체포되고 2명이 부상하였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장곡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41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36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장곡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1919년 5월 30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벌금 30원을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120

윤병혁(尹秉赫), 남, 1891. 12. 07~1939. 12. 28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송암 507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송암 507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05,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장곡 사람으로 장곡면(長谷面)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장곡면의 만세시위는 4월 4일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시작으로, 4월 8일까지 장곡면사무소를 중심으로 이어졌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장곡면에서의 횃불독립만세운동은 윤씨 3형제(윤형중, 윤익중, 윤낙중)가 주도하고 윤의석(尹宜錫), 윤만수(尹萬洙), 이문재(李文載), 최기석(崔奇錫), 최채선(崔彩仙) 등이 적극 참여한 가운데 화계리, 광성리, 신풍리 주민들이 합세하여 면사무소 뒤편 응봉산(鷹峯山)에서 펼쳐졌다.

장곡면사무소를 중심으로 펼쳐졌던 4월 7일과 8일의 만세시위는 김동하(金東河, 金東化) 등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는 장곡면에서도 만세시위를 일으키기로 동지들과 뜻을 모은 뒤 거사일을 4월 7일로 정하고, 거사에 필요한 태극기를 제작하는 한편 동지들의 규합에 힘을 쏟았다. 4월 7일 오경춘(吳敬春, 壽南)이 종을 치며 주민들을 집합시켰고, 김동하는 김동완(金東完)·김용숙(金容肅, 用叔)·김용제(金用濟)·이화춘(李化春)·김

차제(金次濟, 化先)·한상철(韓相喆) 등과 함께 태극기를 꽂고 독립선언식을 가진 후 화계리 주민 및 이웃 마을인 광성리와 신풍리 주민 300여 명과 함께 화계리에 근접한 동리 앞산에서 독립만세를 외쳤다.

이후 도산리(道山里) 소재 면사무소로 행진한 그들은 밤 8시에 도착하여 면내 각지에서 몰려 온 사람들과 합류하였다. 500여 명의 시위군중은 면사무소에 직원들이 한 명도 없자, 김동하의 주도로 돌과 곤봉으로 면사무소 기둥과 창문을 파괴하고 공문서를 파기하는 등 격렬히 항쟁하였다.

다음 날인 4월 8일 밤 11시에는 학생과 지역민들 60여 명이 다시 면사무소에 모여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들은 전날 면사무소 습격으로 출동해 있던 일경과 대치하였지만, 다시 면사무소를 파괴하였다. 그러자 대치하고 있던 일본 군경은 시위대를 향해 총격을 가했고, 시위군중 다수가 부상을 입거나 피체되었다. 이때 일본 군경의 발포로 11명이 체포되고 2명이 부상하였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장곡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41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36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4월 19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121

윤용범(尹容範), 남, 1890. 05. 03 미상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홍동 구룡 70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홍동 구룡 70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19,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홍동 사람으로 1919년 4월 홍동면(洪東面)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홍동면의 3·1운동은 4월 4일부터 시작되었다. 홍동면사무소의 「범죄인명부」에는 신기리 이외에 구암리, 문당리, 수란리, 효학리, 금평리, 운원리, 운용리, 월림리, 대평리, 구룡리 등 주민 50명이 4월 7일부터 4월 14일까지 홍성경찰서에서 즉결처분으로 태형을 당한 기록이 있다.

4월 5일에는 신기리 주민 100명이 독립만세를 외쳤다. 『홍동면지』에는 이 시위를 '홍동 신기리 사건'이라며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이제경(李齊經)·조우식(趙愚植) 등이 3월 5일(양력 4월 5일) 밤 뒷산인 꽃동산에 모여 봉화를 올리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쳤고, 일경의 발포로 이희도(李羲圖)·한명교(韓命敎) 등이 현장에서 죽고 이석만(李錫滿)·안중호(安重浩) 등이 관통상을 입었다. 경찰은 주민들은 닥치는대로 체포하고 13명을 구속, 태형을 가하였다. 성낙붕(成樂朋)씨는 고문의 여독으로 사망하였으며 그로 인해 두 아들이 부인과 함께 사망하여 가정 전체가 몰락하였다.

이 만세운동의 결과는 일경들이 무차별 사격을 가해 2명이 죽고 2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체포 구금된 13명은 태형을 당했다. 또한 4월 8일

에도 독립만세를 외쳤는데 『홍동면지』에 '홍동 원천리 사건'이라며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 황윤성(黃允性)은 3·1운동이 터지자 인근을 돌면서 세천부락은 청광산(靑光山)에서, 중원부락은 석삼봉(石三峰)에서, 종현부락은 종현봉(鍾懸峰)에서 4월 8일 일제히 거사하여 만세를 부른 다음 홍동주재소를 기습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들은 약속대로 거사하고 "왜놈은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주재소를 기습하였다. 일본 경찰은 물론 조선인 순사들도 모두 도망하였다. 그러나 다음날 본서에서 수십 명의 경찰이 나와 황윤성을 체포하여 고문을 하고 관련자들의 성명을 밝히라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고문에 못이겨 사망하였다.

『홍동면지』에는 이 만세운동의 결과 사망하거나 형을 받은 애국지사 총 63명이 기록되어 있다. 홍동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태(笞) 30도(度)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122

윤용욱(尹容旭), 남, 1891. 05. 04~1966. 02. 06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송암 562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송암 562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05,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1919년 4월 1일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3·1운동

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4월 19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123

윤의석(尹宜錫, 이명 : 尹相石), 남, 1901. 06. 29~1977. 12. 24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장곡 화계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장곡 화계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1990, 훈격 : 애족장

홍성 장곡 사람으로 장곡면(長谷面)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장곡면의 만세시위는 4월 4일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시작으로, 4월 8일까지 장곡면사무소를 중심으로 이어졌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장곡면에서의 횃불독립만세운동은 윤씨 3형제(윤형중, 윤익중, 윤낙중)가 주도하고 윤의석(尹宜錫), 윤만수(尹萬洙), 이문재(李文載), 최기석(崔奇錫), 최채선(崔彩仙) 등이 적극 참여한

가운데 화계리, 광성리, 신풍리 주민들이 합세하여 면사무소 뒤편 응봉산(鷹峯山)에서 펼쳐졌다.

장곡면사무소를 중심으로 펼쳐졌던 4월 7일과 8일의 만세시위는 김동하(金東河, 金東化) 등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는 장곡면에서도 만세시위를 일으키기로 동지들과 뜻을 모은 뒤 거사일을 4월 7일로 정하고, 거사에 필요한 태극기를 제작하는 한편 동지들의 규합에 힘을 쏟았다. 4월 7일 오경춘(吳敬春, 壽南)이 종을 치며 주민들을 집합시켰고, 김동하는 김동완(金東完)·김용숙(金容肅, 用叔)·김용제(金用濟)·이화춘(李化春)·김차제(金次濟, 化先)·한상철(韓相喆) 등과 함께 태극기를 꽂고 독립선언식을 가진 후 화계리 주민 및 이웃 마을인 광성리와 신풍리 주민 300여 명과 함께 화계리에 근접한 동리 앞산에서 독립만세를 외쳤다.

이후 도산리(道山里) 소재 면사무소로 행진한 그들은 밤 8시에 도착하여 면내 각지에서 몰려 온 사람들과 합류하였다. 500여 명의 시위군중은 면사무소에 직원들이 한 명도 없자, 김동하의 주도로 돌과 곤봉으로 면사무소 기둥과 창문을 파괴하고 공문서를 파기하는 등 격렬히 항쟁하였다.

다음 날인 4월 8일 밤 11시에는 학생과 지역민들 60여 명이 다시 면사무소에 모여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들은 전날 면사무소 습격으로 출동해 있던 일경과 대치하였지만, 다시 면사무소를 파괴하였다. 그러자 대치하고 있던 일본 군경은 시위대를 향해 총격을 가했고, 시위군중 다수가 부상을 입거나 피체되었다. 이때 일본 군경의 발포로 11명이 체포되고 2명이 부상하였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장곡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41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36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장곡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5월 3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소요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형을 언도받았

고, 8월 1일 경성복심법원에 공소하여 징역 10월형을 선고받았으며 10월 18일 고등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1년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124

윤익중(尹益重, 이명 : 尹世重), 남, 1896. 04. 27~1963. 02. 01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장곡 화계 180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장곡 화계 180

운동계열 : 의열투쟁, 포상년도 : 1990, 훈격 : 애국장

홍성 장곡 사람으로 김상옥(金相玉)이 주도하던 혁신단(革新團)에 가입하여 기관지를 발행하는 등의 활동에 참여하였다. 그는 1919년 중앙고보(中央高普) 졸업반 시절에 지하단체로서 김상옥이 주도하던 혁신단에 가입하였다. 그는 김상옥과 함께 사재를 털고 친지들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조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혁신단은 독립사상을 고취·선전하는 홍보(弘報) 활동을 하기 위한 지하단체로서, 단원은 이춘식(李春植, 휘문고보 졸업반)·박노영(朴露英, 중앙고보 졸업반)·윤익중(尹益重, 휘문고보 졸업반)·신화수(申華秀, 불교학원 졸업반)·정설교(鄭卨敎, 보성고보 3년 재학)·자주택·김화룡(金華龍)·서대순(徐大順)·전우진(全宇鎭) 등 9명이었다.

혁신단에서는 조직의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 4월 17일〈혁신공보(革新公報)〉라는 기관지를 발행하였다. 이 기관지는 등사판 인쇄의 지하신문으로 국내외에서 취재한 독립운동 전선의 새로운 소식과 독립사상을 고취하는 논설 등을 게재하였으며, 1회 1천부를 발행하였다. 정설교도 기관지의 발행에 적극 참여하였다. 그러나 김상옥의 검거로 신문 발행은 일시 중단되었다가 석방 후 9월까지 계속 발행되었지만 재정난에 봉착하였다.

재정조달을 책임지고 있던 윤익중과 김상옥이 사재를 털고 친지들로부터 얼마씩을 모금하여 자금을 조달했지만 여의치 못하게 되었고, 인쇄 책임자을 맡은 서대순이 검거되고 시설 일체가 압수를 당하여 신문발행은 중단되었다. 그래서 이들은 10월 10일 박노영과 김봉신(金奉信)을 대한민국임시정부에 파견하여 자금지원을 요청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당시 임시정부도 재정이 열악하여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이었고, 혁신단은 진로를 전환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들은 조국 독립을 쟁취할 유일한 방법이 직접 행동·무력항쟁이 있을 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래서 1920년 그와 단원들은 협의를 거쳐 본격적인 요인암살 활동을 통한 독립운동에의 방향을 잡고 암살단(暗殺團)의 구성에 적극 협력하였다.

그는 1920년 3월 20일 구국민단(救國民團) 사건에 연루되어 체포되었으나, 10월 26일 예심종결로 풀려났다. 1921년에는 김상옥 주도의 암살단(暗殺團)에서 활약하다가 체포되어, 같은 해 11월 1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르던 중 1년 4개월만에 가출옥하였다.

출옥 후, 그는 김상옥·이혜수(李惠受) 등과 모의하여 군자금을 모집하였으며, 1923년 1월 12일 김상옥의 종로경찰서 폭탄투척사건에 연루되어 체포되었다. 그는 1923년 10월 1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장기(長期) 2년, 단기(短期) 1년 6월형의 징역형을 언도받고 1년 6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80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125

윤태경(尹泰璟), 남, 1877. 03. 25~1935. 02. 05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송암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송암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05,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1919년 4월 1일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4월 19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126

윤형중(尹衡重), 남, 1895. 06. 23~1935. 07. 18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장곡 화계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장곡 화계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1990, 훈격 : 애족장

홍성 장곡 사람으로 1919년 4월 4부터 전개되었던 장곡면(長谷面) 화계리(花溪里)의 독립만세운동을 윤기순(尹己順)과 함께 주도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장곡면의 만세시위는 4월 4일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시작으로, 4월 8일까지 장곡면사무소를 중심으로 이어졌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

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장곡면에서의 횃불독립만세운동은 윤씨 3형제(윤형중, 윤익중, 윤낙중)가 주도하고 윤의석(尹宜錫), 윤만수(尹萬洙), 이문재(李文載), 최기석(崔奇錫), 최채선(崔彩仙) 등이 적극 참여한 가운데 화계리, 광성리, 신풍리 주민들이 합세하여 면사무소 뒤편 응봉산(鷹峯山)에서 펼쳐졌다.

장곡면사무소를 중심으로 펼쳐졌던 4월 7일과 8일의 만세시위는 김동하(金東河, 金東化) 등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는 장곡면에서도 만세시위를 일으키기로 동지들과 뜻을 모은 뒤 거사일을 4월 7일로 정하고, 거사에 필요한 태극기를 제작하는 한편 동지들의 규합에 힘을 쏟았다. 4월 7일 오경춘(吳敬春, 壽南)이 종을 치며 주민들을 집합시켰고, 김동하는 김동완(金東完)·김용숙(金容肅, 用叔)·김용제(金用濟)·이화춘(李化春)·김차제(金次濟, 化先)·한상철(韓相喆) 등과 함께 태극기를 꽂고 독립선언식을 가진 후 화계리 주민 및 이웃 마을인 광성리와 신풍리 주민 300여 명과 함께 화계리에 근접한 동리 앞산에서 독립만세를 외쳤다.

이후 도산리(道山里) 소재 면사무소로 행진한 그들은 밤 8시에 도착하여 면내 각지에서 몰려 온 사람들과 합류하였다. 500여 명의 시위군중은 면사무소에 직원들이 한 명도 없자, 김동하의 주도로 돌과 곤봉으로 면사무소 기둥과 창문을 파괴하고 공문서를 파기하는 등 격렬히 항쟁하였다.

다음 날인 4월 8일 밤 11시에는 학생과 지역민들 60여 명이 다시 면사무소에 모여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들은 전날 면사무소 습격으로 출동해 있던 일경과 대치하였지만, 다시 면사무소를 파괴하였다. 그러자 대치하고 있던 일본 군경은 시위대를 향해 총격을 가했고, 시위군중 다수가 부상을 입거나 피체되었다. 이때 일본 군경의 발포로 11명이 체포되고 2명이 부상하였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장곡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41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36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장곡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10월 18일 고등법원에서 징역 8월형에 벌금 20원(圓)의 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이후 1923년 1월에는 김상옥의 종로경찰서 폭탄투척 운동에 동생 윤익중을 통하여 재정지원을 하기도 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127

이강인(李康仁), 남, 1895. 10. 02~1971. 03. 20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홍동 문당 502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홍동 문당 502

운동계열 : 국내항일, 포상년도 : 1990, 훈격 : 애족장

홍성 홍동 사람으로 1919년 4월 4일 밤 홍성군 동북부(東北部) 4개면(面)에서 전개된 횃불시위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4월 4일 밤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었는데, 이때 그는 일본수비대로 향하는 시위행진의 대열에 참여하여 독립만세를 고창하였다. 그러나 이때 출동한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가 사방에서 집중 사격을 감행하여 10명이 사망하였고, 다수가 부상했으며 많은 사람이 체포되었다. 4개면의 횃불만세운동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

는 4월 10일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로 홍성 경찰서에서 태형을 받았다.

그후 다시 독립군 활동에 필요한 군자금을 모집하기 위하여 활동하던 중,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으며, 1921년 10월 15일 소위 제령 제7호(정치에 관한 법령) 위반 혐의로 공주(公州)지방법원에서 실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2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128

이경석(李庚奭), 남, 1894. 08. 03~1969. 04. 22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가산 104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가산 104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05,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1919년 4월 1일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

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4월 23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129

이계성(李啓性), 남, 1879. 03. 14~1964. 08. 05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부평 93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부평 93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05,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1919년 4월 1일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

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4월 23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130

이광헌(李光憲, 이명 : 李俊逢), 남, 1895. 08. 14~1969. 05. 07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죽림 257. 1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죽림 257. 1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05,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1919년 4월 1일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

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4월 19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131

이교열(李敎悅), 남, 1881, 미상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송암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송암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13,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1919년 4월 1일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

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4월 19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90도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132

이근주(李根周, 이명 : 淸狂子), 남, 1860. 02. 03~910. 09. 23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홍북 중계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홍북 중계

운동계열 : 계몽운동, 포상년도 : 1991, 훈격 : 애국장

홍성 홍북 사람으로 1895년 10월 일제가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만행을 자행하자 김복한(金福漢), 이설(李偰), 이승우(李勝宇) 등과 함께 홍성에서 의병을 일으켜 활동하였다. 자는 문약(文若), 호는 청광(淸狂), 본관은 전의이고 부친 현복(玄福)과 파평 윤씨 사이에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22세 때인 1881년에 공주의 마곡사 위에 있는 부용암(芙蓉菴)에서, 다음 해는 덕산사(德山寺)에서 공부했고, 1884년에는 결성의 고산

사(高山寺)에 들어가 독학하였다.

그는 1895년 명성황후가 시해되고 단발령이 시행되자 홍주의병에 참여하였다. 홍주의병은 김복한(金福漢) 등 관료유생들과 안병찬 등 지역의 유생들이 연합하여 추진되었다. 이때 이근주도 장서를 작성하여 관찰사에게 전달하고 의병에 합류하였다. 안병찬의 『규당일기』에 "11월 30일, 본읍의 사인(士人) 이근주(李根周)도 또한 관찰사에게 서신을 보냈는데 사연이 매우 강개하고 통박하였다." 라는 기록을 통해 그의 장서 내용이 매우 강개하고 통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 해인 1896년 1월초(음) 전 수사 조의현(趙儀顯) 등이 청양 일대에서 의병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갔으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고 돌아와서 울분을 이기지 못하였다. 이때부터 그는 천식과 다리가 마비되는 병을 얻었다. 이후 그는 「을미록(乙未錄)」, 「절의가(節義歌)」, 「화심주가(和心舟歌」, 「신년탄사(新年歎辭)」, 「태일자문답약초(泰一子問答略抄)」, 「사자구(四字句」, 민영환과 이설에 대한 애도시 등의 저술에 전념하였다.

그는 1910년 8월 나라가 일제에 병탄되자 "나의 의(義)는 적도(賊徒)와는 함께 살 수 없다"라고 하며, 자결로 항거하고자 하였으나 백형의 환갑이 있어 차마 그 전에 죽지 못하였다. 1910년 9월 백형 이근하(李根夏)의 환갑 잔치가 끝난 뒤 그는 중형(仲兄)에게 "삼천리 강토가 원수 오랑캐의 땅이 되고 5백년 예의의 나라가 변하여 오랑캐 나라가 되었으며, 한 나라의 임금이 갑자기 이적의 신민이 되었습니다. 절조가 있는 선비로서 어찌 편안히 배부르고 따뜻함을 얻겠습니까. 이는 개와 돼지와 같은 것이고, 또한 매국한 무리들과 한 하늘 아래에서 함께 삶을 훔치겠습니까." 라고 자결의 뜻을 전했다. 그리고 "오늘날 나가서는 국모(國母)의 원수를 갚고 군부(君父)의 치욕을 설치(雪恥)하지 못하였고, 물러나서는 집에서 수신(修身)하지 못하고 입신(立身)하여 뜻을 이룰 곳이 없으니, 이는 바로 뜻이 있는 선비가 인(仁)을 이루는 때입니다. 자고로 절

개를 세우는 자는 그 죽어야 하는 의리를 잡으면 나가서 죽을 뿐입니다. 어찌 이름을 당시에 구하고 내세에 복을 구한 뒤에 죽겠습니까!" 라고 제나라 노중연의 고사를 들면서 국모의 원수를 갚고 임금의 치욕을 갚지 못함에 죽음으로써 의리를 잡을 뿐이라면서 자결의 뜻을 고했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 성묘하러 간다고 말하고 주과(酒果)를 준비하여 부모 묘에 제사를 지내고 자결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충절을 기리어 199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6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133

이길성(李吉性), 남, 1874. 10. 30~1935. 01. 30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구항 황곡 427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구항 황곡 427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1990, 훈격 : 애족장

홍성 구항 사람으로 파리장서(巴里長書) 운동에 참여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설(李偰)의 문인이었던 그는 김복한(金福漢)과 유호근(柳浩根) 등이 15권 8책의 『복암집(復菴集)』을 편집할 때 정서(淨書)하였다. 그는 1919년 3월 경북 유림들이 파리강화회의(巴里講和會議)에 제출하고자 추진한 독립청원서에 서명한 139명 중 1인으로 활동하였으며, 또 전국 각지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황문수(黃文秀)와 함께 4월 7일을 거사일로 약정하고 자택에서 '대한국독립만세(大韓國獨立萬歲)' 라고 쓴 깃발을 활용하여 황곡리(篁谷里)의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그는 금마면의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민영갑과도 교류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구항면사무소의「수형인명표폐기목록」에는 대정리에 거주하는 6명이 보안법 위반으로 4월 23일 홍성경찰서에서 즉결처분으로 태형을 당한 기록이 있다. 또한 홍성군의 3·1운동 관련 수형기록자료(범죄인명부, 수형인명표폐기목록 등)에서 구항면에서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10명이 확인된다.

구항면의 만세운동은 4월 4일 홍성면을 비롯하여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의 24개 마을에서 전개되었던 횃불만세시위로 시작되었다. 황곡리(篁谷里)의 이길성(李吉性)은 경성 기타 각지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며 만세운동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도 참여하여 실행하기위해 '대한국독립만세(大韓國獨立萬歲)' 라고 크게 쓴 종이 깃발(구한국국기)을 제작하였다. 그는 4월 7일 밤 마을의 월산(月山, 日月山)에 올라가 깃발을 게양하고 황문수(黃文秀), 이유홍(李有弘), 이백영(李伯榮), 황통명(黃通明), 하유숙(河有淑), 최순보(崔順甫), 전남규(田南珪), 이희보(李熙輔) 등 여러 명의 주민들과 함께 불(篝火)을 피우고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들은 출동한 일병(日兵)이 총을 난사하며 진압에 나서자 각각 흩어져서 산을 내려왔다. 그러나 이길성, 황문수, 이유홍, 이희창(李熙昌), 이동규(李東圭) 등 5명은 다시 자리를 옮겨 월산의 한 봉우리인 백월산(白月山)에 올라가 홍성 시가를 바라보면 만세를 불렀다.

구항면의 만세운동에 참여하여 일경에 체포된 그는 4월 28일 공주

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형을 언도받았고 5월 3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공소 기각되었으며 7월 23일 고등법원에서도 상고 기각되어 1년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134

이남종(李南鍾, 이명 : 李南種), 남, 1893. 07. 29~1982. 04. 29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화양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화양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05,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1919년 4월 1일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4월 23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135

이만직(李晩稙, 이명 : 李晩植), 남, 미상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주　　소 : 미상

운동계열 : 의병, 포상년도 : 1995, 훈격 : 애족장

홍성 사람으로 민종식(閔宗植) 의진의 소모관(召募官)으로 충남 홍주(洪州) 일대에서 활약하였다. 민종식은 경기도 여주(驪州) 출신으로 1882년 과거에 급제하여 이조참판을 지냈다. 민종식은 러일전쟁 직후 일제의 강요와 위협 아래 1905년 11월 「을사늑약(乙巳勒約)」이 체결되자 국망의 위기를 절감하게 되었다. 이에 그는 국권회복을 위하여 처음 충남 정산(定山)군 천장리(天庄里)를 거점으로 동지를 규합하고, 군수품을 준비하는 등 의병 봉기를 준비하였다. 그런 다음 1906년 4월 처남되는 이용규(李容珪)와 이세영(李世永)·채광묵(蔡光默)·김광우(金光祐)·조희수(趙羲洙)·정재호(鄭在鎬)·황영수(黃英秀)·이상구(李相龜) 등과 함께 충청도 홍산(鴻山)에서 거의하였다.

이만직은 이 때 민종식의 거의계획에 참여하여 의병 소모관으로 활동하였다. 그리고 민종식 의진에서 종군하면서 같은 해 5월 19일 홍주성을 탈환하는데 앞장섰다. 이후 일본군 수비대와 홍주성에서 10여 일 동안의 공방전을 전개하여 적군 300여 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다. 하지만 화력 및 병력의 열세로 5월 31일 홍주성이 함락되자, 그는 민종식 의병장과 함께 후일을 기약하고 탈출하여 같은 해 9월 곽한일(郭韓一)·박윤식(朴潤植)·김덕진(金德鎭)·황영수(黃英秀)·정회규(鄭會圭)·박창로(朴昌魯) 등과 재차 거사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마저 친일매국단체인 일진회(一進會) 회원에게 누설되어 주동자들이 체포됨에 따라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경술국치(庚戌國恥) 후인 1916년 7월 이용규·윤병일(尹炳日) 등과 함께 다시 거사를 준비하면서, 박동신(朴東臣)에게 군자금을 요청했다가 그의 배신으로 1917년 4월 9일 일경에 체포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전남 지도(智島)에서 1년간 유배생활을 하는 고초를 겪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136

이문재(李文載), 남, 1898. 10. 20~1950. 06. 18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장곡 화계 237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장곡 화계 237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1996, 훈격 : 애족장

홍성 장곡 사람으로 장곡면(長谷面)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장곡면의 만세시위는 4월 4일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시작으로, 4월 8일까지 장곡면사무소를 중심으로 이어졌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장곡면에서의 횃불독립만세운동은 윤씨 3형제(윤형중, 윤익중, 윤낙중)가 주도하고 윤의석(尹宜錫), 윤만수(尹萬洙), 이문재(李文載), 최기석(崔奇錫), 최채선(崔彩仙) 등이 적극 참여한 가운데 화계리, 광성리, 신풍리 주민들이 합세하여 면사무소 뒤편 응봉산(鷹峯山)에서 펼쳐졌다.

장곡면사무소를 중심으로 펼쳐졌던 4월 7일과 8일의 만세시위는 김동하(金東河, 金東化) 등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는 장곡면에서도 만세시위를 일으키기로 동지들과 뜻을 모은 뒤 거사일을 4월 7일로 정하고, 거사에 필요한 태극기를 제작하는 한편 동지들의 규합에 힘을 쏟았다. 4월 7일 오경춘(吳敬春, 壽南)이 종을 치며 주민들을 집합시켰고, 김동하는 김동완(金東完)·김용숙(金容肅, 用叔)·김용제(金用濟)·이화춘(李化

春)·김차제(金次濟, 化先)·한상철(韓相喆) 등과 함께 태극기를 꽂고 독립선언식을 가진 후 화계리 주민 및 이웃 마을인 광성리와 신풍리 주민 300여 명과 함께 화계리에 근접한 동리 앞산에서 독립만세를 외쳤다.

이후 도산리(道山里) 소재 면사무소로 행진한 그들은 밤 8시에 도착하여 면내 각지에서 몰려 온 사람들과 합류하였다. 500여 명의 시위군중은 면사무소에 직원들이 한 명도 없자, 김동하의 주도로 돌과 곤봉으로 면사무소 기둥과 창문을 파괴하고 공문서를 파기하는 등 격렬히 항쟁하였다.

다음 날인 4월 8일 밤 11시에는 학생과 지역민들 60여 명이 다시 면사무소에 모여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들은 전날 면사무소 습격으로 출동해 있던 일경과 대치하였지만, 다시 면사무소를 파괴하였다. 그러자 대치하고 있던 일본 군경은 시위대를 향해 총격을 가했고, 시위군중 다수가 부상을 입거나 피체되었다. 이때 일본 군경의 발포로 11명이 체포되고 2명이 부상하였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장곡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41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36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장곡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8월 1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으로 징역 2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6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137

이보성(李保性), 남, 1881. 01. 28~1946. 07. 19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부평 105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부평 105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05,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1919년 4월 1일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

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4월 23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138

이봉성(李鳳性), 남, 1871. 06. 09~1921. 10. 28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화양 6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화양 6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07,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금마면(金馬面) 가산리(佳山里)와 홍성시장에서 전개되었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

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1919년 4월 23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139

이상락(李相洛), 남, 1889. 03. 27~1920. 05. 03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송강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송강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12,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1919년 4월 1일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

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4월 23일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 90도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140

이상만(李象萬), 남, 1884. 01. 05~1955. 01. 08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송월리 25

주　　소 :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2가 49(13통4반)

운동계열 : 임시정부, 포상년도 : 1963, 훈격 : 독립장

홍성 사람으로 중국에서 신대한동맹회(新大韓同盟會)를 조직하고 임시의정원 의원 등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1914년 감리교 협성신학교(協成神學校)를 졸업하고 다음해에 감리교의 목사가 되었다. 1919년 3월 한국독립운동본부(韓國獨立運動本部)의 지령으로 중국 북경(北京)에 파견되어 박정래(朴正來)·조두진(趙斗珍)·유장연(劉璋淵)·전재홍(田在弘)·유중한(柳重韓)·연병주(延秉柱)·최훈식(崔勳植) 등과 더불어 신대

한동맹회(新大韓同盟會)를 조직하고, 회장에 박정래를 추대하였으며 자신은 총무로 활동하였다.

1939년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선임되어 의정활동에 참여했던 그는 동년 9월 임정이 중경(重慶)으로 이동·정착한 후 10월에 개최된 의정원 정기의회에 참석하였다. 1940년 3월 13일 이동녕(李東寧)이 서거하자, 복상위원회(服喪委員會) 공사조(工事組) 주임으로서 치상(治喪)을 주관하였다. 이해 12월 5일 국무위원회에서 내무부 관할 하에 생계위원회를 설치하였는데, 민병길·심광섭과 함께 위원으로 선임되었다.

그는 1941년 9월 회계원검사원, 1942년 10월 회계검사원 검사관이 되었으며 임시의정원 의장이던 김붕준(金朋濬)의 탄핵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의정원은 김붕준이 '비정상적(非正常的)인 기획(企圖)를 품고 여러 가지 비법적(非法的) 행동'을 하였다고 결정하여 탄핵안을 가결하고, '비법선거(非法選擧)'의 무효를 선포하였다. 이에 따라 선거 감독관인 내무부장 조완구는 「내무부 공고(內務部 公告)」 제1호로서 22인 당선자의 무효를 선언하였다. 이는 한국독립당과 조선민족혁명당의 임시정부를 둘러싼 주도권 싸움의 결과였다. 이외에도 그는 광복군의 행동준승(行動準繩) 9개항의 취소를 요구하는 등 조국의 광복을 위한 통일된 정국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주력하였다.

1942년 2월 25일 임시의정원 의장과 생계검사원 원장이던 송병조가 서거하였을 때에도 치상위원으로 선임되어 장례를 주관하였다. 1943년 5월 한국독립당(韓國獨立黨)에 가입한 그는 중앙감찰 위원에 선출되었고 생계부 생활위원 선임되었으며, 회계검사원으로서 회의 소집의 책임을 맡았다. 생계부 생활위원은 8월에 사임하였다.

1944년 5월 6일 국무회의에서 생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설계하기 위하여 임시로 생활설계위원회를 설치하였는데, 그는 황학수 등과 함께 7인 위원으로 선출되었다. 또한 10월 9일 개최된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분과위원회를 조직할 때, 최석순·이시영·신환·왕통 등과 함께 제3과

(재정·예산·결산) 위원에 선임되는 등 주로 임시정부의 재정과 생계 부문에서 활동하였다. 의정원회의에서 제5차 개헌을 단행하여 지도체제를 개편하게 되자, 동년 6월 국무위원 겸 검사원장(檢查院長)이 되어 활약하였으며, 1945년에는 화중구(華中區) 한교선무단장이 되었다. 1946년에는 임시정부 주화대표단의 일원으로 해방을 맞이하여 중국 거주 동포의 귀국에 따른 영사업무를 담당하였다. 1947년에는 대만 한교협회이사장(韓僑協會理事長)으로 우리 교포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안전 귀국 등의 제반 업무를 처리하다가 과로로 인하여 병을 얻었으며, 1949년 귀국하여 요양 중 병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63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141

이상철(李相喆), 남, 1894. 05. 18~1927. 08. 24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송강 111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송강 111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05,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1919년 4월 1일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

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4월 23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에서

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142

이상협(李相協), 남, 1897. 01. 04~1960. 08. 16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송강 15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송강 15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05,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1919년 4월 1일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

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4월 23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143

이석인(李錫仁, 이명 : 李錫萬), 남, 1872. 06. 25~1947. 02. 29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덕정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덕정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06,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금마면(金馬面) 가산리(佳山里)와 홍성시장에서

전개되었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1919년 4월 23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144

이설(李偰), 남, 1850. 01. 24~1906. 04. 29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주　　소 : 미정
운동계열 : 계몽운동, 포상년도 : 1963, 훈격 : 독립장

홍성 사람으로 1895년 10월 일제의 명성황후 시해사건이 일어나자 김복한(金福漢) 등과 함께 홍주(洪州)에서 의병으로 활동하였다. 그의 자는 순명(舜命)·순도(舜徒), 호는 복암(復庵), 본관은 연안이다. 결성군 화산면(현, 충남 홍성군 구항면 오봉리)에서 부친 조익(祖益)과 모친 광산 김씨 사이에서 장자로 태어났다. 그는 남당 한원진의 학통을 잇고 있는 이돈필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문과에 급제하고 사간원 정언과 교리를 비롯하여 동부승지 등 여러 관직을 역임하였다. 건강상 이유로 관직을 사임하였으며 그때마다 상소를 올려 정국의 문제점과 방향을 비판적으로 지적하였다. 신분은 양반이었으나 서민의 처지를 이해하고자 노력했던 그는 동학농민전쟁이 일어났을 때 농민군이 봉기하지 않을 수 없게 한 실정의 책임을 조정의 고관에게 묻었고, 죽기 직전 올린 유소에서 임

금의 부덕과 실정이 국망을 초래하였다며 고종마저 원망하고 있다.

그의 민족운동은 홍주의병 투쟁과 1905년 을사늑약 반대 상소 투쟁으로 대별된다. 그는 1894년 갑오변란에 사직하고 낙향한 다음 해 을미사변과 단발령의 공포에 항거하여 홍주의병에 참여하였다. 그의 위정척사론은 급변하는 정세 따라 척사의 대상과 방향이 변함을 볼 수 있다. 그는 병자수호조약의 체결을 '수호조약'이 아닌 '항복조약'이라고 통박하면서 '척왜론'을 주장하였다. 1894년 갑오변란에 즈음하여 이러한 척왜론은 일본과의 '결전(決戰)'을 감행하자는 '대일항전론'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그의 위정척사론은 의병투쟁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었다. 위정척사론에 기반을 두고 있는 그의 사상은 사람과 동물의 구별을 엄격하게 하여 '척이단' 의식이 강하였고, 김복한과 임한주 등도 스스로를 당문(塘門)이라 할 정도로 호론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이설을 비롯한 홍주지역의 유생들이 철저히 척사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나아가 강력한 의병투쟁을 전개할 수 있었던 사상적 연원이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대장소에서 장계를 작성하는 임무를 맡았으며, 이승우의 배반으로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04년에 일본이 전국의 황무지 개척권을 요구하자 분개하여 전국에 격문을 돌리어 이를 반대하고 민족의식을 고취하였다. 1905년 11월 일제가 무력으로 국왕과 대신들을 위협하여 「을사조약」을 강제 체결하고 국권을 박탈하자 김복한과 함께 상경하여 매국적을 처단하고 일본과의 전쟁을 감행할 것을 요구하는 상소를 올리고 또다시 옥고를 치렀다. 곧이어 그는 을사5적 주살(誅殺) 계획을 세웠으나 이마저도 실패하였다. 이후 민종식과 안병찬 등에게 의병봉기를 권하였으며, 홍주의병의 봉기 소식을 듣고 기뻐하였지만, 1906년 4월 29일 옥고의 후유증으로 순국하였다. 문집으로 복암집(復菴集)과 복당창수록(福堂唱酬錄)이 전한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충절을 기리어 1963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145

이성근(李成根), 남, 1894. 01. 15~1924. 04. 15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장곡 화계 222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장곡 화계 222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1996,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장곡 사람으로 장곡면(長谷面)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장곡면의 만세시위는 4월 4일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시작으로, 4월 8일까지 장곡면사무소를 중심으로 이어졌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장곡면에서의 횃불독립만세운동은 윤씨 3형제(윤형중, 윤익중, 윤낙중)가 주도하고 윤의석(尹宜錫), 윤만수(尹萬洙), 이문재(李文載), 최기석(崔奇錫), 최채선(崔彩仙) 등이 적극 참여한 가운데 화계리, 광성리, 신풍리 주민들이 합세하여 면사무소 뒤편 응봉산(鷹峯山)에서 펼쳐졌다.

장곡면사무소를 중심으로 펼쳐졌던 4월 7일과 8일의 만세시위는 김동하(金東河, 金東化) 등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는 장곡면에서도 만세시위를 일으키기로 동지들과 뜻을 모은 뒤 거사일을 4월 7일로 정하고, 거사에 필요한 태극기를 제작하는 한편 동지들의 규합에 힘을 쏟았다. 4월 7일 오경춘(吳敬春, 壽南)이 종을 치며 주민들을 집합시켰고, 김동하는 김동완(金東完)·김용숙(金容肅, 用叔)·김용제(金用濟)·이화춘(李化

春)·김차제(金次濟, 化先)·한상철(韓相喆) 등과 함께 태극기를 꽂고 독립선언식을 가진 후 화계리 주민 및 이웃 마을인 광성리와 신풍리 주민 300여 명과 함께 화계리에 근접한 동리 앞산에서 독립만세를 외쳤다.

이후 도산리(道山里) 소재 면사무소로 행진한 그들은 밤 8시에 도착하여 면내 각지에서 몰려 온 사람들과 합류하였다. 500여 명의 시위군중은 면사무소에 직원들이 한 명도 없자, 김동하의 주도로 돌과 곤봉으로 면사무소 기둥과 창문을 파괴하고 공문서를 파기하는 등 격렬히 항쟁하였다.

다음 날인 4월 8일 밤 11시에는 학생과 지역민들 60여 명이 다시 면사무소에 모여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들은 전날 면사무소 습격으로 출동해 있던 일경과 대치하였지만, 다시 면사무소를 파괴하였다. 그러자 대치하고 있던 일본 군경은 시위대를 향해 총격을 가했고, 시위군중 다수가 부상을 입거나 피체되었다. 이때 일본 군경의 발포로 11명이 체포되고 2명이 부상하였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장곡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41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36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장곡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1919년 5월 30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으로 징역 6월과 벌금 30원을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146

이영숙(李永淑), 남, 1884. 09. 24~1971. 11. 27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은하 장곡 328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은하 장곡 328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05,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은하 사람으로 1919년 4월 9부터 전개되었던 은하면(銀河面) 장곡리(長谷里)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은하면의 만세시위는 3월 21일 대천리(大川里)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시작되었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후 장곡리(長谷里)에서는 4월 9일 밤 전명규(田明圭) 등 마을주민 다수가 모여 대한독립만세를 불렀다. 일경은 이를 발견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해 홍성경찰서로 보내 홍성경찰서에서 즉결처분으로 태형을 가했다. 홍성군의 3·1운동 관련 수형기록자료(은하면 범죄인명부)에 따르면 은하면에서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2명이다.

은하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1919년 4월 13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147

이오정(李吾丁, 이명 : 李五情), 남, 1896. 06. 19~1963. 01. 08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죽림 390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죽림 390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06,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금마면(金馬面) 가산리(佳山里)와 홍성시장에서

전개되었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

(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1919년 4월 19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148

이완백(李完伯), 남, 1899 미상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홍북 내덕
주　　소 : 충청남도 청양 청양 장승 67
운동계열 : 국내항일, 포상년도 : 2019, 훈격 : 애족장

홍성 홍북 사람으로 김좌진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하였다. 김영진(金瑛鎭)·조병채(趙炳彩) 등은 윤상기(尹相起)·이치국(李致國)·백남식(白南式)·윤태병(尹太炳) 등과 공모하여 조선 각지의 부자들에게 독립운동에 필요한 자금을 모집하여 김좌진 등에게 보내기로 계획하였다. 그리고 이완백·노재철(盧載喆)·김명수(金明秀)·유기종(柳冀宗)·이창호(李昌鎬)·김백순(金伯順)·이상설(李商雪) 등도 위의 계획에 찬동·협력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완백은 1921년 5월 2일 김영진·김명수 등과 함께 충남 보령군 대천면 화산리 황오현(黃五顯)에게 군자금 860원을 모집하였다. 이 일로 체포된 그는 1922년 9월 18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제령 제7호 위반, 강도 등의 죄명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9년에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149

이용하(李龍夏), 남, 1887. 12. 15~1966. 01. 03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죽림 814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죽림 814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05,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1919년 4월 1일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4월 19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150

이우용(李愚龍), 남, 1884. 12. 20~1954. 03. 05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화양 204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화양 204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05,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1919년 4월 1일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

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4월 23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151

이유홍(李有弘), 남, 1890. 10. 01~1919. 05. 24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구항 황곡 427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구항 황곡 427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14, 훈격 : 애국장

홍성 구항 사람으로 1919년 4월 구항면(龜項面)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정도까지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남도에서 많은 운동이 전개되었다. 홍성읍에서는 3월 7일 만세시위가 일어난 것을 시작으로 각 면에서도 만세시위가 불같이 일어났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구항면사무소의 「수형인명표폐기목록」에는 대정리에 거주하는 6명이 보안법 위반으로 4월 23일 홍성경찰서에서 즉결처분으로 태형을 당한 기록이 있다. 또한 홍성군의 3·1운동 관련 수형기록자료(범죄인명부, 수형인명표폐기목록 등)에서 구항면에서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10명이 확인된다.

황곡리(篁谷里)의 이길성(李吉性)은 경성 기타 각지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며 만세운동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도 참여하여 실행하기 위해 '대한국독립만세(大韓國獨立萬歲)'라고 크게 쓴 종이 깃발(구 한국국기)을 제작하였다. 그는 4월 7일 밤 마을의 월산(月山, 日月山)에 올라가 깃발을 게양하고 황문수(黃文秀), 이유홍(李有弘), 이백영(李伯榮), 황통명(黃通明), 하유숙(河有淑), 최순보(崔順甫), 전남규(田南珪), 이희보(李熙輔) 등 여러 명의 주민들과 함께 불(篝火)을 피우고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들은 출동한 일병(日兵)이 총을 난사하며 진압에 나서자 각각 흩어져서 산을 내려왔다. 그러나 이길성, 황문수, 이유홍, 이희창(李熙昌), 이동규(李東圭) 등 5명은 다시 자리를 옮겨 월산의 한 봉우리인 백월산(白月山)에 올라가 홍성 시가를 바라보면 만세를 불렀다.

구항면의 만세운동에 참여하여 일경에 체포된 그는 1919년 4월 15일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맞고 그 여독으로 1919년 5월 24일 순국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4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152

이응길(李應吉), 남, 1898. 07. 11~1978. 02. 10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덕정 503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덕정 503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05,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1919년 4월 1일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

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4월 23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153

이인순(李仁淳), 남, 1883. 04. 02~1944. 01. 30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송암 87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송암 87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05,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홍성 금마 사람으로 1919년 4월 1일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4월 19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154

이인춘(李仁春), 남, 1895. 06. 10~1956. 11. 06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송암 157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송암 157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05,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홍성시장에서 전개되었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

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4월 19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155

이일순(李一淳), 남, 1885. 11. 26~1954. 11. 04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송암 88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송암 88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05,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홍성시장에서 전개되었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

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4월 19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156

이재만(李載萬), 남, 1886. 02. 10~1943. 10. 07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봉서 416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봉서 416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1990, 훈격 : 애족장

홍성 금마 사람으로 1919년 4월 1일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이재만은 약장수로 변장하고 서울(경성)을 왕래하며 서울 소식을 홍성지역에 전달하였다고 전해진다. 그는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확산되자 민영갑·김재홍(金在洪)·최중삼(崔仲三)·조재학(趙載學) 등과 함께 가산리(佳山里) 이원교(李元交)의 집에서 있을 연극 공연을 활용한 독립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1919년 4월 30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아 공소하였으나 5월 30일 경성복심법원과 7월 3일 고등법원에서 각각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

에 건국훈장 애족장(198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157

이정수(李定洙), 남, 1888. 09. 26~1961. 09. 19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송강 127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송강 127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05,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1919년 4월 1일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

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4월 23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158

이주형(李周亨), 남, 1880. 11. 12~1925. 12. 08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장곡 지정 414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장곡 지정 414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13, 훈격: 대통령표창

홍성 장곡 사람으로 장곡면(長谷面)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

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장곡면의 만세시위는 4월 4일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시작으로, 4월 8일까지 장곡면사무소를 중심으로 이어졌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장곡면에서의 횃불독립만세운동은 윤씨 3형제(윤형중, 윤익중, 윤낙중)가 주도하고 윤의석(尹宜錫), 윤만수(尹萬洙), 이문재(李文載), 최기석(崔奇錫), 최채선(崔彩仙) 등이 적극 참여한 가운데 화계리, 광성리, 신풍리 주민들이 합세하여 면사무소 뒤편 응봉산(鷹峯山)에서 펼쳐졌다.

장곡면사무소를 중심으로 펼쳐졌던 4월 7일과 8일의 만세시위는 김동하(金東河, 金東化) 등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는 장곡면에서도 만세시위를 일으키기로 동지들과 뜻을 모은 뒤 거사일을 4월 7일로 정하고, 거사에 필요한 태극기를 제작하는 한편 동지들의 규합에 힘을 쏟았다. 4월 7일 오경춘(吳敬春, 壽南)이 종을 치며 주민들을 집합시켰고, 김동하는 김동완(金東完)·김용숙(金容肅, 用叔)·김용제(金用濟)·이화춘(李化春)·김차제(金次濟, 化先)·한상철(韓相喆) 등과 함께 태극기를 꽂고 독립선언식을 가진 후 화계리 주민 및 이웃 마을인 광성리와 신풍리 주민 300여 명과 함께 화계리에 근접한 동리 앞산에서 독립만세를 외쳤다.

이후 도산리(道山里) 소재 면사무소로 행진한 그들은 밤 8시에 도착하여 면내 각지에서 몰려 온 사람들과 합류하였다. 500여 명의 시위군중은 면사무소에 직원들이 한 명도 없자, 김동하의 주도로 돌과 곤봉으

로 면사무소 기둥과 창문을 파괴하고 공문서를 파기하는 등 격렬히 항쟁하였다.

다음 날인 4월 8일 밤 11시에는 학생과 지역민들 60여 명이 다시 면사무소에 모여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들은 전날 면사무소 습격으로 출동해 있던 일경과 대치하였지만, 다시 면사무소를 파괴하였다. 그러자 대치하고 있던 일본 군경은 시위대를 향해 총격을 가했고, 시위군중 다수가 부상을 입거나 피체되었다. 이때 일본 군경의 발포로 11명이 체포되고 2명이 부상하였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장곡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41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36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장곡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홍성경찰서에서 4월 18일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 90도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159

이중선(李重善), 남, 1891. 05. 05~1957. 12. 01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죽림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죽림

운동계열 : 3·1운, 포상년도 : 2004,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홍성시장에서 전개되었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1919년 4월 19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4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160

이중화(李仲和), 남, 1891. 02. 07~1978. 03. 16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화양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화양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05,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1919년 4월 1일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

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4월 23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161

이지성(李智性), 남, 1893. 06. 21~1962. 04. 23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부평 695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부평 695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05,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1919년 4월 1일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4월 23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이진규(李鎭珪, 이명 : 李鎭奎), 남, 1894. 12. 21~1965. 08. 20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송강 100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송강 100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05,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1919년 4월 1일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4월 23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163

이진석(李鎭奭), 남, 1893. 12. 08~1953. 02. 15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송강 95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송강 95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05,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1919년 4월 1일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4월 23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164

이철순(李喆淳), 남, 1893. 04. 21~1978. 09. 20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송암 105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송암 105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05,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1919년 4월 1일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

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4월 19일 홍성 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165

이충순(李忠純), 남, 1877. 02. 08~1907. 08. 03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구항 태봉 186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구항 태봉 186

운동계열 : 의병, 포상년도 : 1990, 훈격 : 애국장

그는 1877년(고종 14) 2월 8일 충청도 홍주(洪州)에서 부친 이병제(李秉濟)와 모친 한양조씨 사이에서 3남으로 태어났다. 자 경삼(景三)이고, 본관은 전주(全州)이다. 연일정씨(延日鄭氏)와 혼인하여 두 아들 부래(富來), 귀래(貴來)와 딸 하나를 두었다. 이충순의 집안이 호서지방에 정착한 것은 증조부 이창하(李昌夏)가 결성의 장촌(현 홍성군 은하면 장곡리 장말)에 삶의 터전을 마련하면서부터였다. 1904년(광무 7) 작성된 호적초본에 그의 본가는 '홍주군(洪州郡) 홍안송면 하소리(洪州郡 洪安松面 下所里, 현재 홍동면 문당리 안말)' 로 되어 있고,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제적부에는 본전이 '충남 홍성군 구항면 태봉리 186번지' 로 기재되어 있다.

이충순은 1900년 10월 4일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에 제2회로 입교하였고, 성적 '우등' 으로 기록되어 있어 중간 정도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육군무관학교 재학 중인 1902년 7월 6일 대한제국 육군 보병참위로 임관되었고, 임관 후인 1903년 9월 20일 졸업하였다. 그리고 1년 후

인 1904년 6월 21일 친위보병 제1연대 제3대대 '견습참위(見習參尉)'로 보임되었다. 1905년 4월 26일에는 전남 광주에 주둔하던 진위보병 제4대대의 견습 참위로 전임되었고, 9월 15일자로 수원 주둔 진위보병 제1대대의 견습 참위로 다시 임명되었다. 수원의 진위대에 배속된 이충순은 1906년 徵上隊로 서울에 올라와 주둔하였는데,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군규 위월(軍規 違越)'로 일주일 중근신(重勤愼)'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한편 유품 가운데 '군인구락부 취지(軍人俱樂部 趣旨)'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는 1906년 10월 군부의 관변 친목기관으로 훈련원 내에 창설된 '군인구락부(軍人俱樂部)'에서도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수원에 이어 서울 시위대 제2연대 제1대대의 견습 참위로 전임된 그는 1907년 8월 1일 일제의 군대(서울 시위대) 해산에 항거하여 일본군과 남대문 부근에서 벌어진 치열한 시가전에 참전하였다. 그는 시가전 참전 전날 홍성에 있는 부친에게 편지(내용은 전하지 않음)를 보냈고, 이즈음 서울에서 함께 지내던 서모 박씨에게 다음과 같은 결전의 각오를 밝혔다.

> 군대를 기르는 날은 나라를 보존하는 것이요, 군대가 해산되는 때는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저의 직분은 비록 낮으나 몸을 이미 나라에 허락하였습니다. 이러한 국가 망극의 변고를 당하였으니 부모가 계시다는 이유로 살기를 도모할 수 없는 것입니다.

8월 1일 서울 시위대 해산 당일, 남대문 일대에서 벌어진 시가전은 시위보병 제1연대 제1대대장 참령 박승환(朴昇煥)의 자결로 시작되었다. 8월 1일 오전 8시 30분경 대대장 박승환이 자결하자, 연병장에 도열해 있던 군인들은 무기고에서 부수고 총기와 탄약을 되찾아 옥상과 창문에서 최초로 사격을 개시하였다. 이때부터 시위 제1연대 제1대대

군인 591명은 전원 재무장하고 일본군과 교전에 들어갔다. 이충순이 소속된 제2연대 제1대대는 일본군 배속교관 지청어(池淸魚) 대위와 함께 해산식장인 훈련원으로 향하려던 중 이웃 대대 봉기 소식을 듣고 즉시 무기고를 파괴하고 총기를 되찾은 뒤 봉기에 참여하였다. 양 대대가 봉기하자 먼저 남대문 안에 주둔해 있던 일본군 보병 제51연대 제3대대 제9중대 및 제10중대의 각 1소대는 아침 해산될 시위대 제1연대와 제2연대의 각 1대대 병영을 접수할 임무를 띠고 출발하려다 총성을 듣고 급히 출동하였다. 일본군 제9중대의 1소대는 시위 제2연대 제1대대를, 제10중대의 1소대는 시위 제1연대 제1대로 접근해 오자 시위대 군인들은 맹렬한 사격을 가하며 이들의 접근을 차단시켰다. 이에 일본군 제3대대장 사카베(坂部) 소좌는 전황이 '불리' 하다는 사실을 감지하고 9시 30분 제10중대 병력 전원을 투입하였다. 시위대 2개 대대의 도심 항일전은 압도적 화력을 지닌 일본군에 의해 두 병영이 완전히 장악당하는 11시 40분까지 3시간 동안 치열하게 벌어졌다. 일본군은 중대장 미원의구(梶原義久) 대위, 특무조장 웅본위차랑(熊本爲次郎), 조장 평야정이랑(平野正二郎), 1등졸 미조치(梶條治) 등 4명이 전사하였고, 등강이태랑(藤江伊泰郎), 특무조장 등전경작(藤田耕作) 등 총 38명은 부상을 입었다. 시위대군은 이충순을 포함한 준사관 이상 장교 13명, 하사 이하 병졸 56명 등 모두 79명이 전사 순국하였고, 장교 이하 90명이 부상당하였으며, 560명이 일본군에 체포되었다. 이 전투에서 일본군은 소총탄 7,573발, 기관총탄 1,138발, 황색 화약 1.6Kg을 소모했다 일본군에게 압수당한 시위대군의 무기는 30년식 보병총 1,512정 및 총검 1,377개, 탄약 18,991발, 단발총 139정 및 총검 127개, 단도 17개 등이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166

이필봉(李弼奉), 남, 1884. 12. 11~1950. 03. 05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장곡 옥계 345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장곡 옥계 345

운동계열 : 의병, 포상년도 : 1990, 훈격 : 독립장

홍성 장곡 사람으로 오양선의 의병에 가담하여 일진회원을 처단하는 활동을 하였다. 그는 오양선(吳良善)이 이끄는 의병진에 가담한 뒤 1908년 11월 19일 정택하(鄭澤夏)·전봉학(田奉學)·채한영(蔡漢榮) 등과 같이 총칼로 무장하고 홍주군(洪州郡) 화성면(化城面) 제곡동(齊谷洞)으로 가, 의병의 동태를 탐지해 일제 헌병에게 밀고하던 친일 일진회원(一進會員) 이종국(李鍾國)을 결박하여 용두리(龍頭里)로 끌고 가서 참살(斬殺)하다가 일경에게 체포되었다. 그 뒤 1909년 6월 11일 공주지방재판소에서 소위 모살죄(謀殺罪)로 종신 징역형을 언도받고 공소하였으나 같은 해 8월 16일 경성공소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르던 중 감형되어 1919년 8월 출옥하였다. 이후 1940년 3월 중국 동삼성(東三省)으로 망명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167

이학순(李學淳), 남, 1876. 05. 24~1943. 01. 31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송강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송강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05,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1919년 4월 1일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3·1운동

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

(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4월 23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168

이한여(李漢汝, 이명 : 이용준), 남, 1890. 09. 14~1957. 09. 15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월암 739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월암 739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05,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1919년 4월 1일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

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4월 23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169

이항순(李亢淳), 남, 1887. 12. 02~1940. 01. 15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송암 97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송암 97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06,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금마면(金馬面) 가산리(佳山里)와 홍성시장에서 전개되었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

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1919년 4월 19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170

이화춘(李化春, 이명 : 李戊戌), 남, 1888. 01. 16~1967. 08. 27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장곡 화계 25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장곡 화계 25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1995, 훈격 : 애족장

홍성 장곡 사람으로 4월 7일 장곡면(長谷面)에서 500여 명의 주민을 주도하여 독립만세를 고창하고 항일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장곡면의 만세시위는 4월 4일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시작으로, 4월 8

일까지 장곡면사무소를 중심으로 이어졌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장곡면에서의 횃불독립만세운동은 윤씨 3형제(윤형중, 윤익중, 윤낙중)가 주도하고 윤의석(尹宜錫), 윤만수(尹萬洙), 이문재(李文載), 최기석(崔奇錫), 최채선(崔彩仙) 등이 적극 참여한 가운데 화계리, 광성리, 신풍리 주민들이 합세하여 면사무소 뒤편 응봉산(鷹峯山)에서 펼쳐졌다.

장곡면사무소를 중심으로 펼쳐졌던 4월 7일과 8일의 만세시위는 김동하(金東河, 金東化) 등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는 장곡면에서도 만세시위를 일으키기로 동지들과 뜻을 모은 뒤 거사일을 4월 7일로 정하고, 거사에 필요한 태극기를 제작하는 한편 동지들의 규합에 힘을 쏟았다. 4월 7일 오경춘(吳敬春, 壽南)이 종을 치며 주민들을 집합시켰고, 김동하는 김동완(金東完)·김용숙(金容肅, 用叔)·김용제(金用濟)·이화춘(李化春)·김차제(金次濟, 化先)·한상철(韓相喆) 등과 함께 태극기를 꽂고 독립선언식을 가진 후 화계리 주민 및 이웃 마을인 광성리와 신풍리 주민 300여 명과 함께 화계리에 근접한 동리 앞산에서 독립만세를 외쳤다.

이후 도산리(道山里) 소재 면사무소로 행진한 그들은 밤 8시에 도착하여 면내 각지에서 몰려 온 사람들과 합류하였다. 500여 명의 시위군중은 면사무소에 직원들이 한 명도 없자, 김동하의 주도로 돌과 곤봉으로 면사무소 기둥과 창문을 파괴하고 공문서를 파기하는 등 격렬히 항쟁하였다.

다음 날인 4월 8일 밤 11시에는 학생과 지역민들 60여 명이 다시 면사무소에 모여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들은 전날 면사무소 습격으로 출동해 있던 일경과 대치하였지만, 다시 면사무소를 파괴하였다. 그러자 대치하고 있던 일본 군경은 시위대를 향해 총격을 가했고, 시위군중 다수가 부상을 입거나 피체되었다. 이때 일본 군경의 발포로 11명이 체포

되고 2명이 부상하였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장곡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41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36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장곡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1919년 6월 30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 6월을 받아 공소하였으나 10월 10일 고등법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이흥주(李興柱), 남, 1863. 06. 11~1937. 01. 26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부평 686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부평 686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05,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1919년 4월 1일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4월 23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172

이희도(李羲圖), 남, 1885. 11. 18~1919. 03. 05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홍동 신기 122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홍동 신기 122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1991, 훈격 : 애국장

홍성 홍동 사람으로 1919년 4월 4일 밤 홍성군 동북부(東北部) 4개면(面)에서 전개된 횃불시위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4월 4일 밤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었는데, 이때 그는 일본수비대로 향하는 시위행진의 대열에 참여하여 독립만세를 고창하였다. 그러나 이때 출동한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가 사방에서 집중 사격을 감행하여 10명이 사망하였고, 다수가 부상했으며 많은 사람이 체포되었다. 4개면의 횃불만세운동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이 횃불만세운동에 참가했다가 적의 흉탄을 맞고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173

이희림(李喜林), 남, 1889. 04. 22~1929. 04. 14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죽림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죽림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12,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1919년 4월 1일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4월 19일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 90도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임명선(林明先), 남, 1878. 04. 07~1960. 04. 26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용흥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용흥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10,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금마면(金馬面) 가산리(佳山里)와 홍성시장에서 전개되었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

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1919년 4월 23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175

임정실(林定實, 이명 : 林正實), 남, 1885. 05. 16~1954. 04. 28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장성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장성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07,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금마면(金馬面) 가산리(佳山里)와 홍성시장에서 전개되었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

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1919년 4월 14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176

임헌영(任憲永), 남, 1876. 10. 02~1936. 10. 02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덕정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덕정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05,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1919년 4월 1일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

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4월 23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177

장가산(張加山, 이명 : 張善慶), 남, 1901. 11. 17~1947. 07. 31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가산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가산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13,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1919년 4월 1일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

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4월 23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178

장선기(張善基), 남, 1871. 08. 05~1933. 03. 07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월암 34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월암 34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05,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1919년 4월 1일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

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4월 23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179

전명규(田明圭), 남, 1881. 12. 21~1944. 12. 11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은하 장곡 241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은하 장곡 241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12,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은하 사람으로 1919년 4월 9부터 전개되었던 은하면(銀河面) 장곡리(長谷里)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은하면의 만세시위는 3월 21일 대천리(大川里)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시작되었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후 장곡리(長谷里)에서는 4월 9일 밤 전명규(田明圭) 등 마을주민 다수가 모여 대한독립만세를 불렀다. 일경은 이를 발견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해 홍성경찰서로 보내 홍성경찰서에서 즉결처분으로 태형을 가했다. 홍성군의 3·1운동 관련 수형기록자료(은하면 범죄인명부)에 따르면 은하면에서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2명이다.

은하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4월 16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180

전순삼(田順三), 남, 1874. 09. 15~1940. 12. 10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은하 장곡 307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은하 장곡 307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05,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은하 사람으로 1919년 4월 9부터 전개되었던 은하면(銀河面) 장곡리(長谷里)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은하면의 만세시위는 3월 21일 대천리(大川里)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시작되었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

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후 장곡리(長谷里)에서는 4월 9일 밤 전명규(田明圭) 등 마을주민 다수가 모여 대한독립만세를 불렀다. 일경은 이를 발견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해 홍성경찰서로 보내 홍성경찰서에서 즉결처분으로 태형을 가했다. 홍성군의 3·1운동 관련 수형기록자료(은하면 범죄인명부)에 따르면 은하면에서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2명이다.

은하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4월 16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181

전양진(田穰鎭), 남, 1873. 05. 01~1943. 08. 24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결성 형산 169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결성 형산 169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1995, 훈격 : 건국포장

홍성 결성 사람으로 파리장서(巴里長書) 운동에 참여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는 1919년 3월 파리강화회의에 한국독립을 호소하기 위하여 김창숙(金昌淑) 등이 유림(儒林) 대표가 되어 작성한 독립청원서에 유림의 한 사람으로서 서명하는 등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 파리장서사건(巴里長書事件)이라고 불리우는 이 거사는 김복한(金福漢)을 중심으로 한 호서유림과 곽종석(郭鍾錫)을 중심으로 한 영남유림 137명이 참여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유림의 항일운동이었다. 파리장서의 요지는 일제가 자행한 명성황후·광무황제(光武皇帝)의 시해와 한국 주권의 찬탈 과정을 폭로하면서 한국독립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이들 유림은 김창숙(金昌淑)을 파리로 파견하고자 상해로 보냈으나, 직접 가지는 못하고 이 문서를 신한청년당(新韓青年黨)의 대표로 파리에 파견된 김규식(金奎植)에게 송달했으며, 국내의 각 향교에도 우송되었다.

그런데 이 일은 경상북도 상주의 만세운동과 관련하여 1919년 4월 12일 서명자의 한 사람이었던 송회근(宋晦根)이 체포되면서 발각되었고, 이로써 전양진도 일경에 체포되었다. 그는 이 일로 1919년 7월 29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1920년에는 김복한(金福漢)의 발의와 지도로 시작한 인도공의소(人道公議所)에 참여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182

전용규(田鎔圭 : 田容圭, 田瑢圭, 田鎔珪), 남, 1872. 09. 01 (1918)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주　　소 : 京城 體府 191

운동계열 : 국내항일, 포상년도 : 2010, 훈격: 애족장

홍성 사람으로 대한독립의군부(大韓獨立義軍府)를 조직하고 활동하였다. 궁내부 시종으로 봉직했던 그는 이전에 알고 지냈던 이정로(李鼎魯)의 소개로 곽한일(郭漢一)을 알게되어 1912년 봄부터 서로 왕래하였다. 곽한일은 1912년 9월 신문 기사 내용을 통해 일본 내에서 민권당(民權黨)의 약진으로 정부와의 알력이 일어나고 일본정부 역시 재정적 곤란으로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만 하는 사실을 알고 호기가 왔다며 전용규, 이정로, 이칙(李伋) 등에게 설명하고 국내에서 세력을 결집하여 항일운동을 전개하려고 하였다. 이들은 경성 서부 사직동 56통 5호에

살고 있던 전용규의 집에서 다수의 조선인을 권유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각지에서 연설 등의 방법으로 독립사상을 고취하여 기회가 오면 일제히 조선독립을 발표하고 열국에게 동정을 호소하여 뜻을 관철하기로 하였다. 곽한일과 김재순(金在珣) 등은 이칙의 유세에 전라도에서 상경한 임병찬(林炳瓚)의 아들 임응철(林應喆)과 이범구(李範九)의 집에서 회합을 가지기도 하였다.

대한독립의군부는 1906년 최익현 휘하에서 의병활동으로 일본 대마도에 유배되었다가 돌아온 임병찬이 1912년 광무황제의 밀칙을 받고 독립의군부 전라남도순무대장의 이름으로 비밀리에 동지를 규합함으로써 조직되었다. 임병찬은 호남지방의 의병과 유생을 규합하고 자기 아들인 임응철(林應喆)을 서울에 보내 이인순(李寅淳)·곽한일(郭漢一)·전용규(田瑢圭) 등과 의논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전라남북도 지방에서 의군부 조직에 착수하였고, 이 조직을 전국규모로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1913년 2월 광무황제로부터 다시 전라남북도 순무총장 겸 사령장관에 임명된 임병찬은 중앙원수부에 병마도총장과 참모총약장을 두고 서울·강화·개성·수원·광주에 5영을 두었다. 그리고 각 도·부(府)·군 단위의 조직을 완성하고 그 대표로 민정식(閔正植)·이명상(李明翔)·이인순(李寅淳)·조형하(趙衡夏)·곽한일(郭漢一)·채상덕(蔡相德)·김용응(金鏞應)·전용규(田瑢珪)·조재학(趙在學)·최만식(崔萬植)·이승욱(李承旭)·고석진(高石鎭) 등이 총 대표였고, 각도 대표로는 경기도 최영설(崔永卨), 충청도 류준근(柳濬根), 경상도 권진원(權鎭遠), 전라도 이중익(李重翼)·최영례(崔永禮)·오계엽(吳啓燁)·박재구(朴在求)·이권제(李權濟), 강원도 서상렬(徐相烈), 함경도 김성문(金性文), 평안도 이도성(李道成), 황해도 류응두(柳應斗)·오창근(吳昌根)·송낙선(宋洛善) 등을 선정하였다.

이 단체의 활동 목표는 일본 내각 총리대신과 조선총독 등에게 국권반환요구서(國權返還要求書)를 보내 한국 강점의 부당성을 깨우치고,

대규모 의병전쟁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1913년 5월 국권반환요구서를 대한독립의군부 조직을 통해 발송하고, 동시에 360여 개 처에서 일제히 총독부로 국권반환과 일본군병의 철병을 요구하는 전화를 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러나 5월 23일 동지 김창식(金昌植)이 체포되어 조직이 발각되었다.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전용규를 비롯한 임병찬 등 대한독립의군부 조직원 다수가 체포되었다.

이 일로 그는 1915년 3월 13일 보안법 제7조 정치에 관한 불온한 언론 동작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1917년에는 재거의(再擧義)를 도모하다 거주 제한을 당하기도 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전우진(田禹鎭), 남, 1883. 02. 25~1964. 11. 25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은하 장곡 335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은하 장곡 335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06,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은하 사람으로 1919년 4월 9부터 전개되었던 은하면(銀河面) 장곡리(長谷里)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은하면의 만세시위는 3월 21일 대천리(大川里)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시작되었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

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 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후 장곡리(長谷里)에서는 4월 9일 밤 전명규(田明圭) 등 마을주민 다수가 모여 대한독립만세를 불렀다. 일경은 이를 발견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해 홍성경찰서로 보내 홍성경찰서에서 즉결처분으로 태형을 가했다. 홍성군의 3·1운동 관련 수형기록자료(은하면 범죄인명부)에 따르면 은하면에서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2명이다.

은하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4월 16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184

전이진(田利鎭), 남, 1892. 04. 15~1944. 06. 06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은하 장곡 337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은하 장곡 337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05,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은하 사람으로 1919년 4월 9부터 전개되었던 은하면(銀河面) 장곡리(長谷里)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은하면의 만세시위는 3월 21일 대천리(大川里)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시작되었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

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후 장곡리(長谷里)에서는 4월 9일 밤 전명규(田明圭) 등 마을주민 다수가 모여 대한독립만세를 불렀다. 일경은 이를 발견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해 홍성경찰서로 보내 홍성경찰서에서 즉결처분으로 태형을 가했다. 홍성군의 3·1운동 관련 수형기록자료(은하면 범죄인명부)에 따르면 은하면에서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2명이다.

은하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4월 16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185

전재명(全在明), 남, (1893) 1919. 05. 10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장곡 광성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장곡 광성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10, 훈격 : 애국장

홍성 장곡 사람으로 장곡면(長谷面)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장곡면의 만세시위는 4월 4일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시작으로, 4월 8일까지 장곡면사무소를 중심으로 이어졌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

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장곡면에서의 횃불독립만세운동은 윤씨 3형제(윤형중, 윤익중, 윤낙중)가 주도하고 윤의석(尹宜錫), 윤만수(尹萬洙), 이문재(李文載), 최기석(崔奇錫), 최채선(崔彩仙) 등이 적극 참여한 가운데 화계리, 광성리, 신풍리 주민들이 합세하여 면사무소 뒤편 응봉산(鷹峯山)에서 펼쳐졌다.

장곡면사무소를 중심으로 펼쳐졌던 4월 7일과 8일의 만세시위는 김동하(金東河, 金東化) 등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는 장곡면에서도 만세시위를 일으키기로 동지들과 뜻을 모은 뒤 거사일을 4월 7일로 정하고, 거사에 필요한 태극기를 제작하는 한편 동지들의 규합에 힘을 쏟았다. 4월 7일 오경춘(吳敬春, 壽南)이 종을 치며 주민들을 집합시켰고, 김동하는 김동완(金東完)·김용숙(金容肅, 用叔)·김용제(金用濟)·이화춘(李化春)·김차제(金次濟, 化先)·한상철(韓相喆) 등과 함께 태극기를 꽂고 독립선언식을 가진 후 화계리 주민 및 이웃 마을인 광성리와 신풍리 주민 300여 명과 함께 화계리에 근접한 동리 앞산에서 독립만세를 외쳤다.

이후 도산리(道山里) 소재 면사무소로 행진한 그들은 밤 8시에 도착하여 면내 각지에서 몰려 온 사람들과 합류하였다. 500여 명의 시위군중은 면사무소에 직원들이 한 명도 없자, 김동하의 주도로 돌과 곤봉으로 면사무소 기둥과 창문을 파괴하고 공문서를 파기하는 등 격렬히 항쟁하였다.

다음 날인 4월 8일 밤 11시에는 학생과 지역민들 60여 명이 다시 면사무소에 모여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들은 전날 면사무소 습격으로 출동해 있던 일경과 대치하였지만, 다시 면사무소를 파괴하였다. 그러자 대치하고 있던 일본 군경은 시위대를 향해 총격을 가했고, 시위군중 다수가 부상을 입거나 피체되었다. 이때 일본 군경의 발포로 11명이 체포되고 2명이 부상하였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장곡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41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36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장곡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1919년 4월 28일 소위 소요 및 보안법 위반으로 재판을 기다리던 중, 옥중에서 순국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186

전치일(田致一), 남, 1883. 03. 03~1954. 03. 03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은하 장곡 337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은하 장곡 337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05,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은하 사람으로 1919년 4월 9부터 전개되었던 은하면(銀河面) 장곡리(長谷里)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은하면의 만세시위는 3월 21일 대천리(大川里)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시작되었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후 장곡리(長谷里)에서는 4월 9일 밤 전명규(田明圭) 등 마

을주민 다수가 모여 대한독립만세를 불렀다. 일경은 이를 발견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해 홍성경찰서로 보내 홍성경찰서에서 즉결처분으로 태형을 가했다. 홍성군의 3·1운동 관련 수형기록자료(은하면 범죄인명부)에 따르면 은하면에서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2명이다.

은하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4월 16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187

전태용(田太用), 남, 1881 미상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은하 장곡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은하 장곡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12,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은하 사람으로 1919년 4월 9부터 전개되었던 은하면(銀河面) 장곡리(長谷里)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은하면의 만세시위는 3월 21일 대천리(大川里)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시작되었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후 장곡리(長谷里)에서는 4월 9일 밤 전명규(田明圭) 등 마

을주민 다수가 모여 대한독립만세를 불렀다. 일경은 이를 발견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해 홍성경찰서로 보내 홍성경찰서에서 즉결처분으로 태형을 가했다. 홍성군의 3·1운동 관련 수형기록자료(은하면 범죄인명부)에 따르면 은하면에서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2명이다.

은하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4월 16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188

정국조(鄭國朝), 남, 1893. 07. 06~1921. 11. 16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송암 237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송암 237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05,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홍성시장에서 전개되었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

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4월 19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189

정동구(鄭東龜), 남, 1876. 03. 28~1942. 09. 02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화양 279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화양 279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05,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1919년 4월 1일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4월 23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190

정동량(鄭東亮), 남, 1901. 10. 25~1931. 10. 02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홍주 오관 391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홍주 오관 391

운동계열 : 국내항일, 포상년도 : 1991, 훈격 : 애족장

홍성 홍주 사람으로 소작료 인하운동을 전개하고 신간회 홍성지회에서 활동하였다. 1929년 10월에 충남 홍성(洪城)에서 손재학(孫在學) 등이 조직한 사상단체인 무공회(無空會)에 가입하여 재만동포 옹호운동과 소작인조합을 결성하여 소작료인하운동을 전개하였다.

홍성의 사회운동과 독립운동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계기는 무공회의 출범이었다. 1925년 10월 동아일보 홍성분국과 조선일보 홍성지국에 관계하면서 사상적 조류에 민감하였던 손재학·김동진·김창식·김성곤·이벽규·이두성·김흥선 등 7인은 사상단체 무공회를 조직하고, 이념과 행동을 통일하는 동시에 동지를 규합하여 방계단체(傍系團體)를 조직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들 청년지식인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한 사상 연구단체인 무공회는 표면적인 활동으로는 월 2회 연구반 집회를 갖는 것이었다. 하지만 점차 사회운동의 중진으로 향리인 홍성에 내려와 있던 조선민족대동단 출신의 최익환, 서울청년회계의 김재한, 화요회계의 김연진, 북풍회계의 방두파(방우석) 등이 참여하였고, 정동량·조대봉 등 토착 사회주의세력과 박원식·김구한 등 우파계열 민족운동가들이 가세하면서 홍성지역 사회운동을 실질적으로 지도하는 전위단체로 부상하였다.

동년 7월 신간회(新幹會) 홍성지회(洪城支會)에 가입하여 집행위원·서기장·상무집행위원·규약작성위원 등으로 활동하다가 동년 12월 15일에 체포되었다. 1931년 6월에 출옥하여 대전 일본군헌병대에 투서를 한 혐의로 다시 연행되어 심한 고문을 당하였다. 동년 9월초에 출감하였으나 고문의 후유증으로 동년 10월 2일에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86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191

정동선(鄭東善), 남, 1894. 10. 10~1961. 02. 10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화양 211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화양 211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05,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1919년 4월 1일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

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4월 23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192

정동식(鄭東植), 남, 1874. 01. 19~1926. 07. 03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가산 221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가산 221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05,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1919년 4월 1일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

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4월 23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193

정동직(鄭東稷), 남, 1878. 07. 06~1943. 09. 28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화양 271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화양 271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05,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1919년 4월 1일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

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4월 23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194

정설교(鄭卨敎), 남, 1894. 04. 02~1969. 12. 05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광천 내죽 366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광천 내죽 366

운동계열 : 의열투쟁, 포상년도 : 1990, 훈격 : 애족장

홍성 광주 사람으로 김상옥(金相玉)이 주도하던 혁신단(革新團)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그는 보성고등보통학교(普成高等普通學校) 3년 재학중인 1919년 4월에 김상옥(金相玉)이 주도가 되어 결성된 혁신단(革新團)에 가입하였다. 이 혁신단은 독립사상을 고취·선전하는 홍보(弘報) 활동을 하기 위한 지하단체로서, 단원은 이춘식(李春植, 휘문고보

졸업반)·박노영(朴露英, 중앙고보 졸업반)·윤익중(尹益重, 휘문고보 졸업반)·신화수(申華秀, 불교학원 졸업반)·정설교(鄭卨敎, 보성고보 3년 재학)·자주택·김화룡(金華龍)·서대순(徐大順)·전우진(全宇鎭) 등 9명이었다.

혁신단에서는 조직의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 4월 17일〈혁신공보(革新公報)〉라는 기관지를 발행하였다. 이 기관지는 등사판 인쇄의 지하신문으로 국내외에서 취재한 독립운동 전선의 새로운 소식과 독립사상을 고취하는 논설 등을 게재하였으며, 1회 1천부를 발행하였다. 정설교도 기관지의 발행에 적극 참여하였다. 그러나 김상옥의 검거로 신문 발행은 일시 중단되었다가 석방 후 9월까지 계속 발행되었지만 재정난에 봉착하였다. 재정조달을 책임지고 있던 윤익중과 김상옥이 사재를 털고 친지들로부터 얼마씩을 모금하여 자금을 조달했지만 여의치 못하게 되었고, 인쇄 책임자을 맡은 서대순이 검거되고 시설 일체가 압수를 당하여 신문발행은 중단되었다. 그래서 이들은 10월 10일 박노영과 김봉신(金奉信)을 대한민국임시정부에 파견하여 자금지원을 요청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당시 임시정부도 재정이 열악하여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이었고, 혁신단은 진로를 전환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들은 조국 독립을 쟁취할 유일한 방법이 직접 행동·무력항쟁이 있을 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래서 1920년 그와 단원들은 협의를 거쳐 본격적인 요인암살 활동을 통한 독립운동에의 방향을 잡고 암살단(暗殺團)의 구성에 적극 협력하였다.

그리하여 1923년 그는 김상옥(金相玉)의 종로경찰서 폭탄투척의거와 삼판동(三坂洞) 사건에 연루·체포되어 1923년 10월 1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68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195

정성모(鄭聖謨), 남, 1884. 05. 24~1951. 05. 30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화양 556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화양 556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05,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1919년 4월 1일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

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4월 23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196

정원필(鄭元弼), 남, 1870. 07. 17~1906. 05. 31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홍주 오관 454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홍주 오관 454

운동계열 : 의병, 포상년도 : 1991, 훈격 : 애국장

홍성 홍주 사람으로 홍주의병에 참여하였다. 그는 을사조약이 강제로 체결되자 정원필은 채원묵(蔡元默)·성재한(成載翰)·서기환(徐基煥) 등과 함께 거의하였다. 이때 척신인 민종식(閔宗植)이 홍주의 김복한(金福漢)·안병찬(安炳瓚)과 접촉하여 홍주의진과 연결을 모색하는 한편 척신인 민영휘(閔泳徽)·민경호(閔京鎬) 등에게 동조할 것을 권하였으나 현

실주의자인 그들은 협력을 기피하였다. 그러는 동안에 김복한 등이 먼저 홍주에서 거의하여 안병찬 등 많은 의사들이 적에게 체포되었다. 이에 민종식은 1906년 5월 11일 충청도 홍산(鴻山) 지치(支峙)에서 창의의 깃발을 올리고 곧 홍주성에 입성하였다. 정원필은 민종식 의진에 입진하였다. 그후 일시 물러났던 적은 끊임없이 성을 공격하였으나 의진은 번번히 이들을 격퇴시켜 개가를 올렸다. 그러나 5월 31일 적이 대대적으로 공세를 가해 이날 새벽 3시경에 큰 폭음과 함께 성의 동문이 파괴되고 적이 물밀 듯이 성안으로 들어왔다. 정원필 등 의진은 끝까지 항전하였으나 의병들은 모두 흩어지고, 정원필은 접전 중에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197

정정복(鄭正福), 남, 1896. 04. 16~1961. 10. 11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화양 189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화양 189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05,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1919년 4월 1일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

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4월 23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198

정태복(鄭泰復), 남, 1888. 10. 01~1960. 01. 18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장곡 죽전 259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장곡 죽전 259

운동계열 : 국내항일, 포상년도 : 1992, 훈격 : 애족장

홍성 장곡 사람으로 광복단에 가입하여 군자금 모금 등의 활동을 하였다. 그는 1917년 9월(음력) 홍성군 장곡면장(長谷面長)으로 있으면서 대한광복단(大韓光復團) 충청도 지부책 김한종(金漢鍾)의 권유로 박상진(朴尙鎭)·채기중(蔡基中)·유창순(庾昌淳) 등이 국권회복을 목적으로 조직한 광복단에 가입하였다. 그 직후 김한종의 지시로 장곡면 신풍리(新豊里) 자택에서 광복회 고시문 200여매를 등사한 뒤 김한종에게 전달하여 친일부호들에게 발송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정인교(鄭仁敎)가 군자금 출금을 요구하는 채기중·김한종 등의 요구를 거부하자, 같은 해 12월 정인교를 직접 찾아가서 국권회복을 도모하는 광복회의 취지를 알리고, 출금을 거부하면 죽음을 면할 수 없다고 밝힘으로써 군자금 100원을 모집하는 등, 충남 일대에서 광복회 군자금 모금에 힘쓰다가 1918년 2월 채기중 등과 함께 체포되었다.

1919년 2월 28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공갈, 살인, 방화 등으로 징역 1년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또한 1921년 9월에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태평양회의에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승인과, 파견된 한국대표에 대한 대표권 인정을 요구하는 진정운동이 전개될 때, 광복회를 대표하여 서명하고 활동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199

정학조(鄭學朝), 남, 1885. 11. 06~1929. 11. 08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송암 246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송암 246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06,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금마면(金馬面) 가산리(佳山里)와 홍성시장에서 전개되었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

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1919년 4월 19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200

정해득(鄭亥得), 남, 1899. 01. 15~1930. 02. 18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부평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부평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06,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금마면(金馬面) 가산리(佳山里)와 홍성시장에서 전개되었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

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1919년 4월 23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201

정홍조(鄭弘朝), 남, 1888. 05. 25~1954. 09. 16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송암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송암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06,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금마면(金馬面) 가산리(佳山里)와 홍성시장에서 전개되었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1919년 4월 23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202

조재학(趙載鶴, 이명 : 趙載學), 남, 1888. 12. 23~1952. 04. 03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가산 163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가산 163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00,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1919년 4월 1일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

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4월 30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으로 실형을 언도받고 상고하였으나 5월 3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6월을 받았으며, 7월 3일 고등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200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203

조종원(趙宗元), 남, 1882. 09. 09~1968. 10. 10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덕정 491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덕정 491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05,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1919년 4월 1일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4월 23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204

조한원(趙漢元), 남, 1893. 01. 15~1969. 08. 21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부평 38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봉루 216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1993,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1919년 4월 1일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3·1운동에 참여하여 독립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

(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4월 30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205

주명규(朱明圭), 남, 1898. 05. 10~1980. 08. 04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덕정 352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덕정 352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05,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1919년 4월 1일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4월 23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주영은(朱榮殷), 남, 1890. 09. 01~1966. 03. 28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부평 126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부평 126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05,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1919년 4월 1일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

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4월 23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207

최건수(崔建水), 남, 1881. 07. 03~1961. 07. 02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화양 62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화양 62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05,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1919년 4월 1일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

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4월 23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208

최광인(崔光仁, 이명 : 崔德化), 남, 1885. 11. 07 (1926)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장곡 화계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장곡 화계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10,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장곡 사람으로 장곡면(長谷面)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장곡면의 만세시위는 4월 4일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시작으로, 4월 8일까지 장곡면사무소를 중심으로 이어졌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장곡면에서의 횃불독립만세운동은 윤씨 3형제(윤형중, 윤익중, 윤낙중)가 주도하고 윤의석(尹宜錫), 윤만수(尹萬洙), 이문재(李文載), 최기석(崔奇錫), 최채선(崔彩仙) 등이 적극 참여한 가운데 화계리, 광성리, 신풍리 주민들이 합세하여 면사무소 뒤편 응봉산(鷹峯山)에서 펼쳐졌다.

장곡면사무소를 중심으로 펼쳐졌던 4월 7일과 8일의 만세시위는 김동하(金東河, 金東化) 등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는 장곡면에서도 만세시위를 일으키기로 동지들과 뜻을 모은 뒤 거사일을 4월 7일로 정하고, 거사에 필요한 태극기를 제작하는 한편 동지들의 규합에 힘을 쏟았다. 4월 7일 오경춘(吳敬春, 壽南)이 종을 치며 주민들을 집합시켰고, 김동하는 김동완(金東完)·김용숙(金容肅, 用叔)·김용제(金用濟)·이화춘(李化春)·김차제(金次濟, 化先)·한상철(韓相喆) 등과 함께 태극기를 꽂고 독립선언식을 가진 후 화계리 주민 및 이웃 마을인 광성리와 신풍리 주민 300여 명과 함께 화계리에 근접한 동리 앞산에서 독립만세를 외쳤다.

이후 도산리(道山里) 소재 면사무소로 행진한 그들은 밤 8시에 도착하여 면내 각지에서 몰려 온 사람들과 합류하였다. 500여 명의 시위군중은 면사무소에 직원들이 한 명도 없자, 김동하의 주도로 돌과 곤봉으로 면사무소 기둥과 창문을 파괴하고 공문서를 파기하는 등 격렬히 항쟁하였다.

다음 날인 4월 8일 밤 11시에는 학생과 지역민들 60여 명이 다시 면사무소에 모여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들은 전날 면사무소 습격으로 출동해 있던 일경과 대치하였지만, 다시 면사무소를 파괴하였다. 그러자 대치하고 있던 일본 군경은 시위대를 향해 총격을 가했고, 시위군중 다수가 부상을 입거나 피체되었다. 이때 일본 군경의 발포로 11명이 체포되

고 2명이 부상하였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장곡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41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36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장곡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1919년 5월 30일 소위 소요 및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209

최기석(崔奇石), 남, 1893. 05. 22~1975. 04. 15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장곡 화계 264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장곡 화계 264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1995,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장곡 사람으로 1919년 4월 4일과 4월 6일 장곡면(長谷面)에서 윤형중(尹衡重), 윤락중(尹樂重)의 주도하에 산위에서 봉화를 들고 독립만세를 고창하고 면사무소를 습격하는 등 격렬한 항일 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장곡면의 만세시위는 4월 4일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시작으로, 4월 8일까지 장곡면사무소를 중심으로 이어졌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

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장곡면에서의 횃불독립만세운동은 윤씨 3형제(윤형중, 윤익중, 윤낙중)가 주도하고 윤의석(尹宜錫), 윤만수(尹萬洙), 이문재(李文載), 최기석(崔奇錫), 최채선(崔彩仙) 등이 적극 참여한 가운데 화계리, 광성리, 신풍리 주민들이 합세하여 면사무소 뒤편 응봉산(鷹峯山)에서 펼쳐졌다.

장곡면사무소를 중심으로 펼쳐졌던 4월 7일과 8일의 만세시위는 김동하(金東河, 金東化) 등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는 장곡면에서도 만세시위를 일으키기로 동지들과 뜻을 모은 뒤 거사일을 4월 7일로 정하고, 거사에 필요한 태극기를 제작하는 한편 동지들의 규합에 힘을 쏟았다. 4월 7일 오경춘(吳敬春, 壽南)이 종을 치며 주민들을 집합시켰고, 김동하는 김동완(金東完)·김용숙(金容肅, 用叔)·김용제(金用濟)·이화춘(李化春)·김차제(金次濟, 化先)·한상철(韓相喆) 등과 함께 태극기를 꽂고 독립선언식을 가진 후 화계리 주민 및 이웃 마을인 광성리와 신풍리 주민 300여 명과 함께 화계리에 근접한 동리 앞산에서 독립만세를 외쳤다.

이후 도산리(道山里) 소재 면사무소로 행진한 그들은 밤 8시에 도착하여 면내 각지에서 몰려 온 사람들과 합류하였다. 500여 명의 시위군중은 면사무소에 직원들이 한 명도 없자, 김동하의 주도로 돌과 곤봉으로 면사무소 기둥과 창문을 파괴하고 공문서를 파기하는 등 격렬히 항쟁하였다.

다음 날인 4월 8일 밤 11시에는 학생과 지역민들 60여 명이 다시 면사무소에 모여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들은 전날 면사무소 습격으로 출동해 있던 일경과 대치하였지만, 다시 면사무소를 파괴하였다. 그러자 대치하고 있던 일본 군경은 시위대를 향해 총격을 가했고, 시위군중 다수가 부상을 입거나 피체되었다. 이때 일본 군경의 발포로 11명이 체포되고 2명이 부상하였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장곡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41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36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장곡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1919년 5월 30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210

최덕휴(崔德休), 남, 1922. 07. 04~1998. 02. 21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신곡 37

주　　소 : 中國 湖南省 桂東

운동계열 : 광복군, 포상년도 : 1990, 훈격 : 애족장

홍성 사람이다. 일본군 제64사단을 탈출하여 중국군 제3전구 훈련반에서 훈련을 받고, 중국군 중위(中尉)로 임명되어 제9전구 제8사단 공작위원회의 제2군 공작책으로 활약하였다. 그후 광복군 제1지대 제3구대에 편입되어 항일활동을 전개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2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211

최명용(崔鳴鏞, 이명 : 崔鴻鏞), 남, 1897. 01. 06~1965. 08. 10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홍동 구정 243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홍성 월산 27

운동계열 : 국내항일, 포상년도 : 1990, 훈격 : 애족장

홍성 홍동 사람으로 군자금 모금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는 파리장서사

건으로 옥고를 치룬 최중식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15세되던 해 부친과 동문수학한 김복한의 문하생으로 교육을 받았다.

1920년 홍성(洪城)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로부터 밀파된 이규준[李圭俊, 초대 부통령 이시영(李始榮)의 조카], 이강인, 서울의 민창근 등과 연락하며 독립운동에 필요한 군자금 모금활동을 전개하였다. 1921년 2월 22일 친일분자의 밀고로 일본 경에 체로된 그는 같은 해 6월 15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제령 제7호(정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1927년 홍성의 유림들과 함께 유교부식회(儒敎扶植會)를 조직하여 유교사상에 입각한 인도주의와 민족의 독립정신을 고취하는 교화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는 유교부식회가 발간한 월간잡지인 『인도(人道)』의 발간에도 참여하여 섭외부를 맡았다. 그는 1931년 12월 '유교 가치관을 논함' 이라는 글에서 "나라 다스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민심이요 나라 경제는 한 개인에게 맡기지 말고 모든 백성을 부유하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6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212

최병석(崔秉錫, 이명 : 崔丙石), 남, 1899. 05. 28~1965. 03. 30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인산 315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인산 315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07,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금마면(金馬面) 가산리(佳山里)와 홍성시장에서 전개되었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

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

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1919년 4월 21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213

최상집(崔相集), 남, 미상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홍주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홍주

운동계열 : 의병, 포상년도 : 1995, 훈격 : 애족장

홍성 사람으로 민종식(閔宗植) 의진의 소모장(召募將)으로 충남 홍주(洪州) 일대에서 활약하였다. 민종식은 경기도 여주(驪州) 출신으로 1882년 과거에 급제하여 이조참판을 지냈다. 민종식은 러일전쟁 직후 일제의 강요와 위협 아래 1905년 11월 「을사륵약(乙巳勒約)」이 체결되자 국망의 위기를 절감하게 되었다. 이에 그는 국권회복을 위하여 처음 충남 정산군(定山郡) 천장리(天庄里)를 거점으로 동지를 규합하고, 군수품을 준비하는 등 의병 봉기를 준비하였다. 그런 다음 1906년 4월 처남되는 이용규(李容珪)와 이세영(李世永)·채광묵(蔡光默)·김광우(金光祐)·조희수(趙羲洙)·정재호(鄭在鎬)·황영수(黃英秀)·이상구(李相龜) 등과 함께 충청도 홍산(鴻山)에서 거의하였다.

최상집은 이 때 민종식의 거의계획에 참여하여 의병 소모장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민종식 의진에서 종군하면서 같은 해 5월 19일 홍주성을 탈환하는데 앞장섰다. 이후 그는 일본군 수비대와 홍주성에서 10여 일 동안의 공방전을 전개하여 적군 300여 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리는데

참전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화력 및 병력의 열세로 5월 31일 홍주성이 함락될 때 그를 포함한 의병 145명이 체포되었고, 그 중에 78명이 서울로 압송되었다. 이들은 일본군 사령부의 심문을 받은 후 윤석봉 등 70명은 7월에 석방되었다. 그러나 유병장 유준근·소모장 최상집·좌익장 이상구·참모 안항식·돌격장 남규진·참모 신보균과 이식·서기 문석환·우익장 신현두 등 '홍주9의사'는 대마도(對馬島) 유배형에 처해져, 그곳에서 유배지 생활을 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214

최응모(崔應模), 남, 1889. 11. 24~1950. 09. 20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광천 광천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광천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1999, 훈격 : 애족장

홍성 광천 사람으로 1919년 3월 18일 홍성군 광천면(廣川面)의 독립만세운동에 참가하였다. 광천지역의 3·1운동은 이명종(李鳴鍾)과 박원식(朴源植)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명종은 박원식의 집에서 그의 동생인 박세화(朴世和)로부터 서울에서의 3·1운동 상황을 듣고 독립선언서도 보게 되었다. 이후 이명종과 박원식은 서울에서 거행되었던 만세운동을 광천에서도 실행할 것을 협의하였다. 이들은 먼저 3월 8일 3·1운동을 알리기 위해 선언서의 내용을 양지(洋紙)에 크게 써서 광천면의 광천시장과 옹암리(瓮岩里) 등에 부착하여 독립의식을 고취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순사에게 바로 발각되어 제거당했다. 그러자 이들은 다시 돌아오는 광천장날을 이용하여 3·1운동을 계획하였다. 이들은 먼저 다량의 선

언서를 등사하여 집집마다 배포하고, 돌아오는 광천장날에 군중들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며 만세운동을 결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해 최응모(崔應模), 오인섭(吳仁燮), 성배호(成培鎬) 등에게 만세운동의 계획 사실을 알리고 참여를 권유하여, 함께 거사를 준비하기로 하였다. 평소 항일의식이 투철하였던 최응모는 이명종으로부터 거사계획을 전해 듣고 적극적으로 만세시위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3월 16일 박원식은 서승태를 찾아가 선언서를 보여주며, 문장을 간략하게 줄여줄 것을 부탁하였다. 일제의 재판기록에는 서승태에게 등사를 쉽게 하기 위해 문장을 간략히 할 것을 부탁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서승태가 유학자로서 한문체로 되어 있는 선언서를 쉽고 간결하게 정리해 줄 학식이 있었고, 의병활동부터 교육활동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항일운동을 전개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선언서 정리를 부탁받고 흔쾌히 승낙한 서승태는 3월 18일 자신의 집에서 박원식과 오인섭을 만나게 되었다. 그는 선언서의 문구를 쉽고 간략하게 정리하며 일일이 정보(訂補)·가제(加除)하여 내용을 구술해주었고, 박원식이 이것을 받아 적었다. 서승태가 정리해 준 선언서는 바로 오인섭의 집에서 등사되었다. 3월 18일 그는 오인섭(吳仁燮) 등과 함께 독립선언서 50여 매를 등사하였고, 이명종과 성배호(成培鎬) 등은 이를 광천리 및 옹암리의 각호에 배포하였다.이 선언서는 반포를 담당한 이명종과 성배호 등에 의해 그날 밤 광천리와 옹암리의 집집마다 배포되었다. 이들은 선언서 인쇄 및 배포와 관련된 내용으로 모두 체포되어 공주감옥에 투옥된 후, 공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1919년 4월 28일 판결을 받은 그들은 징역 1년 6월에서 징역 8월까지의 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르게 되었다. 광천면의 만세운동을 체포된 그는 6월 14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출판법으로 징역 6월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이후 그는 1940년 4월 중순 오전 11시경, 충남 논산군(論山郡) 연산면(燕山面) 연산리(燕山里) 약종상 김영찬(金泳璨)의 가게 앞에서 [석수

어는 삶아서 먹고, 연어는 구워서 먹고, 소는 밖에 메어서, 당나귀는 안에 메어서]라는 시를 지어 일본 왕을 조롱하고 독립의 필요성을 선전하였다. 이에 일경은 천황의 존엄을 모독하여 불경의 행위를 하고 정치에 관하여 불온한 말을 하였다 하여 그를 체포하였다. 이로 인해 그는 1940년 11월 19일 경성복심병원에서 소위 불경(不敬)·보안법 위반·육해군형법(陸海軍刑法)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9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215

최익삼(崔益三), 남, 1877. 10. 05~1943. 05. 21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월암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월암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10,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금마면(金馬面) 가산리(佳山里)와 홍성시장에서 전개되었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

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1919년 4월 23일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216

최익환(崔益煥), 남, 1899. 06. 12~1959. 07. 25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홍성 옥남 157

주　　소 : 미상
운동계열 : 국내항일, 포상년도 : 1990, 훈격 : 애국장

홍성 사람으로 대동단(大同團)을 결성하였고, 신간회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활동하였다. 그는 1905년 서울의 광무일어학교(光武日語學校)에 들어가 2년간 수학한 뒤 1907년 가을에 종사도량형사무국(從事度量衡事務局) 통영관을 거쳐 탁지부(度支部) 세무주사(稅務主事)와 충남 서천군(徐川郡) 재무주사(財務主事)를 지냈다. 1909년 서천군 재무주사 재직중, 그는 한때 일진회(一進會)에 관계했던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며 국외 망명을 결심하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공금 3천여원을 사취했다가 이일이 발각됨으로써 징역 7년형을 받았다.

1915년 출옥한 이후 만주 봉천(奉天) 등지를 왕래하던 그는 1917년경부터 세계정세가 급변되면서 독립의 기운이 고조되자 독립 달성의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1918년 봄에 서울로 돌아왔다. 그리고 오랜 동지 전협(全協)과 결합하여 독립운동의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러던 중 3·1독립운동이 일어나자, 이들은 독립달성을 위해서, '조선 민족의 정신 통일과 실력 양성' 이 급선무라는데 뜻을 모으고 그의 실천 방안으로서 대동단을 결성했다. 이들은 당시 사회 각층을 황족(皇族)·진신(縉紳)·유림(儒林)·종교(宗敎)·교육(敎育)·상공(商工)·노동(勞動)·청년(靑年)·군인(軍人)·부인(婦人)·지역구역(地域區域) 등 11개 단(團)으로 분류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전국적 조직을 목표로 하고 활발한 조직 및 선전활동을 펴나갔다. 이때 최익환은 동단의 선전활동을 주관하면서 동단 발행의 각종 인쇄물 등을 작성·배포하였다. 그런데 이무렵 그가 자금 모집을 위해 관여했던 거간(居間) 중매가 금품 사취로 되어 동년 5월 23일 일경에 붙잡혔다. 일제도 처음에 이들이 대동단과 관련된 것을 몰랐으나 조사 과정에서 대동단원으로 밝혀짐에 따라 최익환을 비롯해 선전물의 작성·인쇄 배포에 참여했던 권태석(權泰錫)·나경섭(羅景燮)·김영

철(金永喆) 등도 체포되었는데, 이를 대동단사건이라 부른다.

이일로 그는 소위 보안법(保安法) 및 출판법(出版法) 위반죄로 징역 6년형을 언도받았다. 출옥 후 1925년에 대동단의 동지였던 권태석과 함께 사회주의 운동을 폈으며 1927년 신간회(新幹會)가 결성될 때에는 발기인으로 참여 활동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217

최중삼(崔仲三, 이명 : 崔八龍), 남, 1885. 06. 04~1967. 04. 09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송강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송강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01,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1919년 4월 1일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

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1919년 4월 30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아 공소하였으나 5월 30일 경성복심법원과 7월 3일 고등법원에서 각각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2001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최중식(崔中軾), 남, 1877. 02. 25~1951. 03. 29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홍동 구정 243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홍동 구정 243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1995, 훈격 : 건국포장

홍성 홍동사람으로 파리장서(巴里長書) 운동에 참여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는 1919년 3월 파리강화회의에 한국독립을 호소하기 위하여 김창숙(金昌淑) 등이 유림(儒林) 대표가 되어 작성한 독립청원서에 유림의 한 사람으로서 서명하는 등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 '파리장서사건(巴里長書事件)' 이라고 불리우는 이 거사는 김복한(金福漢)을 중심으로 한 호서유림과 곽종석(郭鍾錫)을 중심으로 한 영남유림 137명이 참여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유림의 항일운동이었다.

파리장서의 요지는 일제가 자행한 명성황후·광무황제(光武皇帝)의 시해와 한국 주권의 찬탈과정을 폭로하면서 한국독립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이들 유림은 김창숙(金昌淑)을 파리로 파견하고자 상해로 보냈으나, 직접 가지는 못하고 이 문서를 신한청년당(新韓靑年黨)의 대표로 파리에 파견된 김규식(金奎植)에게 송달했으며, 국내의 각 향교에도 우송되었다. 그런데 이 일은 경상북도 상주의 만세운동과 관련하여 1919년 4월 12일 서명자의 한 사람이었던 송회근(宋晦根)이 체포되면서 발각되었고, 이로써 최중식도 일경에 붙잡혔다. 그는 이 일로 1919년 7월 29일 대구지방법원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한편 그의 아들인 최명용(崔鳴鏞)은 1921년 군자금 모금활동과 관련된 사건으로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고, 1927년 홍성에서 조직된 유교부식회(儒敎扶植會)에 참여하며 잡지『인도(人道)』의 발간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219

최채선(崔彩仙, 이명 : 崔彩淳, 崔彩先), 남, 1898. 05. 18~1954. 03. 18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장곡 화계 223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장곡 화계 223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1995,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장곡 사람으로 1919년 4월 4일과 4월 6일 장곡면(長谷面)에서 윤형중(尹衡重), 윤락중(尹樂重)의 주도하에 산위에서 봉화를 들고 독립만세를 고창하고 면사무소를 습격하는 등 격렬한 항일 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장곡면의 만세시위는 4월 4일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시작으로, 4월 8일까지 장곡면사무소를 중심으로 이어졌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장곡면에서의 횃불독립만세운동은 윤씨 3형제(윤형중, 윤익중, 윤낙중)가 주도하고 윤의석(尹宜錫), 윤만수(尹萬洙), 이문재(李文載), 최기석(崔奇錫), 최채선(崔彩仙) 등이 적극 참여한 가운데 화계리, 광성리, 신풍리 주민들이 합세하여 면사무소 뒤편 응봉산(鷹峯山)에서 펼쳐졌다.

장곡면사무소를 중심으로 펼쳐졌던 4월 7일과 8일의 만세시위는 김

동하(金東河, 金東化) 등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는 장곡면에서도 만세시위를 일으키기로 동지들과 뜻을 모은 뒤 거사일을 4월 7일로 정하고, 거사에 필요한 태극기를 제작하는 한편 동지들의 규합에 힘을 쏟았다. 4월 7일 오경춘(吳敬春, 壽南)이 종을 치며 주민들을 집합시켰고, 김동하는 김동완(金東完)·김용숙(金容肅, 用叔)·김용제(金用濟)·이화춘(李化春)·김차제(金次濟, 化先)·한상철(韓相喆) 등과 함께 태극기를 꽂고 독립선언식을 가진 후 화계리 주민 및 이웃 마을인 광성리와 신풍리 주민 300여 명과 함께 화계리에 근접한 동리 앞산에서 독립만세를 외쳤다.

이후 도산리(道山里) 소재 면사무소로 행진한 그들은 밤 8시에 도착하여 면내 각지에서 몰려 온 사람들과 합류하였다. 500여 명의 시위군중은 면사무소에 직원들이 한 명도 없자, 김동하의 주도로 돌과 곤봉으로 면사무소 기둥과 창문을 파괴하고 공문서를 파기하는 등 격렬히 항쟁하였다.

다음 날인 4월 8일 밤 11시에는 학생과 지역민들 60여 명이 다시 면사무소에 모여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들은 전날 면사무소 습격으로 출동해 있던 일경과 대치하였지만, 다시 면사무소를 파괴하였다. 그러자 대치하고 있던 일본 군경은 시위대를 향해 총격을 가했고, 시위군중 다수가 부상을 입거나 피체되었다. 이때 일본 군경의 발포로 11명이 체포되고 2명이 부상하였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장곡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41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36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장곡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1919년 5월 30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220

최학용(崔學用), 남, 1892. 12. 10~1951. 01. 17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월암 146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월암 146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06,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금마면(金馬面) 가산리(佳山里)와 홍성시장에서 전개되었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

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1919년 4월 23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221

최홍기(崔弘基), 남, 1866. 01. 15~1932. 06. 09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화양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화양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06,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금마면(金馬面) 가산리(佳山里)와 홍성시장에서 전개되었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

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

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1919년 4월 23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222

한명원(韓明源), 남, 1889. 12. 10~1968. 08. 05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죽림 314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죽림 314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05,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1919년 4월 1일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4월 29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223

한상인(韓祥仁), 남, 1900. 01. 10~1969. 10. 05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죽림 313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죽림 313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05,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1919년 4월 1일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

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4월 19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한상철(韓相喆), 남, 1891. 08. 30~1936. 10. 23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장곡 화계 225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장곡 화계 225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1995,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장곡 사람으로 1919년 4월 7일 충남 홍성군 장곡면(長谷面)에서 500여 명의 주민을 주도하여 독립만세를 고창하고 항일 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정도까지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남도에서 많은 운동이 전개되었다. 홍성읍에서는 3월 7일 만세시위가 일어난 것을 시작으로 각 면에서도 만세시위가 불같이 일어났다. 장곡면의 만세시위는 1919년 4월 4일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시작으로, 4월 8일까지 장곡면사무소를 중심으로 이어졌다. 4월 4일 홍성군의 장곡면, 금마면, 구항면, 홍동면 등 4개면의 20~24개 장소에서 횃

불만세운동이 전개되었다. 장곡면에서의 횃불독립만세운동은 윤씨 3형제(윤형중, 윤익중, 윤낙중)가 주도하고 윤의석(尹宜錫), 윤만수(尹萬洙), 이문재, 최기석(崔奇錫), 최채선(崔彩仙) 등이 적극 참여한 가운데 화계리, 광성리, 신풍리 주민들이 합세하여 매봉산에서 펼쳐졌다. 장곡면사무소를 중심으로 펼쳐졌던 4월 7일과 8일의 만세시위는 김동완(金東完) 등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는 장곡면에서도 만세시위를 일으키기로 동지들과 뜻을 모은 뒤 거사일을 4월 7일로 정하고, 거사에 필요한 태극기를 제작하는 한편 동지들의 규합에 힘을 쏟았다. 4월 7일 오경춘(吳敬春, 壽南)이 종을 치며 주민들을 집합시켰고, 한상철은 김동완·김동하(金東河)·김용숙(金容肅, 用叔)·김용제(金用濟)·이화춘(李化春)·김차제(金次濟, 化先) 등과 함께 태극기를 꽂고 독립선언식을 가진 후 화계리 주민 및 이웃마을인 광성리와 신풍리 주민 300여 명과 함께 화계리의 응봉산(鷹峰山)에서 독립만세를 외쳤다. 이후 도산리(道山里) 소재 면사무소로 행진한 그들은 밤 8시에 도착하여 면의 각지에서 몰려 온 사람들과 합류하였다. 500여 명의 시위군중은 면사무소에 직원들이 한 명도 없자, 김동하의 주도로 돌과 곤봉으로 면사무소 기둥과 창문을 파괴하고 공문서를 파기하는 등 격렬히 항쟁하였다. 다음 날인 4월 8일 밤 11시에는 김동완을 비롯한 시위군중 60여 명이 다시 면사무소에 모여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들은 전날 면사무소 습격으로 출동해 있던 일경과 대치하였지만, 다시 면사무소를 파괴하였다. 그러자 대치하고 있던 일본 군경은 시위대를 향해 총격을 가했고, 시위군중 다수가 부상을 입거나 체포되었다. 이때 일본 군경의 발포로 11명이 체포되고 2명이 부상하였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장곡면에서 위와 같은 탄압을 받은 사람은 41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36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장곡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1919년 6월 30

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벌금 30원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대통령 표창을 추서하였다.

225

한용운(韓龍雲), 남, 1879. 08. 29~1944. 05. 09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주　　소 : 미상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1962, 훈격 : 대한민국장

홍성 결성 사람으로 불교에 출가하여 불교자주화운동을 주도했고, 민족대표 33인, 조선불교청년회 회장, 신간회 경성지회장 등을 역임하며 독립운동을 주도하였다. 1879년 8월 29일 충남 홍성군(洪城郡) 결성면(結城面) 성곡리(城谷里) 491번지에서 아버지 한응준(韓應俊)과 어머니 온양 방씨 사이에서 차남으로 태어났다. 본관은 청주(淸州), 자는 정옥(貞玉), 속명은 유천(裕天), 계명은 봉완(奉玩), 법호는 만해(萬海)이다.

동학농민운동 때 동학군을 진압하는 행목사(行牧使)를 역임한 부친은 종5품의 충훈부(忠勳府) 도사(都事)와 선략장군행충무위부사용(宣略將軍行忠武威副司勇)을 지냈고, 조부 영호(永祜)는 종4품의 선략장군행훈련원첨정(宣略將軍行訓練院僉正)을 지냈으며, 증조 광후(光厚)는 종2품의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와 가선대부행용양위호군(嘉善大夫行龍驤衛護軍)을 지냈다. 일설에 부친이 동학에 참여하고, 그의 형 윤경(允敬)이 1906년 민종식 의병에 참여하였다고 하나 사실과 다르다.

6세경 마을 서당에서 한문을 배우기 시작한 그는 9세 때 『서상기(西廂記)』를 독파하고 『통감(通鑑)』을 해득하였다. 또한 『서경(書經)』의 기삼백주(朞三百註)를 통달하였고, 『대학(大學)』에 있는 정자(程子)의 주

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책에 먹칠을 했다는 일화도 있다. 유년시절 부친으로부터 의인(義人) 및 걸사(乞士)의 기개와 언행을 전해 들은 그는 나라와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1892년 부친의 뜻에 따라 향리에서 전정숙(全貞淑)과 혼인한 그는 이후 동리 서당의 숙사(塾師)로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1896년 홍성에서 김복한·이설(李偰) 등이 의병을 일으키자, 커다란 충격을 받은 그는 그해 무작정 상경하다 마음을 바꿔 입산을 결심하고, 불교계를 통해 무엇인가를 해보고자 하였다. 보은 속리사·설악산 백담사 등을 전전하던 그는 잠시 고향에 다녀 온 뒤 1904년경 완전히 속세와 인연을 끊고 승려가 되었다.

1905년경부터 불교 수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그는 백담사에서 김연곡사(金蓮谷師)로부터 득도하고 전영제사(全泳濟師)로부터 수계하였으며, 이학암사(李鶴庵師)에게서 기신론·능엄경·원각경 등의 강의를 받았다. 1907년 강원도 건봉사(乾鳳寺)에서 최초의 선(禪) 수업인 수선안거(首禪安居)를 하고, 1908년 유점사(楡岾寺)에서 서월화사(徐月華師)로부터 화엄경, 건봉사에서 이학암사로부터 반야경 등을 공부하였다.

청나라 쉬지위(徐繼畬)가 세계지리를 정리한 『영환지략(瀛環志略)』을 읽고 세계여행을 계획한 그는 1905년경 먼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여행하기로 하고, 배를 타기 위해 원산으로 가던 중 만나 2명의 승려와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그들을 일진회원으로 오인한 교포 청년에 의해 죽을 고비를 넘긴 후, 동포간의 반목과 살육에 크게 낙담하고 실의에 빠져 귀국하였다.

백담사에서 량치차오(梁啓超)의 『음빙실문집(飮氷實文集)』을 접하고 근대 서구의 자유 평등사상을 접하게 된 그는 1908년 4월 새로운 기운이 일고 있는 일본을 돌아보기 위해 유학을 단행하였다. 그는 일본 조동종(曹洞宗) 종무원에서 대표자인 히로쓰 세쓰조(弘津說三)와 교유하며 조동종대학에서 일본어와 불교를 배웠고, 유학 중이던 최린(崔麟) 등과도

만났다. 이는 그가 훗날 3·1운동에 참여하고 주도하는 계기가 되었다.

1908년 10월 귀국한 그는 범어사(梵魚寺)와 지리산 일대 사찰을 돌며 불교의 대중화와 개혁운동에 노력하였다. 당시 한국 불교는 원종(圓宗)이 통일기관이었다. 이 종단은 1908년 3월 이회광(李晦光)을 비롯한 전국 승려대표 52인이 원흥사(元興寺)에 모여 1906년 조직된 불교연구회(佛教研究會)를 변형시켜 원융무애(圓融無碍)와 선교원수(禪教圓修)의 의미를 담아 설립한 것이다. 해인사 주지 이회광을 원종 종무원 대종정(大宗正)으로 추대하고 8개 부서까지 둔 원종은 일진회장 이용구의 추천으로 일본 조동종 승려 다케다 한시(武田範之)를 고문으로 맞이하는 등 성격이 변질되었다. 이회광은 경술국치 직후인 1910년 10월 6일 불교확장이란 미명 아래 일본으로 건너가 조동종 관장 이시카와 소도(石川素童)를 만나 원종과 조동종의 연합을 맹약하고 종무 대표자 히로쓰 세쓰조와 7개항을 합의하였다. 이 합의를 통해 한국 불교는 원종 종무원의 인가를 일본 조동종에 의뢰하였고, 일본 조동종은 한국의 사찰을 장악하고자 하였다. 곧 이회광 일파의 책동은 한국 불교를 일본에 예속시켜 조동종화 하려는 친일매불(親日買佛), 개종역조(改宗易祖) 행위였다.

이에 그는 1911년 1월 15일 박한영(朴漢永) 등과 함께 호남 일대에서 기치를 내세우고 순천 송광사(松廣寺)에서 승려 궐기대회를 개최하였다. 여기에서 이회광을 종문난적(宗門亂賊)으로 규정하고 원종에 대응하여 임제종(臨濟宗)을 창립하고, 임제종 종무원 관장에 추대되어 불교자주화 운동·종지수호운동을 주도하였다. 임제종은 송광사에 종무원을 두고 전국에 격문을 돌려 큰 호응을 얻었다.

1911년 가을, 동포들을 만나 망국의 설움을 나누고 조국의 장래를 논의하고자 만주로 간 그는 박은식·이시영·윤세복 등의 민족지도자들을 만나 조국이 처한 문제를 협의하였다. 이후 귀국길에 오른 그는 독립군에게 일제의 첩자로 오인받아 총격을 당해 중국인의 도움으로 죽음을 면하기는 했지만, 평생 머리가 저절로 흔들리는 후유증으로 고생했다.

불교계의 혁신과 불교의 대중화운동에 힘쓴 그는 불교계의 폐단을 제거하고 번성했던 이전 모습을 되찾고자 했고, 타락하고 변질된 불교의 종교적 순수성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1910년 백담사에서 탈고하고 1913년 불교서관(佛敎書館)에서 발행한 『조선불교유신론(朝鮮佛敎維新論)』은 당시 조선 불교의 현상을 비판하고 당면 과제를 지적하며, 자유와 평등주의에 입각하여 개혁안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불교적 평등은 인정하면서도 민족적 평등을 도외시한 채 승려의 결혼문제를 일본 총독에게 청원하는 등 민족이 당면한 현실 문제를 간파하지 못한 점은 흠으로 지적된다.

불교 대중화를 위한 불경 주석·간행 작업에 노력한 그는 승려교육 교재로서 『불교교육 불교한문독본(佛敎敎育 佛敎漢文讀本)』을 간행하였다. 또한 1914년 방대한 고려대장경을 독파하고 현대적 감각에 맞도록 요약 정리한 『불교대전(佛敎大典)』을 간행하였다. 이 책은 9개의 품(品)으로 구성되었는데, 그의 독창적 시각으로 불교를 간이화·실용화하여 승려교육과 불교 대중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1917년 승려와 일반인의 교양교재인 『정선강의 채근담(精選講義 採根譚)』, 1918년 우리나라 최초의 불교 수양잡지 『유심(維心)』, 1925년 오세암에서 『십현담주해(十玄談註解)』를 탈고하여 이듬해 간행하였는 등 불경의 연구와 주해는 3·1운동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1919년 1월말 경, 최린을 만나 파리강화회의가 개최되고 민족자결주의가 제창되는 등 우리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국제정세를 이용하여 독립운동을 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후 최린은 물론 오세창 등 천도교측 인사들과 수시로 만나 만세운동을 협의하였다. 대중화·일원화·비폭력화의 원칙에 따라 독립선언서는 최린의 주관 아래 최남선이 작성하여 2월 11일경 초고를 완료하고 15일 최린에게 넘겨주었다. 최린은 이 초고를 일시 보관하였다가 손병희·권동진·오세창 등 천도교측 주도 인사들에게 보여 동의를 얻고, 기독교측 연락대표인 함태영에게 건네주어 기독교측의 동의도 구하였다. 당시 최남선은 독립선언서 외에 미국 대통령

과 세계 각국 대표, 일본 귀족원(貴族院)·중의원(衆議院) 양원(兩院)에게 보내는 탄원서와 조선총독에게 보낼 통고문도 기초하였다. 이때 그는 독립선언서 작성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민족대표로 서명하지도 않은 최남선이 독립선언서를 기초하는 것은 부당하니 자신이 짓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이 요구는 독립선언서 작성 책임자였던 최린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최린은 독립선언서 외에 최남선이 기초한 문서를 맡기며 한 부를 정서하도록 부탁하였다. 이에 최남선이 기초한 초고를 정서하며 자신의 의견과 다른 부분은 일부 수정을 가하기도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만해의 독립선언서 공약3장 추가설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만세운동 추진과정에서 승려임에도 유림계의 포섭을 담당하였다. 먼저 경남 거창으로 영남 유림을 대표하는 면우(俛宇) 곽종석(郭鍾錫)을 만나러 갔으나, 만나지 못하고 2월 24일 상경하였다. 독립선언서에 유림대표가 민족대표로서 참여하지는 못하였으나, 후에 유림들은 「파리장서(巴里長書)」를 통해 그들의 자주독립의사를 밝혔다. 또한 범어사를 다녀오는 등 불교계의 포섭에도 나섰으나, 시일이 촉박하고 사찰이 산간에 위치하여 연락이 불편한 관계로 많은 불교계 인사를 가입시키지는 못하고 해인사 승려 백용성(白龍成, 일명 白相奎)을 참여키는 데 그쳤다. 민족대표는 기독교 16인, 천도교 15인, 불교 2인 등 33인으로 구성되었다.

2월 27일 밤, 최린의 집에서 이승훈·이필주·함태영·최남선 등과 회합하여 민족대표 서명자의 배열 순서를 협의하였다. 28일 밤에는 손병희의 집에서 다른 민족대표 23명과 만나 최종 결의를 다졌다. 이 자리에서 많은 학생과 시민이 운집하면 혹시 일본 군경과 충돌할 불상사가 우려된다는 손병희의 제안에 따라 독립선언 장소를 당초 파고다공원(현재 탑골공원)에서 태화관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일본 경찰에 체포되더라도 그동안의 경과를 숨김없이 정정당당하게 말하고 행동을 통일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때 그는 다른 민족대표들에게 일제에 체포된다 하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말고, 사식(私食)을 취하지 말며, 병보석을 요구하지

말 것 등 3대 행동원칙을 제시하였다.

한편 그는 독립선언서의 배포 책임도 맡았다. 독립선언서는 천도교에서 운영하는 인쇄소 보성사(普成社)에서 사장 이종일(李鍾一)의 주도하에 비밀리에 인쇄되었다. 독립선언서 배포 총책임자는 오세창이었고, 실무는 이종일이 맡았는데, 천도교는 인종익(印宗益), 기독교는 김창준(金昌俊), 학생계는 이갑성(李甲成)이 맡았고, 불교계는 그가 책임을 맡았다. 28일 밤 이종일로부터 3천여 매의 독립선언서를 인수하자, 그날 밤 자정 무렵 자신의 집에 대기하고 있던 중앙학림(中央學林) 학생 정병헌(鄭秉憲)·김상헌(金尙憲) 등에게 독립선언서를 건네주며 3월 1일 오후 2시 이후 시내 일원에 배포하도록 당부하였다.

3월 1일, 오후 1시경 태화관으로 갔다.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중 4인을 제외한 29인이 모였다. 오후 2시 민족대표들은 이종일이 가지고 온 독립선언서를 돌려보는 것으로 낭독을 대신하였다. 그리고 최린의 부탁으로 그가 식사(式辭)를 하게 되자, "오늘 우리가 모인 것은 조선의 독립을 선언하기 위한 것으로 자못 영광스런 날이며, 우리는 민족대표로서 독립선언을 하는 책임이 막중하니 앞으로 공동 협심하여 독립을 이뤄내자"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만세삼창을 선창하였다.

독립선언식이 거의 끝날 무렵 미리 연락을 받고 출동한 일본 경찰에 의해 민족대표들과 함께 일본 경찰이 준비한 차에 태워져 경찰서로 끌려가게 되었다. 이때 어린 학생들이 자신을 향해 손을 흔들며 만세를 부르다가 일본 경찰에게 제지당해 개천으로 굴러 떨어졌다가 마침내 붙잡히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그 광경을 평생 잊지 못할 상처로 새겨두었다.

경찰서에 연행된 이후 의연하고 당당하게 옥중투쟁을 전개하였다. 일부 겁에 질려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민족대표들을 질타하였고, 일본 경찰, 검사, 판사의 심문에 대해서는 시종 꿋꿋한 기개와 정연한 논리로 응대하였다. 당일인 3월 1일 경무총감부에서 열린 심문에서는 일본인 검사에게 민족자결주의 제창 등 세계정세의 변화를 설명하고, 앞으로도

계속 독립운동을 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한동안은 일본인의 심문에 무응답으로 대응하였다. 그 까닭을 묻자, "조선인이 조선독립운동을 하는 것은 백번 말해 마땅한 일인데, 감히 일본인이 무슨 재판이냐"며 준엄하게 꾸짖었다.

그해 7월 10일 경성지방법원 검사장의 요구로 「조선독립에 대한 감상」이란 글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 글은 종이 노끈으로 위장하여 비밀리에 형무소에서 외부로 내보내는 옷 속에 끼워 밖으로 유출되었고, 그 내용 전문이 1919년 11월 4일자 『독립신문(獨立新聞)』에 실리며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 글은 3·1운동 직후 한민족의 독립선언의 동기와 이유를 논리정연하게 정리한 최고의 논설로 평가된다.

1920년 10월 3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 「출판법」 위반, 「소요죄」로 징역 3년(미결구류일수 360일 본형산입)을 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다가 1921년 12월 22일 가출옥 형식으로 출옥하였다.

출옥 이후 다방면에서 활동을 펼쳤다. 불교혁신운동은 활동 초기부터 주력했던 분야였다. 불교개혁은 단순한 불교계의 개혁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개혁과 연관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민족운동의 일환이었다. 그가 추구한 불교혁신운동은 스스로 정의한 독창적인 '불교사회주의(佛教社會主義)' 였다. 불교사회주의는 불교를 바탕으로 사회의 자유와 정의를 실현하고자 한 사상체계로서 불교도들의 절대적 신임을 받으며 혁신운동을 추진하였다. 1922년 3월에는 대장경 국역 사업을 위해 법보회(法寶會)를 발기하였고, 이듬해 1월에는 조선불교청년회(朝鮮佛教青年會)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조선불교청년회는 1931년 조선불교청년총동맹(朝鮮佛教青年總同盟)으로 개편되었는데, 그 비밀결사인 만당(卍黨)의 활동은 주목된다. 만당은 1930년 5월경 김법린(金法麟)·최범술(崔凡述) 등 20여명의 청년 불교도들이 다솔사(多率寺)를 근거지로 결성한 비밀결사였다. 만당의 당수로 추대되어 이들의 활동을 지도하였

으나, 겉으로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가장하였다. 1938년 만당이 일제에 발각되어 회원들이 검거되자, 대구와 진주 등지로 당원들을 면회하고자 하였으나 일본 경찰의 방해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한편 1931년에는 불교 잡지 『불교』를 인수하여 불교대중화와 민중계몽운동을 펼쳤다.

출옥 이후 일제와 일체의 타협을 거부하고 철저히 비타협주의를 고수하였다. 또한 독립운동 세력의 이념과 노선 통합을 역설하면서 1926년 6·10만세운동과 1927년 좌우합작 단체로 결성된 신간회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이에 신간회 발기인, 중앙집행위원, 경성지회장으로 추대되어 광주학생운동을 전국적으로 증폭시키기 위한 민중대회에 참여하였고, 식민지 교육제도인 한일공학제도를 반대하고 조선인본위교육을 주장하였다. 민립대학 설립운동에도 적극 참여하여 민립대학기성회 중앙집행위원, 상무위원으로 추대되었다. 또한 민족과 국가 간 자유와 평등을 강조하며 이를 남녀관계에도 적용하여 여성해방운동을 펼쳤다. 1930년대 중반에는 신문 연재소설 「흑풍(黑風)」을 통해 여성해방운동의 이론과 강령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소작쟁의 등 농민운동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1930년대 들어 경제적 불평등의 실체를 이해하고 이를 타개할 구체적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특히 근대적 경제개념에 입각한 협동조합과 소비조합운동 제시는 탁월한 사회사상이었다.

1926년 발표한 「님의 침묵」은 우리나라 문학사에서 최초의 근대시인, 최고의 시민문인, 저항시인으로 위치하게 하였다. 그는 불교개혁을 통한 사회개혁과 독립투쟁을 병행하였기 때문에 프랑스의 레지스탕스나 독일의 반나치 문학보다 한 차원 승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1930년대 후반기에는 「후회」, 「철혈미인」, 「박명」 등의 소설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노년에 일제의 삼엄한 감시와 경제적 고난 속에서 고통스런 시간을 보내면서도 창씨개명 반대와 학병 출전 반대운동을 펼치며 꿋꿋한 지조와 절개로 '풍란화의 매운 향내'를 잃지 않았다. 1944년 6월 29일 성북동 심우장에서 66세로 서거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하였다.

한필동(韓弼東), 남, 1921. 01. 20~1993. 01. 14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부평 254

주　　소 : 서울 영등포구 대방동 산40

운동계열 : 광복군, 포상년도 : 1990, 훈격 : 애족장

홍성 금당으로 광복군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일본 오사카외국어전문학교를 다니며 영어를 전공하였고, 중국어를 부전공으로 하였다. 그는 일본군의 학병으로 강제로 끌려와 중국 장사(長沙)의 일군 제64부대에 소속되었고, 중국군 포로 감시병으로 근무하였다. 그가 근무한 포로수용소에는 중국군 장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의 부탁으로 중국군 지하조직과 연결을 하게 되었고, 중국 유격대의 도움으로 포로들의 집단탈출을 계획해 함께 중국군으로 탈출했다고 한다. 1945년 중경(重慶) 총사령부로 후송된 그는 광복군 토교대(土橋隊)에 배속되었다. 토교대는 당시 일본군 탈출병, 중국군의 포로였던 한적사병(韓籍士兵), 한국광복군훈련반 출신들을 중경 토교에 수용하여 편성한 일종의 보충대였다. 이들은 일정기간 수용되어 한국광복군총사령부로부터 교육과 훈련을 받은 뒤 총사령부, 광복군 지대(支隊), 경위대(警衛隊)등으로 배치되었다. 그는 임정 요인의 호위, 총사령부 지시에 의한 공작수행 등을 전개하던 중, 광복을 맞이하였다. 한편 그의 어머니 유예도(柳禮道,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는 유관순 열사의 사촌언니로 아우내 장터의 시위를 주도한 후 일본 당국의 수배를 피해 홍성의 한 목사 집으로 피신하였고, 목사의 동생과 결혼하게 되었다. 광복 이후 그는 간호사인 부인을 따라 어머니를 모시고 미국으로 건너갔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63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227

함성열(咸聖烈), 남, 1884. 10. 14~1926. 07. 31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장성 210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장성 210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05,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1919년 4월 1일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

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4월 14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228

황문수(黃文秀), 남, 1860. 01. 19~1929. 11. 05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구항 황곡 339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구항 황곡 339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1993,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구항 사람으로 이길성과 함께 1919년 4월 구항면(龜項面)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은하면의 만세시위는 3월 21일 대천리(大川里)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시작되었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후 장곡리(長谷里)에서는 4월 9일 밤 전명규(田明圭) 등 마을주민 다수가 모여 대한독립만세를 불렀다. 일경은 이를 발견하고 주도인사들을 체포해 홍성경찰서로 보내 홍성경찰서에서 즉결처분으로 태형을 가했다. 홍성군의 3·1운동 관련 수형기록자료(은하면 범죄인명부)에 따르면 은하면에서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2명이다.

구항면의 만세운동에 참여하여 일경에 체포된 그는 4월 28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아 공주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229

황석산(黃錫山, 이명 : 黃鍾山), 1893. 03. 03~1951. 06. 22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인산 497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금마 인산 497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2007, 훈격 : 대통령표창

홍성 금마 사람으로 금마면(金馬面) 가산리(佳山里)와 홍성시장에서

전개되었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 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금마면에서는 4월 1일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금마면 가산리의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던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연극을 보기 위해 이원교(李元交) 집에 설치된 임시 연극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최중삼(崔仲三, 崔八龍)·김재홍(金在洪)·조재학(趙載學)·조한원(趙漢元) 등에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찬성의 뜻을 얻었다. 4월 1일 밤 8시 경 이원교의 집인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이재만·김재홍·최중삼·조재학·조한원 등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자, 거기에 있었던 관객 20~30명(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공연장 가까이에서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주재소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탄압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였고, 시위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성장터로 결집하여 군중들과 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금마면에서는 주민 500명 정도가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철마산(鐵馬山)을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2일과 4일에 전개되었던 금마면의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영갑·이재만은 징역 1년, 김재홍·조한원·최중삼·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홍성지역 3·1운동 참자가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불기소(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태형, 재판 회부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총 310명 정도가 확인된다. 당시 금마면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은 185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183명이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금마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그는 1919년 4월 23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230

황윤성(黃允性), 남, 1879. 06. 16~1919. 05. 06

본　　적 : 충청남도 홍성 홍동 원천 254
주　　소 : 충청남도 홍성 홍동 원천 254
운동계열 : 3·1운동, 포상년도 : 1991, 훈격 : 애국장

홍성 홍동 사람으로 1919년 4월 홍동면(洪東面)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충청도에서의 3·1운동은 3월 27일부터 4월 6일경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충청도에서 많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7일 홍성읍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홍성군의 각 면에서는 대체로 4월 이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4월 4일 밤에는 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 등의 24개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홍성경찰서와 파견 수비대의 무력 진압으로 10명이 사망하였다. 홍동면의 3·1운동은 4월 4일부터 시작되었다. 홍동면사무소의 「범죄인명부」에는 신기리 이외에 구암리, 문당리, 수란리, 효학리, 금평리, 운원리, 운용리,

월림리, 대평리, 구룡리 등 주민 50명이 4월 7일부터 4월 14일까지 홍성경찰서에서 즉결처분으로 태형을 당한 기록이 있다.

4월 5일에는 신기리 주민 100명이 독립만세를 외쳤다. 『홍동면지』에는 이 시위를 '홍동 신기리 사건' 이라며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이제경(李齊經)·조우식(趙愚植) 등이 3월 5일(양력 4월 5일) 밤 뒷산인 꽃동산에 모여 봉화를 올리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쳤고, 일경의 발포로 이희도(李羲圖)·한명교(韓命敎) 등이 현장에서 죽고 이석만(李錫滿)·안중호(安重浩) 등이 관통상을 입었다. 경찰은 주민들은 닥치는대로 체포하고 13명을 구속, 태형을 가하였다. 성낙붕(成樂朋)씨는 고문의 여독으로 사망하였으며 그로 인해 두 아들이 부인과 함께 사망하여 가정 전체가 몰락하였다.

이 만세운동의 결과는 일경들이 무차별 사격을 가해 2명이 죽고 2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체포 구금된 13명은 태형을 당했다. 또한 4월 8일에도 독립만세를 외쳤는데 『홍동면지』에 '홍동 원천리 사건' 이라며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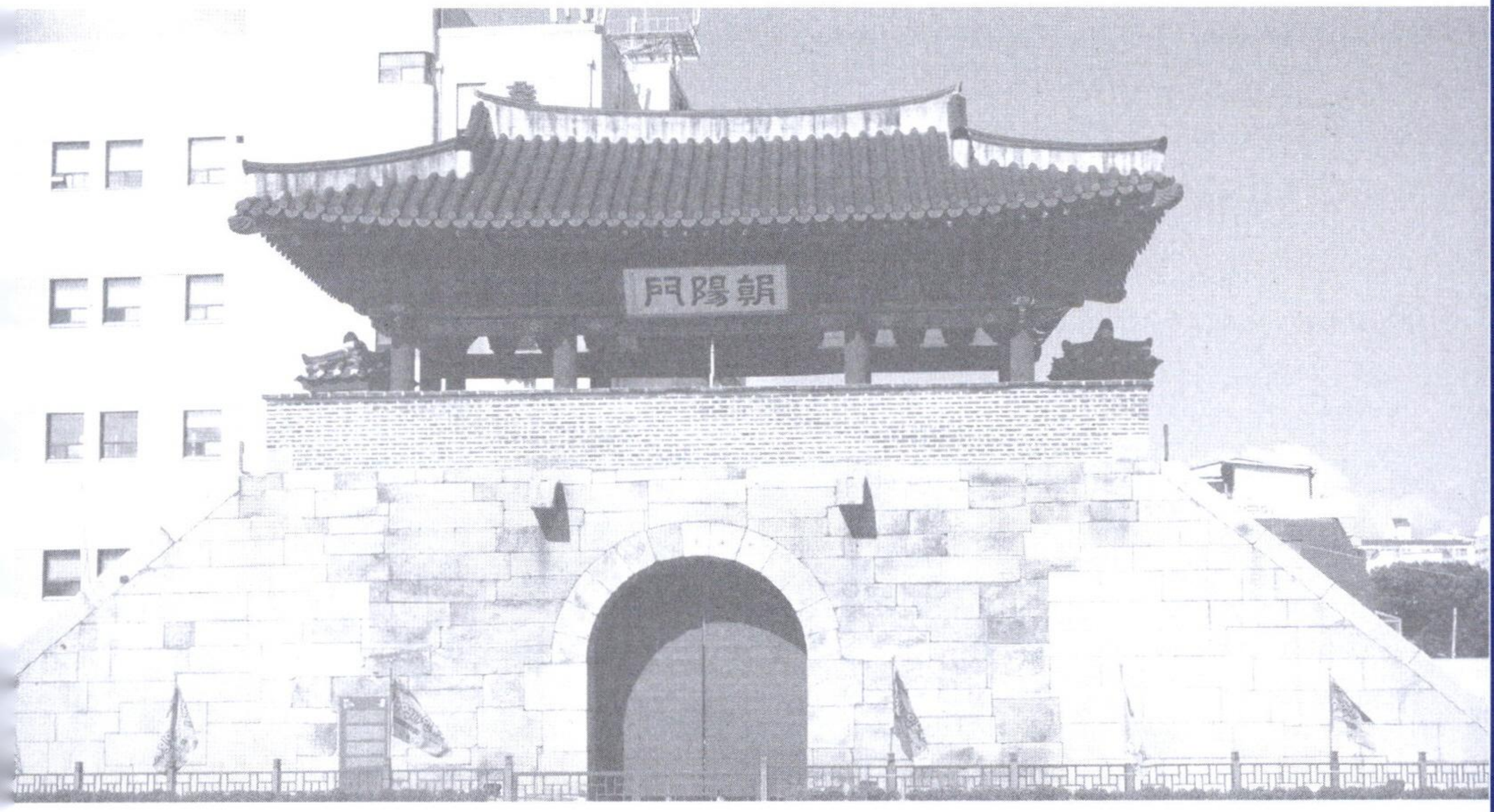
> 황윤성(黃允性)은 3·1운동이 터지자 인근을 돌면서 세천부락은 청광산(靑光山)에서, 중원부락은 석삼봉(石三峰)에서, 종현부락은 종현봉(鍾懸峰)에서 4월 8일 일제히 거사하여 만세를 부른 다음 홍동주재소를 기습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들은 약속대로 거사하고 "왜놈은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주재소를 기습하였다. 일본 경찰은 물론 조선인 순사들도 모두 도망하였다. 그러나

다음날 본서에서 수십 명의 경찰이 나와 황윤성을 체포하여 고문을 하고 관련자들의 성명을 밝히라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고문에 못이겨 사망하였다.

『홍동면지』에는 이 만세운동의 결과 사망하거나 형을 받은 애국지사 총 63명이 기록되어 있다. 그는 홍동면(洪東面)의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거사하기 위하여 인근 각 부락을 돌아다니며 주민들에게 1919년 4월 8일 야간을 이용하여 일제히 독립만세 소리를 높이 외치며 시위하도록 하고 이 기세를 이용하여 주재소를 습격하여 강제 연행되어 있던 동지들을 탈출시키기로 결의하였다. 거사일인 4월 8일 밤 세천 부락은 청광산, 주원 부락은 석삼봉, 월현 부락은 수현봉에서 일제히 독립만세를 부르고 봉화를 올리며 시위하다 주재소를 습격하여 연행자를 석방시켰다. 그 과정에서 그는 "왜놈들은 물러가라"는 구호를 연창하면서 시위를 주도하였다.

홍동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다음날 일경에 체포된 그는 태형을 받았고, 이후 심한 고문의 여독으로 5월 6일 41세를 일기로 별세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82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홍성의 독립운동사 2



부록

참고 문헌

제1장 | 홍성의 독립운동 사적지

1. 금마 3·1운동 만세시위지

국가보훈처, 「민영갑 등 6인 판결문」, 1919년 4월 30일
국가보훈처, 「민영갑 등 5인 판결문」, 1919년 5월 30일
김진호, 「홍성지역의 3·1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4
김진호, 『충남지방 3·1운동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5, 1971

2. 장곡면사무소 3·1운동 만세시위지

국가보훈처, 「김동하 판결문」, 1920년 2월 5일
국가보훈처, 「김동하 판결문」, 1920년 3월 22일
국가보훈처, 「윤낙중 등 6인 판결문」, 1919년 10월 18일

국가보훈처, 「윤형중 판결문」, 1919년 11월 12일
김진호, 「홍성지역의 3·1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4
김진호, 『충남지방 3·1운동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5

3. 호명학교 터

대한매일신보, 1908년 11월 1일, 「湖西有人」
황성신문, 1908년 11월 1일, 「湖明有望」
이성우, 「백야 김좌진의 국내민족운동」, 『호서사학』 44, 호서사학회, 2006
홍성군, 『홍성군지』, 1925
홍양사편찬위원회, 『홍양사』, 1969

4. 결성금광 동맹파업지

동아일보, 1933년 5월 10일, 「坑夫 七十餘名이 結束 金鑛機械場을 襲擊, 洪城結城金鑛에서 十三名檢擧 坑夫 一名 橫死에 激憤」
조선일보, 1933년 6월 4일, 「십일명 석방, 7명 공판 회부, 결성금광 파업사건」
충청남도지편찬위원회, 『충청남도지』 9, 충청남도, 2008

5. 황보금광 동맹파업지

조선일보, 1934년 6월 19일, 「黃寶金山의 監督, 拳銃으로 鑛夫를 亂射, 피해자 양명 중상으로 생명 위독, 홍성군 담산리에 참사」

조선일보, 1934년 6월 20일, 「監督의 拳銃 맞은 鑛夫遂絶命, 洪城 黃寶金山 慘事後報」
충청남도지편찬위원회, 『충청남도지』 9, 충청남도, 2008

6. 홍성공립보통학교 동맹휴학지

동아일보, 1926년 5월 2일, 「奉悼不許로, 洪城公普 盟休」
동아일보, 1926년 5월 5일, 「洪城公普 盟休」
동아일보, 1926년 6월 14일, 「洪城公普 盟休, 봉도하기 위해」
조선일보, 1926년 5월 6일, 「洪城公普生 盟休」
김용달, 「일제하 홍성지역의 사회운동」, 『한국사학보』 19, 고려사학회, 2005
홍양사편찬위원회, 『홍양사』, 1969

7. 김복한 생가 터

『지산집』 권15 부록, 연보
김상기, 「1895~6년 홍주의병의 사상적 연원과 전개」, 『윤병석교수환갑기념논총』, 지식산업사, 1990
김상기, 「김복한의 학통과 사상」, 『한국사연구』 88, 한국사연구회, 1995
김상기, 「김복한의 홍주의병과 파리장서운동」, 『대동문화연구』 39,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1
홍주성역사관, 『1919 홍성의 함성』, 2019.

8. 이설 생가 터

『복암집』 부록, 연보

김상기, 「1895~1896년 홍주의병의 사상적 연원과 전개」, 『윤병석교수 환갑기념논총』, 지식산업사, 1990
김상기, 「복암 이설의 항일민족운동에 대한 고찰」, 『우강권태원교수정년기념논총』, 세종문화사, 1994

9. 덕명학교 터

국가보훈처, 「이명종 등 5인 판결문」, 1919년 4월 8일
『기호흥학회월보』 8, 1908년 3월, 「회중기사」
대한매일신보, 1908년 9월 25일, 「사립덕명학교 취지서」
동아일보, 1926년 5월 5일, 「廣川公普 盟休 解決」
동아일보, 1930년 2월 26일, 「廣川公普校 學生, 의연 맹휴 계속」
동아일보, 1935년 11월 9일, 「故徐承台氏 興學記念碑」
황성신문, 1909년 3월 9일, 「덕명보명」

10. 홍성공립공업전수학교 학생운동지

동아일보, 1928년 12월 16일, 「洪城工業專修學生 盟休」
동아일보, 1928년 12월 24일, 「工業專修校 盟休는 解決」
동아일보, 1930년 1월 21일, 「洪城에도 檄文撒布, 學生 十餘名 檢擧」
동아일보, 1930년 2월 14일, 「洪城工業專修生 七名 退停學 處分, 충남도청의 명령이라고, 三名 退學 四名 謹愼」
安齋霞堂, 『忠淸南道發展史』, 湖南日報社, 1932
정내수, 「일제강점기 홍성지방의 민족운동과 사회운동」, 『호서사학』 40, 호서사학회, 2005
홍양사편찬위원회, 『홍양사』, 1969

11. 김좌진 생가

「고 김좌진선생약력」, 1930년

『동아일보』, 1930년 2월 13일, 「兇報를 確傳하는 白冶 金佐鎭 訃音, 北滿 ○○運動者의 巨頭, 四十二歲를 一期로」

『동아일보』, 1930년 2월 14일, 「幼年부터 武藝絕人 豪膽과 俠氣의 四十平生」

박영석, 「백야 김좌진장군 연구」, 『국사관논총』 51, 국사편찬위원회, 1994

박 환, 『대륙으로 간 혁명가들』, 국학자료원, 2003

송상도, 『기려수필』, 국사편찬위원회, 1955

신용하, 『한국민족독립운동사연구』, 을유문화사, 1985

이성우, 「백야 김좌진의 국내민족운동」, 『호서사학 』 44, 호서사학회, 2006

이을규, 『是也金宗鎭先生傳』

12. 한용운 생가

「한용운 신문조서」, 1919년 8월 27일(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1·12, 1990)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5·12·13·14, 1973~1978

만해사상연구회, 『만해 한용운 연구』, 민족사, 1980

13. 홍주의병 전투지

「한국각지폭동잡건」, 『한말의병자료 Ⅲ』 한국독립운동사자료총서 제17집, 독립기념관, 2002

황성신문, 1906년 6월 18일, 2면 4단, 「義擾調査」
김상기, 「1906년 홍주의병의 홍주성전투」, 『한국근현대사연구』 37, 한국근현대사학회, 2006
홍순대, 『해암사록』

14. 홍주의사총

김상기, 「1906년 홍주의병의 홍주성전투」, 『한국근현대사연구』 37, 한국근현대사학회, 2006
손재학, 「왜정 36년간에 내가 겪은 실화」, 『손재학회고록』(필사본)
윤시영, 「홍양일기」, 『향토연구』 11, 충남향토연구회, 1992

참고문헌

1. 강익승

『독립유공자공훈록』 제16권, 2006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제3권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금마면, 『범죄인명부』

김진호, 「홍성지역의 3·1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3, 2004

홍양사출판위원회, 『홍양사』, 1969

2. 강종렬

『수형인명부』

3. 강종진

홍성경찰서, 『수형인명부』, 1919. 4. 7.

4. 강춘경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 2006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제3권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금마면, 『범죄인명부』

김진호, 「홍성지역의 3·1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3, 2004

홍양사출판위원회, 『홍양사』, 1969

5. 강태산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제3권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금마면, 『범죄인명부』

김진호, 「홍성지역의 3·1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3, 2004

홍양사출판위원회, 『홍양사』, 1969

홍성경찰서, 『수형인명부』, 1919. 4. 19.

6. 강학삼

『독립유공자공훈록』 제17권, 2009

금마면, 『수형인명부』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3권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7. 고락서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 2009

금마면, 『수형인명부』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3권

8. 권성필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 2006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제3권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금마면, 『범죄인명부』

김진호, 「홍성지역의 3·1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3, 2004

9. 권영갑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 2006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제3권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금마면, 『범죄인명부』

김진호, 「홍성지역의 3·1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3, 2004

홍양사출판위원회, 『홍양사』, 1969

10. 권용군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 2006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제3권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금마면, 『범죄인명부』

김진호, 「홍성지역의 3·1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3, 2004

11. 권중복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 2009

금마면, 『수형인명부』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3권

12. 권중우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 2009

금마면, 『수형인명부』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3권

13. 권중협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 2006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제3권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금마면, 『범죄인명부』

김진호, 「홍성지역의 3·1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3, 2004

홍양사출판위원회, 『홍양사』, 1969

14. 권중호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 2009

금마면, 『수형인명부』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3권

15. 권태호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 2006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제3권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금마면, 『범죄인명부』

김진호, 「홍성지역의 3·1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3, 2004

홍양사출판위원회, 『홍양사』, 1969

16. 권한복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 2006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제3권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금마면, 『범죄인명부』

김진호, 「홍성지역의 3·1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3, 2004

17. 김경천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 2006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제3권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금마면, 『범죄인명부』

김진호, 「홍성지역의 3·1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3, 2004

홍양사출판위원회, 『홍양사』, 1969

18. 김공제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 2006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제3권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금마면, 『범죄인명부』

김진호, 「홍성지역의 3·1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3, 2004

홍양사출판위원회, 『홍양사』, 1969

19. 김공필

『독립유공자공훈록』 20권, 2012

금마면, 『범죄인명부』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3권

20. 김구화

홍성경찰서, 『수형인명부』, 1919. 4. 10.

21. 김금손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 2006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제3권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금마면, 『범죄인명부』

22. 김기봉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 2006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제3권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금마면, 『범죄인명부』

김진호, 「홍성지역의 3·1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3, 2004

23. 김덕필

『독립유공자공훈록』 19권, 2011

금마면, 『수형인명부』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3권

24. 김도손

『독립유공자공훈록』 20권, 2012

『수형인명부』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3권

25. 김동완

『독립유공자공훈록』 14권, 2000

『형사사건부』

『범죄인명부 폐기목록』

장곡기미3·1운동기념비건립추진위원회, 『기미3·1운동기념비』

홍양사출판위원회, 『홍양사』, 1969

홍주향토문화연구회, 『홍주향토문화』 제8권

26. 김동운

『己未三一運動紀念碑』, 1994

『독립유공자공훈록』 15권, 2003

홍성군, 『수형인명표폐기목록』, 2002

27. 김동준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 2006

장곡면 기미 3·1만세운동기념비, 1994

장곡면, 『범죄인명부』

장곡면, 『수형인명표폐기목록』

28. 김동진

『독립유공자공훈록』 4권

고등경찰요사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4권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 10집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5권

김승학, 『한국독립사』 하권

김정명, 『명치백년사총서』 1권 분책

동아일보(1927. 8. 14)
무장독립운동비사
문일민, 『한국독립운동사』
총독부경무국, 『국외용의조선인명부』

29. 김동집

『형사사건부』, 1919. 5. 30.
공주지방법원, 『수형인명부』, 1919. 6. 2.

30. 김동하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 1993
경성복심법원, 『판결문』, 1920. 3. 22.
고등법원, 『판결문』, 1920. 4. 19.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제3권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대구지방법원, 『판결문』, 1919. 5. 2.

31. 김동혁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 2010
경성복심법원, 『판결문』, 1920. 2. 27.
경성지방법원, 『판결문』, 1919. 11. 6.
경성지방법원, 『판결문』, 1919. 8. 30.
국사편찬위원회,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 제4권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 1집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제16집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제18집
금마면, 신분장지문원지(경찰청)

김정명, 『조선독립운동』, 1967, 제1권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9권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10권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제13집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제14집
동아일보(1929. 8. 24)
매일신보(1919. 9. 7~9. 11, 1919. 9. 14~9. 16, 1922. 1. 11)

32. 김동화

홍성경찰서, 『수형인명부』, 1919. 4. 13.

33. 김래문

홍성경찰서, 『수형인명부』, 1919. 4. 10.

34. 김만복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 2009
금마면, 『범죄인명부』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3권

35. 김병길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 2009
금마면, 『범죄인명부』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3권

36. 김복한

『기려수필』

『독립유공자공훈록』 1권, 1986
『매천야록』
『항일민족시집』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3권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 2집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 1집
문일민, 『한국독립운동사』

37. 김봉근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 2009
금마면, 『범죄인명부』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3권

38. 김봉안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 2009
금마면, 『범죄인명부』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3권

39. 김사응

홍성경찰서, 『수형인명부』, 1919. 4. 10.

40. 김상억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 2006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제3권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금마면, 『범죄인명부』
김진호, 「홍성지역의 3·1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3, 2004

41. 김성실

『독립유공자공훈록』 20권, 2012

『수형인명부』

독립운동사편찬위원, 『독립운동사』 제3권

42. 김성칠

홍성경찰서, 『수형인명부』, 1919. 4. 13.

43. 김영배

『독립유공자공훈록』 20권, 2012

『수형인명부』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3권

44. 김용

『독립유공자공훈록』 12권, 1996

국사편찬위원회,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 제13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제5권

45. 김용갑

『독립유공자공훈록』 8권, 1990

신분장지문조회회보서

46. 김용숙

『독립유공자공훈록』 12권, 1996

『형사사건부』

경찰청, 『신분장지문원지』

홍양사출판위원회, 『홍양사』 전권, 1969

홍주향토문화연구회, 『홍주향토문화』 제8집, 1993

47. 김용제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 1994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제3권
홍성군 장곡면장, 『수형인명표폐기목록』, 1992. 8. 24 발행
홍양사출판위원회, 『홍양사(전)』 1969. 8. 15.

48. 김우진

『독립유공자공훈록』 12권, 1996
『민족독립투쟁사사료』(해외편)
『조선민족운동연감』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제4권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 제9집
국가보훈처, 『요시찰인명부』
국회도서관, 『임시정부의정원문서』
국회도서관, 『한국민족운동사료』(중국편)
총독부경무국, 『국외용의조선인명부』

49. 김운제

홍성경찰서, 『수형인명부』, 1919. 4. 8.

50. 김응칠

『독립유공자공훈록』 20권, 2012
『수형인명부』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3권

51. 김재돈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 2009

금마면, 『범죄인명부』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3권

52. 김재욱

『독립유공자공훈록』 20권, 2012

『수형인명부』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3권

53. 김재순

홍성경찰서, 『수형인명부』, 1919. 4. 8.

54. 김재준

『독립유공자공훈록』 16, 2006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제3권

금마면, 『범죄인명부』

김진호, 「홍성지역의 3·1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3, 2004

홍양사출판위원회, 『홍양사』, 1969

55. 김재철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 2009

금마면, 『범죄인명부』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3권

56. 김재홍

『독립유공자공훈록』 12권, 1996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제3권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57. 김제석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 2006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제3권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금마면, 『범죄인명부』

김진호, 「홍성지역의 3·1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3, 2004

홍양사출판위원회, 『홍양사』, 1969

58. 김종삼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 2006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제3권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금마면, 『범죄인명부』

김진호, 「홍성지역의 3·1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3, 2004

홍양사출판위원회, 『홍양사』, 1969

59. 김종석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 2009

공주지방법원, 『판결문』 1919. 4. 4.

금마면, 『범죄인명부』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3권

60. 김종진

『독립유공자공훈록』 4권, 1987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3권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5권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 14집

김승학, 『한국독립사』 하권

이을규, 『시야 김종진』

61. 김좌진

『고등경찰요사』

『기려수필』

『독립유공자공훈록』 4권, 1987

『무장독립운동비사』

『민족독립투쟁사사료』 (해외편)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 8권

『조선민족운동연감』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2권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3권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4권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5권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6권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7권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8권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10권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 9집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 11집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 12집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 14집
국회도서관, 『한국민족운동사료』(중국편)
김승학, 『한국독립사』 하권
김정명, 『명치백년사총서』 2권
김정명, 『명치백년사총서』 3권
문일민, 『한국독립운동사』
북만신민부(임강)
이성우, 「만주 항일무장투쟁의 신화 김좌진」,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1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특별판 1, 2019

62. 김주현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 2006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제3권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금마면, 『범죄인명부』
김진호, 「홍성지역의 3·1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3, 2004
홍양사출판위원회, 『홍양사』, 1969

63. 김차제

『독립유공자공훈록』 14권, 2000
『수형인명부』
『수형인명부폐기목록』
홍양사출판위원회, 『홍양사』 전권, 1969

64. 김창윤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 2006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제3권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금마면, 『범죄인명부』
김진호, 「홍성지역의 3·1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3, 2004
홍양사출판위원회, 『홍양사』, 1969

65. 김화인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 2009
금마면, 『범죄인명부』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3권

66. 남기원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 2006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제3권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금마면, 『범죄인명부』
김진호, 「홍성지역의 3·1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3, 2004
홍양사출판위원회, 『홍양사』, 1969

67. 남중희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 2006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제5권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 제14집
국사편찬위원회,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 제9권
김준역·김창순, 『한국공산주의운동사』 제4권, 1986
동아일보사(1929. 6. 14)
조선일보(1928. 2. 27)

朝鮮總督府警務局, 『在滿不逞團竝社會主義團體의 狀況』, 1928. 3.
蔡根植, 『武裝獨立運動秘史』, 1985

68. 노을룡

『독립유공자공훈록』 12권
고등법원검사국사상부, 『사상휘보』 제4호, 1935. 9.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 제3집
김승학, 『한국독립사』 하권
문일민, 『한국독립운동사』
사상정세시찰보고집(其二)
사상정세시찰보고집(其一)
한상도, 『한국독립운동과 중국군관학교』, 1994

69. 노인식

홍성경찰서, 『수형인명부』, 1919. 4. 7.

70. 민록식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 2006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제3권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금마면, 『범죄인명부』
김진호, 「홍성지역의 3·1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3, 2004
홍양사출판위원회, 『홍양사』 1969

71. 민영갑

『독립유공자공훈록』 15권, 2003
『홍양사』 전권, 1969

경성복심법원, 『판결문』, 1919. 5. 30
고등법원, 『판결문』, 1919. 7. 3.
공주지방법원, 『판결문』, 1919. 4. 30.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제3권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금마면, 『범죄인명부』

72. 민영식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 2009
금마면, 『범죄인명부』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3권

73. 박달성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 2009
금마면, 『범죄인명부』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3권

74. 박문백

『독립유공자공훈록』 20권, 2012
『수형인명부』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3권

75. 박사현

『범죄인명부』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3권, 1971

76. 박순학

홍성경찰서, 『수형인명부』, 1919. 4. 23.

77. 박승익

『독립유공자공훈록』 19권, 2011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3권

장곡면, 『수형인명부』

78. 박영달

『형사사건부』

『수형인명부』

79. 박원식

『독립유공자공훈록』 12권, 1996

경성복심법원, 『판결문』, 1921. 3. 23.

경성지방법원, 『판결문』, 1920. 12. 7.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제10권

김승학, 『한국독립사』 하권

문일민, 『한국독립운동사』

조선일보(1920. 6. 29, 7. 1, 7. 2, 12. 17, 12. 20, 1921. 3. 3, 3. 24,
1930. 2. 4, 2. 7, 2. 18, 4. 4, 6. 10, 1932. 3. 7)

80. 박응수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 2014

『수형인명부』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3권, 1971

81. 박의성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 2006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제3권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금마면, 『범죄인명부』

김진호, 「홍성지역의 3·1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3, 2004

홍양사출판위원회, 『홍양사』, 1969

홍주성역사관, 『1919 홍성의 함성』, 2019

82. 박재옥

『형사사건부』

매일신보(1921.6.15(3))

동아일보(1921.6.15(3))

국가기록원, 『형사공소사건부』

『독립운동사료』(일본편) 12권

『조선소요사건관계서류』, 1920. 11. 17.

강덕상, 『현대사자료』 제27권

김정명, 『명치백년사총서』 제1권 분책

83. 박정천

『독립유공자공훈록』 20권, 2012

『수형인명부』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3권

84. 박천근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 2009

금마면, 『범죄인명부』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3권

85. 박헌필

『독립유공자공훈록』 20권, 2012

『수형인명부』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3권

86. 박화선

『독립유공자공훈록』 20권, 2012

『수형인명부』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3권

87. 방경한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 1991

대한독립항일투쟁총사 하권 · 대종교 총전교 확인서

88. 방기용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 2009

금마면, 『범죄인명부』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3권

89. 방화용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 2009

금마면, 『범죄인명부』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3권

90. 복기준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 2006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제3권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금마면, 『범죄인명부』

김진호, 「홍성지역의 3·1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3, 2004

홍양사출판위원회, 『홍양사』, 1969

91. 복윤길

홍성경찰서, 『수형인명부』, 1919. 4. 13.

92. 복천복

홍성경찰서, 『수형인명부』, 1919. 4. 8.

93. 서기환

『독립유공자공훈록』 1권, 1986

『홍양사』(전)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1권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 2집

김승학, 『한국독립사』 하권

94. 서승태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 1993

『홍양사』(전)

공주지방법원, 『판결문』, 1919. 4. 28.

정문사, 『연산서씨시조유래』, 1988. 6. 30.

한국일보(1967. 3. 30.)

홍성군지편찬위원회, 『홍성군지』, 1980. 12. 15.
홍주군수, 『충절의 고장 홍주』, 1982. 3. 31.
홍주의병유족회, 『홍주의병실록』, 1988. 9. 30.

95. 서은모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 2006
구항면, 『수형인명부폐기목록』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제3권

96. 서창인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 2009
금마면, 『범죄인명부』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3권

97. 설순좌

홍성경찰서, 『수형인명부』, 1919. 4. 13.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3권, 1971

98. 손창선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 2014
『수형인명부』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3권, 1971

99. 송만섭

『수형인명부』
홍양사출판위원회, 『홍양사』, 1969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3권, 1971

100. 신운경

홍성경찰서, 『수형인명부』, 1919. 4. 10.

101. 신태복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 2009

금마면, 『범죄인명부』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3권

102. 안재호

홍성경찰서, 『수형인명부』, 1919. 4. 7.

103. 안태호

홍성경찰서, 『수형인명부』, 1919. 4. 14.

104. 안효봉

홍성경찰서, 『수형인명부』, 1919. 4. 7.

105. 양기환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 2006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제3권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금마면, 『범죄인명부』

김진호, 「홍성지역의 3·1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3, 2004

홍양사출판위원회, 『홍양사』, 1969

106. 양두환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 2006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제3권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금마면, 『범죄인명부』
김진호, 「홍성지역의 3·1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3, 2004
홍양사출판위원회, 『홍양사』, 1969

107. 양운칠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 2006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제3권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금마면, 『범죄인명부』
김진호, 「홍성지역의 3·1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3, 2004
홍양사출판위원회, 『홍양사』, 1969

108. 오경춘

『독립유공자공훈록』 19권, 2011
고등법원, 『판결문』, 1919. 10. 18.
장곡면, 『범죄인명부』
조선총독부 재판소, 『형사사건부』

109. 오달영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 2009
경성복심법원, 『판결문』, 1919. 5. 30.
금마면, 『수형인명부』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3권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110. 오대근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 2006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제3권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금마면, 『범죄인명부』

111. 오형근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 2009

금마면, 『범죄인명부』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3권

112. 오흥순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 1993

경성복심법원, 『판결문』, 1920. 2. 27.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제2권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113. 유성만

『독립유공자공훈록』 20권, 2012

『수형인명부』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3권

114. 유성진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 2006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제3권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금마면, 『범죄인명부』

김진호, 「홍성지역의 3·1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3, 2004
홍양사출판위원회, 『홍양사』, 1969

115. 유학선

홍성경찰서, 『수형인명부』, 1919. 4. 23.

116. 유혜무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 2006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제3권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금마면, 『범죄인명부』
김진호, 「홍성지역의 3·1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3, 2004

117. 윤기섭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 2006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장곡면, 『수형인명부폐기목록』
조선총독부, 『형사사건부』
홍양사출판위원회, 『홍양사』, 1969

118. 윤기순

『독립유공자공훈록』 3권, 1987
고등법원, 『형사공소사건부』, 1919. 10. 18.

119. 윤만수

『독립유공자공훈록』 13권, 1996
『형사사건부』

경찰청, 『신분장지문원지』
홍성군 장곡면, 『수형인명표폐기목록』
홍양사출판위원회, 『홍양사』 전권, 1969
홍주향토문화연구회, 『홍주향토문화』 제8집

120. 윤병혁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 2006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제3권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금마면, 『범죄인명부』
김진호, 「홍성지역의 3·1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3, 2004
홍양사출판위원회, 『홍양사』, 1969

121. 윤용범

홍성경찰서, 『수형인명부』, 1919. 4. 13.

122. 윤용욱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 2006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제3권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금마면, 『범죄인명부』
김진호, 「홍성지역의 3·1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3, 2004
홍양사출판위원회, 『홍양사』, 1969

123. 윤의석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 1991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제3권

부산지방검찰청, 『형사공소사건부』, 1982. 3. 19.

124. 윤익중

『기려수필』
『독립유공자공훈록』 8권, 1990
경성복심법원, 『판결문』, 1923. 10. 10.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7권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 10집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 11집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 13집
김승학, 『한국독립사』 하권
문일민, 『한국독립운동사』

125. 윤태경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 2006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제3권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금마면, 『범죄인명부』
김진호, 「홍성지역의 3·1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3, 2004
홍양사출판위원회, 『홍양사』, 1969

126. 윤형중

『독립유공자공훈록』 3권, 1987
부산지방법검찰청, 『형사사건부』

127. 이강인

『독립유공자공훈록』 3권, 1987

공주지방법원, 『수형인명부』, 1921. 10. 15.
홍성경찰서, 『수형인명부』, 1919. 4. 10.

128. 이경석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 2006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제3권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금마면, 『범죄인명부』
김진호, 「홍성지역의 3·1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3, 2004
홍양사출판위원회, 『홍양사』 1969

129. 이계성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 2006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제3권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금마면, 『범죄인명부』
김진호, 「홍성지역의 3·1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3, 2004

130. 이광헌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 2006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제3권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금마면, 『범죄인명부』
김진호, 「홍성지역의 3·1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3, 2004
홍양사출판위원회, 『홍양사』, 1969

131. 이교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 2014

『범죄인명부』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3권, 1971

132. 이근주

『기려수필』

『독립유공자공훈록』 1권, 1986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1권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7권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 2집

김승학, 『한국독립사』 하권

문일민, 『한국독립운동사』

박은식, 『한국독립운동지혈사』

박은식, 『한국통사』

박은식전서(상)

133. 이길성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 1991

경북경찰부, 『고등경찰요사』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제3권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제8권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 제2집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심산사업회, 『김창숙일대기』

134. 이남종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 2006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제3권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금마면, 『범죄인명부』
김진호, 「홍성지역의 3·1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3, 2004
홍양사출판위원회, 『홍양사』, 1969

135. 이만직

『독립유공자공훈록』 13권, 1996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제1권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 제2집
국사편찬위원회, 『기려수필』

136. 이문재

『독립유공자공훈록』 14권, 2000
『수형인명부폐기목록』
『형사사건부』
경성복심법원, 『판결문』, 1920. 3. 22.
경찰청, 『신분장지문원지』
고등법원, 『판결문』, 1919. 10. 18.
홍주향토문화연구회, 『홍주향토문화』 제8권

137. 이보성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 2006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제3권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금마면, 『범죄인명부』
김진호, 「홍성지역의 3·1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3, 2004
홍양사출판위원회, 『홍양사』, 1969

138. 이봉성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 2009
금마면, 『범죄인명부』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3권

139. 이상락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 2014
『수형인명부』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3권, 1971

140. 이상만

『독립유공자공훈록』 5권, 1988
『민족독립투쟁사사료』(해외편)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 12권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 13권
『조선민족운동연감』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3권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6권
국회도서관, 『임시정부의정원문서』
김승학, 『한국독립사』 하권
문일민, 『한국독립운동사』

141. 이상철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 2006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제3권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금마면, 『범죄인명부』

김진호, 「홍성지역의 3·1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3, 2004

홍양사출판위원회, 『홍양사』 1969

142. 이상협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 2006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제3권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금마면, 『범죄인명부』

김진호, 「홍성지역의 3·1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3, 2004

홍양사출판위원회, 『홍양사』, 1969

143. 이석인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 2009

금마면, 『범죄인명부』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3권

144. 이설

『기려수필』

『독립유공자공훈록』 1권, 1986

『매천야록』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1권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7권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8권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 1집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 2집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
김승학, 『한국독립사』 하권
문일민, 『한국독립운동사』

145. 이성근

『독립유공자공훈록』 14권, 2000
『형사사건부』
『수형인명부폐기목록』
홍양사출판위원회, 『홍양사』, 1969

146. 이영숙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 2006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제3권
은하면, 『범죄인명부』

147. 이오정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 2009
금마면, 『범죄인명부』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3권

148. 이완백

『형사사건부』
동아일보(1922.5.18.)
매일신보(1922.7.1, 9.2, 9.8)

경성복심법원, 『판결문』, 1922.9.18.

149. 이용하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 2006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제3권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금마면, 『범죄인명부』

김진호, 「홍성지역의 3·1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3, 2004

홍양사출판위원회, 『홍양사』, 1969

150. 이우용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 2006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제3권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금마면, 『범죄인명부』

김진호, 「홍성지역의 3·1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3, 2004

홍양사출판위원회, 『홍양사』, 1969

151. 이유홍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 2016

경성복심법원, 『판결문』, 1919. 5. 30.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3권, 1971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1971

수형인명표폐기목록장

152. 이응길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 2006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제3권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금마면, 『범죄인명부』
김진호, 「홍성지역의 3·1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3, 2004
홍양사출판위원회, 『홍양사』, 1969

153. 이인순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 2006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제3권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금마면, 『범죄인명부』
김진호, 「홍성지역의 3·1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3, 2004
홍양사출판위원회, 『홍양사』 1969

154. 이인춘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 2006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제3권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금마면, 『범죄인명부』

155. 이일순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 2006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제3권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금마면, 『범죄인명부』

156. 이재만

『독립유공자공훈록』 3권, 1987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3권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 5집

157. 이정수

『독립유공자공훈록』, 2006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제3권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금마면, 『범죄인명부』

김진호, 「홍성지역의 3·1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3, 2004

홍양사출판위원회, 『홍양사』, 1969

158. 이주형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 2014

『수형인명부』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3권, 1971

159. 이중선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 2006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제3권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제3권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금마면, 『범죄인명부』

160. 이중화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 2006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제3권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금마면, 『범죄인명부』

김진호, 「홍성지역의 3·1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3, 2004

홍양사출판위원회, 『홍양사』, 1969

161. 이지성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 2006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제3권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금마면, 『범죄인명부』

김진호, 「홍성지역의 3·1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3, 2004

홍양사출판위원회, 『홍양사』, 1969

162. 이진규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 2006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제3권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금마면, 『범죄인명부』

김진호, 「홍성지역의 3·1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3, 2004

163. 이진석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 2006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제3권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금마면, 『범죄인명부』

김진호, 「홍성지역의 3·1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3, 2004

164. 이철순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 2006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제3권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금마면, 『범죄인명부』

김진호, 「홍성지역의 3·1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3, 2004

홍양사출판위원회, 『홍양사』, 1969

165. 이충순

『독립유공자공훈록』 1권, 1986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1권

김승학, 『한국독립사』 하권

박민영, 「대한제국 군인 李忠純의 생애와 순국」,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9, 2004

칙명 1902년 7월 6일

166. 이필봉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 1991

경성공소원, 『판결문』, 1909. 8. 16.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 제1집

中國 遼寧省 鐵寧市 公證處 公證(死亡事實)

167. 이학순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 2006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제3권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금마면, 『범죄인명부』

김진호, 「홍성지역의 3·1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3, 2004
홍양사출판위원회, 『홍양사』, 1969

168. 이한여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제3권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금마면, 『범죄인명부』
김진호, 「홍성지역의 3·1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3, 2004
홍양사출판위원회, 『홍양사』, 1969

169. 이항순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 2009
금마면, 『범죄인명부』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3권

170. 이화춘

『독립유공자공훈록』 13권, 1996
『형사사건부』
고등법원, 『판결문』, 1919. 10. 10.
홍성군 장곡면, 『수형인명표폐기목록』
홍주향토문화연구회, 『홍주향토문화』 제8권

171. 이흥주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 2006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제3권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금마면, 『범죄인명부』

김진호, 「홍성지역의 3·1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3, 2004
홍양사출판위원회, 『홍양사』 1969

172. 이희도

『독립유공자공훈록』 3권, 1987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3권
제적등본(1919. 4. 4 사망확인)
홍성군 홍동면장, 『순국사실증명서』, 1977. 5. 13

173. 이희림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 2014
『수형인명부』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3권, 1971

174. 임명선

『독립유공자공훈록』 19권, 2011
금마면, 『범죄인명부』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3권

175. 임정실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 2009
금마면, 『범죄인명부』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3권

176. 임헌영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 2006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제3권

금마면, 『범죄인명부』
김진호, 「홍성지역의 3·1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3, 2004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권
홍양사출판위원회, 『홍양사』, 1969

177. 장가산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 2014
『범죄인명부』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3권, 1971

178. 장선기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 2006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제3권
금마면, 『범죄인명부』
김진호, 「홍성지역의 3·1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3, 2004

179. 전명규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 2014
『범죄인명부』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3권, 1971
독립운동에 관한 건(1919. 4. 20) 조선소요사건관계서류(7)
편찬위원회, 『홍양사』, 1969

180. 전순삼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 2006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제3권
은하면, 『범죄인명부』

181. 전양진

『독립유공자공훈록』 13권, 1996

『형사사건부』

경북경찰부, 『고등경찰요사』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제3권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제4권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제8권

대구지방법원, 『판결문』, 1919. 7. 29.

심산사업회, 『김창숙일대기』

182. 전용규

『독립유공자공훈록』 19권, 2011

경상북도 경찰부, 『고등경찰요사』, 1934

경성지방법원, 『판결문』, 1913. 8. 13.

경성지방법원, 『판결문』, 1915. 3. 13.

국민보(1913. 11. 8)

권업신문(1913. 7. 20)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3권, 제5권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제2집, 제9집

매일신보(1913. 7. 6, 8. 7, 1915. 3. 9, 3. 16, 9. 2)

신한민보(1913. 8. 22)

林秉瓚, 『遯軒遺稿』(擧義日記)

183. 전우진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 2009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3권

은하면, 『범죄인명부』

184. 전이진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 2006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제3권

은하면, 『범죄인명부』

185. 전재명

『독립유공자공훈록』 19권, 2011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3권

조선총독부재판소, 『형사사건부』

186. 전치일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 2006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제3권

은하면, 『범죄인명부』

187. 전태용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 2014

『범죄인명부』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3권, 1971

188. 정국조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 2006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제3권

금마면, 『범죄인명부』

189. 정동구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 2006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제3권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금마면, 『범죄인명부』
김진호, 「홍성지역의 3·1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3, 2004
홍양사출판위원회, 『홍양사』, 1969

190. 정동량

『독립유공자공훈록』 8권, 1990
『홍양사』, 1969. 8. 15 발행
동아일보(1929. 12. 16)
조선일보(1926. 4. 23, 1929. 7. 21, 8. 4, 12. 3, 12. 28)

191. 정동선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 2006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제3권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금마면, 『범죄인명부』
김진호, 「홍성지역의 3·1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3, 2004

192. 정동식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 2006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제3권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금마면, 『범죄인명부』
김진호, 「홍성지역의 3·1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3, 2004

193. 정동직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 2006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제3권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금마면, 『범죄인명부』

김진호, 「홍성지역의 3·1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3, 2004

홍양사출판위원회, 『홍양사』, 1969

194. 정설교

『기려수필』

『독립유공자공훈록』 8권, 1990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7권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 11집

문일민, 『한국독립운동사』

195. 정성모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 2006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제3권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금마면, 『범죄인명부』

김진호, 「홍성지역의 3·1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3, 2004

196. 정원필

『독립유공자공훈록』 1권, 1986

『정의사실기』

『하동정씨 족보』, 권지사

197. 정정복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 2006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제3권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금마면, 『범죄인명부』

김진호, 「홍성지역의 3·1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3, 2004

홍양사출판위원회, 『홍양사』, 1969

198. 정태복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 1993

『형사사건부』

경북경찰부, 『고등경찰요사』

공주지방법원, 『예심종결결정서』, 1918. 10. 19.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 제9집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 제11집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제2권

199. 정학조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 2009

금마면, 『범죄인명부』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3권

200. 정해득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 2009

금마면, 『범죄인명부』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3권

201. 정홍조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 2009

금마면, 『범죄인명부』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3권

202. 조재학

『독립유공자공훈록』 14권, 2000

『범죄인명부』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제3권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203. 조종원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 2006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제3권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금마면, 『범죄인명부』

김진호, 「홍성지역의 3·1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3, 2004

홍양사출판위원회, 『홍양사』 1969

204. 조한원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 1994

『신분장지문조회회보서』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제3권

205. 주명규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 2006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제3권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금마면, 『범죄인명부』
김진호, 「홍성지역의 3·1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3, 2004

206. 주영은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 2006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제3권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금마면, 『범죄인명부』
김진호, 「홍성지역의 3·1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3, 2004
홍양사출판위원회, 『홍양사』, 1969

207. 최건수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 2006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제3권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금마면, 『범죄인명부』
김진호, 「홍성지역의 3·1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3, 2004
홍양사출판위원회, 『홍양사』, 1969

208. 최광인

『독립유공자공훈록』 19권, 2011
경찰청, 『신분장지문원지』
공주지방검찰청, 『형사사건부』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3권
장곡면, 『수형인명부』

209. 최기석

『독립유공자공훈록』 13권, 1996

『형사사건부』

경찰청, 『신분장지문원지』

홍성군장곡면, 『수형인명표폐기목록』

홍주향토문화연구회, 『홍주향토문화』 전권

210. 최덕휴

『독립유공자공훈록』 5권, 1988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6권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9권

김승학, 『한국독립사』 하권

211. 최명용

『독립유공자공훈록』 8권, 1990

『판결확인증명』

『형사사건부』

212. 최병석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 2009

금마면, 『범죄인명부』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3권

홍양사출판위원회, 『홍양사』, 1969

213. 최상집

『독립유공자공훈록』 13권, 1996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 제1집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 제2집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 제3집

214. 최응모

『독립유공자공훈록』 14권, 2000
경성복심법원, 『판결문』, 1940.11.19.
경찰청, 『신분장지문원지』
공주지방법원, 『판결문』, 1919.4.28.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제3권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 제8집

215. 최익삼

『독립유공자공훈록』 19권, 2011
금마면, 『범죄인명부』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3권

216. 최익환

『고등경찰요사』
『기려수필』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 1990
경성공소원, 『판결문』, 1909. 12. 9.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3권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4권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9권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 14집
국사편찬위원회,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 8권
국회도서관, 『한국민족운동사료』 (중국편)

김정명, 『명치백년사총서』 제1권 분책
문일민, 『한국독립운동사』
총독부경무국, 『국외용의조선인명부』

217. 최중삼

『독립유공자공훈록』 15권, 2003
『홍양사』 전권, 1969
경성복심법원, 『판결문』, 1919. 5. 30.
고등법원, 『판결문』, 1919. 7. 3.
공주지방법원, 『판결문』, 1919. 4. 30.
국가보훈처, 『독립운동』 제3권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금마면, 『범죄인명부』

218. 최중식

『독립유공자공훈록』 13권, 1996
『형사사건부』
경북경찰부, 『고등경찰요사』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3, 4, 8권
대구지방법원, 『판결문』, 1919. 7. 29.
심산사업회, 『김창숙일대기』

219. 최채선

『독립유공자공훈록』 13권, 1996
『형사사건부』
경찰청, 『신분장지문원지』
홍성군 장곡면, 『수형인명표폐기목록』

홍양사출판위원회, 『홍양사』 전권, 1969

220. 최학용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 2009
금마면, 『범죄인명부』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3권

221. 최홍기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 2009
금마면, 『범죄인명부』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3권

222. 한명원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 2006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제3권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금마면, 『범죄인명부』
김진호, 「홍성지역의 3·1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3, 2004
홍양사출판위원회, 『홍양사』, 1969

223. 한상인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 2006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제3권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금마면, 『범죄인명부』
김진호, 「홍성지역의 3·1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3, 2004
홍양사출판위원회, 『홍양사』, 1969

224. 한상철

『독립유공자공훈록』 13권, 1996

『형사사건부』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홍주향토문화연구회, 『홍주향토문화』 제8권

225. 한용운

『고등경찰요사』

『기려수필』

『독립유공자공훈록』 2권, 1986

『무장독립운동비사』

『민족독립투쟁사사료』 (해외편)

『박은식전서』 상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 8권

『조선독립운동연감』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2, 3, 7, 8, 9, 10권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 5집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 12, 13, 14집

김광식, 『전인적인 독립운동가 한용운』,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5

김승학, 『한국독립사』 하권

김정명, 『명치백년사총서』 제1권

문일민, 『한국독립운동사』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특별판 1』, 2019

226. 한필동

『독립유공자공훈록』 5권, 1988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6, 9권
김승학, 『한국독립사』 하권

227. 함성열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 2006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제3권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금마면, 『범죄인명부』
김진호, 「홍성지역의 3·1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3, 2004
홍양사출판위원회, 『홍양사』, 1969

228. 황문수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 1994
공주감옥, 『가출옥증표』, 1919. 10. 11.
공주지방법원, 『판결문』, 1919. 4. 28.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제3권

229. 황석산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 2009
금마면, 『범죄인명부』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3권

230. 황윤성

『독립유공자공훈록』 3권, 1987
제적등본(1919. 5. 6 순국)
홍성경찰서, 『수형인명부』, 1919. 5. 6.

홍성의 독립운동사 2

발행일 | 2019년 12월 20일
발행인 | 김석환
발행처 | 홍성군
연구수행 | 청운대학교 홍성학연구소
편집·인쇄 | 선우(주) 디자인전문회사
주소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105-1 전화 | 041 632 2363

이 책의 출판권은 저작권자와 선우(주)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비매품

필자

김상기 충남대 국사학과 명예교수
김형목 독립운동사연구소 연구원
이성우 충남대 충청문화연구소 연구원
김진호 충남대 충청문화연구소 연구원
김용달 전) 독립운동사연구소장
박걸순 충북대 사학과 교수

(집필순)

청운대학교 홍성학연구소 연구진

연구책임자 김경수 교수(청운대)
공동연구원 조성진 연구원(독립운동사연구소)
간 사 권미선 선생(청운대)

표지사진 **한용운 동상, 홍주성전투 기록화(위) / 홍화문(아래)**



홍성의 독립운동사

한말에는 전국 최대 규모의 의병전쟁과
격렬한 무장투쟁이 전개되었던 지역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분연히 일어나 구국운동을 전개하였던
충절의 고장인 것입니다.

– 발간사 중에서 –



비매품
04910
9 791186 961308
ISBN 979-11-86961-30-8(전2권)